

발간 등록 번호

71-4140000-000049-01

# 漣川郡誌

4 권 (하)

연천의 삶과 문화

漣川郡誌編纂委員會





# 漣川郡誌

4 권 (하)

연천의 삶과 문화

漣川郡誌編纂委員會

| 목 차 |

제 4 권 [하]

연천의 삶과 문화

<b>제7장. 연천 마을 이야기</b>	<b>7</b>	<b>제8장. 지명유래</b>	<b>83</b>
<b>I.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개관</b>	<b>9</b>	<b>1. 연천읍</b>	<b>87</b>
1. 연천군의 지명 변천	10	1) 와초리	88
2. 장남면 원당리 호로그루의 지명 변천	12	2) 상리	89
<b>II. 통일바라기 축제 소개</b>	<b>17</b>	3) 현거리	92
<b>III. 마을이야기의 목적</b>	<b>21</b>	4) 차탄리	93
<b>IV. 향후과제</b>	<b>23</b>	5) 옥산리	95
<b>V. 구술진행 경과 및 내용</b>	<b>25</b>	6) 읍내리	98
<b>VI.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성과 특성</b>	<b>27</b>	7) 동막리	100
<b>VII. 호로그루 발굴과 활용방안</b>	<b>36</b>	8) 통현리	105
<b>VIII.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과 축제</b>	<b>48</b>	9) 고문리	106
1. 공원조성	48	10) 부곡리	108
2. 주민자치 위원회 통일바라기 축제 개최	59	<b>2. 전곡읍</b>	<b>114</b>
<b>IX. 맺음말</b>	<b>77</b>	1) 전곡리	115
		2) 은대리	116
		3) 신답리	120
		4) 양원리	121
		5) 간파리	125
		6) 늘목리	127
		7) 고능리	129
		8) 마포리	131
		<b>3. 군남면</b>	<b>132</b>
		1) 삼거리	133
		2) 옥계리	135
		3) 선곡리	139
		4) 진상리	141
		5) 왕림리	143
		6) 황지리	146
		7) 남계리	148



<b>4. 청산면</b>	<b>151</b>	<b>7. 왕징면</b>	<b>214</b>
1) 초성리	152	1) 무등리	215
2) 대전리	155	2) 노동리	218
3) 장탄리	158	3) 동중리	220
4) 궁평리	162	4) 북삼리	223
5) 백의리	165	5) 강서리	225
<b>5. 백학면</b>	<b>169</b>	6) 강내리	229
1) 백령리	170	7) 고왕리	231
2) 두일리	173	8) 기곡리	232
3) 노곡리	176	9) 작동리	234
4) 전동리	179	10) 고잔상리	236
5) 학곡리	181	11) 고잔하리	237
6) 구미리	182	12) 귀존리	240
7) 석장리	185	13) 가천리	242
8) 갈현리	187	14) 냉정리	243
9) 두현리	189	15) 고장리	244
10) 통구리	191	16) 오탄리	247
<b>6. 미산면</b>	<b>194</b>	17) 장학리	248
1) 아미리	195	18) 솔현리	249
2) 백석리	198	19) 석둔리	250
3) 유촌리	201	<b>8. 신서면</b>	<b>252</b>
4) 우정리	203	1) 대광리	253
5) 동이리	205	2) 도신리	256
6) 마전리	207	3) 내산리	261
7) 삼화리	210	4) 마전리	264
8) 광동리	211	5) 답곡리	269

| 목 차 |

제 4 권 [하]

연천의 삶과 문화

<b>9. 중면</b>	<b>272</b>
1) 삼곶리	273
2) 횡산리	276
3) 중사리	278
4) 마거리	283
5) 적거리	285
6) 합수리	288
7) 도연리	290
8) 적음리	293
9) 진곡리	294
10) 어적산리	295
11) 적동산리	296
12) 삭녕리	297
13) 대사리	298
14) 여척리	299
15) 고마리	300
16) 상마산리	301
<b>10. 장남면</b>	<b>303</b>
1) 원당리	304
2) 자작리	308
3) 판부리	311
4) 고랑포리	313
5) 반정리	316





제 7 장

# 연천 마을 이야기

연천 장남면 원당리 마을이야기-호로그루 통일바라기 축제

## I.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개관

## II. 통일바라기 축제 소개

## III. 마을 이야기의 목적

## IV. 향후 과제

## V. 구술진행 경과 및 내용

## VI.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성과 특성

## VII. 호로그루 발굴과 활용 방안

## VIII.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and 축제

## IX. 맺음말: 주민 주도의 통일바라기 축제

집필

이세진 (호서대학교 교수)





## I.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개관

연천군은 휴전선 32km와 접한 경기도의 최북단 지역이다. 연천군의 인구는 42,062명이고 세대수는 21,858세대이다. 면적은 676.31km<sup>2</sup>로 경기도에서 5위이고, 서울의 1.2배에 이른다. 연천군의 행정조직은 1실, 2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이다. 공무원은 연천군 본청 412명, 직속기관 128명, 사업소 51명, 읍면 137명, 의회 18명으로, 총 746명이다.

연천군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중심 거점지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 지역이 남북경협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북부의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각 지역의 산업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연천군 지자체는 DMZ를 접한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도시 조성 등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 면적은 639.95km<sup>2</sup>에 이르며, 연천군 전체 면적의 94.62%에 해당한다. 또한 연천군의 여러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듯 연천군은 거의 전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둔화된 곳이다.

이러한 연천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도 주민이 단합하여 성공을 이룬 마을이 있다.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은 바로 장남면 원당리 마을이다.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마을은 옛날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씨줄과 날줄이 교차한 곳이었다. 선사시대 때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고,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와 신라의 최후의 보루가 있었던 곳이었으며, 오늘 날에는 휴전선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연천군 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다.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의미가 결합된 이 지역의 지명부터 예사롭지 않다. 그로부터 연천군과 장남면 원당리 마을을 소개하기 위해 그 지명의 유래를 먼저 살펴볼 이유가 자리한다.

인구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표사유피(豹死留皮), 인사유명(人死有名)이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다.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듯, 땅도 이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명이 생겨난 것은 인간의 정착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지리학자에 따르면 지명이란 지표의 형상이나 지표 위에 존재하는 실체의 이름을 말하며, 지명은 자연적인 형상은 물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형상을 포함한다고 한다(강병기 외, 지명의 관습적 효력과 명명권에 관한 연구, 143쪽). 지명은 그 지역의 사람, 시간, 장소가 반영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쓰는 어휘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지명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

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언제부터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왜 그런 이름이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지명은 공기처럼 경제활동이나 국민의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인용되며 활용된다.

연천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한반도를 오롯이 지나 그 너머의 인간 역사가 깃든 곳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역사적 시련과 격랑을 거치면서 이곳 연천은 그 중요성조차 강조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연천 전곡리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78년 한탄강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동두천 주둔 미군인 그렉 보웬(Bowen G)에 의해 처음 발견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수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전곡리 유적은 한국과 세계 고고학계의 중요 유적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04년 문화재청에서 전곡리 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승인 후 2005년 도립박물관 건립 방침 결정을 통해 본격화되었고, 2011년 개막식과 함께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전곡리는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연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각종 연구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의 첫 단추는 지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름 자체에 역사가 반영되고 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연천군의 지명 변천

연천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현재 현강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 이우형은 1995년부터 3년간 지역조사사업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연천을 구성하는 지역의 지명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이 조사는 지역의 원형을 찾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우형 조사팀에서는 광범위한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 특히 북한 지역까지 그 지역의 토착 연구를 둔 원로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조사했다.

연천군의 지명 변천의 역사를 살펴보자. 연천 지역은 한탄강변에 위치해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임진강, 한탄강 유역은 중부 육상교통의 요지였다. 기록에 따르면 B.C 18년 소서노와 아들 온조가 한강유역에 백제를 건국하였다. 온조 치하의 백제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한탄강과 임진강 지역인 연천 지역을 편입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 백제와 각축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지리지와 『고려사』지리지에 따르면 고구려 시절 연천지역의 지명은 철원군 공목달현(현 연천읍), 승랑현(현 신서면), 소읍두현(현 중면), 장항현(현 왕징면), 마전천현(미산면)이다.

연천 지역은 고구려 남진과 남방경영 속에서 육상, 수상교통로상의 거점으로 증시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방 배제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51년 고



〈연천 일대의 고구려 지명〉



〈감악산서로와 감악산동로〉

구려는 신라와 백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백제는 6개 군을 탈취했고, 신라는 10개 군을 탈취했다고 전한다. 이때 신라와 백제가 차지한 지역은 대체로 임진강 이남에서 북한강 유역까지로 파악된다. 따라서 6세기 중반 이후 연천 지역은 고구려의 남진과 남방 경영의 거점에서 남방의 경계로 그 성격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이정빈,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경기도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2019).

신라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였다. 임진강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북쪽의 고구려와 남쪽의 신라가 대치하는 국경 하천이었다. 675년 신라 경덕왕 16년 군의 명칭을 공성현이라고 하였다. 940년 고려 태조 23년에는 장주로 변경하였다.

1018년 고려 현종 9년 현종의 대대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장단현(현 장남면)은 개성 현과 더불어 최초의 경기제(京畿制)를 구성하는 중심지역이 되었다. 장주(현 연천)는 동주군에 속하게 되었다. 1069년 고려 문종 23년 승령, 삭령, 마전, 적성을 장주에 편입해 개성부에 속하게 함으로써 다시 경기도에 포함시켰다. 1309년 고려 충선왕 원년 군의 명칭을 장주에서 연천(漣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의 지명이 생겨난 것은 이때부터였다.

1413년 조선 태종 13년 연천 현감을 설치하였다. 1895년 전국의 지방제도 재편과 더불어 군으로 승격되었다. 1906년 고종 광무 11년 철원군 관인면을 연천군으로 편입했다. 1914년 군정법령 제22호로 적성면, 남면 전역과 백학면, 전곡면 일부를 파주군에 편입했다. 1945년 마전, 적성의 2개 면과 삭영군 대부분, 양주군 영근면은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6부터 1950년 6.25전쟁 전까지 연천군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치하에 놓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국군에 의해 수복된 지역은 임시로 1954년까지 국군정통치를 받았다. 1954년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동년 11월 17일자로 연천군을 비롯한 수복지역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1979년 대통령령 제9409호로 연천면은 연천읍으로 승격하였다.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관인면 일원을 포천군에, 포천군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궁평리, 백의리를 연천군에 편입하였다. 1989년 군조례 제20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를 장남면으로 승격하여 현재와 같이 연천읍, 전곡읍(2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8개)면으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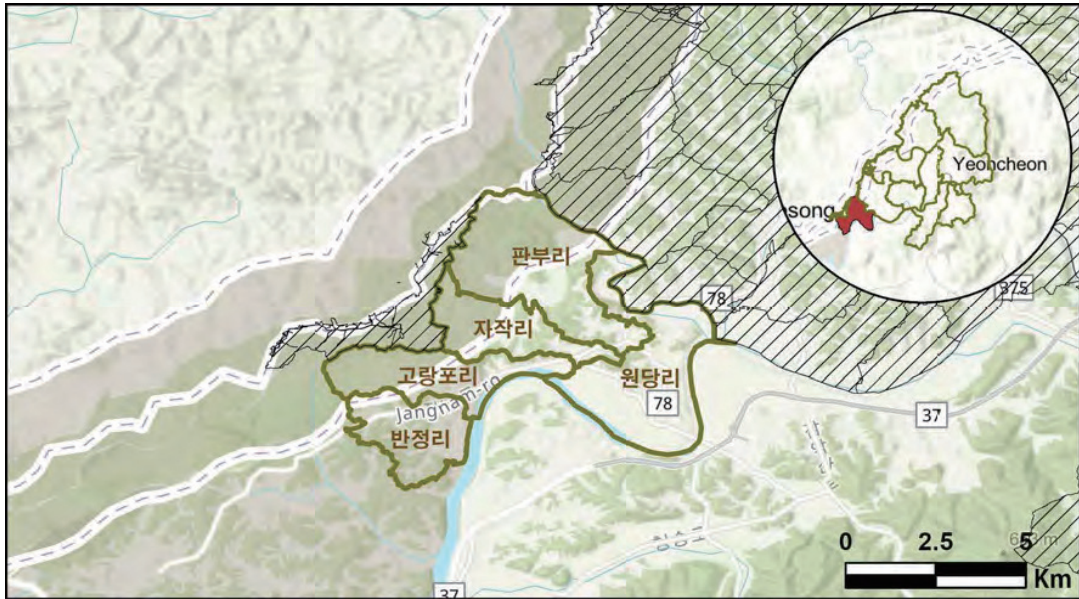
## 2. 장남면 원당리 호로그루의 지명 변천

다음으로 장남면의 지명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의 장남면 지역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장남면에는 원당리, 자작리, 판부리, 고랑포리, 반정리가 있다. 장남면의 인구는 724명(남 365명, 여 359명)이다. 장남면의 면소재지는 한국전쟁 전에는 고랑포리에 있었으나,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당2리에 위치(장백로 244)해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724명, 4개의 행정리, 1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남면의 지명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고구려 영역 때는 장천성현(長淺城縣) 혹은 장성(長城), 야성(夜城) 등으로 불렸으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 757년 경덕왕 16년에 이곳의 지명은 장단으로 변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995년 성종 14년 임진, 임강, 적성 등과 함께 이곳도 적현, 기현으로써 개성부의 통제를 받았다. 장남은 고려의 시종이었던 한언공의 고향이란 점 때문에 단주(湍州)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예종 때 장남은 이자겸과의 경쟁에서 밀린 한안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문



〈『연천군지』 4권 8장, 장남면〉



종 때 다시 개성부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1414년 이곳은 장단으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다시 임단현(臨湍縣)으로 개칭되었다. 1419년 장단현으로 되었다가 세조 때 이곳에 진(鎭)이 설치되어 장단도호부로 승격되었다.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長縣內面) 지역으로 판부리(板浮里), 자작리(自作里), 고읍리(古邑里)의 3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남면(古南面)의 원당리(元堂里)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면 이름에서 한 자씩 따와 장남면이라 하여 원당리, 자작리, 판부리, 고랑포리, 반정리의 5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자작리, 판부리의 일부는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이후 장남면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제 111호에 의하여 원당리에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 226호에 의거하여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장남면은 원당리, 자작리 지역에만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고, 그 외 반정리, 고랑포리, 판부리 지역은 출입 영농이 가능한 지역과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놓여 있다. 면의 동쪽은 백학면, 남쪽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파주시 진동면, 북쪽은 군사분계선과 접해 있다.

이어서 원당리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기로 하자. 원당리는 호로그루를 끼고 있는 임진강 강

변지역이다. 이곳은 임진강 줄기 가운데 다른 곳에 비해 수심이 낮은 여울목인 호로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세력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이곳에 호로고루를 쌓고 신라와 맞섰다. 662년 신라와 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당시 김유신 부대는 고구려 우잠군 방면으로 진입해 부여군 방면으로 행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 일대에서 평양까지의 교통로를 감악산서로, 즉 감악산 서쪽-칠중성-육계토성-호로고루와 감악산동로, 즉 감악산 동쪽-아미성-수철성-적암리-어유지리-당포성지로 구분하고, 김유신 부대의 행군은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다(이정빈, 같은 글).

조선시대에는 원당리의 호로탄은 관료들이 서북부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쳤다고 한다. 원당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장단도호부의 고남면(古南面) 지역으로서, 조선 초에 장단현을 다스리던 고을 원님의 관저(官邸)인 원당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한 것이다. 원당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단군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부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원당리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2년 6월 1일부터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고,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 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 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1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남면의 중심지역이다.

경기북부에 소재하는 고구려의 성은 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원당리를 통과하는 임진강 유역에는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이 있다. 호로고루는 임진강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로탄이라는 여울목에 축조된 성이다. 호로고루라는 이름부터 생소하고 낯선 느낌마저 든다. 호로고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호로고루는 호로고루, 자미성(紫微星), 자미성(紫眉城), 미성(眉城), 이잔미성(二殘眉城)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고루는 임진강변에 마주보는 두 곳에 축조된 보루성 가운데 임진강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두 성을 합쳐 이잔미성이라고 부른 것이 현재는 북쪽의 것을 호로고루라고 부별해 부른다. 호로고루라는 이름은 임진강이 꺾여 흐르는 이곳 지명인 호로탄(瓠蘆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호로탄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호로고루의 이름도 함께 변해왔다. 따라서 이곳 호로고루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별로 문헌에 등장하는 이곳 물여울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표하(瓢河:662년)→ 호로탄(瓠蘆灘:670년)→과천(瓢川:671)→호로하(瓠蘆河:673년)→포로탄(匏蘆灘:1656년)→표로탄(瓢瀟灘:1656년)

이들 이름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앞글자인 호(瓠), 과(瓢), 표(瓢), 포(匏)가 음과 글자의 모양에서 대단히 닮았으며, 글자의 뜻도 표주박이나 장고처럼 목이 좁은 것을 강조하는 말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글자인 하(河), 천(川), 로(瀾), 탄(灘) 등은 이곳이 물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물길이 좁고 물살이 강한 물여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이 기록될 때는 앞선 기록이 보이는 글자의 음, 또는 모양과 이곳 지형의 성격 등에 크게 의존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호로하(瓠蘆河)가 670년(『삼국사기』(三國史記)권7, 문무왕 13)과 673년(『삼국사기』권22, 함형(咸亨)4년) 기사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보면 당시에 이곳에 대한 이름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호로고루에서는 한강유역을 빼앗긴 고구려와 한강유역을 빼앗은 신라 간에 잦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는 나당전쟁까지도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뒤 호로고루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656)를 시작으로 각종 지리지에 꾸준히 등장하여, 호로고루의 위치와 형상, 연혁 등을 간단히 신고 있다. 이곳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은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대정5년)를 시작으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3),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1977,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김성범 199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사(1994, 199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조사(1999)로 이어져 축성 시기와 방법, 전술적인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

호로고루는 고랑포와 두기나루(頭耆津), 또는 장단진(長湍津), 자기포(紫芰浦)를 끼고 있어 오래전부터 임진강을 건너는 중요한 길목으로 인식되던 곳이다. 특히 강 건너편으로 이산미성을 마주보고 있어 같은 세력이 이곳을 차지할 경우 상호협조를 통한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고, 서로 다른 세력이 각각의 성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호 견제와 방어에 유리한 곳이다. 지형상 이곳은 임진강이 크게 북쪽으로 휘어지는 곳으로서 곳곳에 자연단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물길이 좁아져 물살이 빠른 여울목을 함께 끼고 있는 곳이다. 여울목은 수량이 많을 때는 도강이 어려운 곳이나 겨울철 같은 갈수기에는 도리어 강을 건너기가 쉬운 곳이다. 즉 호로고루는 좋은 나루터와 계절에 따라 도강이 쉬운 지역에 위치한 채 자연지형(단애)을 이용하여 축조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호로고루에서는 고구려시기 적갈색기와와 토기편 등이 많이 흩어져 있어 고구려가 중심적으로 사용한 유적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동쪽 성벽 뒤쪽은 토기편이 발견되는 유물산포지이기도 하며, 석축을 쌓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대지를 조성한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조사 당시에도 입구에 염소를 방목해 기르고 있었으며, 조사 이후 성 내부에 돼지우리를 지어 훼손이 진

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호로그루는 남한에서는 드문 고구려성으로서 임진강변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며, 그 뒤 나당전쟁 때는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전쟁터이기도 하였다. 발굴조사와 함께 유적의 보존, 정비가 이루어졌다.

## II. 통일바라기 축제 소개: 주민들의 주도 하에 운영되는 대표적 문화유산 주제의 축제

LH는 문화재로 지정된 호로그루를 보전하기 위해 호로그루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원당리 마을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해 통일바라기 축제로 승화시켰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원당리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완성된 주민 주도의 작품이었다.

호로그루 통일바라기 공원에서 개최되는 통일바라기 축제는 2014년 시작되어 2023년 올해 9회를 맞이하게 된다. 호로그루 통일바라기 공원은 사적 제467호인 고구려 유적지 호로그루 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 LH, 25사단 72연대가 호로그루 주변 2만 9천여㎡ 면적의 황무지를 개간해 해바라기를 심어 조성한 공원이다. 이제 통일바라기 축제는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축제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었다. 호로그루 통일바라기 축제는 지역축제를 넘어 한반도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시작과 더불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LH가 고구려의 옛성인 호로그루를 발굴하면서 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국가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 호로그루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남면 원당리 주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호로그루 주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LH와 장남면 주민, 장남면사무소, 군의 대민지원이 있어야 했다. 자연스럽게 공원 조성을 위한 연합체가 만들어진 셈이었다.

둘째로 장남면 주민들은 2013년 6월 『NEW 새마을운동을 통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평화누리길 꽃길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꽃길 조성은 원당2리 노인회, 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 차별화된 지역명소 조성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마을 이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군 평화누리길 지방도 372번 파주시 적성경계(임진강)구간 및 원당2리 마을 앞에 국화 600본과 야생화 3,100본을 심었다.

특히 이 행사는 ‘내 집 앞길은 내가 가꾼다’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원당2리 주민과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장남면의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남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여 청정 연천의 이미지 개선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장남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목을 받았다(『동두천, 연천신문』, 2013년 8월 26일).





안덕현 주민자치위원장과 현대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이용환 대표가 중심이 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과 더불어 농업의 방향을 생산농업으로부터 경관농업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1세기형 차별화된 지역명소 조성, 정주의식 고취 및 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해 연천군 평화누리길 지방도 구간 봄에는 초화류를,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심었다.

셋째로 명품만들기 사업에는 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당시 매년 연천군청에서는 읍, 면 별로 1천만 원을 배분하였다. 연천군청에서는 연천군 주민자치협회를 구성하여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역사성, 차별성, 창조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 항목을 심의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 대상마을을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들은 통일바라기 축제의 이런저런 조건들이 되었다. 원당리 주민 자치로 이루어진 통일바라기 축제에는 다양한 이야기, 볼거리, 프로그램이 있다.

첫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난타, 록밴드, 우쿨렐레 공연,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 사진전 등이 개최되었다. LH는 호로그루의 발굴부터 사적 지정, 공원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남면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푹푹 뭉쳐 호로그루 주변 황무지개간, 공원 조성, 해바라기 심기, 축제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노력했다. 여기에는 LH, 장남면사무소, 25사 72연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 첫 축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LH는 이 축제를 계기로 호로그루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해마다 더욱 멋진 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2014년 첫 축제는 장남면 주민들이 처음해 보는 축제였기 때문에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하여 나가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보고 즐길 수 있는 해바라기 개화 시기 등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안덕현 주민자치위원장과 의욕적이고 현대농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이용환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장남면의 비교우위를 경관농업에 있다고 보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첫 축제 한 해 전인 2013년부터 장남면 일대의 진입 도로 주변을 꽃길 경관을 조성해본 경험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일바라기 축제에서도 해바라기 품종을 선택하여 축제를 준비했고, 다른 지역의 축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도 하고 장남면사무소로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축제의 홍보를 위해 행정의 지원과 지역 언론의 적극적 홍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 SNS 등은 홍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통일바라기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지역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9회째 통일바라기 축제가 열린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축제가 열리지 못한 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축제가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주도로 성공한 통일바라기 축제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농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마을은 2019년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농촌들녘 가꾸기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고 시상금도 3천만 원을 받았다. 대회 주관 측에서는 장남면 원당리가 대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상은 전라남도 영암군 쌍정마을이 받았다. 당시 수상한 마을은 총 48개였다. 48개 마을 가운데 경기도에서 수상한 마을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가 유일했다.

장남면 원당리 마을은 호로고루 주변 해바라기 들녘으로 참가 신청하고 안덕현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마을주민과 농협(농협연천군지부, 전곡농협) 및 장남면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금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었다.

농협중앙회는 금상의 배경으로 원당리 마을의 해바라기 들녘가꾸기는 호로고루 주변의 잡초밭을 해바라기 밭으로 바꾸어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주민의 자발적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매년 통일바라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안덕현 마을대표는 “처음 시작은 단순 돼지풀 제거가 목적이었는데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해바라기가 자라나는 아름다운 들녘을 가꾸게 되어 기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향후에도 더욱 들녘 가꾸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원당리 마을,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금상 수상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 III. 마을 이야기의 목적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과의 지원을 받아 2022-2023년 1년 동안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연구책임자 최종택 교수)의 주관 하에 “연천장남 통일바라기 축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당초 목적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기획, 구상, 준비, 실행, 특징, 의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주민들의 자존심 고취, 지역 사랑, 수익 증대 등을 위한 이 축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면서 그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 유적 중 하나인 호로고루의 발굴, 유적 탐사, 해바라기 공원 조성 등의 과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축제의 개최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마을 주민, LH박물관 직원 및 임원, 군, 면행정 담당자, 마을 주민, 축제 참가자 등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구술을 직접 듣고 채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장남면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주민자치의 가능성, 행정의 지원 기능과 역할의 변화, LH 기업의 역사 발굴, 주민사업과 군부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일종의 모범적 사례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행정, 군부대가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그 역할과 기능이 유효한 협력 관계로 드러난다면, 본 연구는 후일 주민, 행정, 군부대의 관계를 천착하기 위한 일종의 모범적 사례로서의 의의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최근 지방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중앙 대 지방, 광역단체 대 시·군 단위의 서열구조를 해체하고 각 지역은 지역의 정체성과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도 연천의 로컬리티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당리 마을 사람들의 통일바라기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 축제는 원당리의 역사가 되었고 원당리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데 작지 않은 기여를 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들이 살아 있는 장소들을 ‘삶의 터전’ 혹은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있다. 이 마을과 저 마을은 구성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장소성도 다르지만 모두 마을이라는 보통명사로 뭉뚱그려 지칭되기 일쑤다. 원당리와 이웃한 자작리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각각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상외로 중요하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은 저 마을 사람들이 한 일과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각 마을, 곧 연천, 원당리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살아 있는 로컬리티가 되는 것이다.

## IV. 향후 과제: 구술사를 기반으로 한 마을 이야기의 지속적 진행

최근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큰 도시에서는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 같은 마을 만들기가 한창이다. 마을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도 배출되고 있다. 우리 연천에서도 ‘연천의 마을사업 제대로 되고 있냐’와 같은 주제를 기획하여 마을 이야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의 마을사업 이야기의 전국적 모범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당리 마을의 ‘연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사업이다. 그 주된 이유는 통일바라기 축제가 장소적으로 호로고루라고 하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있는 38선 접경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행복한 마을과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제 사업에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은 공무원이나 외부 사람들이 아닌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획에서부터 주민이 권한을 갖고 성과에 책임을 지고 있다. 연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 각 마을의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이외에도 마을의 의미 있는 행사와 자랑스러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하는 이야기를 남길 필요가 있다. 마을의 이야기는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역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연천군 마을 이야기의 모범적 사례는 통일바라기 축제이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당초에 LH가 호로고루라고 하는 고구려의 성을 발굴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작되었다. LH, 주민, 행정, 군부대는 호로고루 주변을 보존하고 원당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방안은 바로 문화유산 주변지역에 해바라기를 심어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주민 중심의 행정의 역할론, 군부대의 역할론, LH기업의 사회적 역할론을 재검토하는 계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바라기 축제 사업에 성공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자연스럽다. 이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이자 마을의 이야기와 역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원당리 통일바라기 축제의 성공 이야기를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당리 마을의 새로운 주민활동과 다른 마을의 마을 이야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 원당리 마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통일바라기 축제는 다른 시와 다른 도에서도 새로운 주민 활동의 방향,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원당리 마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배어 있는 그들의 역사가 투영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될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구술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사는 지역의 살아 있는 로컬리티의 확보는 명품마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구술사 기반의 마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통일바라기 축제 사업 연구에서 다뤘던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대한 검토, 둘째, LH의 호로고루 발굴에 대한 검토, 셋째, 장남면 주민의 활동에 대한 검토, 넷째, 행정과 군부대의 역할에 검토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천착하고자 했다. 첫째, 구술사 위주의 방법, 둘째, 해당 지역의 기관들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 거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검토, 이해, 비판 등의 기초적인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술사 위주의 방법을 원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 여부는 무엇보다도 연천군 장남면 주민들의 직접적 구술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당연히 구술 위주의 방법이 요청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들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 거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검토, 이해, 비판 등의 기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통일바라기 축제는 경기북부의 낙후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경과원) 등의 자료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었다.



## V. 구술진행 경과 및 내용(참여자 소개)

본 연구에 관련된 구술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구술은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는 원당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자가 서울, 진주, 연천군청 등 멀리 있는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구술을 받았다. 구술방법은 면담자 이세진(호서대 교수)과 대담자가 1:1의 방식으로 미리 마련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구술촬영과 녹음은 4K 카메라 장비를 사용하였다. 구술자료는 녹취문으로 전사하였다.

구술 참여자는 원당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에 관여했던 주민 4명, 공원 조성 투입되었던 군부대 원사 1명, 장남면사무소 면장과 담당 공무원 3명, LH 호로고루 발굴 책임자 1명 총 9명이었다.

먼저 원당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다. 참여자는 이운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안덕현 위원장, 유택중 위원장, 이용환 체육부장이었다. 주민들에게는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과정의 어려움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체적 역할과 단합을 중심으로 구술을 하였다.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과정과 축제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구술자는 25사 72연대 김인수 주임원사였다. 군부대에서는 공원 조성 과정과 해바라기 심기에 군부대를 투입해주었다. 대민지원의 차원에서 25사단 사단장을 비롯한 연대장들은 공원 조성 과정과 해바라기 심기에 적극 지원해주었다. 군부대 측, 장남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군부대에서는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미확인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까지 큰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구술자는 이규환 국장과 원미티 장남면사무소 팀장, 유해용 연천군 장학관 팀장이었다. 이규환은 현재 연천군 산업도시국 국장으로 2014년도 장남면 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연천군을 비롯한 장남면 행정에서는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과정과 축제 과정에서 과거처럼 행정이 주도하던 것로부터 한발 물러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해바라기 모종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뿐만 아니라 군과 면사무소에서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제에 필요한 제주모찌를 셰프(chef)의 허락을 얻어 호로고루 모찌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였다. 행정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네 번째 구술자는 당시 LH 박물관장이었던 심광주 박사님이었다. 심광주 박사님은 구술당시 은퇴해 경상남도 진주에 머물고 계셔서 면담자가 직접 경남 진주로 가서 구술인터뷰를 하였다. 심광주 박사님은 호로고루 발굴부터 문화재지정,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무적인 업무를

지원했다.

이번 구술에서 드러난 사실을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군사시설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and 축제 과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처음부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행정과 군부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면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의 역할론이 새롭게 재기되었다. 셋째는 LH기업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유경제를 마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주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성과 특수성, 호로고루 발굴과 활용 방안,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and 축제 개최까지의 과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VI.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성과 특성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자료에 의하면 접경지대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이 지역의 낙후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나 있다.

역사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합을 벌이던 전략적 지리적 요충지였다. 고려시대에는 개경이 수도로 지정되기도 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1945년 해방 무렵까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중심지였다. 이런 유구하고 화려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이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휴전선으로 가로막히면서부터였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대립과 대치가 심화되었던 냉전시기에는 이 지역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sup>1)</sup>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해 계획에 의한 발전은 전무했던 곳이다. 이 지역은 안보적 차원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sup>2)</sup>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질문: 원당리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판자촌도 아니고 그냥 오두막 같은 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와 있을 때는 뭐 수도는 물론이고 전기도 없었고 버스 같은 건 더욱 하나 없었을 때고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접경지역이라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쪽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와의 관계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우리가 군부대를 이해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주민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잘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술자: 안덕현)

1) 김동성,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8, 8쪽.

2) 국방부의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민간인 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구역의 명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구역, 군지(軍地)라고도 한다.

— 저희 어렸을 때는 전부 별판이 이제 풀밭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논농사 위주로 하다가 한 20년, 2, 30년 전서부터 이제 인삼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인삼과 논을 복합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농사일밖에 없었죠. (구술자: 유택중)

— 여기가 그냥 참 벼농사도 제대로 없어갔고 밭농사 위주라서 진짜 쌀밥 먹기도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하면 저희가 수리조합된 게 77년도, 76년도에 이제 수리조합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쌀밥을 좀 구경하게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쌀밥 먹기도 힘들고 무슨 보리밥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생계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어려웠고 그러다가 이제 수리조합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전기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하면서 차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차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시내와 우리 장남면과의 그 차이는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보일러를 돌리고 이게 뭐 가스레인지 쓴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풍로라고 그러나요? 곤로 쓰고 아궁이 불 때서 또 밥을 먹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전기가 들어와서 또 생활에 또 편리를 좀 느꼈고 변화를 가진 시기가 수리조합되고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 시기가 77년도, 78년도 그 당시에 또 주택개량도 또 정책적으로 주택개량도 좀 있어가지고 주택도 이제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짓게 되고 그 때부터 이제 저희 장남면이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서서히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구술자: 이운선)

### **[질문: 군사시설보호구로 인해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 항상 트러블이 있습니다. 출입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영농 초소를 할 때는 출입증을 제시하고 시간 내에도 나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한 60년간을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고 출입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도 군사시설이 되는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불편이 지금 상당히 큼니다. 지금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구술자: 안덕현)

— 여긴 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슨 접경지역을 개발을 해주면 더 좋은데 뭐 다른 측면에서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안 해줬어요. 도로를 해주면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도로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해바라기 축제를 통일바라기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

은 관광객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도로가 이제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주민들이 어떤 인프라 구축이 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참가의 보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술자: 이규환)

—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대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단장님뿐 아니라 연천군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면서도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시고 서로 협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대민지원해서 병력만 투입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민, 관, 군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지역 상생과 민, 군, 관이 어떻게 보면 화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계속 뜻을 모아서 지원하게 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구술자: 김인수)

더욱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이 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고려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이 억제되었다. 그 결과, 인구와 제반 도시 중추 관리기능이 서울과 경기남부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었고,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의 운명을 겪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할 목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기북부지역들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 종속적인 저발전과 난개발이 경기 북부지역의 올바른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sup>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관련하여 지리적 범위 및 군사시설의 범위와 경제적 낙후성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 **[질문: 2000년 이후 남북경협 등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연천이 어떤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보십니까?]**

— 이제 2000년 들어와서는 (남북)평화, 평화 관광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랑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고 저희 관할구는 긴밀한, 업무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협심해서 하는, 추진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을 이제 큰 오더가 떨어지면 이제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화라는, 통

3) 박희봉, 이희창, 정우일, 「경기북부 지역개발 전략과 과제」, 『한국정책연구』, 경인행정학회, 2002, 145, 164쪽.

일+평화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 장남면이 이제 국가 정책에 발 맞춰서, 발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무드 화해 무드 이런 무대에 저희가 편승해서 발맞춰서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구상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글썄요. 뭐, 연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해 무드가 많이 이루졌을 때는 남북 청소년 축구도 많이 교류도 했었고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어디 숙소에서 제가 정확한 숙소는 모르겠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여기서 같이 축구 대회도 했었어요. 연천군이 아예 주관으로 해서 국가대 국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징면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평화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관이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민동산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나무를 묘목을 키워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이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왕징 쪽에서 이제 쌀을 재배해서 지금 왕징에서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남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통일바라기를 해서 전체 이런 무드를 형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술자: 원미티)

먼저, 접경지역 개념을 보자. 접경지역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서로 맞닿은 국경지역 또는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명확한 정의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공간 범위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주로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의거한 접경지역의 범위가 학술적 연구의 공간 범위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첫째,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 남북 쌍방 2km까지의 지역으로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둘째, 민간인통제지역은 고도의 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 남방 15km범위 안에서 설정한 지역이다. 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구역으로 군사분계선 남방 25km 이내에 지정된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25km를 넘어선 지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에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넷째,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한 접경지역은 2000년 1월 21일 제정,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 이남의 시, 군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접경지역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어 2000년 8월 25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접경 지역 범위를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한 시, 군에 속하는 읍, 면, 동 행정구역으로, 인구증감률(최근 5년간),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점유비율의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주변지역의 여건에 비추어 지역특성,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3개 시, 도에 15개 시, 군의 98개 읍, 면, 동(15읍, 76면, 7동)에 해당한다.<sup>4)</sup>

그 다음으로 경제적 낙후성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도로, 철도 교통 인프라 건설 일산, 운정, 양주, 다산 신도시 건설 등을 건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의 저발전 낙후성은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중은 82.7% 대 17.3%이고 근로자의 임금도 294만 원 대 263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5)</sup>

〈경기남, 북부지역의 지역총생산액(GRDP)추이〉 (단위: 10억원, %)

구분	2010	2015	2019	10-19연평균 증가율	2019년 비중	비고
소계	300,716	381,978	462,288	4.9	100.0	※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남부 74%, 경기북부 26%
경기남부	244,616	313,531	382,130	5.1	82.7	
경기북부	56.101	68,448	80,159	4.0	17.3	
의정부시	4,882	5,561	6,997	4.1	1.5	
동두천시	1,597	1,870	1,824	1.5	0.4	
고양시	15,487	17,085	20,488	3.2	4.4	
구리시	2,694	3,029	3,384	2.6	0.7	
남양주시	6,528	8,401	10,765	5.7	2.3	
파주시	12,527	17,980	20,675	5.7	4.5	
양주시	4,752	5,548	6,281	3.1	1.4	
포천시	5,005	6,165	6,502	2.9	1.4	
연천군	1,202	1,313	1,563	3.0	0.3	
가평균	1,427	1,494	1,678	1.8	0.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4) 정은진, 김상빈, 이현주,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 2004, 138쪽.

5) 이영성 외, 「퀵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경기연구원, 2022, 1-3쪽.



이들 접경지역들 중 경기도 북부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10개 시, 군의 총면적은 4293.01km<sup>2</sup>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503km<sup>2</sup>), 군사시설보호구역(1,893km<sup>2</sup>), 팔당 특별대책 지역(386km<sup>2</sup>)이다.<sup>6</sup> 경제적으로는 2018년 경기도 GRDP 총 479조 8,222억 원 중에 남부지역 64.7%인 310조 3,550억원(1인당 GRDP 4,257만원), 북부지역 17.3%인 83조원(1인당 GRDP 2,482만원), 동부지역 18%인 86조 4,680억원(1인당 GRDP 3,884만원)으로 북·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부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과원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동부지역 7개 시·군의 산업특화도(NOHI) 분석, 9대 신성장산업 집중도, 산업단지 업종 특성 분석 방법을 통해 산업경제 낙후 요인, 산업 현황과 특징, 혁신할 수 있는 동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sup>7</sup> 경과원은 내부동력이 약한 북동부지역 산업혁신 방안으로 지역과 산업단지를 하나의 혁신단위로 설정하여 혁신을 추진하되, 인근의 미래산업 성장동력(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단지-고양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과 연계하여 혁신을 추진하자는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을 제안하였다.

**[질문: 경기도 북부지역이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게 농사 한 99%가 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밖에 없으니까요. 1%정도의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구술자: 안덕현)

— 여기는 이제 최국경이고 출입제한도 그전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농사 위주로밖엔 저희 주민은 생각한 게 별로 없었어요. (구술자: 유택중)

— 여기는 이제 사실 수입원이 따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농사 외에는 뭐 따로 이 산업기반이 약한데 직장을 다니다거나 상가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왔고 오로지 이제 농사, 영농에만 의존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좀 갖고 싶어도 도저히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실제로 현실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구술자: 이운선)

6) 김갑성, 이미주,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단행본』, 한국은행, 2015, 47쪽.

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 <경기도 북·동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연구보고서」, 2021. 8. 25, 1쪽.

— 군사보호시설, 기후적인 환경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쪽 지역이 인삼이 유명해요. 6년 근 인삼. 이쪽은 옛날에는 한국인삼공사죠? 100% 전량, 전량 100% 인삼공사와 저희가 계약자예요. 그래서 이쪽 삼은요, 우리 이쪽에 지역 사람들은 잘 못 사 먹었어요. 왜냐면 못 빼게 하니까. 파삼 뭐 이런 거나 먹었지 인삼은 먹지 못했어요. [...] 이 지역민들이 어차피 본토 이시고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 저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권들 또 하게끔 마련해주고 저는 법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이 지역민들의, 예를 들어 인삼 관련된 영농법인이거든요. 그분들 계약 체결 못 해가지고 못 팔아먹는 걸 여기 스스로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거 이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환경적인 걸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 매장이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앞으로 인프라 대책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구술자: 이용환)

— 저희 지역은 여태까지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많은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장 부서는 저희 군에서는 이제 관광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인 어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장도 일단은 굴뚝 공장이 아닌 우리가 이제 지역이 오염되지 않는 공장을 선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술자: 이규환)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은 경기동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입주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동부지역 시, 군에 산재해 있는 공장 분포 현황 및 시, 군별 산업특화도와 집중도, 시, 군별 산업육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었다. 경과원은 북부지역 신성장동력과 지역,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지역연계특성화 전략으로 ▲바이오산업: 고양테크노밸리 = 고양시(파주시+파주메디클러스터) ▲전기, 전자, 정보통신산업: 고양테크노밸리 = 파주시+파주LCD산단+파주첨단산단=양주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콘텐츠산업: 고양방송, 영상밸리+IP융복합클러스터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정책적 지정산업인 ▲드론산업: 포천시+양주테크노밸리+양주남면산단+고양방송, 영상밸리 ▲섬유산업: 양주시+양주테크노밸리+양주검준산단 ▲가구산업: 양주테크노밸리+남양주시+포천시+포천용정산단의 연계 전략도 제안한 바 있다.<sup>8)</sup>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아직까지 희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

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보도자료, 같은 글, 1-3쪽.



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생활환경은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의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지정은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로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파주시는 현재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94.3%)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영농이 가능한 많은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 내에 묶여 있다.<sup>9)</sup>

이와 유사한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작성된 바 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및 기술 효율성과 성장역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요소생산성분석 결과에서도 경기북부지역 시, 군들의 총요소생산성은 경기남부지역 시, 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이었다.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성장역량분석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사람, 교육 역량지표는 경기남부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인구 문제도 심각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천군과 가평군 등 접경, 접도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540천명이며, 수도권 전체의 13.6%, 경기도 전체의 26.1% 수준이다. 경기북부지역은 2000년 2,326천명에서 2020년 3,495천명으로 50.3%의 인구 증가를 보였으며, 경기남부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44.1%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대도시인 고양, 남양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 소도시이며, 북한 접경지역 및 강원도 접도지역인 연천군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포천, 동두천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sup>10)</sup>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천군, 가평군 등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sup>11)</sup>

6.25전쟁 이후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적 접경지역이 대부분이고, 이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으로 이어졌고, 경제적 낙후성은 인구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군사보호구역으로 파악된다. 이런 문제들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주민, 개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장남면 원당리 마을에서는 이런 조건을

9) 김영봉,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국토』, 국토연구원, 1997, 50-51쪽.

10)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는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율로 정의한다.

11) 이영성 외, 위의 글, 1-3쪽.

속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당리 마을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의 주축은 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장-면장으로 연결되는 고리였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움직임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추진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기회가 바로 LH 박물관 측의 호로고루의 발굴과 2014년 연천군청이 지원하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 Ⅶ. 호로그루 발굴과 활용 방안

호로그루의 발굴과정을 살펴보자. 한반도의 중서부를 동서로 가로질서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인간의 거주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구석기시대부터 근,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 유적과 원삼국시대의 유적들은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의 충적지에 중첩되거나 인접하여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삼국시대에 이르면 연천지역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중국과의 교류 및 대륙의 진출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삼국시대의 유적 성격도 관방 유적이 대부분이며,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도하지점이나 나루터, 여울과 같은 주요 교통로 상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대전리산성, 고성산보루, 무등리1.2보루, 은대리성, 당포성, 수철성, 아미성 그리고 연천 호로그루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연천 호로그루는 고구려가 축조하였다.

호로그루는 임진강 북측의 현무암 수직 단애 위에 있다. 행정구역상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대이다. 연천 호로그루는 임진강과 연천 호로그루 북동측에서 서측으로 흘러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개울로 인하여 형성된 해발고도 28m의 표측한 하단성에 윗면의 한쪽을 막아서 만든 삼각형 형태의 강안 평지성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401m 정도이며, 그 중 남벽은 161.9m, 북벽은 146m, 동벽은 93.1m 정도이다. 성 내부의 면적은 6,000㎡ 정도이지만 성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외곽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4,500㎡ 정도이다.

연천호로그루는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관방유적 중 연천 당포성과 연천 은대리성을 포함하여 3개의 평지성 중의 하나이며, 지정학적 위치나 출토유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고구려 성의 하나로 주목 받아왔다. 연천 호로그루가 있는 고랑포 일대의 임진강은 삼국 시대에는 표하(瓢河:662년) 또는 과천, 호로하(瓠蘆河:673년)로 불리웠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임진강이 흐르며 현무암대지를 침식하여 형성된 10m가 넘는 단애가 자연 장애물이자 천혜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연천 호로그루가 있는 지역은 감조구간(感潮區間)의 상류에 위치하여 임진강 하류 방면에서 올라오며 배를 타지 않고 도하할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도 평양과 한성을 이어주는 간선도로는 연천 호로그루 앞의 여울목을 건너 의정부 방면으로 진격하는 장단도참(長湍渡漸)이 주로 이용되었다. 연천 호로그루는 평양지역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연천 호로그루는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

라시대에도 중요시되어 성벽이 새롭게 구축되었으며,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는 장단현의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sup>12)</sup>

그다음으로 호로그루의 발굴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로그루가 있는 지역은 정확히 임진강이 흐르는 현재 행정구역상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화산이 폭발해 생긴 용암지대로, 깊은 협곡을 이루며 곳곳에 현무암 단애부가 발달해 있어 수직절벽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룬다. 이곳은 수량이 풍부해 6.25전쟁 이전에는 고랑포까지 배가 다녔으며, 소형 선박은 안협(철원)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고구려 성곽이 무려 20여개에 이른다.<sup>13)</sup> 예부터 호로그루는 임진강의 고랑포와 두기나루(頭耆津), 또는 장단진(長湍津), 자지포(紫芝浦)를 끼고 있어 오래전부터 강을 건너는 중요한 길목으로 인식되던 곳이다.

호로그루는 성의 전체 둘레가 약 400m 정도의 넓지 않은 작은 성이다. 호로그루가 있는 원당리 지역은 삼국시대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이곳의 물 깊이가 얇아 말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었기에 이곳이 강을 경계로 양 진영이 대치하는 전쟁의 결절점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곳은 평양과 한양을 잇는 길목이었다.

호로그루는 임진강의 지류에 형성된 삼각형 대지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이다. 호로그루는 경기도지역 고구려 관방유적 중 당포성, 은대리성을 포함한 3개의 평지성 중 하나이며, 지정학적인 위치나 출토유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고구려성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sup>14)</sup>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1년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1994년 구리시 아차산 일대에서 아차산보루,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수락산보루, 망우산보루 등 17여개의 보루로 이루어진 유적이 발굴되었다. 그중 일부를 제외한 10여 개의 보루가 고구려의 보루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중랑천과 아차산, 용마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10여개의 보루는 현재 남한 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고구려 관련 유적으로서 발굴 등을 통해 고구려 군사시설의 면모가 규명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1998년 문화재청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 군별 광역지표조사’를 하게 되었다.<sup>15)</sup> 또한 1999년 문화재보호법개정

12) 경기도 연천군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 조사』, 2018, 38쪽.

13) 『경기일보』, 「고구려의 재발견/연천 호로그루성」, 2005년 11월 21일.

14) 주재근, 「고구려 호로그루(瓠蘆古壘) 유적 출토 상고(相鼓) 명문 유물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34호, 국립국악원, 2016, 332-333쪽.

15) 문화재청 홈페이지,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2023년 1월 18일 10시.





〈호로그루와 연천의 고구려 유적(©최종택)〉

으로 일정한 범위(3만㎡)의 건설 공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의무화하도록 하였다.<sup>16)</sup> 이러한 조사와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재가 파괴되고 무기력하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릴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질문: 내가 어떤 경위로 호로그루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994년도에 그 구리시에서 아차산 일대 문화유적을 조사하게 됐는데 그 때 제가 토지공사에 있으면서 어, 이 고고학 분야를 맡아서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때 그 놀랍게도 아차산 그 용마산 일원에서 고구려 보루 열다섯 개를 찾아내서 학계가 깜짝 놀라게 됐죠. 특히 서울까지, 서울에 그 고구려 유적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또 우리 그 가까이 가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렇죠 인제 고구려 유적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인제 98년도에 양주 조사를 하면서 고구려 유적을 찾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수탁

16) 윤광진 외,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0, 2쪽.

경영, 수탁조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어 이제 98년도에 연천 지역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어 그 중에 이제 그 어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호로고루입니다. (구술자: 심광주)

### [질문: 문화재청에서 군사보호구역 내에 인제 문화유적 지표조사라는 것을 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청에서 일단 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 민간인 통제지역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인제 문화재청에서 계속 이제 시리드로 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그 저기 연천지역 조사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고구려 유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보고서로 남겨놓게 됐고 저희도 이제 그 연천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좀 더 그 고구려 유적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제 집중적으로 연천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이제 개발과 관련된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이제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해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아예 전국을 시군 단위로 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지도에 찍어서 그 문화재가 분포돼있는 지역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해서 전국 광, 문화재 지표조사를 그 기획을 하게 되고 문화재청 예산이 이제 그 전국으로 다 그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때 이제 그 시군 광역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1차로 하게 된 게 양주시의 역사 문화유적이라 해서 그 지표조사를 했는데 대단히 이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보고서의 질도 그렇고 그 내용 면에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성곽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고구려 유적을 한 열 개 정도를 양주에서도 또 새로 찾게 됐고, 그 다음에 아주 상세한 유적 조사 내용이 포함되니까. 저희가 말하지만은 LH, 그 당시에 이제 토지박물관이었는데 토지박물관의 말하자면 학술력이 이제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연천지역도 저희가 그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그 중에 그 특별히 이제 고구려 유적 중에서 아주 중요도가 높은 호로고루는 따로 그냥 그 지표조사, 그 고구려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구술자: 심광주)

이런 배경으로 호로고루가 학술적 조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호로고루에 대한 학술조사의 역사는 일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호로고루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 기록은 1916년에 발간된 『朝鮮古蹟調査報告』이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는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 ‘군사보호구역 내의 문화유적지표조사’였다. 이후 1993년부터 육군사관학교의 육군박물관에 의



해 좀 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1994년 지표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sup>17)</sup> 국립문화재연구소도 2000년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강원도편)』에 이어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파주시 134건, 김포시 100건, 연천군 93건, 용진군 85건으로 모두 412건의 문화유적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탑(탑비)·부도·사찰, 묘·묘비·신도비 등 개별건 수는 전체 412건보다 훨씬 많았다. 경기도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났다.

첫째, 임진강을 접하는 파주시와 연천군에는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 답게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시설인 여러 형태의 성곽이 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임진강·한탄강 유역은 구석기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석기공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홍적세에 있어서 고인류의 생활양식을 구명하는 데 필요한 지역임과 아울러 선사 시대에서 삼국시대 전기까지의 유적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 지역은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고려시대 고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1년 파주 서곡리 벽화무덤의 발굴조사로 입증되었고, 앞으로 이 지역의 조사는 고려시대 연구에 많은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비무장지대와 군사보호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sup>18)</sup>

1993년 육군사관학교의 육군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미 호로그루 내에 축사가 들어서 성 내부 상당 부분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후 성 내부가 본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토지소유주가 성곽 주변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중장비로 성 내부를 약 1m 정도 삭토해 버린 것이었다. 이때 결정적으로 성 내부의 유구가 훼손되었다.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의 당초 계획은 이미 두 차례의 지표조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곧바로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조사하는 조사 성격상의 한계 때문에, 축조 방법이나 문화층의 잔존 여부, 축조시기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시굴조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시굴조사는 토지소유주의 완강한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호로그루가 있는 지역은 성벽과 단애지역을 제외한 성 내부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굴

17) 신광식 외, 「연천 호로그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 24쪽.

18) 문화재청,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조사를 위해서는 소유주의 동의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아낼 수 없어서 조사의 방향을 정밀지표조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사대상도 호로그루를 중심으로 하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호로그루에 대한 지표조사를 LH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기존에 실시한 일련의 조사 작업과의 연계성 때문이었다. LH 토지박물관에서 직접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학예사들이 주관하여 이미 1994년 아차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약 20여 개소에 달하는 고구려의 보루(堡壘)를 발굴한 바 있었다. 또한 1998년에는 양주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약 28개소의 관방유적(關防遺蹟:국경지역을 방어한 유적)을 발굴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보루가 고구려 유적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한강유역-양주-연천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진입로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호로그루 지역은 임진강하구에서 말을 타고 지날 수 있는 첫 번째 여울목이다. 고구려의 백제 침략 루트도 호로그루-의정부-백제의 한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토지박물관은 1998년 8월 13일 연천군과 ‘호로그루 및 주변지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sup>19)</sup>

이후 점차 훼손되어 가던 연천 호로그루는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박물관에 의하여 다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밀지표조사 이후 21,768㎡ 면적이 2000년 6월 12일 문화재보호구역<sup>20)</sup>으로 경기도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2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후 같은 해 7월부터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와 내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08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에 성 내부의 지하식 벽체건물지(집수시설), 목책유구 등에 대한 3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3차 발굴조사 당시 일부만 조사된 집수시설을 포함하여 성 외부 정비보존 대상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성 동벽의 남단부 단면이 지속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석축 성벽으로 마감하도록 하는 정

19) 심광주 외, 「연천 호로그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토지박물관 학술총서』 제2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 24-25쪽.

20)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화재 주변의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하는 것으로 지정절차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와 같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지정, 해제 및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다. 문화재 관련 심의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는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심의 대상은 각 분과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 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참조, 문화재청, 「연천 호로그루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현지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0년 1월 8일).

비가 결정되어 성벽 남단부 성벽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2011년 4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LH가 5월부터 4차 발굴을 진행하였다.<sup>21)</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H 토지주택박물관은 2002년 장남면 원당리에서 호로그루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호로그루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 형성된 삼각형 지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관리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LH 박물관 측은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물관 측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발굴과정에서도 마을에서 숙식하였다. 또한 박물관 측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호로그루가 경기도기념물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문화재청은 호로그루를 사적으로, 주변지역을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물관 측이 고민한 것은 호로그루의 방치로 인한 훼손이었다. LH 박물관 측은 방치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질문: 내가 발굴할 당시 호로그루는 어느 정도 훼손된 상태였습니까?]**

— 막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고요. 안에는 뭐 버섯 농장이 있어서 버섯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그 내부를 평탄화시키는 과정에서 성 내부가 이제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뭐 성 바깥쪽에도 다 사유지였기 때문에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구술자: 심광주)

### **[질문: 주민들은 이곳이 호로그루가 있었던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호로그루가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가 놀러가고 거의 강 옆이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 호로그루 그런 얘기 해줘요. 그거가 사적지인지 몰랐어. 다 몰랐어요. 마을 분들도 모르고 이게 알려진지가 불과 한 제가 볼 때는 한 15년, 1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호로그루라는 거가 발굴하고 이렇게 된 지가 한 15년, 20년도 안 됐어요. 돌무더기. 돌무더기 그래서 막 집에 돌, 밤 쌀 거 필요한 거 주워가고 막 그랬었어요. 천연, 천연상품으로 돌을 막 주워가고 막 그랬었어요. 어쩔 수 있어요. 모르는 걸 어떡해. 몰랐으니 어떡해요. 주워가지. 근데 거

21) 경기도 연천군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조사 보고서」, 2018, 13쪽.

기 막 국유지니까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 돌아가면서 삼도 심고 막 거기는 또 알지만 현무암이란 말이에요. 곰보돌 있죠? 뽕, 뽕, 뽕, 다 이 지역은 다 화산지대로 이뤄진 땅이라서 그래서 곰보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먹다가 치우지도 않고 막 쓰레기 막 버려지고 그다음에 인삼이 그 전에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함박하고 나면 또 자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거적떼기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버리고 쌓여 있고 막 그리고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발굴단들이 이제 들어오고 유적발굴단 문화재청에서 와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면서 박물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사적지라는 게 밝혀지면서 문화재청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도 관리하고 이제 된 거죠. 그때도 돼지풀 있죠? 돼지풀하고 그냥 그런 거 다 무성했었어요. 다 무성했었어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아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평수도 넓고 하니까. (구술자: 이용환)

### [질문: 나는 조사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어떤 도움을 주셨고, 어떻게 주민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셨습니까?]

— 고무적이었던 것이 이제 연천군 호로고루 계속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성과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고구려의 어떤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과 유구들이 많이 확인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게 중요한 유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단 그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작업을 했구요. 저희가 이제 숙소도, 그 마을의 중심부에서 같이 먹으면서 먹고자고 하면서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면을 굉장히 늘여왔던 부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호로고루가 얼마나 중요한 성인지, 거기서 무엇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나 행정 모두 조사발굴에 아주 협조적이었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연천군청과 장남면사무소는 발굴 조사를 하거나 뭐 나중에 이후에 문화재로 그 지정 되고 어그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데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심광주)

### [질문: 발굴조사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호로고루를 저희가 4차발굴조사까지 했는데요. 최근까지 남한에서 확인된 고구려 그 말하자면 보루 내지는 고구려 성곽이 4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장 그 유물의 어떤 그 수준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높은 유적이 호로고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당시에는 그 기와거든요. 그 기와건물인데, 그 호로고루에서는 그냥 단순히 평기와뿐만 아니라 치미, 그러니까 막새 막새기와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지금 용마루에 올리는 치미 건물까지 있는 그런 유물이 출토가 돼서 막새는 뭐 흥련봉 보루에서도 나오고 왔지만, 치미가 나온 거는 사실은 그 북한에 있는 어떤 그 고려 유적이거나 그 집안 일대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서도 아주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유물들이 나와서 그 이 호로그루에 상당히 위계가 높은 높은 신분의 그 책임자가 이렇게 여기에 상주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그 551년부터 그 이제 말하자면 고구려가 임진강 이북으로 그 후퇴하고 나서 그 임진강 자체는 그 668년 고구려 멸망시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하천이었던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호로그루는 이 호로그루 앞을 지나는 교통로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아마도 고구려의 국경 사령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어떤 그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그 호로그루 앞에 있는 여울목이 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배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도하할 수 있는 첫 번째 여울목이 바로 호로그루 앞에 있는 여울목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가장 빠른 간선도로 그러니까 평양으로부터 그 백제 수도 한성을 이어주는 간선도로 상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는 성인 거죠. 뭐 호자라고 그래서 남성용 소변기 같은 이동용 남성 소변기, 사실 그런 것들이 흥미로운 것은 그 어 이게 저기 왜 남성 소변기가 필요하냐면은 갑옷을 완전무장한 상태에서는 혼자서 용변을 해결을 못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걸 대줘야지만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그 이 그 저기 벼루가 상당히 여러 장이 나와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미 다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 고구려 토목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의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토목기술의 총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게 성곽 축성 기술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관계됐잖아요. 그런데 호로그루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고구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축성기술이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기 토심척축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돌로만 쌓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흙으로만 쌓으려면 방어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돌과 흙을 아주 적절하게 이 그 결합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최첨단 그 토목기술이 적용되어서 성을 쌓았다는 게 학계에 소개된 겁니다. 이 호로그루의 그 성을 쌓는 데 사용된 기술이 평양이라든가 그 저기 국내성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는 전역에도, 전역에서 이 동일한 성기술이 적용돼서 이 성이 쌓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구요. 예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평양성 대성산성에서 확인된 그 석축성벽 그 중간벽에 있는 어떤 그 기둥 홈 같은 것도 확인이 되고 그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돌확도 확인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고구려 축성법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어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호로그루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고구려의 축성기술은 동시기의 백제나 신라, 가야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토목기술의 베이스에서 이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을 호로고루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그 발굴하면은 그 뒷부분은 다 흙으로 돼있구요. 바닥하고 뒷부분은 흙인데 이제 그 돌 성벽을 쌓아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독특한 토, 저기 토목기술이 적용된 그런 부분이구요. (구술자: 심광주)

이런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장남면 주민, LH 박물관, 장남면사무소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호로고루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은 자치위원회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젊은 인력들의 힘을 모았다. LH 본사의 사회공헌단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하였고 또 박물관에서도 공원조성에 인력을 지원하였다. 연천군청, 장남면사무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25사 72연대에서도 군장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공원 조성 사업은 사적지를 중심으로 500m 내의 논과 밭을 매입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잡초를 제거했다.

#### [질문: 호로고루가 발굴되면서 원당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한 1만 2천 평 정도, 주변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여기 다 우리 그럼 뭘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그러면 해바라기나 뭐 이런 걸 좀 심어서 일단은 우리가 수익보다도 동네부터 좀 알리자 장남면이라는 데를 동네를 좀 널리 알려져 소득이나 그런 건 차후 문제고 동네를 우선 알려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소득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시작하게 된 게 해바라기 식재를 하자 했는데 그때 농협 무슨 지부인가, 본부가 LH 본부가 어디서 와 가지고서 LH 본부하고 군부대하고 뭐 이쪽 하고 이제 우리가 자매결연식으로 이렇게 맺었어요.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구술자: 안덕현)

— 이제 이 호로고루라는 성을 진짜 거기가 전부 갈대밭이고 황무지였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우리는 뭐 시골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저기가 호로고루가 그게 대한민국 그 문화재로 속해 있고 뭐 이런 거만 좀 알고 있었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는 건 생각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자치위원 내에서 자치위원들이 면장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바라기를 심어서 통일바라기라는 축제를 한 번 해보자고 주민들 스스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축제를 몇 년, 여태 그게 한 십여 년을 진짜 고생해가면서 해왔는데 그 전 위원장님들이 고생이 많았죠. (구술자: 유택중)

—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전 지식도 없고 해바라기 모종을 씨로 심을까 모종

을 심을까 모종으로 해서 했는데 풀 관리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저기 뭐야 자치위원분들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 많은 평수를 다 일일이 풀을 뽑고 비료도 주고 가꿔야 되고 그리고 물도 줘야 되고 막 물이 저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예를 들면 이게 다 시들어가는 데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물도 다 차로 다 차 있잖아요. 물통에 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다 일일이 호수 끌어와 가지고 다 물 줘가면서 그게 타고, 막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까지 대동해가지고 살포하고 그러면서 막 키우고 있었어요. 초반에.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료가 SNS로 들어오면 자료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되게 보람되죠. 뭐냐면 교수님도 아시지만 전국에 지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축제도 많고. 축제가 많잖아요. 저는 이쪽 경기 북부 지역 9개 시군의원 의회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인터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인근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5억 써요. 축제에 25억 써요. 인삼 축제 그다음에 콩 축제 이 두 가지가 25억 정도 써요. 저희는 축제에 들어간 돈이요. 없어요. 벌어요. (구술자: 이용환)

—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한 번 두 번 나올 걸 한 번 나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다 나와서 했었고 이제 그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 기계 장비가 해야 되는 일 할 때는 이제 뭐 한 서너 분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본인들 트랙터 가지고 나와서 씨를 뿌리거나 비료 주거나 밭을 갈거나 그럴 때는 다 트랙터로 하고요. 사람 손이 가는 건 실질적으로 풀 베는 거 아니면 농약 제초제 주는 거 나중에 수확하는 거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사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유해용)

— 저희가 사실은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처음에 주도했던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어떤 관계망을 형성했는가 하는 부분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구술자: 심광주)

### [질문: 행정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단 관에서는 어떤 기회랄까 어떤 계기를 한 번 마련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안덕현 위원장 비롯한 체육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동참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첫 삽만 뜨고 온 사람이

기 때문에. [...] 저희는 뭐 통일바라기축제를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요구하는 사항이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사항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경관 조성을 좀 제대로 해서 나름 대로의 어떤 돼지풀의 어떤 그 유해식물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이제 축제로 돌아서서 가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축제를 해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좀 떨어진다. (구술자: 이규환)

— 군에서도 축제에 대한 지원금은 해주시더라고요. 7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인데 나온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획사에 위탁해서 아나 운서라든가 행사 진행할 때 썼습니다. (구술자: 이운선)

— 주민들이 이제 호로고루의 빈 공터를 활용을 해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가지고 관광 상품화해보자고 그래서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이다보니까는 주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옆에서 같이 협력하여서 방향성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주민 주도의 축제다 보니까 축제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그런 상식이 많지를 않아서 인근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내지는 간접적인 그런 자료들을 뽑아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술자: 유해용)

정리하면, LH 박물관은 호로고루를 발굴하고 난 뒤 훼손을 우려하였다. 박물관 측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호로고루 주변 보호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LH 박물관 측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통일바라기 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이름이 채택된 이유는 바로 고구려가 대제국을 꿈꿨던 국가였다는 점과 현재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고토 회복의 의미가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름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바라기 공원’이었다.

## Ⅷ.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and 축제

### 1. 공원 조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유적 지표 조사’, 1993년 육군박물관 조사, 199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시, 군별 광역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에는 3만㎡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의무화되었다.<sup>22</sup> 이후 LH 박물관 팀은 1998년 호로그루 일대를 정밀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H 박물관은 2001-2011년 4차에 걸쳐 호로그루를 발굴하였다.

발굴한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적지의 유지, 관리였다. 호로그루를 방치하면 훼손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사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위해 LH, 주민들, 장남면사무소가 머리를 맞대었다. 그 결과, 호로그루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일치해 보았다. LH는 2014년 6월 13일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호로그루 주변에 호로그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LH측 관계자도 호로그루 일대는 고구려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지금도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된 호로그루 일대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인근 군부대, 장남면사무소가 뜻을 모아 호로그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다고 밝혔다.<sup>23</sup>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였다. 문화재 보호법 13조 3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바라기 공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공사 심지어 나무조차 심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민, 행정, LH는 공원조성에 꽃으로 1년생으로 자라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고려하였다.

22) 윤광진 외,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0, 2쪽.

23) 『노컷뉴스』, 「연천 고구려 유적지‘호로그루 통일바라기 공원’조성」, 2014년 6월 13일.

## [질문: 내에서는 호로고루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 조사 성과에 의거해서 결국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기념물로 그리고 발굴이 진행되면서 사적까지 지정이 됐는데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성, 성곽과 내부뿐만 아니라 성 외부에도 일정한 면적을 좀 넓게 사적으로 지정을 좀 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 그 유적이 있고 이제 그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재 보호, 보호구역까지는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으로 사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그 이 사들이는 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그 과제인 겁니다. 완전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시설물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곳이 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사적으로 지정된 500m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500m,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m 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환 씨가 해바라기를 심자는 제안에 대해 유적지를 관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저희 그 사회공헌단이라고 있거든요? LH소속이 있는 그 사회,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담당부장하고 논의를 해서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좀 참여를 했음 좋겠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구술자: 심광주)

주민들은 국내 사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찾아보았다. 코스모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코스모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페인 안달루시아(Andalucia)나 제주도의 해바라기가 유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 마을의 함병석 씨가 해바라기를 추천하였다.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이운선, 안덕현, 이용환은 LH와 장남면사무소에 해바라기를 추천하였다. LH 박물관 측은 해바라기는 태양을 상징하는 꽃이고 고구려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였기 때문에 해바라기와 호로고루는 서로 의미가 통한다고 보았다.

## [질문: 해바라기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예전에는 코스모스 많이 심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는 좀 코스모스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봉투에다가 코스모스 하나씩 따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코스모스는 좀 외래종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는 해바라기를 한번 씨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해바라기로 경관 조성을 해보자 그랬었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농업에 정착하고 이



제 저는 제 생각 가졌던 게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경관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업도 많이 쇠퇴하고 지금 이제 어차피 주된 작물 자체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규제를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경관 농업으로 바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또 집에 해바라기씨가 한 자루가 있었어요. 씨가.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따오신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한 자루가 있었어요. 한 kg수로 따지면 한 15kg 정도 그래서 꽤 양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같이 짜기 시작했죠. 이제 그 함병석 형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장님이 되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획서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기획서 만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다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죠. 아 우리 마을을 우리들끼리 정말 기분 좋아 지게끔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의기투합해서 좀 마을을 가꿔보자 처음의 취지였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가 타 지역 스페인 안달루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런 거를 많이 검색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까지 싹 다 해가지고 취합해서 제가 이렇게 PPT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좋다 그래서 해바라기 모종을 넣기 시작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꽃밭도 화단도 바꾸고 이 길에 이 도로가에 무성했던 풀들 다 없애고 다 정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도로에 먼저. 도로에 제일 먼저 시작한 거죠. 도로에 해바라기가 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량, 차 하나 서 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해서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에 주민자치회에 들은 거죠, 함병석 이장님과 같이. (구술자: 이용환)

— 이용환 씨, 청년회장인가, 이제 그분 댁에 가서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거기다가 해바라기를 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 때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LH가 지원을 좀 해줄 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어차피 우리도 어떤 그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해바라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실질적으로 고구려는 태양의 제국이잖아요. 그 삼족오가 태양 속에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은 되게 고구려는 태양을 존, 숭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고구려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심광주)

그러나 해바라기는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특히 가뭄이 드는 경우 시들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암반층 위에 약간의 표토가 덮고 있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군, 행정, LH는 양수기 및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런 난관을 부딪치면서 처음에는 실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바라기 재배 노하우(know-how)도 생겼다. 민들이 자신의 농가 일손도 부족한 마당에 해바라기 가꾸기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장남면

사무소 임직원, 군, LH 박물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바라기 가꾸기에 동참했다. 3년 정도는 잡초, 돌과의 전쟁이었다. 공원조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호로고루와 어우러진 통일바라기 공원의 해바라기꽃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와 제주도의 그것보다 더 짙고 노랗게 피었다. 해바라기 재배에 성공하면서 주민들은 화합과 자신감을 얻었다.

### [질문: 공원조성 초기 돼지풀 제거 작업과 잡석제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돼지풀 작업) 통일바라기 축제를 하는 이 호로고루 주변은 저희 연천군에서 우리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토지를 다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생태 교란 식물인 돼지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연천군청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해바라기 축제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해바라기를 심어서 어떤 경관 조성을 좀 하려고 그랬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가 좀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축제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를 찾아와서 저와 같이 군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술자: 이규환)

— 우리 마을을 좀 알리는 게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호로고루라는 문화재 소속의 거기가 있어서 거기 유지가 많이 남으니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애당초에는 몇몇 개인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몇몇 개인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 관에서 이거는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다. 단체가 하면 몰라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 하고 맨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관계가 됐었죠. 그래서 개인이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에서는 이거는 개인으로다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돼지풀이라고 있어요. 돼지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에서 인건비조로다가 얼마를 줍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돼지풀 작업을 우선 시작을 하다가 이제 담은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돼지풀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 맨 처음에는 허허벌판에 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밭에. 지금은 뭐 돌이 지금 얼마나 주워다녔는지 호로고루 옆에 이렇게 보면 셋대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밭에서 주워가지고 거기다 갖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많으니까 기계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돌무덤을 돌이 많으면. 그래서 군인들도 동원을 하고 돌 짓기 위해서. 군부대 지원받아서 군인들이 이제 주워서 트랙터에다 옮겨주면 트랙터 이렇게 로다바가지에다가 해서 계속 실어 나르고 그것을 한 몇 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작업하고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 남았지만은 나중에는 돌이 좀 심한 데는 흙을 갖다 복토를 했어요. 너럭바위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깎 수

도 없고 깎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했고 맨 처음 시작해서 한 3년은 풀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구술자: 안덕현)

—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밭굴단들이 이제 들어오고 유적발굴단 문화재청에서 와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뭐 거기 살던 지금 뭐야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원래 원주민 집터예요. 그거 뼈대는 안 부시고 거기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거를 예전에는 막 호로고루를 사유지로 누가 매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법적 절차 밟고 막 그런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 밝혀지면서 그런 사적지라는 걸 알고 문화재청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도 관리하고 이제 된 거죠. 그때도 돼지풀 있죠? 돼지풀하고 그냥 그런 거 다 무성했었어요. 다 무성했었어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아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평수도 넓고 하나까 잘 가꾸 놓으면 경치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면 얼마나 탁 마음 트이고 좋아요. [...]약간의 언덕 그런 거 있었으니까 지금 복구가 잘 된 거지만 해보자 해서 이제 막 기계들, 장비를 갖고 와서 네 집에는 트랙터도 다 갖고 와서 짹 짹 치고 막 포크레인 갖고 긁어내고 다 정리해가지고 밟다운 밟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내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요. 트랙터 수십 대가 와가지고 한 번에 짹 해버리니까 일도 아니죠.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예를 들어 쓰레기 하나 밖에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도 쓰레기 버릴 수 있는데 줍게 되고 그 누가 지나가다 해바라기 꺾으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도 한 마디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자꾸 가꾸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할머니들은 다 할머니들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할머니들 하면은 해바라기 잎사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라다가 이렇게 낙엽이 지면 따주기도 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스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생각에 변화가 좀 있어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좀 확대시켜서 위에서 면 단위로 가보자. 그거를 해서 지역에 웬만한 행사가 없으니까 한번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냥 주민들끼리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술자: 이용환)

**[질문: 해바라기 재배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군-관이 어떻게 협력하셨습니까?]**

— 첫째, 첫째 심은 거는 이제 우리가 모종을 갖다놨는데 이게 참 해바라기라는 게 키우

기 힘든 게 뭐냐면 모종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으로 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씨앗으로 심으면 일하기가 편해요. 기계로 심으면 되니까. 그런데 씨앗을 심으려면은 기후하고 맞아야 돼요. 비가 와도 안 되고 땅이 질어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무지하게 하여튼 저 고생들을 했어요. 뭐 첫해는 뭐 모종을 보는데 모가 너무 큰 걸 갖다 심어가지고 모종이 한 10cm 정도 되는 걸 심어야 하는데 이거 한 30cm 되는 것 갖다 심으니까 다 꺾어지고 막 그래서 죽고 뭐 한 30%도 안... 못 살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씨앗을 심으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씨앗을 심어서 발아되기, 싹 나오기 전에 한 3일 정도는 비가 오면 또 안 돼요 또 그 전에 비가 와도 안 되고. 애로점이 좀 많았고 그래서 3회 이후에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한쪽으로는 씨앗으로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모종을 모아놓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씨앗이 안 나온 자리에는 모종으로 가서 모종을 갖다가 이제 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구술자: 안덕현)

— 사실 저기가 강은 바로 가까이 있지만 물을 끌어다가 다 대지 않으면은 이 가뭄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대의 땅이 30cm나 50cm만 내려가면 다 암반 지대입니다. 현무암반지대여서 실제로 물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암반 위에 표토만 흙으로 덮여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가뭄을 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는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해바라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이 많이 처음에는 그 막 그냥 태양 빛이 막 작열하는데 심어 놓으면 막 시들어지고 막 그래서 물 갖다 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힘든 것들을, 그 일들을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그 약속한 날짜에 다 심었더라고요. 그 때 이제 군부대에서와서 군인들이 같이 심는데 참여하고 저희도 이제 사회공헌사업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있으니까 직원들 동원해서 가서 이제 해바라기 심는 일에 저희도 참여를 한 거죠. 처음에는 아마 100% 생착은 안 되고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부터 품종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심는 시점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구술자: 심광주)

— 저희가 사실 이 25사단 내에서도 저희 여단이 현재 장남면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단 본부는 파주시에 있지만 저희 한 개 대대가 장남면 안쪽에 GOP 전방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었고, 특히 2016년도 4월에 그 당시 지휘관하고 장남면장님하고 협약식을 통해서 이 통일바라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상호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러가지고 다 이렇게 상호 협력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대민지원해서 병력만 투입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

금은 이제 민, 관, 군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지역 상생과 민, 군, 관이 어떻게 보면 화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계속 뜻을 모아서 지원하게 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구술자: 김인수)

— 아 군인들은 이제 축제 준비하는 거. 해바라기 심기 이런데 대민지원으로 많이 도와줬죠. 제초작업 뭐 이런 거. (구술자: 유택중)

— 이제 그 모종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군부대에서 지원도 받았고 저희 면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나가 있었어요. (구술자: 유해용)

— 소위 뭐 관에서는 보통 읍면에서는 이제 군부대랑 밀접한 관련이 없지 않을 수가 없죠. 접경지대고 또 여기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인력들이 없고 또 그냥 젊은 인력 빼고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더 이제 저기 하신 분들은 농사 지으실 때나 그 군부대 지원이 없으면 농사 자체도 어려우세요. 대민 지원이라고 그러죠. 취약계층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대민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장남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군하고 유대 관계가 예전부터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좋으시고 이제 여단장님이나 이제 다 이쪽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군하고 주민하고 군, 관하고 군하고의 매개체를 이제 민간이 해주는 매개체가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방위협의회는 민이고 저희가 이제 관이 되고 군의 중간 역할을 이제 방위협의회가 하세요. 군부대도 이제 뭔가 대민 지원을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맙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력이 없을 때는 이제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행사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많이 인력을 좀 그래도 군에서는 인력으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이제 십시일반 좀 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좀 아무래도 모금을 하면 예초기도 사주고 예초기 수리도 해주시고 뭐 군부대에 필요한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고 있고 저희 이제 행사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군사시설 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이제 저희 행사할 때도 지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구술자: 원미티)

— 이게 축제가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원 동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지정한 공식 축제라고 그러면 저희 인력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다 보니까는 주민이 우선이 되고 저 행정기관이 도와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군부대 협조 얻어야 했습니



다. (구술자: 유해용)

— 옛날에 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그런 식이었지만, 이 통일바라기 축제는 사실 연천군 장남면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 여단에서도 작전 내에서 실시되는 축제 중에 하나여도 큰 축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최대한 지역주민들 안전도 지키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작전 상태에서 그것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보람되고 원활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전국적인 큰 행사의 축제지만 얼마든지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고 재능 있는 용사들도 많고 간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바라기 축제 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협조가 돼서 일정한 장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부대에 협조만 해주시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재능기부 및 봉사를 하면서 더 좋은 축제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 통일바라기 축제는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축제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은 뭔가 홍보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 TV프로에 나와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보다도 일단 군부대는 민간이든 홍보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저희 군하고도 더 유대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금, 평화의 길 조성해서 평화의 길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술자: 김인수)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은 장남면 주민들에게 마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item)이었다. 그동안 장남면 원당리 주민들은 마을을 알리거나 소득원이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은 지역 산업을 인삼과 단순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락시켰다. 특히 장남면은 철저히 소외된 지역이었다. 1989년 이전 이곳 장남면은 면소재지가 아닌 출장소가 있었다. 1989년에야 장남면사무소가 만들어졌다. 주로 산업은 발농사가 위주였고, 1977년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쌀농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마을 진입하는 도로 조건도 열악해서 마을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나룻배에 의존하는 등 교통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전기도 이주 늦은 시기에 들어왔다.

**[질문: 통일바라기 공원조성과 축제의 과정에서 60대를 전후한 세대들이 상당한 모우멘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그 50, 제가 58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년대 그 당시에 태어난 세대들이 참으로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래야 하나 그 많은 인구 증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라 시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마음가짐이나 변화에 대한 좀 욕심이 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수입원이 따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농사 외에는 뭐 따로 이 산업기반이 약한데 직장을 다닌다거나 상가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 갖고 오로지 이제 농사, 영농에만 의존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좀 갖고 싶어도 도저히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실제로 현실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제가 2011년도쯤에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뭔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라는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었죠. 이 자치라는 게 뭔가 나름대로는 야 이거 어떻게 자치위원장이면 어떻게 그냥 면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뭔가를 좀 한번 하려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5대 자치위원장이던데 그 이전부터 전 자치위원장님도 처음에 1, 2, 3대까지는 잘 몰랐어요. 2대까지는. 3대부터는 뭔가 좀 활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 체험장이라든가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한 변화는 이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좌천되면서 우연한 계기에 우리가 평소 이제 지나면서도 몰랐던 호로고루가 보니까는 아니 이게 뭐 나름대로 유적지고 사적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주변에 그냥 돼지풀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저거를 좀 더 해서 좀 뭔가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전에 원당1리 지금 이제 다시 이장님이 되셨죠. 한병석. 지금 현재 이장님이 이제 올해 새로 되셨죠. 전에도 이장님 한 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장님이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주도고 부천시 쪽에 이렇게 한 번 둘러봤는데 거기 해바라기 심었는데 우리 수익성도 괜찮은 것 같고 풍경으로도 해서 좋다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다 지금 우겨져 있는 그 풀숲을 다 없애고 해바라기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소득작물로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걸 심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하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은 제안이 솔깃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어렵지만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랬고 저희 자치위원 여러분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과정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다들 이제 바쁘신 중에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작업하고 해바라기 심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인데 어쨌든 한 번 변화를 한 번 가져보자 하고 저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주셨습니

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한 번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구술자: 이운선)

— 아주 이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중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6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고 70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마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업도 지금 사업도 이제 지역 사업으로다가 시작을 또 이제 하는 것도 하다보니까 이제 뭐 명품마을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술자: 유택중)

군사보호구역, 경제적 낙후성 등을 고민하던 일군의 젊은 세대들은 주어진 상황을 더 이상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우멘텀(momentum)을 찾고 있었다. 물론 이전 기성세대들이 주도하던 마을 자치위원회에서도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 미꾸라지 체험장을 실시해보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1년 젊은 세대에 속한 이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때마침 외부적인 조건으로 호로고루가 발굴되었다. 장남면의 젊은이들에게는 호로고루의 발굴이 하나의 호재였다.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호로고루를 통해 마을을 외부에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통일바라기’는 연천군 장남면 주민들이 특허(特許)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연천군의 브랜드(brand)가 되었다.

### [질문: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 동원하는 게 최고 힘들었는데 고맙게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우리가 한 30명 되거든요. 30명 되는데 100% 참석은 못해도 하여튼 또 한 뭐 90% 이상은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우리가 텅고 여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5시~5시 반이면 나가서 시작을 합니다. 먼 동 트면은. 그래 가지고 한 11시나 12시까지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집의 일 하고 이런 식으로다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죠. 맨 처음에는 이제 시큰둥하다가 한 2~3회까지는 시큰둥하다가 한 3회에서부터는 이제 자긍심을 갖게 된 거예요. [...] 제가 1회 때는 축제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3회 4회 5회까지 제가 축제를 계속 주관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그런데 하면서 이제 때는 축제 위원장만 맡아서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상당한 실패를 했고. 제가 한 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벌써 부자가 됐을 거라고. 저도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

동의 일이나 저도 남한테 욱 먹기 싫고 한 번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으로 해 보자 해가지고서. 하여튼 농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우리 집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칭찬받고 우리 집 아마 갑부가 됐을 거라고 그러세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축제에 신경을 쓰면서. 주변 사회에서도 뭐 물론 많이 도와주니까 아주 혼자서 뭐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여기는 시골이다 보고 또 한 지역이다 보니까 동네 다 선배 후배 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게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수공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구술자: 안덕현)

— 위원장들마다 생각이 모두 틀린데. 그게 지금은 주민자치 주도로 가는 건데 이게 위원장의 생각이 틀리면 면장과 위원장과 위원들, 각 이장들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으면 그거 잘 이게 맞춰야 하는데 되게 힘들죠. 매번 똑같지만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아시고 수공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 자기가 다 그니까 저희는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다 자기 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손을 안 걷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자치위원 전부, 그다음에 장남면 주민 전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저희가 또 예를 들어 끝나면 결산하고 송년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전부터 고생했던 거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다 빔프로젝트 쳐놓고 다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남면이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보여드리는 데 누구누구 하나 제가 다 했는데 이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기투합되니까 행정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실용신안 특허 등록을 했죠. (구술자: 이용환)

**[질문: 해바라기 재배를 위해 견학과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배기술을 배우셨습니까?]**

— 그래서 뭐 양평도 가봤고 하여튼 뭐 해바라기를 심고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견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의견 따라서 우리가 좀 접목도 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우리 자치위원들 모시고 현지에 가서 좀 보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데 가서 좀 많이 배웠어요, 먼저 시작한. (구술자: 안덕현)

물론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LH 박물관 측은

조성비용을 본사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들을 설득해야 했다. 주민들은 해바라기 재배 경험이 부족하여 말라 죽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호로고루 주변에 대형 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행정, LH가 밭 벗고 나서서 국가 사적인 고구려 문화재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은 LH,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 25사단 72연대가 호로고루 주변 2만9894㎡ 면적의 불모지에 자라고 있었던 외래종 돼지풀 등 잡초를 제거하고 개간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해바라기꽃이 가득한 공원을 조성하였다.<sup>24)</sup>

## 2. 주민자치 위원회 통일바라기 축제 개최

장남면 주민, 행정, 군, LH의 노력으로 통일바라기 공원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는 마을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일바라기 공원과 해바라기꽃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준비하였다. 주민들이 축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연천군이 연천군 내에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볼거리와 체험요소를 갖춘 체류형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있었다. 장남면 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를 2014년 1월에 시작했다.

### [질문: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바라기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 젊으신 분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젊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나이가 금방 지나더라고요. 11년 전, 12년 전만 해도 젊은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젊음은 이제 지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또래나 후배들 이렇게 보면 욕구가 좀 있습니다. 지역을 뭔가 좀 변화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욕구가 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바라기 축제를 하면서 그걸로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좀 변화하는 데 지혜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밖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명품마을이라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라고 봐야죠. 그걸 한번 이제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뭔가 좀 변화를 갖고 우리 마을에 변화를 갖는데 뭔가 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기회를 찾아온 게 그 당시에 이제 군에서 이제 한 번 군 차원의 어

24) 『건설이코노미』, 「LH '제1회 통일바라기 축제' 개최」, 2014년 8월 31일.



떤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명품마을이라는 걸 했을 때 보면서 1개 시군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걸 도전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마을의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3개 시군만 주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우리 지금 활성화하는 과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구술자: 이운선)

— 이제 뭐 명품마을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사업도 지금 사업도 이제 지역 사업으로다가 시작을 또 이제 하는 것도 하다보니까 이제 뭐 명품마을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로고루 발굴은 문화재 그쪽에서 했어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옆에 있는 그 호로고루에 속해있는 땅을 황무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주변을 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 바라기, 거기다가 하면 어떻게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황무지인 땅을 개발하자는 것도 자치위원회 스스로 한 거죠. (구술자: 유택중)

장남면 주민, 장남면사무소, 군부대, LH가 열심히 통일바라기 축제를 준비했지만, 2014년 첫 축제는 해바라기꽃이 가뭄으로 말라죽기도 하고 해바라기꽃 개화시기를 잘못 맞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외에도 태풍으로 불면서 해바라기 꽃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축제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사진공모전, 인삼 막걸리 등 다양한 먹거리, 직거래 장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문화행사, 개막공연, LH 박물관에서 호로고루 발굴에 대한 보고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축제였다. 비록 첫 축제였던 탓에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과 연천군에서 참석하는 정도였지만 주민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축제였다. 2회부터는 해바라기 재배 노하우도 축적되어 개화시기도 문제없이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연천군 관내 관광객 대부분이었다. 4회부터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축제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함께 호응하면서 축제는 원당리 마을의 공동의 일이 되었다.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 7회 축제 때에는 30여만 명이 훨씬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

## [질문: 축제 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다?]

—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도 이제 축제를 하면 뭔가 여러분이 오시는데 그냥 해바라기만 달랑 보고 가시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우리 좀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어쨌든 축제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목차에 의해서 축제 진행을 하루만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와서 즐기시고 가시는 걸로 근데 그 과정에 그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여러분이 뭐가 오셔서 보고 가실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첫해는 뭐 돈이 없잖아요. 전이 있어야 뭔가 외부의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 성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모니합창단이라고 합창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성적이었어요. 저희가 발표회 가고 그래도 연천군 발표회 나가면 그래도 1등 아니면 2등을 나오시는 분들이라 자부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분들 이제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얼굴에, 팔 그림 그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그 외에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좀 저게 있었어요. 풍악놀이, 난타. 아주머니들 이제 다 연로하셔갖고 다 그만두셔갖고 지금은 없어요. 아직 까지 성악하고 페이스 페인팅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죠. (구술자: 이운선)

— 저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민에서 하시려고 하니 까 제대로 저희가 이제 관에서 구상을 해서 어떤 거를 할지 구상을 많이 해서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디테일한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무료도 있겠지만 유료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구려 3대성의 하나인 호로고루가 그 고구려 3대성의 하나니까 좀 더 그거를 좀 가미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에서 고구려하면 말인데 말의 기상을 말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타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위트가 있는 애들 조그마한 목마를 갖다 놓고 타는 걸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대회 같은 거 고구려 관련해서 그림 그리기라든가 생각을 해봤는데 글썽요 아직 시간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고민을 못했지만 뭐 사진 공모전도 좋지만 사생대회나 좀 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생각한 저만의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면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제가 수렴을 해서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원미티)

**[질문: 관광객은 얼마나 오셨습니까?]**

— 그때 당시는 그렇게 우리는 뭐 시골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저기가 호로고루가 그게 대한민국 그 문화제로 속해 있고 뭐 이런 거만 좀 알고 있었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는 건 생각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자치위원 내에서 자치위원들이 면장님과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바라기를 심어서 통일바라기라는 축제를 한 번 해보자고 주민들 스스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제를 몇 년, 여태 그게 한 십여 년을 진짜 고생 해가면서 해왔는데 그 전 위원장님들이 고생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늦게 이제 위원장이 돼서, 그게 제가 이제 시작 하면서 그때 축제도 고통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 꽃이 축제를 하기 위해 있는데, 축제를 못하니까. 손님들 모실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이제 꽃만 피웠는데, 그때 이제 집안에 계시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런지, 여기가 첫 해 오신 분이 15만이나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그동안 조금씩 알린 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구술자: 유택중)

**[질문: 통일바라기 축제 이전과 이후의 변화와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 많이 변했죠. 이전에는 통일바라기 전에는 마을에서 행사라는 게 체육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 년은 군에 가서 군 체육대회고 연년으로 해서 일 년은 이제 면에서 자체에서 하고 행사라는 건 뭐 그 행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축제라는 이제 통일바라기 축제는 이 행사 때문에 하나가 더 늘은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축제하면서 이쪽 지역에 인삼이 많기 때문에 축제 기간 중에는 인삼 막걸리라든가 인삼 튀김 이쪽 이제 주소득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홍보 겸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삼 심는 가구 한 70% 정도가 돼요. 인삼. 6년근 인삼.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외국 사람들하고 오면 상당히 좋다고 하는 호응이 있어요. 인삼 막걸리하고 축제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아니 작년에 축제를 못한 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축제를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구술자: 안덕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정도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까지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 LH 박물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축제를 개최해 본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운선, 안덕현, 이용환 등 주민자치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장남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의 자료를 주

민들에게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1회부터 7회까지의 축제가 개최되면서 드러난 문제로 홍보 부족, 공원주변 인프라 부족, 관광수익 등이 지적되었다.

첫째, 홍보 부족 문제이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마을주민들, LH 박물관, 장남면사무소, 군부대는 호로고루의 통일바라기공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각종 SNS, 인터넷, 언론 등을 활용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호로고루 '통일바라기공원'을 알렸다. SNS,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서 7회 축제 때에는 첫 축제 때보다 훨씬 많이 알려졌다.

### [질문: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할 수가 없어서 홍보할 수 없는 게 이제 포스터 인근 여기서 파주시까지 동두천 인접 지역만 했어요. 파주시하고 동두천, 연천 해가지고서 포스터로다가 했었고 그리고 저기 농협에 가서 CD기. CD기의 그 뭐 축제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거 축제 홍보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했었고 또 그건 이제 경기 지역만 해가지고 경기지역만 했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저 이용환 그 사람이 사무처장, 사무처장을 저하고 봤었거든요. 제가 할 때. 그 친구가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좀 잘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홍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군청에서도 좀 홍보를 해줬습니다. (구술자: 안덕현)

— 기존의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해바라기 축제는 말 그대로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축제로 통일을 모토로 해서 통일에 뭐 하면 해바라기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장남면에서 이제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해바라기가 좀 더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실제로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해바라기로 아무래도 통일바라기 축제랑 해바라기랑 접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또 입소문으로 SNS로 많이 꽃이 예쁜 게 표현이 되다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축제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코로나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2회 정도 해바라기 축제를 못 하다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올해 많이들 찾아와서 상황이 잘 끝났던 것 같고 이 축제로 해서 우리 먹거리를 찾아보자 해서 좀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술자: 원미티)

— 홍보는 저희가 그렇게 막 예산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만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SNS하고 사람들 입소문으로 많이 이게 퍼졌어요. 홍보는 저희가 하는 정도는 이제 인근 시군에 연접한 인근 시군에 플랜카드하고 포스터 붙이고 그다음에 리

후렛을 이제 보내는 정도였고요. [...] 입소문이 많이 났던 건 두 가지 같아요. 그게 호로그루에서 호로그루하고 해바라기하고의 조화가 사진 찍기에 진짜 멋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몰부터 해서 호로그루에 올라가서 해바라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찍는 사진이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워낙 좋았고. (구술자: 유해음)

지역주민들과 행정은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가 외부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자연 풍경, 공원, 해바라기 꽃, 먹거리가 중요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현장감 있는 지역의 역사, 즉 콘텐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역의 역사를 콘텐츠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일이었기에 행정이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군행정과 면행정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런 행정의 목표는 외부 사람들에게 이 지역 역사를 콘텐츠화하여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행정에서는 선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콘텐츠화한 박물관과 기념관을 만들어나갔다. 군행정과 면행정은 통일바라기 공원과 호로그루 박물관, 고랑포의 역사기념관, 경순왕릉 등을 콘텐츠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호로그루 내에 있는 박물관은 LH 박물관 측이 기여하였다.

장남면 일대 지역은 구석기시대의 유적, 고구려의 호로그루, 경순왕릉, 고랑포의 화신백화점 분점,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루트, 승전 OP 등 선사유적부터 고대사는 물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곳이다. 지역의 역사는 다음과 의미를 담고 있다. 연천지역은 구석기 아슐리안(Acheulian) 주먹도끼로 유명한 곳이다. 임진강과 호로그루 일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립의 각축장이었다. 호로그루는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던 시기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는 중요 루트였다. 이 지역은 신라와 대립할 때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선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이곳에 잠들었다. 신라의 멸망으로 왕건에게 귀부한 한 많은 경순왕은 죽어서도 신라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곳에 묻혔다. 일제강점기 임진강은 수도 서울을 관통해 흐르는 한강과 연결된 수로로서 변성하였던 곳이다. 특히 호로그루 부근의 고랑포까지 대형 선박들이 운행되면서 임진강 수운의 거점을 이루었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개성과 한성의 물자교류를 통하여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자리 잡을 정도로 변성하였으나, 6.25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쇠락하였다. 지금은 남북한 군사분계선이 부근을 지나고 있어 강에는 배를 띄울 수 없으며, 남북 간의 대립이 심하던 시기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얼어붙은 지역이었다.<sup>25)</sup> 1968년 1.21사태로 알려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은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당시 김신조 일당이 남파할 때 주요 루트가 이곳이었다.

25) 문화재청, 위의 글, 2019년 11월 26일.



행정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지역의 역사를 아직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만한 의미를 가진 역사로 콘텐츠화시켜 제공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은 통일바라기 공원의 만개한 해바라기 꽃과 여기에 어우러진 석양, 고호8경의 하나인 고랑포, 임진강 장단(長湍) 석벽 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호로고루의 석양은 해바라기와 더불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고랑포는 고호8경의 손꼽혔던 곳이다. 일찍이 목은 이색은 “장단(長湍)의 석벽은 푸른 병풍이 비졌는데, 철쭉꽃이 피니 비단이 밝구나. 상선을 잠깐 빌려 흐름을 따라 내려오니, 일시의 정경이 참으로 이름할 수 없구나.”라는 시를 남겼다. 고랑포의 밤하늘에 뜬 달의 아름다움은 가히 극치를 이룬다.

### [질문: 통일바라기 축제 하면 사진 공모전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존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습니까?]

— 이제 해바라기가 잘 자랐을 때는 이제 다른 어떤 시설이나 장치들이 큰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축제장에 가보면 뭐 포토존이나 다른 그 모형 볼거리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제가 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설치했어. 포토존하고 모형들을. 이제 제작을 직접.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전문 업체에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제작한 거였기 때문에 보기에 는 되게 좀 이렇게 아마추어. 그냥 어설피 보여도 좀 이렇게 직접 만들었다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정감이 있고 시골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대도시에 대동소이하잖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포토존도 나무를 사다가 직접 다 짜고 만들었어요. 페인트칠도 저희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조형물들도 제가 했을 때 대표적인 조형물은 이제 의자에, 의자 페인트칠을 해갖고 거기에 청바지하고 일반 바지를 이렇게 얹혀놓고요. 이 허리 부분. 이제 몸통이죠. 사람 몸통 부분에다가 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그 밑에 신발을 내다 군화 신고 이 안에는 이제 짚, 짚세기를 막 집어넣어 갖고 이 틀을 갖춘 상태에서 여기에 만 꽃을 이렇게 사람 모양의 꽃만 이렇게 해갖고 4개를 주르륵 댄 모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 가보시면 사료를 먹이는 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허수아비처럼 한 위로 쌓아가지고 모형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저희 주민들 농장에 축사에 그런 사료가 있어가지고, 건초 사료. 그걸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만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하나하나 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정감이 있었던 그런 조형물이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유해용)

둘째, 인프라 구축의 문제이다. 통일바라기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빈약하다. 축제가 시작되고 하루에도 몇 만 명씩 관광객들이 모이면서 차를 진입시킬 수도 없고 주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화장실과 관광객들이 휴식할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휴게실은 지을 수도 없었다. 특히 주차장 시설 부족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이어졌다. 행정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있지만 예산과 상급행정청의 허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쓰레기와 청소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700명 정도의 마을 주민의 힘으로는 하루에도 몇 만 명씩 관광객이 몰려와 소비하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수거 청소하기란 어렵다. 축제기간에는 군청에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와 청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접근도로, 주차장, 휴게실, 쓰레기 수거와 청소, 숙박시설 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들은 긴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질문: 축제의 성공은 인프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1회 했을 때는 아 여기 그때 오신 분들이 한 5~600명 정도 뿐이 안 됐어요. 처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되니까 이제 진짜 꽃이 활짝 폼이요. 그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꽃이 이제 만개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꽃이 만개한 거예요. 다 그래갖고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올린 거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 다녀가신 분들이 입소문을 해서 퍼졌는지 SNS에서 퍼졌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까지만 해도 한 자세하게 하면 한 1만 명? 1만 명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그래도 좀 인프라가 진짜 빈약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던 데가 다 양계장 자리였고 주차장 자리라면 지금 이제 거기 홍보관 밑에 거기가 달랑 거기였어요. 그리고 남은 데 그 앞쪽으로가 이제 또 한 5~600명 정도 묵은 자리가 있어갖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차장을 여는데 한 이제 두 번째 오다 보니까 이제 한 1만 명 정도가 오시다 보니까 주차장 자리가 모자라요. 당장 만들어, 당장 진짜 당장 급급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장실이나 뭐 저기 홍보관에 있었으니까 일단 그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하고 근데 그리고 3회, 4회 해가 거듭할수록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지만 도로 자체가 또 문제가 발생해서 아니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차가 밀려갖고 진입을 못 하시는 거야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주차장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꼬질러 다리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빙 돌아서 장남교까지 차가 들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차를 끌고 나가고 싶어도 차가 밀려 있으니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옆두에 두셨는지 군수님께서 여기 그 지역에 관련된 그 도로 사업을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장남교, 원당2리 삼거리부터 호로고루까지 이제 사업 구상을 해갖고 지금 반 정도는 지금 완공이 백당도 없이 됐어요. 호로고루 주변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밀집지역이니까 거기부터 이제 사업을 하자. 거기 도로 개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구술자: 이운선)

— 예,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관 주도해서 했으면 전체 축제가 전부 다 관 주도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제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민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는 다 주민자치에서 노력 봉사하시고 또 기타 이제 아무래도 또 저희가 100프로 다 그분들의 인력을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농기계 저기 뭐야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작으로 해서 뭐 하면 기름값 정도 그래서 저희가 트랙터 임대료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지원을 그 정도만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 정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또 농지 생산 저희가 다 이쪽이 다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다 문화재로 묶여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산녹지를, 농지 지역을 풀어야 또 도로도 또 이제 보상이 가능해서 도로도 깔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쪽 외곽이 지금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농림부에 지금 농지 지역 해제 때문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빨리 출입이 안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상가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그렇게 상가를 저희가 1종, 2종을 저희가 근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농지 지역에. 농지는 그런 걸 못 지어요. 도내 문화관광,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상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호로고루 고구려 역사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유적전시관도 짓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도 짓고 그걸로 파생되는 주차장도 별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시설인데 그렇게 만든다는 찾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 이제 계획으로만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또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지 지금은 저희 호로고루에서는 농산물 집판장, 집판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 형태로 그냥 지역 농민들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한 10개쯤 부스만 지금 있습니다. (구술자: 원미티)

— 거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돈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누가 낸다면 그걸 찾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도로를 부랴부랴 넓혀졌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옆에 집에 옆에 동네 가는데 무슨 뭐 맨날 뭐 1분, 2분이면 가는 걸 20분, 30

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지하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쪽에 어떤 그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서 다시 유통해서 다시 나오니까 더 밀리잖아요. 어떤 일방통행화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농로길 같은 일방통행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농사질 하려고 들어오면 또 이게 또 꼬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하면 일단 뭐 그분들도 거기서 될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뭐 그분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밥은 다 파주 가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고기도 못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바꿔 나가야죠. (구술자: 이규환)

셋째, 수익 창출의 문제이다.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왔지만 마을주민들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관광객들은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를 즐기면서도 음식은 파주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먹는다.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팔기도 하지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마을 주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은 카페다. 하지만 카페의 주인들은 외지인들이다. 자치 위원회와 행정에서도 처음 얼마 동안은 수익이 높은 카페 등은 외부인들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차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열 계획이다. 먹거리로는 지역의 특징을 살린 두부요리 음식이 있다. 이 지역의 두부관련 음식은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은 축제에 온 관광객의 먹거리 니즈(needs)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축제장 가까운 곳에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먹거리가 더 풍부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문: 축제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로고루 축제에서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개발하시겠습니까?]**

— 기존에도 지금은 이제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이제 2년의 코로나 여파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인삼주도 직접 담가서 판매를 하시고 했어요. 이제 축제 때만. 축제 때 인삼주를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또 인삼 튀김도 다 그거 관련해서 판매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밀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먹거리를 빼제하고 한 거였고요. 올해 축제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각 마을별로 별도로.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축제할 때도 다 등록을 임시 영업 허가를 내서 해야 되니까. 그분들

은 방법론 중에서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해바라기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제 또 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제 다르게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이런 해바라기씨유나 아까 호로고루 모찌나 또 거기에서 확장돼서 이제 장남면 주민들의 어떤 조합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올해 9월, 10월에도 워낙 더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피약별을 저희가 뭐 파라솔 하나로 지탱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군수님도 그때 오서 갖고 이거는 너무 이제 희생을 강요하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개입을 하시려고는 하세요. 그런데 지역 주민은 우리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축제 내가 키운 축제가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하고자 하는 건 또 스스로 원하지 않으세요. 좀 더 당신들이 더 잘해보려고 하시고 노력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조금 이제 주민자치 쪽에서는 주민자치나 이제 저희 민에서는 좀 더 소프트한 걸로 우리 이번 작년 축제에 좀 부족한면, 먹거리라든가 또 아니면 약간 고구려 관련해서는 체험거리. 여러 이제 그런 이제 축제에 방문한 방문객이 꽃만 봐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니즈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먹거리라든가 여러 체험거리가 좀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민자치에서 그쪽으로 좀 더 이제 인원을 그쪽으로 좀 더 저희 배분을 하고 주차 관련해서는 이제 군청에 좀 협조를 받아서 뭐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큰 축제할 때도 그런 분들이 이제 관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쪽이나 아니면 진짜 따로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술자: 원미티)

—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호로고루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두부 먹으러 오고 매운탕 먹으러 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호로고루 한번 보고 갔던 분, 통일바라기축제 한 번 와서 보고 갔던 분들은 또 비슷하게 지금 안 오거든요. 근데 어떤 맛이라든가 이런 어떤 맛집 이런 게 맛집 투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겨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술자: 이규환)

2022년 7회 이전까지는 마을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7회 때는 주민들도 농산물 직판을 통해 1억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행정에서 축제에 들어간 비용 대비 축제 전체 수익은 3억 원 정도의 흑자를 보았다. 축제와 더불어 지역의 먹거리도 많이 알려졌다. 협동조합은 임시영업허가를 얻어 6년근 인삼, 인삼 막걸리, 인삼 튀김, 호로고루 모찌, 커피 등 판매하였다. 축제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외부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 [질문: 통일바라기 축제로 농가소득은 올랐습니까?]

— 축제 때도 그 천막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1억 이상의 판매 수익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축제 기간을 저희가 좀 아까 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그 호로고루 모찌를 판매하고자 좀 축제 기간을 길게 잡았어서도 그렇고 아무튼간 축제 기간에 농산물 판매에서도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농산물도 이제 솔직히 종류가 지금 그 시기에는 농산물 종류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과가 또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도 나와 있는 농산물이 전체 판매량으로써는 꽤 그렇게 많이 팔리고 하더라고요. 10개 부스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출을, 매출을 창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호로고루 모찌하고 커피 판매해서 거의 2억의 판매량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거의 무상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일정 부분을 조금 마을에 기부를 하신 거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인력들을 처음에는 이제 저희 마을에 젊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인력 창출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단기간에 말이 쉽지 커피를 단기간에 배워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참여는 어렵고 다르게 이제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하시죠. 지금은 이제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이제 2년의 코로나 여파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인삼주도 직접 담가서 판매를 하시고 했어요. 이제 축제 때만. 축제 때 인삼주를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또 인삼 튀김도 다 그거 관련해서 판매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밀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먹거리를 배제하고 한 거였고요. 올해 축제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각 마을별로 별도로.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축제할 때도 다 등록을 임시 영업 허가를 내서 해야되니까. 그분들은 방법론 중에서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해바라기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제 또 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제 다르게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이런 해바라기 씨유나 아까 호로고루 모찌나 또 거기에서 확장돼서 이제 장남면 주민들의 어떤 조합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술자: 원미티)

## [질문: 통일바라기 축제가 이 지역의 수익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 통일바라기라는 건 저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특허를 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통일바라기라는 말은 지역에서 모든 통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법인을 만들어서

통일바라기영농법인을 만든 거죠. [...] 저는 더 중요한 건 이게 환경이랑 좀 안 맞아서 좀 문제인데 저는 원래 이거를 그러면 저는 원래 다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절차가 맞으면 이 지역민들이 돈 벌어 먹일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민들이 어차피 본토이시고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 저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권들 또 하계끔 마련해주고 저는 법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이 지역민들의, 예를 들어 인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삼 관련된 영농법인이 거든요. 그분들 계약 체결 못 해가지고 못 팔아먹는 걸 여기 스스로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환경적인 걸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 매장이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앞으로 인프라 대책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주의 임진각과 연천의 호로고루는 인프라 차이가 내가 볼 때 100배 넘게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100배 넘게 차이 나요. 100배가 뭐야 1000배는 더 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걸 정말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구술자: 이용환)

### [질문: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에 상가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뭐 하면 군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 도시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풀어주고 하고 금세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폐단이 맞나 봐요. 옛날에는 선 계획관리지역처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여기는 몇 월 언제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투기가 난무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잘못되면 많은 지점에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런 폐단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 이외로 많이 큰가 봐요. 그래서 선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원미티)

특히 호로고루 모찌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2022년 축제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호로고루 모찌’라는 것을 판매했다. 연천군청 투자유치과에서는 직접 나서서 제주 모찌를 호로고루 모찌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주 모찌를 만든 셰프의 승낙을 받았다. 장남면 면사무소 원미티 팀장에 따르면 제주 모찌의 셰프는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 [질문: 호로고루 모찌는 어떻게 나온 상품입니까?]

— 2022년도에 이 축제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 좀 더 이 호로고루나 이런 데 매력, 매력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군청 투자유치과랑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을 좀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이까 해서 고민하던 끝에 이제 호로고루 모짜라는 것을 저희가 제주도, 제주도가 저희 연천군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주상절리도 그렇고 화산 폭발 지역이어서 주상절리도 있고 해서 저희랑, 연천군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 제주도에서 거기 그 모짜떡을 저희랑 같이 해서 호로고루 모짜라는 것을 저희가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민하고 협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 관에서 협업한 게 아니라. 지역은 아니고 거기에 셰프가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셰프가 그쪽에서 이제 듀포레. 듀포레라는 그런 카페를, 카페에다가 그런 빵 종류를 아이스크림빵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저쪽에도 저희랑 매칭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호로고루 모짜라는 것을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시험,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의 뭐 무상으로 다 해주셨던 게 되겠어요. (구술자: 원미티)

주민들은 축제가 끝난 뒤 수확한 해바라기 씨앗을 기름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통일바라기 공원에서 나온 해바라기 기름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또한 연천군청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평화누리길' 테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평화누리길은 3개의 길로 장남교에서 고드름까지 이어져 있다. 코스당 평균 거리는 대략 20km 정도이고, 시간은 대략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는 체험료를 해바라기 기름으로 주기도 했다.

### [질문: 해바라기씨유를 지역 소득원으로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여기에 이제 2대대 저희가 가까운데 오리동 초소 2대대에서는 아까 평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평화의 길이 있어요. 평화의 길 체험하는 일반 테마 노선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군부대의 그 교통호? 군인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점검하는 그 교통호를 일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그 구간도 군에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서 체험하는 그걸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해서 하반기에 9월 정도에 또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그분 체험객들이 이제 거의 무료지만 이제 저런 것도 맡기 위해서 1만 원 체험료를 내세요. 그 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 해바라기씨유를 저희 1만 원짜리 상품을 그분들을 겨냥한 1만 원짜리 상품을 해바라기씨유를 만들어서 해바라기 기름을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체험료 1만 원 낸 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대체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선순환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몇 백만 원 들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구술자: 원미타)

통일바라기 축제는 자발적인 주민, 행정, 군, LH, 연천군의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LH의 호로고루 발굴, 지역의 풍부한 역사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프라 구축, 홍보, 관광 수익 등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장남면 원당리 마을은 2019년 농협중앙회가 주는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19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천 장남면 원당리 마을이 금상을 받았다. 대상은 전라남도 영암 쌍정마을이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19년 새롭게 신설한 ‘농촌들녘 가꾸기’는 사계절 아름답고 푸른 들녘을 위해 깨끗한 농업생산환경을 유지하고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마을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분야다. 안덕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 시작은 단순 돼지풀 제거가 목적이었고,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해바라기가 자라나는 아름다운 들녘을 가꾸게 되어 기뻐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질문: 장남면에서는 통일바라기 축제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농촌들녘 가꾸기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 농협중앙회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중 ‘농촌들녘 가꾸기’ 부문에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여기 그러니까 이제 농협 직원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품 자기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농촌들녘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이거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디 어디에다가 이제 화단을 만들고 어디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고 어디에다가 이제 뭐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그렇게 몇 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선정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축제하고 같이 더불어서 연계를 시켜서 주민들이 이제 살기 좋은 환경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촌들녘 가꾸기사업에 추진했던 거죠. 선정됐죠. 금상 됐죠. 대상 밑에가 금상인데 전라도 쌍정마을이 대상 받았어요. 그때 농협중앙회 대강당 광화문에 있는 대강당 가서 그 발표 이렇게 쪽하고 영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가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영상을 찍어가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수, 등수에 맞춰서 우리 안덕현 자치위원장님이 나가서 상장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저 금

상이 대상 받아야 하는데 왜 저기가 대상이 됐지, 그런 얘기를 옆에서 다른 시군에서 온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게 장남면이 금상, 대상이라고 이거는 그렇게 이게 아마 치열했던 것 같아요. 대상하고 하는 게 두 마을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아깝게 금상을 그때 꽤 받았을 걸요. 지금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한 돈 3천만 원 됐던 거 같습니다. (구술자: 유해용)

— 코로나 전에. 그래서 거기 나가서 우리가 통일바라기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한 거 뭐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서 거기서 전국에서 금상을 탔어요. 금상을 타가지고 상금 삼천만 원 받은 거야. 그래서 그게 아마 자치현으로다가 저 상금 받고 돈 들어온 거는 그게 처음입니다. (구술자: 안덕현)

농업중앙회는 현지실사를 통해 금상 4개 마을을 비교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마을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장남면 원당리 마을은 식재(植栽)되어 있는 해바라기를 정리하고 현지실사 전까지 호로고루 주변 지역에 청보리를 파종하였다. 심사위원들 가운데 장남면 원당리 마을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대상은 전남 영암의 쌍정마을이 받았다.

### **[질문: 공원에 심었던 해바라기가 진 이후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습니다?]**

— 해바라기를 가지고 저희가 기름만 이제 수입을 해서 기름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모작을 해요. 해바라기를 수확하고 나서 보리를 심습니다. 그걸 심어서 보리 수확하고 해바라기는 지금 현재로는 기름 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유를 축제 때 판매하고 보리쌀도 판매하고 거를 지금 해바라기빵 뭐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술자: 안덕현)

— 한 가지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는 좀 이어지게, 봄에는 보리를 해요. 올해는 보리를 행사는 안 해도, 광고 좀 하고, 그래서 청보리도 좀 알려졌어요. 4~5년 전서부터 청보리를 해가지고 좀 알려지고 해서. 일 년 내내 어떻게 좀 꾸준히 많은. 가능성도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저 호로고루에 이 추운데도 오세요. 주말이면 이 추위에도 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더 활성화 해서 꾸준한 손님이 오게끔 자리잡아가야죠. (구술자: 유택중)

향후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발전 방향은 보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바라기축제를 이어가는 것이고, 통일바라기 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의 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를 찾았을 때 보고 즐길만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동되어 있다. 또한 좀 더 유기성 높은 콘텐츠화로서 지역의 역사와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가 고밀도로 콘텐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광객들이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를 방문했을 때 4-5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임진강 주상절리 석벽을 이용한 트래킹 코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용한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한다.

### [질문: 향후 지역과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저도 솔직히 좀 더 어차피 키우고 어차피 저희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온 것 같고 이제 길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있잖아요. 먹거리하고 숙박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여기 연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 그걸 정확히 통해야죠. 통해서 이 지역이 지역만 왔다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전체를 1일 코스라든지 일반 코스라든지 돌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그런 거죠.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도 노인네들 있잖아요. 텃밭에서 가꾼 것도 가끔 갖고 나와서 이렇게 싸짚어지고 갖고 나와서 파세요. 축제 때.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야. 뭐가 뒀든 파신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장터를 더 크게 음식도 더더 괜찮게 이 지역 토속음식으로 예를 들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성계 비빔밥을 뒀다든가, 여기 지역에 나온 농산물로 해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구술자: 이용환)

— 보통 주민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려면 최소한 4~5시간을 여기서 체류를 해야 이곳에서 밥을 먹지 지금 호로고루나 경순왕릉을 다 돈다 그래도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면 밥을 먹으러 다른 데로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 먹죠, 보통.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할 때 아이디어를 몇 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호로고루에서 경순왕릉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임진강변으로 이렇게 주상절리가 짝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걸 코스화하든지 아니면 트래킹 코스 중의 일부를 그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걷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 지금 철원의 잔도 같은 잔도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그때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철원 잔도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철원 잔도는 우리보다는 철원 잔도가 이제 길이도 길고 볼거리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먼저 선점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먼저 선점을 해서 그걸 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호로고루하고 경순왕하고 엮어서 호로고루에서 경순왕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한 4~50분 걸리거든요. 1시간에서 4~50분. 그러면은 그렇게 걸어가서 다시 뭐 이렇게 하면서 체류가 될 수 있잖아

요. 가다 음료수도 사 먹고 밥도 먹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군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이제 강변 쪽으로 개인 땅들이 다 있습니다. [...] 일단 행정적으로는 먼저 시설 관리, 시설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진입로나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나 화장실 문제나 그런 부분이 행정,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마 경기도에서 도립박물관을 지을 그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시행을 해서 박물관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이제 거기가 고구려성이니까는 고구려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 구리 시민가에도 고구려 관련된 시설이 뭐가 있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물이나 어떤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박물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로그루나 우리나라 이제 연천군에 있는 당포성이나 이런 성들이 다 고구려의 그런 역사와 유적이니까 고구려 박물관을 조속히 만들어서 고구려 박물관은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연천군에서라도 고구려 박물관을 만들고 그거로 그때 호로그루에서 이렇게 발굴된 문화재들이 다른 창고에 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좀 필요하고 그 정도만 해도 그다음에 해바라기 축제하고 청보리 축제는 계속 다 주민들이 그렇다면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잘 축제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축제 자체를 이제 관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은 이제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이 실망하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건 주민자치축제로 유지를 계속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원만 군에서 좀 해주고. (구술자: 유해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이제 지휘관하고 앞 전 면장님하고 유대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통일바라기 축제를 할 때, 지은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시면. 부스의 한 칸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들 용사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재능 있는, 얼굴 뭐 페인팅,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밴드 같은 것들 좀 돕는다든지 해서 부스를 좀 지원해달라고 협조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접 저희 용사들이고 간부들이고 가서, 행사 간에 저희도 나름 좀 보람을 느끼고 그런 취지를 위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술자: 김인수)

장남면사무소는 축제가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며, 인프라, 프로그램, 축제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 홍보, 밀도 높은 지역 역사의 콘텐츠화를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군에서도 축제 기간 동안 부스(booth)를 하나 주어서 재능 있는 병사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LH 박물관 측에서도 부스를 하나 마련해주면 호로그루와 고구려 건축과 보루(堡壘)의 역사를 알릴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 IX. 맺음말: 주민 주도의 통일바라기 축제

지금까지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마을의 명칭의 유래와 특징에 주목해보았다. 그 명칭의 변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분기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낙후성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농업과 인삼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의 주축은 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장-면장으로 연결되는 고리였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움직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추진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기회가 바로 LH 박물관의 호로그루의 발굴과 2014년 연천군청이 지원하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장남면의 청장년 세대는 호로그루 공원 조성과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장남면 주민들은 군청과 협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호로그루 공원에 심을 꽃을 해바라기로 선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바라기 재배 과정에 관과 군에 적극적 협력을 얻어 해바라기 공원 조성에 성공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위원들은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졌지만 이런 생각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하나의 목표로 수렴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공원에 해바라기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일바라기 축제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후로 주민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통일바라기 축제를 추진했다.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숙명론보다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마을 만들기, 매년 이루어지는 통일바라기 축제를 위해 해바라기 심기에 앞장서고 있다. 장남면 주민들은 통일바라기 축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시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술적으로도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성공은 주민주도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LH 박물관은 호로그루를 발굴하고 난 뒤 훼손을 우려하였다. 박물관 측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호로그루 주변 보호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LH 박물관 측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통일바라기 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이름이 채택된 이유는 고구려는 대제국을 꿈꿨던 국가였다는 점과 현재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고토회복의 의미가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름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바라기

공원'이었다.

LH는 2014년 6월 13일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호로고루 주변에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LH측 관계자도 호루고루 일대는 고구려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지금도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된 호로고루 일대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인근 군부대, 장남면사무소가 뜻을 모아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LH,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 25사단 72연대가 호로고루 주변 2만9894㎡ 면적의 불모지에 자라고 있었던 외래종 돼지풀 등 잡초를 제거하고 개간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해바라기꽃이 가득한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장남면 주민, 행정, 군, LH의 노력으로 통일바라기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뒤, 2014년 마을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일바라기 공원과 해바라기꽃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기획하였다. 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연천군이 연천군 내에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볼거리와 체험요소를 갖춘 체류형 소규모단지를 조성하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이었다. 장남면 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를 2014년 1월에 시작했다.

2014년 1회 축제는 첫 축제였던 탓에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과 연천군에서 참석하는 정도였지만 주민들 스스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축제였다. 2회부터는 해바라기 재배 노하우도 축적되어 개화시기도 문제없이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연천군 관내 관광객 대부분이었다. 4회부터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축제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함께 호응하면서 축제는 원당리 마을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7회 축제 때에는 30여만 명이 훨씬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 1회부터 7회까지의 축제가 개최되면서 드러난 문제는 홍보 부족, 공원주변 인프라 부족, 관광수익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발전 방향은 보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바라기축제를 이어가는 것, 이 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의 조성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를 찾았을 때 보고 즐길만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급선무이다. 게다가 좀 더 유기성 높은 콘텐츠화로써 지역의 역사와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가 고밀도로 콘텐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객들이 통일바라기 공원과 축제를 방문했을 때 4-5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임진강 주상절리 석벽을 이용한 트래킹 코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용한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바라기 축제가 주민주도의 축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 덕분이었다. 또한 LH 박물관, 행정, 군부대도 큰 역할을 하였다. LH 박물관은 호로그루의 발굴, 호로그루 내부에 박물관을 만들고 호로그루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바라기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은 축제에 기반이 되는 행정적, 금전적, 인력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뒷받침을 다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콘텐츠화 하여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군부대는 군장병을 동원해 주었다. 요컨대 통일바라기축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도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1. 논문

- 김갑성, 이미주,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단행본』, 한국은행, 2015.
- 김동성,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8.
- 김영봉,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국토』, 국토연구원, 1997.
- 박희봉, 이희창, 정우일, 「경기북부 지역개발 전략과 과제」, 『한국정책연구』, 경인행정학회, 2002.
- 신광식 외, 「연천 호로고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
- 윤광진 외,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영성 외, 「퀵탐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경기연구원, 2022.
- 정은진, 김상빈, 이현주,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 2004.
- 주재근, 「고구려 호로고루(瓠蘆古壘) 유적 출토 상고(相鼓) 명문 유물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34호, 국립국악원, 2016.

### 2. 정부자료

- 경기도 연천군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조사 보고서」, 2018.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 〈경기도 북동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연구보고서」, 2021.
- 문화재청, 「기다림의 길목에 있는 옛 성터, 호로고루(瓠蘆古壘)」, 2019년 11월 26일.
- 문화재청,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문화재청,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현지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0년 1월 8일.

### 3. 언론자료

- 『경기일보』, 「고구려의 재발견/연천 호로고루성」, 2005년 11월 21일.
- 『노컷뉴스』, 「연천 고구려 유적지'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조성」, 2014년 6월 13일.
- 『건설이코노미』, 「LH '제1회 통일바라기 축제' 개최」, 2014년 8월 31일.

### 4. 구술인터뷰

- |                     |                  |
|---------------------|------------------|
| 김인수(25사단 주임원사)      | 심광주(전 LH 토지박물관장) |
| 안덕현(전 장남면 주민자치 위원장) | 원미티(장남면사무소 팀장)   |
| 유태종(장남면 주민자치 위원장)   | 유해용(연천군 장학관 팀장)  |
| 이규환(연천군청 산업도시국장)    | 이용환(장남면 체육부장)    |
| 이운선(전 장남면 주민자치 위원장) |                  |



**김인수**  
(25사단 주임원사)



**심광주**  
(전 LH 토지주택박물관 관장)



**이운선**  
(전 장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안덕현**  
(전 장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원미티**  
(장남면사무소 팀장)



**유태중**  
(장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유해용**  
(연천군 장학관 팀장)



**이규환**  
(연천군청 산업도시국장)



**이용환**  
(장남면 체육부장)





제 8 장

# 지명유래

집필

이우형(현강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지명의 탄생은 인간의 정착 생활에서부터 유래한다. 그 개념의 정의가 현재의 지명, 즉 땅 이름이라는 보통명사의 테두리 안에서 개념화되고 변화, 발전한 그 공동의 약속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수 천 년의 시간 속에 인간의 경험론적 인식체계의 공통 사유의 산물인 이 공동체적 약속의 진행형을 반복, 전사하고 공유하면서 삶을 영유해왔다.

하나의 지명이 탄생하는 원인은 매우 넓은 인식체계와 다양한 사건들로 구성되지만, 언어나는 보편적 소통과 약속의 체계 안에서 반복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이 과정은 인류학적, 언어학적 관점에서 매우 다변화된 탄력성을 수반하며 일정한 사유법칙들이 구체화되는 양상들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총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일정한 공간의 지명을 이해하는 것은 다층적인 역사의 변화와 발전의 궤적을 통시적으로도 넓게 확인이 가능하게 하며, 모든 사건의 원형을 추적하는데에도 매우 정확한 사료적 가치와 재구성의 1차 자료들을 제공한다.

연천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에서 왜 지명의 비중이 높은지를 우리는 지난 세기를 살아오면서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등의 격랑을 시련으로 통과하며 우리의 여러 사정으로 국가적 문화역량이 미치지 못하였고, 접경지역으로 대표되는 연천에서는 그 중요성조차 강조되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를 관통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995년 필자에 의해 3년간의 어려운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된 연천의 지명유래 조사의 결과는<sup>1)</sup>, 접경지역 연천의 광범위한 상처와 공백을 메우는데 선구적인 지역 1차 이해의 교과서와도 같은 필독서가 되었으며, 언어학, 인류학, 고고학, 지리학, 역사 및 종교, 지질, 전쟁, 사상, 문화유산 등 연천이 가지고 있는 복합문화자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서물이 되었다.

당시 위의 조사결과는 한국전쟁 이후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연천지역에서 지역의 원형과 광범위한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 특히 북한지역까지 그 지역에 토착 연고를 둔 수 백 명의 원로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조사방법론으로 모든 장소를 지도에 정확하게 표기하며 3000개에 가까운 지명을 발굴, 정리한 결과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텅 빈 백색의 여백으로 남았을 이 특수지역에 대하여 우리 1세대들의 남다른 기억정보를 당시 현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본 고는 『향토사료집』 내용을 그대로 임의, 축소한 내용인 지난 2000년 『연천군지』의 지명 유래편의 보완이다. 본문은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화된 내용들을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 이우형 편저. 연천문화원, 『향토사료집』, 연천문화원, 1995. p1~474.



연천군 전도

방대한 분량의 지명유래편의 내용 가운데 명확한 각각의 해당 지명의 위치는 지면 여건상 『향토사료집』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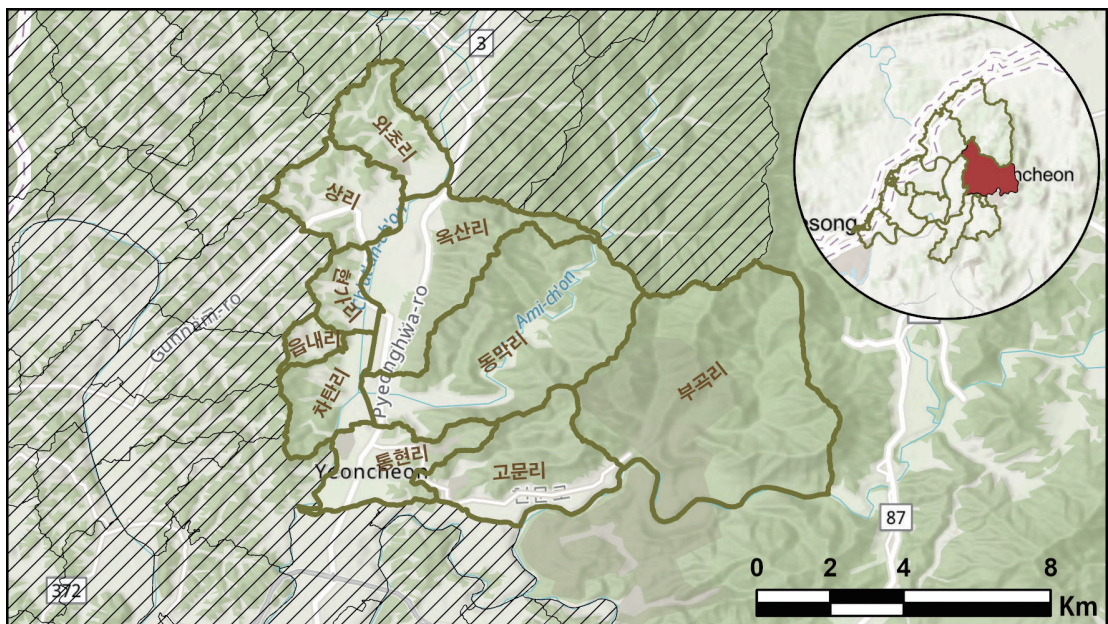
## 1. 연천읍(漣川邑)

연천읍은 본래 조선시대 연천현의 현내면(縣內面) 지역으로서 읍내리(邑內里)·지혜동리(智惠洞里)·동막리(東幕里)·무수동리(無愁洞里) 등 4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하고 읍내리·지혜동리·차탄리(車灘里)·통현리(通峴里)·동막리·고문리(古文里)의 6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와초리(瓦草里)·옥산리(玉山里)·현가리(玄加里)·상리(上里)의 4개 리를 병합하여 9개 리로 개편하였고, 1937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의하여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연천면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북한정권의 관할 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하여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하여 포천군 관인면의 부곡리를 새로 편입하여 10개 법정 리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른다.

연천읍은 연천군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 동쪽은 포천시 관인면, 남쪽은 전곡읍과 청산면, 포천시 창수면, 서쪽은 군남면과 증면, 북쪽은 신서면과 접해 있다.

차탄1리(연천로 302)에 읍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연천읍의 2023년 1월 1일 일반현황은 122개 반에 인구는 7,333명이다.



## 1) 와초리(瓦草里)

본래 연천현 동면(東面)의 지역으로 '기새'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음을 빌어와 와초리라 하였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해방 직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북한정권의 관할 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거림동(巨林洞) : 지경터 남쪽에 있는 마을.

◆ 기새[瓦草洞] : 도당말 동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와초리'라 불렀다는 설과, 이질 설사의 생약인 오이풀 또는 외동풀이 무성히 자라던 곳이라 한자로 의역하여 와초리로 했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는 연주현씨(延州玄氏)가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 도당말[都堂村] : 절고개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도 마을 뒤편 산록에 있던 큰 소나무에 매년 소를 제물로 마련하여 산제를 올렸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반남박씨(潘南朴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도리말 : 박집산 북쪽에 있던 마을.

◆ 새말[新村] : 손맞이비낭산 아래에 있는 마을. 경원선 철도가 지나간다.

◆ 세류동(細柳洞) : 도당말 북쪽에 있던 마을.

◆ 지경터[地境堡] : 새말 남쪽에 있는, 와초리에서 가장 큰 마을. 신서면이 철원군에 속해 있었을 때 이 마을이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도신리와 와초리의 경계가 되는 차탄천을 선으로 하여 도신리 지역부터는 기후 차이로 인하여 보리농사가 안된다고 한다.

◆ 회옥골[懷玉洞] : 자작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동래정씨(東萊鄭氏)가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거림들 : 거림동 주위에 있는 들판.

• 국사봉(國師峰) : 장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366m. 신서면 도신리와 경계가 되며 '망재'라고도 불리지만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능골[陵谷] : 동묘고개에 딸린 골짜기. 개녕군(開寧君) 이지(李之)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능모루 : 도당말 북쪽에 있는 모퉁이. 개녕군 묘 앞에 있는 모퉁이가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 동묘고개[東墓峴] : 능골에서 상리의 원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두투맥이 : 세류동에서 신서면 도신리의 보맥이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두드러졌다는 뜻의 '두투'와 장소라는 뜻의 '맥'이 합쳐진 '두투맥'이 '두투모기'를 거쳐 '두투메기(두투맥이)'가 된 이름이다.

- **박집산** : 거림동 서쪽에 있는 산. 예전에 궁궐에서 반남박씨에게 하사한 사패지(賜牌地)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지금도 박씨들의 큰 묘가 많다.
- **북파지** : 회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북쪽으로 패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사관머루** : 박집산 북쪽에 있는 들판.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새배기논, 기새골논** : 새말 서북쪽의 긴 골짜기에 있는 고래실 논.
- **새터산** : 능모루 뒤편에 있는 산.
- **선두밭골** : 회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손맛이비낭산** : 충현탑이 있는 조그만 산. 신서면 도신리의 우봉김씨 효자행적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산골** : 회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안골** : 개녕군 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요골** : 새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윗골[上洞]** : 세류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는 옷물약수가 있다.
- **자작고개** : 회옥골에서 중면 합수리의 무조래로 넘어가는 고개. 예전에 이 고개 정상에 도둑과 호랑이가 들끓어 지나던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었다고 한다. 깊숙이 스며들거나 졸아든다는 뜻을 가진 '자작'이라는 뜻에서 '자작고개'라 불려지던 것이 차츰 변하여 자작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 **잔바다골** : 세류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이씨(公州李氏) 15가구가 살던 곳이다.
- **장골[長谷], 긴골** : 회옥골에서 국사봉까지 이르는 긴 골짜기.
- **절고개** : 와초리 도당말에서 상리의 망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개 중간 지점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나, 지금은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진응달고개** : 장골과 윗골 사이에 있는 고개. 낮에 해가 들지 않는 음지가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 **푸묵골** : 절고개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돈을 주조했던 곳이라 하여 '푸묵골' 또는 '풀무골'로도 불린다.
- **회골** : 국사봉 남쪽에 딸린 골짜기.

## 2) 상리(上里)

본래 연천현 동면의 지역으로 '웃골'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좌찬리(左贊里)라 하였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웃골'에서 이름을 따 한자식 지명인 '상리'라 하고 군내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



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고터동[庫垔洞]** : 신망리역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이 부근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보관했던 연천현의 읍창(邑倉)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 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다방거리(茶房巨里)** : 경원선 신망리역 동쪽에 있는 마을. 1954년 수복 후 군사지역이 되고 연천읍 관내에 최초로 다방들이 들어선 거리가 되며 지어진 이름이다.



〈다방거리 근경〉

- ◆ **새능** : 신망리역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큰 묘를 새로 썼다 하여 새능으로 부르고 있으나, 현재 그 묘는 확인되지 않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 **신망리(新望里)** : 경원선 서쪽에 형성된 마을. 이곳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5월 연천군 최초로 UN에 의해 피난민 정착 지역으로 지정되어, 미군 제7사단에서 3만 평의 부지 위에 1세대당 330㎡의 대지에 59.4㎡ 크기의 목조 가옥 100호를 계획적으로 건립하여 선착순으로 피난민을 입주시켰다. 당시 연천읍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이곳을 미군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의 신망리(New Hope Town)로 명명한 이름이 오늘에 이른다.
- ◆ **웃골[上洞]** : 밤골 위에 있던 마을. 상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 **쟁골[齋宮洞]** : 마정승 묘 서쪽에 있던 마을. 원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順帝, 1333~1367)의 황후였던 기황후(奇皇后)와 관련된 묘와 재실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까지 한양조씨(漢陽趙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좌찬이[左贊洞]** : 새능 북쪽에 있던 마을. 조선시대에 의정부 좌찬성 벼슬을 한 우계이씨(牛溪李氏)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큰밤골[栗洞]** : 필리핀군참전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황해촌(黃海村)** : 닭운이 남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닭운이[鷄鳴洞]** : 아랫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묘를 쓰려고 광중을 파니 그 곳에서 닭이 울며 나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산 안에 있는 마을'이다. 산은 고어 '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달'이 지금에 와서는 그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드물고 연철 음절과의 관계나 다른 낱말과 유사성으로 인하여 '닷'·'닥'·'답' 등으로 옮겨간 것이 대부분인데, 닭운이의 예에는 닭(山) + 안(內) > 다간 > 다그니 > 달그니 > 닭운이로 변한 것이다.
- **당이네구름** : 솟을봉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당인(唐人)이 살았다고 한다.
- **동묘고개[東墓峴]** : 원골에서 와초리의 능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동가(東家)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동이정골** : 망골 남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동이우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뚝피산** : 좌찬동 중앙에 있는 둥근 산.
- **등정골, 뒀정골** : 마정승 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망골** : 신망리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미래고개** : 필리핀군 참전비 앞에 있는 고개. 현재 324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 **미래골** : 신망리역 남쪽에 있는 골짜기. 미래고개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솟을봉** : 좌찬이 북쪽에 있는 봉우리. 중면 합수리와 경계를 이루며,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군자산과 옥녀봉으로 양 산맥이 갈라진다.
- **시랑말고개** : 쟁골에서 중면 합수리의 시랑말로 넘어다니는 고개. 시랑말에서는 '쟁고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 **아랫쟁골** : 닭운이 서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재궁동의 아래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외산부리** : 솟을봉에서 재궁동으로 뻗어 내려온 산부리.
- **원골[院谷]** : 뚝피산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조선시대에 관원과 나그네들이 이용하던 국영 여관인 송절원(松折院)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려시대에는 개경과 동주(철원),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함경도를 잇는 역로(驛路)가 이곳을 거쳐 철원도호부로 연결되었던 곳이다.
- **원모루[院隅]** : 현 상리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의 옛 이름으로, 고려~조선 초에 있었던 송절원의 앞에 있는 산모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장승과 주막이 있었으며, 부근에는 연주현씨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3) 현가리(玄加里)

원래 연천현 동면 가척리(加尺里)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척동과 현사동을 병합하여 현사동의 '현'자와 가척동의 '가' 자를 따서 현가리라 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가무사리(玄沙洞)** : 도당골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매산 홍직필의 후손인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가재울(加尺洞)** : 벼락바위 부근에 있던 마을. 한자 표시인 '가척동'은 가장자리의 사투리인 '가세'나 '가쟁이'를 한자로 옮겨쓰는 과정에서 실제의 뜻과 연관이 없는 '加尺' 또는 '佳尺'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가재울은 자탄천변의 '가장자리 언덕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국전쟁 전에 이 마을에는 진주강씨(晋州姜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도당골(陶唐洞, 청화동(淸華洞))** : 가무사리와 가재울 사이에 있는 마을. 조선 개국 초 고려 진사 금은(琴隱) 이양소(李陽昭, 1367~ ?)가 숨어지냈던 곳이다. 그의 고려조를 향한 불사이군의 높은 지조를 후세 사람들이 중국의 도연명에 비견할 만하다 하여 도연명이 은일한 곳인 '도당'에서 뜻을 따와 도당동이라 이름 지었고, 조정에서 내려준 그의 시호인 청화에 연유하여 청화동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여흥민씨(驪興閔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도당골 전경〉

- **곶** : 절텃골 앞에 있는 논. 귀가 진 구석의 모서리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진등** : 험가리와 군남면 옥계리의 경계가 되는 긴 산등.
- **매봉** : 험가리와 읍내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매사냥을 했던 곳이라 한다.
- **벼락바위** : 가재울 중앙에 있는 바위.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연천 지방에 심한 가뭄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때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구걸을 다니던 한 가족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바위에서 어린 자식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마침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부모는 벼락에 맞아 죽고, 넓은 형태의 바위는 지금의 모습처럼 깨져버렸다 한다.
- **선덩어리** : 도당동 중앙에 있는 둥근 산.
- **쇠주골[巢鳥洞]** : 도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숫돌봉** : 가재울 서쪽, 군남면 옥계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안골[安谷]** : 도당골과 가무사리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금은 이양소와 관련된 지명이다.

#### 4) 차탄리(車灘里)

원래 연천현 현내면 지혜동리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지혜동리를 차탄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군청·경찰서 등의 주요 행정 관청이 위치하는 연천군의 중심지이다.

- ◆ **앞시울[前谷]** : 차탄리 현충탑 서쪽에 있던 마을. 차탄리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지골[智惠洞]** : 해골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혜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불리고 있는 이름이다. 현재 지혜사 터에는 다양한 석탑유물들이 남아 있다.
- ◆ **해골[鶴洞]** : 군자산 동쪽에 있는 마을. 전설에 의하면 동막리 부물현에 곡성임씨가 선대 묘를 쓰려고 땅을 파니 광중에서 학이 나와 이곳으로 날아왔다 하여 해골이 되었다는 설과, 지형이 학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해골이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 온다. 한국전쟁 전에는 곡성임씨(谷城任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마터** : 농사시험장 남쪽에 있던 기와공장 터. 일제강점기 말에 통현리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추봉(秋峰) 박승철(朴勝哲, 1897~?)이 빈민구제를 위해 사비로 세운 기와벽돌공장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공굴다리** : 차탄천에 있는 경원선 철교의 옛 이름. 교각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차츰 ‘공굴’로 어휘가 변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 **군자산(君子山)** : 높이 327.8m의 산.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정상에 있는 산성과 성황당에 의해 연천의 진산(鎭山)으로 알려진 산이다.



〈군자산과 연천읍내 전경〉

- **꽃자봉** : 봉화봉 동쪽에 딸린 조그만 봉우리.
- **농사시험장자리** : 차탄천 동쪽의 3번 국도 옆에 있는 농사시험장.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도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의 소득자원연구소로 이용되고 있다.
- **덕녕이[德寧谷]** : 봉화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덕녕이등** : 군자산 남쪽에 있는 군남면 삼거리와 경계가 되는 산 등.
- **망곡산(望哭山)** : 연천역 서쪽에 있는 둥근 산. 구한말 고종과 순종의 국상 때 관내 유림과 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가 궁궐 쪽을 바라보고 기울어가는 국운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연천읍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연천현 관아의 안산(案山)이 되기도 한다.
- **봉화봉(烽火峰)** : 군자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44m.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뿡나무거리** : 연천군청 남쪽에 있던 밭. 일제강점기 때 잠업을 크게 장려하여 이 주위 모두가 뿡나무밭이 조성되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주변이 연천읍의 입구가 되어 차탄 장시가 열리고 주막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 **성지골구름** : 차탄리 봉화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수레여울, 수레울[車灘]** : 공굴다리 북쪽의 장진천에 있는 여울. 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도당 골에 은거했던 고려 진사 이양소를 만나기 위하여 연천으로 친행하던 태종의 어가(御駕)가 이 여울을 건너다 빠졌다 하여 '수레여울'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한다.





〈차탄천 수레여울 전경〉

- 연천역(漣川驛) : 망곡산 동쪽에 있는 경원선 역. 1914년 개통된 이 역은 한국전쟁 전 북한이 남침 준비를 위하여 설치했다는 탱크 하역시설과 급수탑 등의 근대건축물들 남아 있다.
- 용봉(龍峰) : 봉화봉 남쪽에 있는 봉우리. 군남면 왕림리와 경계가 된다.
- 제사공장터 : 현재 연천읍 시가지 시장거리에 있던 송포(松浦)제사공장 터. 일제강점기 때 건립되었으며 최고 전성기에는 250여 명이 넘는 종사자가 있었고, 태업 등 독립운동이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지금은 2·7일에 연천시장이 서는 곳으로 변해 있다.

## 5) 옥산리(玉山里)

원래 연천현 동면 지역으로 마을 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둥근 산이 있어 ‘오미’라 부르던 곳이었으나, 이의 한자 지명을 ‘玉山’으로 표기함에 따라 오늘날의 옥산리로 불리게 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에서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노지말 : 오미 남쪽에 있던 마을.
- ◆ 당뒤(堂後洞) : 당뒤산 아래에 있는 마을. 예전에 신당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불계동(佛溪洞) : 모정산 남쪽에 있는 마을.
- ◆ 안터(內垜) : 망두산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조선 후기 이곳에 은거했던 병조참

관 정래주(鄭來周, 1680~1745)의 후손인 동래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오미[五味洞]** : 당뒤산 남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의 집성촌이었던 곳이다. 마을 중앙에 따로 떨어져 있는 당뒤산으로 인하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라는 뜻의 '오미'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자식 지명인 '五味'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현 옥산리라는 지명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 **가장골산** : 모정산 남쪽에 있는 산.

• **감투봉** : 불견이고개 남쪽에 있는 봉우리. 동막리와 경계가 된다.

• **개새낭터** : 안터 남쪽에 있는 터.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골밭** : 소반번지 서쪽에 있는 밭. 전염병이 크게 돌 때 죽은 아이들을 이곳에 버려 향시 여우가 들끓었던 곳이라 한다.

• **관산이** : 다래우물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관산터** : 오미 마을에 있던 관선정 터. 『여지도서(輿池圖書)』 「연천현 고적조」에는, 이 정자에 대하여 “관선정은 연천관아에서 동으로 10리 거리에 있는데,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예전에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 하며 그 터가 남아 있다(觀仙亭 在縣東十里諺傳古有仙人游此云有遺基)”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주위에 밤나무·소나무 고목들이 우거져 있어 오미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던 곳이다.

• **관자골** : 사기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군논** : 관산터 옆에 있는 논. 옥산리에서 가장 크다 하여 '큰논'이라 불리다 차츰 '군논'으로 어휘가 변한 이름이다.

• **귀옹못** : 오미 남쪽의 차탄천 변에 있는 못. 소의 구유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매몰된 상태이다.

• **꽃봉산[花峰]** : 모정산 북쪽에 있는 차탄천 변의 경승지. 봄이 되면 이곳의 천연 절벽 위로 진달래·철쭉꽃 등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이산 아래에 위치한 차탄천의 꽃봉소는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과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는 깊이였다고도 전해 오며,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의 소풍 장소이기도 했다.

꽃봉산 정상에는 조선 후기 이곳에 우거한 참판 정래주가 건립한 모정(茅亭) 형태의 정자인 침류정(枕流亭)이 있었던 명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복 후 차탄천에 있던 보(淑)를 더 증고한 뒤부터 차츰 소가 매몰되어 지금은 옛 모습과 정취를 많이 잃은 상태이다.



〈차탄천 꽃봉소 근경〉

- **낭등치** : 가장골산 서쪽에 있는 벼랑.
- **다래우물** : 오미 동쪽에 있는 우물. 주위에 다래 덩굴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당뒤산(堂後山)** : 옥산리 종양에 있는 등근 산. 당뒤 마을의 뒷산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독바위** : 관자골 입구에 큰 항아리를 얹어 놓은 모양의 바위.
- **동굴산소** : 오미 남쪽에 있는 동그란 산. 윤씨의 묘가 있다.
- **동뫼** : 당뒤산 남쪽, 파평윤씨의 묘가 있는 산.
- **동산이골** : 옥산리 동쪽 조선 후기 백자요지가 있는 큰 골짜기.
- **등미** : 불계동과 안터 사이에 있는 목. 가장골 산등성의 끝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망두산** : 가장골산과 당뒤산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 승의랑 이분(李昉)의 묘에 있는 큰 망주석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후손인 이분의 묘는 최근에 군남면 왕립리로 이장되었다.
- **매골** : 관산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높고 험준한 바위가 많아 매가 번식하기 위해 새끼를 치던 둥지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매봉재** : 오미 동쪽에 있는산.
- **모정산(茅亭山)** : 꽃봉소 남쪽에 있는 등근 산. 정래주가 세운 ‘모정(茅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산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모정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은거당(왕징면 강서리 허목의 고택)과 함께 연천의 손꼽히는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다.
- **뫼골** : 동산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문바위골** : 동산이골 막바지에 있는 보개산의 골짜기. 큰 바위가 마주 대하고 있는 자연 석문(石門)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병무골 : 동산이골 중앙에 북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
- 불견이고개(佛見嶺, 佛峴) : 옥산리 사기막골과 신서면 내산리의 법화골 사이에 있는 보개산의 큰 고개. 이 고갯마루에서 옥산리·동막리·신서면 도신리·내산리로 경계가 나뉜다.
- 사무레이벌 : 모정산 남쪽에 있는 들판. 차탄천변에 퇴적된 모래로 이루어진 들판이라 지어진 이름이다.
- 삼태골 : 불견이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삼태기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삼태산 : 관자골 남쪽에 있는 산.
- 새터골 : 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금을 캐던 금광굴이 있는 곳이다.
- 성지물 : 오미동 북쪽에 있는 우물.
- 소반번지 : 새터골 입구에 있는, 소반처럼 생긴 버덩.
- 수리봉 : 감투봉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377.3m.
- 안터고개 : 당뒤산 동쪽에 있는 고개. 오미동과 안터 사이에 있다.
- 앞개울 : 상리와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차탄천의 다른 이름.
- 어두니골① : 병풍바위 아래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좁고 숲이 우거진 음지가 되어 항상 어두운 골짜기가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 어두니골② : 삼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좁고 음지가 되어 항상 어둡고 음침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작밭 : 안터고개 아래에 있는 밭. 자갈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조개못 : 귀웅못 옆에 있는 못. 민물 말조개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진밧결 : 당뒤 앞에 있는 밭. 땅이 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 병풍바위 : 어두니골 7부 능선 지점에 있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 수정이 난다고 하며, 임진왜란 당시 강씨들이 이곳에 피난했다 한다.

## 6) 읍내리(邑內里)

원래 연천현 현내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연천현의 관아가 있는 중심이 되어 읍내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군내면으로 개칭되면서 군내면 읍내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개천밭 : 솟대봉 북쪽에 있는 마을. 군자산에서 발원하는 작은 개천의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아랫말** : 연당자리 부근에 있는 마을.
- ◆ **남창말[南倉洞]** : 솟대봉 서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연천현에 딸린 창고인 남창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광무읍지(光武邑誌)』 창고조에 ‘남창 12칸이다(南倉十二間)’라고 간략한 규모만 적혀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밀양박씨(密陽朴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윗말** : 남창말 북쪽에 있는 마을.
- ◆ **윗샘골** : 연천향교 터 밑에 있는 마을. 두레박 우물이 있던 곳이다.

- **가재울고개[加尺峴, 邑峴]** : 읍내리에서 현가리의 가재울로 넘어가는 고개.
- **관사터** : 아지봉 동쪽에 있던 조선시대 연천현감의 관저. 현재는 민가가 있다.
- **괴모골고개** : 며치골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 **괴목골고개** : 읍내리에서 군남면 옥계리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 90번 군도가 나 있다.
- **구읍논** : 망곡산 서쪽에 있는 고래실논. 읍내리에서 가장 좋은 논으로, 봄에 한 되의 종자를 심어 한 섬의 수확을 거두었던 우량 논이었다 한다.
- **기우제터** : 읍내리 서쪽, 아지봉 산록에 있던 기우제 터. 조선시대에 가뭄이 심하게 들면 읍내리 주민들이 기우제를 올렸던 곳이라 한다.
- **매봉** : 읍내리와 현가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떡적골고개** : 읍내리에서 차탄리 지혜동의 막바지로 통하는 고개.
- **며치골고개** : 읍내리에서 군남면 선곡리의 며치골로 통하는 고개. ‘작은고개’라고도 한다.
- **부군터** : 매봉 남쪽, 부군나무가 있던 자리. 한국전쟁 전까지 무속인들이 부군굿을 올렸던 곳이라 한다.
- **샘고개** : 괴목골고개 서쪽에 있는 고개. 90번 군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이 고개를 넘어 군남면의 옥계리로 넘어 다녔다.
- **솟대봉** : 읍내리에 있는 산.
- **쇠공터** : 아지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어떤 소경(장님)이 약수를 마시고 눈을 떴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아랫샘골** : 연천현감 김잠(金岑)의 묘가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와 망곡산 남쪽에 있었던 마을을 ‘작은향교골’이라 하였고 연천현의 선정비들이 있다.
- **아지봉(阿只峰)** : 읍내리 서쪽에 있는 봉우리. 연천현의 진산인 군자산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군자산에 비하여 작은 봉우리라 하여 ‘작은’, ‘낮은’ ‘아기’의 뜻을 가진 ‘아지’에서 음을 취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연당자리** : 솟대봉 아래에 있던 연못. 예전에 연꽃이 많이 자생했다 하여 불리던 이름으로, 연천현감을 역임했던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이 건립한 정자인 사미정(四美亭) 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논으로 변해 있다.



- **연천관아터** : 솟대봉 북쪽에 있던 조선시대 연천현의 관아 터. 조선 태종 조에 새로 건립된 연천관아는 『광무읍지』에 따르면 관아의 규모는 79칸의 10동 건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강점 후 철도가 부설되고 1913년 차탄리 현재의 군청자리로 일제에 의해 군청사가 신설되자 관아 건물은 차츰 퇴락, 철거되었고 지금은 농경지와 민가로 변해 있다.



〈연천현 관아터 전경〉

- **움푹배미** : 연천관아터 옆에 있는 움푹 들어간 논.
- **지골고개[智惠峴]** : 지척골에서 차탄리 지혜동으로 넘어 다니는 고개.
- **지척골** : 핑구너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축동자리** : 읍내리 개천말 부근에서 효자문까지 남북으로 있던 축동나무 자리.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읍내리의 지형은 차탄천으로 인하여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어, 이곳에 지기를 돕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도록 축동(築洞)나무를 인공적으로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이곳에 있던 밤나무·전나무 고목들을 모두 베어 버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큰고개** : 읍내리 남창말에서 군남면 선곡리로 넘어다니는 고개.
- **핑구너머** : 지척골 남쪽에 있는 산등성이. 읍내리에 연천현의 관아가 있었을 때 얼음을 보관 하던 저장고인 석빙고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효자문(孝子門)** : 연천관아터 동쪽에 있던 효자문 자리. 효자문에 얽혀 있는 사연은 자세히 알 수 없다.

## 7) 동막리

원래 연천현 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내면에 편입되었

고, 1945년 해방 직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조선 초부터 분청사기, 백자 등을 굽던 가마터 많이 산재하여 ‘독막[陶幕, 壅幕]’으로 불리다가 차츰 어휘가 변하여 ‘동막’으로 굳어져 원래의 뜻과는 무관한 한자식 명칭인 ‘동막리(東幕里)’가 된 곳이다.

- ◆ **동막골(東幕洞)** : 부물현 동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 **둔치** : 동막골 동쪽 둔덕에 있는 마을.
- ◆ **망근도리** : 동막리 태실 옆에 있는 마을. 지형이 머리에 쓰는 망건처럼 생겼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 ◆ **병골(富興洞)** : 자라바위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이 살던 마을이었다.
- ◆ **부물현(復武夷洞)** : 입장서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중국 남송의 사상가 주자(朱子)가 생장한 무이촌과 흡사하다 하여 ‘또 하나의 무이촌’이라는 뜻의 부무이동으로 명명하고 또한 동막리 아미전을 무이구곡으로 경물화하여 주자성리학의 명소로 승화하여 널리 알려졌던 곳이기도 하다. 1713년(숙종39)에 사액된 입장서원은 이러한 이유로 조선 후기 연천 일원의 노론계의 학맥과 사상이 교류하던 중심공간 역할을 하며 주자를 주벽으로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게 된다. 한국전쟁 전에는 곡성임씨가 큰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부물현 마을의 입장서원과 양금재봉 전경〉

- ◆ **삼봉동(三峰洞)** : 중수꾸미 북쪽에 있던 마을.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샘골[泉谷]** : 태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샘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마을이 새로 들어섰다고 한다.
- ◆ **왜둔치[瓦屯洞]** : 여내골 동쪽에 있던 마을. 가까운 심원사의 불사를 위해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하여 ‘기와말’이라고도 불렀으며, 현재는 군 유격장이 있다.

- **가마소** : 독조골에 있는 소. 모양이 가마솥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감투봉** : 수리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
- **기차바위** : 가마소 동쪽에 기차처럼 생긴 바위. ‘줄바위’ 라고도 한다.
- **납시내골** : 둔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납시를 즐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너벽소** : 풍혈 북쪽, 아미천에 있는 넓은 소.
- **도장골** : 태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도장 주머니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독조골** : 동막동에서 새매기까지 있는 큰 골짜기.
- **동이점모퉁이** : 삼봉동 남쪽에 있는 모퉁이. 옛날에 동이를 굽던 옹기요지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등정거리** : 동막리산성에서 샘골로 뻗어 내려온 산등.
- **반나저리소** : 너벽소 아래에 있는 아미천의 소.
- **밤나무골** : 자가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
- **버섯바위** : 독조골 중앙에 있는, 버섯처럼 생긴 바위.
- **별바위골** : 청소년수련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어떤 사람이 별을 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별봉** : 동막동 동쪽에 있는 바위 봉우리. ‘털봉’이라고도 한다.
- **병바위** : 풍혈 서쪽에 있는 바위. 부엉이집이 있다 하여 ‘병바위’로도 불린다.
- **법화골[法華洞]** : 불건이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비아골** : 임장서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새매기** : 독조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서낭댕이** : 용수꾸미 동쪽에 있던 서낭당 터.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성재[城嶺]** : 병골에서 부곡리 가마골로 넘어가는 보개산의 고개. 동막리 산성의 뒤에 있는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수리봉** : 새매기 북쪽 옥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477m.
- **신주바위** : 왜둔치 남쪽, 아미천 변에 수직으로 솟은 넓고 큰 바위.



- **아미천(峨嵋川), 동막골개울, 구곡천(九曲川)** : 신서면 내산리의 고대산에서 발원하여 차탄천으로 합류하는 준용하천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동막리 입구에서 내산리 십원사까지 이르는 동안 열두 번을 곡류한다 하여 일명 ‘열두구비개울’이라고도 불렀다. 입장서원과 관련한 무이구곡의 배경이 되는 명소이며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다.
- **애기봉** : 샘골 남쪽, 통현리와 경계에 있는 작은 봉우리.
- **애미내벌[峨嵋川坪]** : 부물현 남쪽에서 차탄천까지 펼쳐진 들. 아미천이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양금재봉(養金財峰)** : 동막동 북쪽에 있는 뾰족한 보개산 내의 봉우리. 높이 310m. 일설에는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지만, 중국의 고부현 무이촌과 지형 조건이 흡사하다 하여 지명을 그대로 옮겨와 명명한 이름이다. 그러나 중국 무이촌의 한자표기는 현재의 표기와는 다른 ‘양금령(陽琴嶺)’이다.
- **여내골** : 감투봉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얕다’는 뜻의 방언인 여내에서 따온 이름이다.
- **열두고랭이** : 수리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감투봉에서 뻗어 내린 산 등이 열두 개가 된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옛날소** : 서당당이 남쪽에 있는 소. 현재 매몰되었다.
- **오리터** : 입장서원 서쪽에 있던 큰 연못. 예전에는 오리들이 떼 지어 놀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해 있다.
- **오피고개** : 독조골에서 삼봉동으로 넘어다니던 고개.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에서 사격장 관측소(OP)를 세웠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웃우물** : 샘골 서쪽에 있는 약수. 웃오른 데 효험이 있다 한다.
- **용수꾸미** : 부물현 동쪽, 아미천에 있는 약 4m 깊이의 소. 큰 바위굴이 있어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 왔으나, 현재는 매몰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자가골** : 양금재봉 동쪽에 딸린 골짜기.
- **자라바위** : 삼봉동 북쪽 아미천에 있는 자라 모양의 큰 바위.
- **작은왜골** : 왜둔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장가물** : 용수꾸미 동쪽에 있던 우물. 장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이곳 약수를 매일 마셨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매몰되어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중수꾸미** : 삼봉동 앞에 있는 큰 소.
- **지당물** : 현 동막리 유원지에 있는 소.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어 이 소의 물로 매일 불전에 다례를 올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찬우꾸미[攢翠巖]** : 삼봉동에 있는 명승지. 『광무읍지』에는 “찬취암은 연천관아에서 동쪽으로 10리쯤에 있는 경승지로 층층이 쌓여 있는 크고 험한 바위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서 있는 형상인데 일명 ‘삼봉암’이라고도 한다. 주위의 골짜기는 깊고 그윽한데 그 사이를 흐르는

아미천의 깊고 푸른 물은 바위 위에 피어난 많은 꽃들과 골짜기의 푸른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경치는 가히 선경이라 할 만한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심한 가뭄이 들면 연천현감이 보개산에 기우제를 지내는 기우단이 있다(攢翠巖 在縣東十里許層巖鼎峙一名三峰巖洞壑深邃溪潭湛泓巖花澗松景致殊絕有祈雨壇)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연천현감직에 있었던 윤두수가 이곳의 경치에 매료되어 찬취암이라 명명했다는 기록도 있다(攢翠巖 在寶蓋山上高聳蒼翠通望遠近本朝尹斗壽縣監時遊其上名之). 이밖에 조선 후기 연천현감을 역임했던 신유한(申維翰)의 문집인 『청천집(靑泉集)』에 있는 「찬취암기(攢翠巖記)」, 「보개산천기우문(寶蓋山川祈雨文)」 등의 기록에도 이곳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근에는 이 주변이 개발되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유원지로 자리 잡았다.



〈아미천 찬취암 근경〉

- **큰골** : 동막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왜골** : 왜둔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왜골에 상대되는 지명이다.
- **풍혈(風穴)** : 동막동 남쪽에 있는 천연 바위굴. 전체 깊이 16m, 높이 2.2m. 무더운 여름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찬 공기가 흘러나오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그 주위에 얼음이 얼지 않고 따뜻한 김이 솟아오르는 기현상을 보이는 곳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추운 바람이 흘러나오는 이곳에다 잠종(蠶種) 1,000여 매를 저장했다고 한다. 지질학으로는 주변의 백악기고기 화산암지역에 형성된 국부적인 너털지대의 특이지형에 속하여 법정보호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 **피묵골** : 별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항막술** : 양금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항막골'로도 불린다.
- **호랭이굴** : 자가골 남쪽에 있는 바위굴, 예전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 8) 통현리(通峴里)

본래 연천현 현내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으로 개칭하면서 통현리라 하여 군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건쟁이[乾貞澗], 팔판서마을** : 통재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이전까지 강릉김씨 25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으로, 조선 후기까지 정승과 8명의 판서가 배출되는 등 강릉김씨의 권세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민간인은 살지 않는다.
- ◆ **고포리** : 통현리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당시 마을 앞 벌판에서 곡사포 부대가 주둔하였고, 이후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자 부대장이 곡사포 부대와 인연이 있다 하여 고포리라고 명명하였다. 현재 통현2리 지역이다.
- ◆ **새말[新村]** : 통재 북쪽에 있던 마을. 일제강점기 초에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통재[通峴]** : 통현리와 동막리, 차탄리 경계에 있는 마을이자 고개. 현재 3번 국도가 나 있고, 한국전쟁 전에는 주변에 전주이씨가 많이 살았다.
- **가래나무골** : 가사평에 있는 우묵한 골짜기.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가마봉[釜峰]** : 건쟁이 동쪽에 있는 봉우리. 외형이 가마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고문리와 경계가 된다.
- **가사평[架娑坪]** : 통재 남쪽에 전곡리까지 펼쳐져 있는 연천군에서 가장 넓은 들판. 일제강점기 김성수의 해동농장에 의해 논으로 개간되었던 곳이다.
- **고돌이** : 김침경 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금장골고개** : 금장골에서 고포리로 넘어가는 고개.
- **금장골** : 통현리 지석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남봉고개[南峰峴]** : 통현리와 고문리 사이에 있는 고개.
- **능골** : 흙방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강릉김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능안[陵內]** : 김시환 묘 서쪽에 있는 골짜기. 회인현감 김종윤(金宗胤), 예조판서 김시환(金始煥) 등 조선 후기 강릉김씨 문중의 큰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방매** : 김상익 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배산[舟山]** : 통재 서쪽, 차탄리와 경계에 있는 둥근 산. 높이 92.7m. 배가 물 위에 떠 가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여지도서』에는 산 중앙에 깊은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군부대가 오랫동안 주둔하고 형질이 변경되어 지금은 우물을 찾아볼 수 없다.
- **비석거리** : 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도로 옆에 조선 중기 전옥서 봉사를 역임한 김득원(金得元)의 신도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수달피굴** : 통재 서쪽, 장진천 절벽에 위치한 천연 굴. 한국전쟁 전까지도 수달이 서식했었다고 한다.
- **수리봉** : 건쟁이 남쪽에 있는 봉우리.
- **애기봉** : 김상성 묘 북쪽에 있는 봉우리.
- **오봉고개[五峯峴]** : 건쟁이에서 고문리 오봉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위리지** : 새말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오로지’라고도 불린다.
- **작은금장골** : 통현리 지석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흙방골** : 고포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9) 고문리(古文里)

원래 연천현 현내면 무수동리 지역이었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무수동리를 고문리로 개칭하고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가래동** : 장승모루 동쪽에 있는 마을.
- ◆ **고문리[古文洞]** : 토토봉 동쪽에 있던 마을. 원래 고문2리의 중심지였으나 한탄강댐 준공 이후 수몰지에 해당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 ◆ **느른모루** : 아랫삼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낮은 모퉁이’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풀무산과 연관시켜 대장간의 연모인 ‘모루’와 같다 하여 풍수지리설을 대입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한자로는 ‘만우동(晩隅洞)’으로 쓰고 있다.
- ◆ **무시울[無愁洞]** : 아랫삼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무수·‘무시’의 땅이름을 가진 곳은 공통적으로 물과 관련이 있다. 물의 고어는 ‘믈’·‘뫼’·‘뫼’·‘뫼’로 발음과 표기가 되어왔는데, 무시울의

어근은 ‘뫓’에서 찾을 수 있으며 뫓 + 울 = 뫓(의)울 > 무식울 > 무시울로 변한 것이다. 즉, 무시울의 뜻은 ‘마을 밖으로 한탄강이 크게 휘돌아 흐르는 곳’으로 풀이 되어야 하는데,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과 관련이 없는 ‘무수’로 표기한 것이다.

- ◆ **번드리[返道洞]** : 폐교된 고문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고문1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 들이 번듯하고 넓다 하여 ‘번 + 들’이 번들이 > 번드리가 되었으나, 한자로는 ‘반도동’으로 표기되고 있다.
- ◆ **오봉동(五峰洞)** : 오봉사지 입구에 있는 마을.

- **가마봉[釜峰]** : 오봉고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통현리와 경계가 되며 가마와 비슷한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귀용소** : 가래동 남쪽, 한탄강에 있는 소. 소의 먹이통인 구유 모양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꽃창모루** : 무시울과 번드리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 어떤 사람이 이곳에 선대 묘를 쓰고 주위에 진달래·철쭉·개나리 등의 꽃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자 매년 봄이 되면 만개한 꽃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납은절골** : 오봉사지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오봉사에 속한 절이었으나 빈대로 폐사가 되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남봉고개[南峰峴]** : 고문리와 통현리 사이에 있는 고개.
- **당재너머** : 오봉동에서 무시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덕고개** : 아랫삼거리에 있는 고개.
- **무엄밭골** : 오봉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북호낭** : 작은 토토봉 북쪽에 있는 긴 낭떠러지 벼랑.
- **불탄소** : 번드리 동쪽, 한탄강에 있는 큰 소. 현재 농업용수 취수장이 있다.



〈고문리 한탄강의 불탄소와 양수장〉

- 붉은덕고개 : 느른모루에 있는 고개.
- 붉은데기(赤峴) : 느른모루 동쪽에 있는 산등성이. 흙빛이 붉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삼거리 : 폐교된 고문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삼거리. 무시울·재인폭포·신답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 된다.
- 선바위 : 수리봉 남쪽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위.
- 수리봉 : 남봉고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 썰래터 : 작은토토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아가바위골짜기 : 장승모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아랫삼거리 : 느른모루 동쪽에 있는 삼거리. 통현리·고문리·신답리로 갈라지는 길목에 해당된다.
- 안장봉(鞍峰) : 오봉사지 뒤편에 있는 봉우리.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연당(蓮堂) : 고문리 중앙에 있는 집.
- 오봉고개(五峰峴) : 오봉동에서 통현리의 건쟁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월배미골 : 김계하(金啓河) 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토토봉 : 토토봉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 장승모루 : 진사래밭 북쪽에 있는 모퉁이.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 진사래밭 : 번드리 동쪽에 있던 긴 밭.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토토봉 : 고문동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높은 봉우리. 높이 411.2m. 산이 특이하게 툽 솟아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허궁다리(虛空橋) : 오봉사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돌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 큰 사찰이었던 오봉사와 관련한 불교 지명이다.

## 10) 부곡리(釜谷里)

본래 강원도 철원도호부 관인면의 하리(下里) 지역인데 1906년(광무10) 9월 24일 「칙령 제 49호」에 의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부곡리라 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 12577호에 의하여 연천읍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부곡리는 한국전쟁 이후 전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 편입된 곳으로, 현재 민간인이 살지 않는 보개산 내의 특수지역이다.

- ◆ **문지터[文址基]** : 다락터 서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셋말** : 다락터와 문지터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
- ◆ **안터[內垔]** : 가마봉 남쪽에 있던 마을.
- ◆ **점말[店村, 沙器幕]** : 두태봉 북쪽에 있던 마을. 조선 초기에 번성했던 분청사기와 백자 가마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지장골[地藏洞]** : 점말 북쪽에 있던 마을. 신라 말에서 조선 초까지 지장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칠평목이[葛項洞]** : 가마골 동쪽의 벌판에 있던 마을. 예전에는 칠평굴이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인동장씨(仁同張氏)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가는골** : 큰농바위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가마골[釜谷]** : 재인폭포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골짜기 안에 숯가마가 많았기 때문에 가마골이라 붙여졌다고 하지만 원래는 ‘크다’는 뜻의 고어 ‘감’이 골과 합하여 ‘감골’이 되었다가 매개모음 ‘이’를 개입시켜 ‘감의골’이 되어 ‘큰 골짜기’라는 뜻인 ‘가마골’로 명명되었다가 이것이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곡(釜谷)’으로 표기된 것이다. 또한 가마골은 재인폭포에서 다라미고개까지의 ‘큰골’과 그 왼쪽인 ‘작은골’을 합친 전체의 큰 골짜기 이름이기도 하며, 한국전쟁 전에 전주이씨들이 살았고, 관안면이 철원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최초의 관안면사무소가 설치된 곳이기도 했다.
- **가마봉[釜峰]** : 재인폭포 동쪽에 있는 가마처럼 생긴 바위 봉우리. 높이 282m.
- **가마소[釜沼]** : 재인폭포 위에 있는 소. 가마솥처럼 동그랗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가치목[加齒項]** : 가마골의 큰골과 지장골 사이에 있는 보개산의 고개 목.
- **가치목골[加齒項谷]** : 원적사지 동쪽, 가치봉 밑에 있는 골짜기.
- **가치목골** : 뒷골 북쪽, 가치봉 쪽으로 있는 골짜기.
- **가치봉[加齒峰]** : 가치목 남쪽에 있는 보개산의 바위 봉우리. 치아처럼 생긴 길고 큰 바위들이 열지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개옷약수** : 문지터 남쪽에 있는 한탄강 현무암 수직 절벽의 약수. 많은 물이 폭포처럼 장관을 이루며 떨어지는 약수폭포는 한국전쟁 전까지도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 명소이다.
- **검은박골** : 지장사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과바위[過岩]** : 큰골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예전에 다라미고개로 올라가자면 바위 밑을 모퉁이를 지나가듯 돌아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바위 옆으로 직선의 비상 도로가 나 있다. 주변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 **과바위골짜기** : 과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구들떼기 : 두태봉 동쪽에 있는 둔덕. 한국전쟁 전까지도 이곳에서 나는 구들돌을 주변 마을에서 많이 캐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나막골 : 외나무다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날가리바위[露積岩] : 가마봉 남쪽, 한탄강변에 있는 큰 바위.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노적거리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다라목골 : 지튼골 북쪽, 다라미고개에 딸린 골짜기.
- 다라미고개 : 가마골에서 신서면 내산리 절골로 통하는 보개산의 높고 큰 고개. 고구려어 계통에 많이 나오는 산의 옛 음인 ‘달’이 달아 > 다라로 음이 변하는 과정에서 산의 원음인 ‘뫼’가 발음 습관에 따라 변한 ‘미’를 합하면서 달뫼가 다라+미+고개로 합성되어 ‘다라미고개’, 즉 ‘높이 솟아 있는 산 사이로 있는 고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라미현(多羅美峴)’으로 한자 표기가 되어있다.
- 다락터[樓臺] : 한탄강 북쪽 고려 고분군 주위에 있던 마을. 예전에 누각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지만 누각과 관련한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의미는 산의 고어 ‘달’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종자산·가마봉·보장산 등이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보개산 남쪽의 산촌으로, 어휘가 변하여 오늘의 다락터로 불리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터 > 달아터 > 다라터 > 다락터.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 떨어령바위 : 지장동 입구에 있는 바위. 높이 약 8m. 바위 상단에 천연적으로 올려져 있는 바위 모양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같이 들려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90년대 중반 군에서 작전도로를 개설할 때 훼손시켜 지금은 볼 수 없다.
- 돌고개 : 과바위 북쪽에 있는 고개. 원적사지까지 오르는 일부 구간에 돌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두태봉(頭泰峰) : 칠포이 동쪽에 있는 봉우리. 정상 부분이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뒷골 : 점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명지미기 : 무당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무당소 : 작은골 중앙에 있는 소.
- 문바위골 : 큰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병풍바위[屏風岩, 赤壁] : 웅장골 안에 있는 병풍처럼 생긴 큰 바위. 바위 색깔이 붉어 ‘붉은벽 낭’으로도 불리며, 한국전쟁 전까지도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 북대(北臺) : 삼형제바위 서쪽에 있는 봉우리. 포천시 관인면 증리와 경계에 있다.
- 불당골[佛堂谷] : 명지미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 암자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불선바위골 : 웅장골 안에 있는 골짜기. 큰 바위가 부처가 서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사기막고개[沙器幕峴]** : 부곡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경계에 있는 고개. 사기점으로 넘어다니는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사기터골** : 부곡리 백자요지 옆에 있는 골짜기. 조선 후기 경영되었던 사기점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사태나무골** : 문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터** : 해골 북쪽에 있는 산제 터. 한국전쟁 전까지 가마골 주민들에 의해 매년 정월 초에 소를 잡아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원인 모르게 부러져 전쟁을 예고한 영험한 나무였다고 한다.
- **삼형제바위[三兄弟岩]** : 지장동 북쪽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바위. 마치 삼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새대기** : 가치봉 남쪽에 있는 넓은 평지. 역새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성령(城嶺)** : 작은골에서 동막리 범골로 넘어가는 고개. 동막리 산성의 뒤에 있는 고개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성지골** : 큰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
- **수내미** : 큰골 가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숫돌바위** : 과바위 위에 숫돌처럼 생긴 바위.
- **용장골** : 지장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외나무다리골** : 과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 입구에 외나무다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일방아골** : 무당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골** : 가마골 안에서 서쪽으로 있는 큰 골짜기.
- **작은농바위골, 작은은바위골** : 성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농작 같은 큰 바위가 있다.
- **작은두목골** : 점말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재인고개[才人峴]** : 재인폭포에서 침목이로 넘어가는 고개.
- **재인폭포[才人瀑布]** : 가마골 입구에 있는 용암대지에 있는 폭포. 높이 18.5m. 이 폭포에는 고을 원님의 탐욕으로 인한 어느 재인의 죽음과 그 아내의 정절을 담은 이야기와 이와 상반되는 전설이 『여지도서』에 소개되어 있다.

옛날 어느 원님이 재인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현재의 재인폭포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양쪽 절벽에 외줄을 걸어 광대줄을 타게 한 후 줄을 끊어 죽게 하고 재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절개 굳은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강압적인 수청을 들면서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하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광대인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어뜯다 하여

‘코문리’라 칭하게 되었으나 차츰 어휘가 변하여 지금의 ‘고문리(古文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인 『여지도서』 연천현 산천조에는, “재인폭포는 연천 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인 원적사(圓寂寺) 동구에 있는데, 벽립해 있는 양 절벽 사이로 수십 길 높이를 수직으로 흐르며 떨어진다. 옛날에 재인이 마을 사람과 함께 폭포 아래에서 놀다가 그 마을 사람 아내의 미모가 뛰어난 고로 흑심을 품은 재인이 자기 재주를 믿고 그 자리에서 장담하며 말하기를 ‘이 절벽 양쪽에 외줄을 걸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은 재인의 재주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내기에 걸게 되었다. 잠시 후, 재인은 벼랑 사이에 놓여 있는 외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춤과 기교를 부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지를 걸어가듯 하자, 재인이 외줄의 절반 정도를 지났을 때 마을 사람이 줄을 끊어 버려 재인을 수십 길 아래로 떨어져 죽게 하였다. 이 일로 이 폭포를 재인폭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고 관찬 지리지의 시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 재인폭포는 보개산과 한탄강이 어울리는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맑은 물로 인하여 사시 사철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지질경관 명승지이다.

- **절터밭골** : 지장사지 옆에 있는 골짜기.
- **종자산(種子山)** : 두태봉 동쪽에 있는 보개산 내의 산. 높이 642.8m. 포천시 관인면 중2리와 경계에 있다. 아주 옛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산 정상에 간장종지[種子] 만큼 남았다 하여 지어진 대역자의 한자 이름이다.
- **지튼골** : 원적사지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찍찍골** : 과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찬물내기** : 병풍바위 옆에 있는 좁은 골짜기. 얼음처럼 차가운 약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초막골[草幕谷]** : 가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초막이 있었다 한다.
- **총대여울** : 안터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사이에 있는 한탄강 여울. 현무암 너래가 깔려 있어 수십이 얇은 곳이다.
- **큰고개** : 지장골에서 포천시 관인면 중리의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
- **큰골** : 재인폭포에서 다라미고개 정상까지 있는 큰 골짜기.
- **큰농바위, 큰은바위골** : 작은농바위골 위에 있는 골짜기.
- **큰두목골** : 두태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통막골** : 작은골 안에 있는 골짜기.
- **퍼령소** : 원적사지 남쪽에 있는 소. 약 5m 높이의 퍼령소폭포 밑에 있는 이 소는 한국전쟁 전에 가마골 내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지를 자랑했던 곳으로, 이 소에 명주실을 담그면 고문리 한탄강에 있는 귀웅소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 작전도로가 나면서 지

금은 옛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

- **해골** : 재인폭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향로봉(香爐峰)** : 지장동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616m. 모양이 향로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향로봉골짜기** : 문바위골 남쪽, 향로봉에 딸린 골짜기.
- **홀짜골** : 통막골 위에 있는 골짜기.

## 2. 전곡읍(全谷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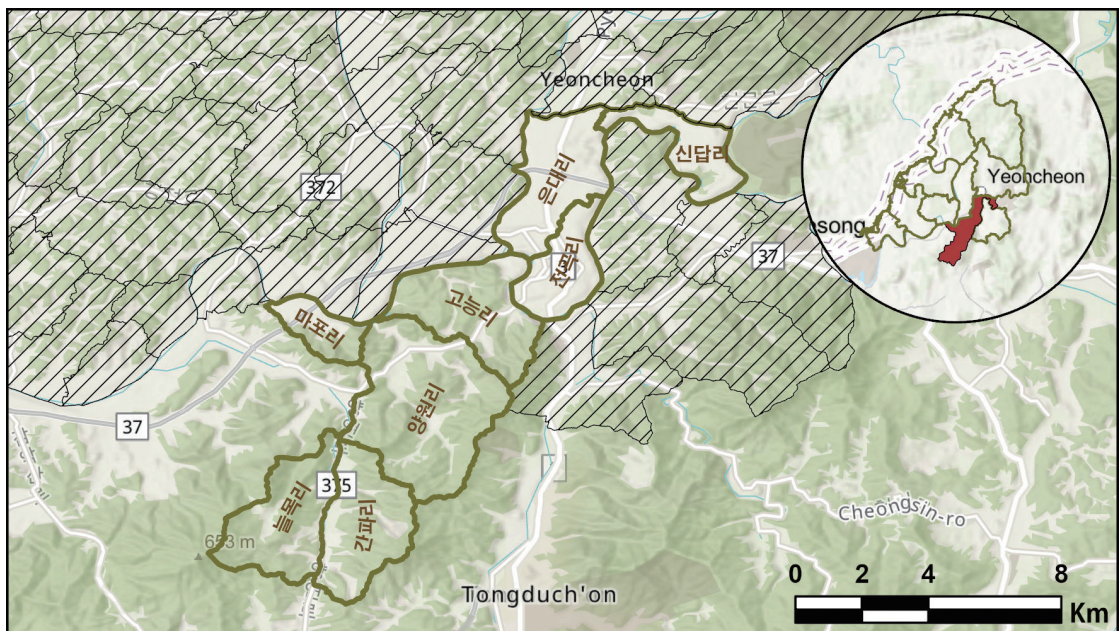
전곡읍은 본래 조선시대 양주목에 속했던 영근면(嶺斤面) 지역으로, 은대리(隱垞里)·명천리(明川里)·전곡리(全谷里)·사랑리(沙浪里)·고탄리(高灘里)·신답리(薪畓里)·능동리(陵洞里)·고산리(高山里)·하원리(下遠里)·상원리(上遠里)·마포리(馬浦里)·간파리(干坡里)의 12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면 폐합에 따라 적성군(積城郡) 동면(東面)의 적암리(赤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은대·전곡·신답·고능·양원·마포·간파의 7개 리로 개편하고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41년 10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의하여 전곡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해방으로 3·8선 이남 지역인 양원리·간파리는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고 그 외 5개 리는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으로 3·8선 이북 지역이 수복된 후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적성면의 늘목리를 편입하여 8개 리가 되었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전곡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쪽은 청산면과 동두천시, 남쪽은 양주시 남면·은현면, 서쪽은 미산면·군남면과 파주시 적성면, 북쪽은 연천읍과 경계를 이룬다.

읍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는 은대3리(은전로45)에 위치하며 2023년 1월 1일 기준 16개 행정리 218반에 인구는 18,690명이다.

전곡리와 은대리는 연천군 내의 최고 인구와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다.





## 1) 전곡리(全谷里)

본래 양주목의 영근면 지역으로 용암대지의 땅이 몹시 질어 '진곡'이라 불리던 곳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랑리와 고탄리, 그리고 전곡리 일부를 합쳐 진골을 한자로 새롭게 작명하여 전곡리라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행정수복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높은여울[高灘洞]** : 전곡읍 내 동북쪽, 한탄강 언덕에 있는 마을. 예전에 이곳에 턱이 높고 긴 여울이 있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나, 고탄교 가설 후 여울이 없어졌다. 한국전쟁 말기에 미군 공병대 의해 세워진 에반스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 ◆ **사랑동(沙浪洞), 사랑이** : 한여울다리 북쪽, 전곡선사박물관 남쪽에 있는 마을. 땅이 한탄강 범람으로 축적된 모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여양천씨(驪陽天氏)가 30호 정도 살았다고 한다.
  - ◆ **새포촌[新浦村]** : 동섬 북쪽의 한탄강변에 있는 마을. 일제강점 초기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내에 있어 많은 공공휴양시설이 들어서 있다. 전쟁 이전에는 15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 ◆ **서덜말** : 현 전곡역 서북쪽에 있던 마을. 지금은 전곡 읍내의 중심지이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현무암으로 된 큰 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성주개** : 전곡역 동쪽에 있는 한탄강 벼랑 위의 마을.
  - ◆ **점터(店堡)** : 고탄동에 있었던 마을. 해방 전까지도 요업이 번창했던 곳이다. 당시에는 서해·강화 등지에서 임진강을 통하여 한탄강까지 올라온 새우젓·소금 배들이 이곳의 옹기·곡물 등과 물물교환을 하는 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전곡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 **고로지** : 전곡 시가지 동쪽에 있는 협곡처럼 생긴 개울. 은대리와 경계가 된다.
  - **낚은터** : 원모통이 서쪽에 있는 터.
  - **동섬** : 사랑이 서쪽의 한탄강 가운데 있던 섬. 지금은 없어졌다.
  - **판덩굴** : 고탄동 남쪽에 있는 경원선 굴다리 부근의 지명.
  - **말무덤자리** : 전곡리 남쪽에 있던 무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말을 묻은 무덤이라 하나 지금은 밭으로 개간되어 없어졌다.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 **부처낭[佛崖]** : 사랑이 북쪽에 펼쳐진 현무암 석벽. 예전 이곳에 부처를 모신 석벽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밤나무골** : 성주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사무랭이** : 넓은터 남쪽, 한탄강변에 있는 모래사장.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쌓인 모래·자갈로 이루어져 지어진 이름이나, 지금은 골재 채취로 인해 하상이 변경되어 형태가 변화였다.
- **원모퉁이** : 말무덤 남쪽에 있는 모퉁이. 고려시대 국영여관인 원이 이 주변에 있었다 하여 지어진 모퉁이 이름이다.
- **큰솔밭산, 진솔밭산** : 부처낭 위에 있는 둔덕.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이곳에 큰 소나무가 길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하여 유래되었다.
- **한여울[大灘]** : 전곡리와 초성리 사이에 있는 한탄강의 큰 여울. 한탄강 본류 가운데 가장 넓고 큰 여울이 되어 크다는 뜻의 우리말 ‘한’과 여울의 한자어 ‘탄’자를 합성하여 대탄이라 하였다가, 일제강점 이후 한탄강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행정명칭으로 쓰게 되면서 이 여울에서 이름을 따와 강 이름이 되었음. 경기 북부에서 물류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나루터가 있었음.



〈한탄강 한여울 전경〉

- **한여울다리[大灘橋, 漢灘橋]** : 한탄강 국민관광지에서 청산면 초성리로 건너는 한탄강의 다리. 1914년에 개통된 경원선 철교와 2개의 다리가 있다.

## 2) 은대리(隱垞里)

본래 양주목 영근면 지역으로, 고려 멸망 후 김양남(金揚南)이 불사이군의 절개로 음터[隱垞]에 은거했다는 고사에 의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명천리·전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은대리라 하고 연천군에 편입된 이후 오늘에 이른다.

- ◆ **개와막[瓦幕]** : 선바위 부근에 있는 마을. 일제강점기에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구호주택** : 전곡읍 사무소 북쪽에 있는 마을(은대3리). 한국전쟁 후 수복지구가 되면서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택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네즈뵈** : 명천동 북쪽에 있던 마을. 옛날에 네 집이 모여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명천동(明川洞)** : 선바위 북쪽에 있던 마을.
- ◆ **뽕안** : 어수물 남쪽에 있는 마을. 은대리 마을 중 가장 우묵한 골짜기 안에 있어 유래되었다.
- ◆ **바래** : 뽕안 남쪽에 있는 마을. 한탄강의 벼랑 옆에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 **벌말[坪村]** : 은대리 서북쪽 벌판에 새로 생긴 마을. 은대1리 지역이다.
- ◆ **새통재** : 어수물 동쪽, 한탄강 변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전에는 이천서씨(利川徐氏)의 집성촌이었다.
- ◆ **안말, 안전곡** : 연천군종합복지관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우묵한 곳의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음티[隱堡, 盤谷]** : 은대리성지 북쪽, 우묵한 지형 안에 있는 마을. 조선 태종과는 동학동방(同學同榜)이며 벗으로 교유를 했던 고려 말의 진사 김양남이 망국의 한을 품고 절개를 지키며 은거한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김양남의 사적이 서려 있는 학소정(鶴巢亭)·국사봉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80여 호 정도 세거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 풍석 서유구의 저작인 『임원경제지』 「상택지」에 연천군의 유일한 명당터로 소개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 **가사평(架娑坪)** : 전곡읍 은대리·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평야. 연천군 제일의 곡창지이다. 이곳의 토질이 신생대 갱신세의 점토질 성분인 까닭에 이른 봄의 해빙기나 여름철 우기 때 인마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예전에는 한탄강에서 통현리까지의 20리 벌판길을 통과하자면 진흙이 달라붙어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가사평이란 지명은 조선 후기 여러 지리지에 의하면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이 벌판을 지나다 진흙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거듭하여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 버리고 갔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국사봉에서 바라본 은대리 가사평 원경〉



- **고로지** : 은대리 남쪽, 전곡리와 경계가 되는 긴 개울. 지형이 깊고 우묵하여 예전에 문둥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현재는 활터가 있다.
- **공동묘지** : 한양골 고개 남쪽에 있는 묘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 **구전곡** : 예전에 전곡의 중심지로 지금의 전곡성당 남쪽 사거리 부근이다.
- **모퉁이** : 전곡시가지 북쪽, 주유소 앞에 있는 사거리의 옛 지명.
- **물푸레쟁이** : 네즈뫼 북쪽에 있던 물푸레나무 정자. 한국전쟁 이전까지 큰 물푸레나무 고목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 **비석거리** : 구호주택 서쪽에 있던 옛날의 통행로. 이곳에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무쇠 선정비가 있었다 하는데 한국전쟁 이후 없어졌다.
- **삼형제바위, 땡땡바위, 용바위** : 은대리성지 서쪽, 한탄강과 장진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바위. 전설에는 한 과부가 아들 삼형제를 기르는데 우애가 지극하였다고 한다. 어느 여름날에 농사일을 하다가 무더위 한탄강에 목욕하러 갔는데, 막내가 잘못하여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본 두 형이 구하려 물에 뛰어들다가 모두 차례로 빠져 죽었다. 이후 아들을 잃은 과부가 애통하여 강가를 해매면서 울부짖은 지 석 달 만에 삼형제의 형상이 강 가운데 나타나더니 갑자기 바위로 변하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해마다 사람이 이곳에서 빠져 죽으므로 큰 바위에 제단을 모으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삼형제바위 전경〉

- **새점고개** : 선바위 남쪽에 있는 고개. 장진천 건너의 황지리 새점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졌다.
- **새점나무** : 선바위 남쪽의 장진천에 있던 나무. 예전에는 물이 많아 배로 통행을 했던 곳이다.

- **서나드리** : 은대리에서 군남면 왕림리의 지루개와 서산으로 건너다니던 나루터. 현재는 콘크리트 다리가 있다. 주변의 현무암 석벽의 풍광이 매우 이채로운 곳이다. 나드리는 나루의 방언이다.
- **선바위[立岩]** : 은대2리 장진천 변에 있는 높이 10m 크기의 바위산. 전설에는 이사람이란 장사가 이 바위에서 노는 선녀를 보고 욕정을 못 이겨 도끼로 바위를 찍으며 바위 위로 올라가려 했다. 이에 선녀가 놀라 하늘로 올라가자 이사람은 강물에 빠져 죽었다 한다. 은대리 별판 서쪽 한편에 우뚝 서 있는 이 바위에는 장사가 찍었다는 그 도끼 자국이 남아 있으며 아랫부분이 거의 반이나 깎여 넘어질 듯 서 있다 하여 후세 사람들이 '선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선바위는 차탄천에 하식되기 전에는 용암지대에 고립된 원지형인 스텝토 특이 지형이다.
- **어수물[御水井]** : 조선 초 태종 이방원이 친구인 고려 충신인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친히 연천으로 행차하던 중 이곳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하여 유래되었다. 은대4리 지역이다.
- **용모소** : 서나드리 남쪽의 장진천에 있는 소. 장진천 중앙에 위치한 이 소는 바위섬 물속에 용굴이 있어 용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굴 위에는 큰 용을 닮은 바위 2개가 있다.



〈장진천 용모소(용바위소) 근경〉

- **주주물** : 전곡고등학교 북쪽에 있던 유명한 우물. 현재는 매몰되어 없어졌다.
- **학수쟁이[鶴巢亭]** : 음터 북쪽의 현무암 절벽 위에 있던 정자. 김양남은 음터에 은거하여 절개를 지킨 고려의 신하였다. 그가 이곳에 조그만 초가 정자를 지은 후부터 학이 날아들어 둥지를 틀고 그와 벗하며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가 죽자 학들도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 **한양골 고개** : 전곡읍내에서 음터로 통하는 고개.
- **흙구덩이** : 주주물 동쪽에 있던 큰 구덩이. 일제강점기 때 전곡리 높은 여울에 있던 점터에서



이곳의 흙을 채취하여 용기를 구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3) 신답리(薪畝里)

본래 양주목 청송면 금촌리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논이 있어 '쇳논'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안·쇠촌(金村)·새말(新村)·붉은데기·아우라지를 병합하여 신답리라 하고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후 북한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개틀** : 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

◆ **새말[新村]** : 아우라지 북쪽에 있던 마을. 지금은 군 사격장이 들어서 있다.

◆ **쇠촌[金村]** : 마내고개 남쪽에 있는 신답리의 가장 큰 마을. 이 마을이 청산면 장탄2리에 있다는 풍수학상 좋은 터인 도가니혈(穴)의 한 형세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강신타** : 낭너머 동쪽에 있던 큰 잣나무. 옛날에 무속인들이 이 나무를 부군당 신목으로 받들어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큰 굿을 벌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개안** : 강신타 남쪽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골짜기. 여름에 한탄강이 범람하면 큰물이 들어온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공동묘지** : 풀무산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 **긴등** : 박쥐굴 북쪽에 있는 붉은 등성이. 연천읍 고문리 토토봉의 서쪽 끝이 된다.
- **낭너머** : 개안 서쪽에 있는 한탄강 현무암 절벽. 일제강점기 때 현무암 하단의 구하상층인 백의리층에서 많은 사금을 캐던 곳이다.
- **마내고개** : 쇳촌에서 마내로 넘어가는 고개.
- **마내배터** : 마내에서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로 건너다니던 한탄강 나무.
- **마내** : 쇳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강릉김씨(江陵金氏)의 묘가 있다.
- **물방앗골** : 개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 **박쥐굴** : 긴등 남쪽, 한탄강 절벽에 깊이 10m 정도의 자연 굴. 박쥐들이 서식한다고 한다.
- **빨래터** : 쇳촌이 동쪽, 한탄강에 있는 빨래터.
- **사모바위[紗帽岩]** : 빨래터 옆에 있는 사모처럼 생긴 바위.
- **새청뒤** : 쇳촌 북쪽에 있는 들판.
- **선봉나드리** : 신답리에서 청산면 장탄2리 선봉으로 건너다니던 나무. 예전에는 여울이 얕아 무릎만 걷어 올려도 건널 수 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수량이 줄어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 **성황당** : 쇠춘이 남쪽에 있던 부군당.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매년 정월 14일 돼지를 제물로 고사를 지냈으나, 수복 후 이곳에 있던 큰 참나무·소나무 고목을 모두 베어버려 지금은 농경지가 되었다.
- **쇳논** : 간등 동쪽에 있는 논. 한탄강의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신답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아우라지** : 신답리 남쪽, 한탄강과 영평천(永平川)이 합류하는 곳의 강 이름. ‘여럿이 한데 합한다’라는 고어 ‘아울’에 매개모음 ‘아’와 땅이름에 붙는 접미사인 ‘지’가 붙어 생긴 이름이다. 지형이 제비의 꼬리처럼 두 물이 합하는 곳이라 연미정(燕尾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신답리; 아우라지 전경〉

- **약물터** : 빨래터 남쪽에 있는 약수터.
- **우무소** : 궁신교 서쪽, 장탄리의 풀무산 밑에 있는 큰 소.
- **장독바위** : 쇠춘 서쪽, 한탄강에 있는 바위. 모양이 장독같이 생겼다고 한다.

#### 4) 양원리(兩遠里)

본래 양주목 영근면의 지역으로, 옛 양주 관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떨원리’라 불리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원리(上遠里)·하원리(下遠里), 고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양원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남쪽이 되어 파주군 적성면

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다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기와말[瓦村]** : 조선 후기 참봉을 지낸 사람의 90칸 규모의 기와집이 있었던 마을. 아랫 양원리의 중심이 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남원양씨(南原楊氏)가 많이 살았다.
- ◆ **꽃봉말[花峰村]** : 아랫작대산 동쪽에 있던 마을. 봄이 되면 마을 주변에 많은 꽃들이 피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옛날 양주군의 관아가 한때 이곳에 위치했었다고 하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고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 ◆ **독점말** : 좁은모퉁이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독을 굽던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동막동(東幕洞), 통맥이** : 양원리 지석묘 동남쪽에 있는 마을. 이 일대에 돌이 많아 돌의 고어인 '독'과 '막'이 합쳐 '독막'이라 하다가 'ㄷ' 앞에서 'ㄱ'이 'ㅇ'으로 변하여 '동막'이 된 것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 동막(東幕)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김씨(慶州金氏)만 60호 정도 살았던 곳이다. 이 마을 입구에 석탄광산이 운영되고 있다.
- ◆ **동편말** : 수리봉 남쪽에 있는 마을. 윗양원리 3개 마을 중 하나이다.
- ◆ **서편말** : 윗양원리 중간말 서편에 있는 마을.
- ◆ **윗양원리[上遠里]** : 수리봉 남쪽에 있는 동편말·중간말·서편말을 합쳐 부르는 마을 이름. 300여 년 전에 경주정씨(慶州鄭氏)·공주이씨(公州李氏)가 그 후 단양우씨(丹陽禹氏)·개성왕씨(開城王氏) 등이 차례로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 ◆ **응달말** : 조지빈 묘 남쪽에 있는 마을. 해가 들지 않는 음지라 하여 유래되었다.
- ◆ **중간말, 도란말** : 동편말 남쪽에 있는 마을. 동편말과 서편말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 **가는골[細谷]** : 동막골 남쪽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 **가마소** : 앞산 서쪽에 있는 소.
- **갈가지골** : 안능안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호랑이 새끼인 갈가지(개호주)가 자주 나타났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개안논** : 중간말 남쪽에 있는 논. 무쇠봉에서 내려오는 물과 깊은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지점의 안에 있는 저지대의 논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골띠기** : 동막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공동묘지** : 예전 37번 국도 옆에 있는 공동묘지.
- **꽃봉[花峰]** : 꽃봉말 북쪽에 있는 봉우리.
- **피꼬리봉** : 양원리 가장 남쪽에 있는 마차산에 딸린 봉우리. 간파리와 양원리, 동두천시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 **날가리바위(露積岩)** : 둔지봉 아래에 있는 큰 바위. 모양이 곡식을 쌓아놓은 것 같아 지어진 이름이다.
- **늑박골** : 앞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대락골** : 무쇠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도당골** : 서편말 뒤에 있는 골짜기.
- **돌무골** : 마당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박쥐굴·병풍바위가 있다.
- **동막고개(東幕峴)** : 동막동에서 윗양원리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둔지봉** : 날가리바위 위에 있는 봉우리.
- **둔철탈** : 안개골 입구에 있는 밭.
- **뒷골** : 동막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 뒷간에서 쓰던 돌과 같이 큰 바위가 나란히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뒷골** : 수리봉에 딸린 작은 골짜기. 동막고개의 밑이 된다.
- **뒷골모퉁이** : 동편말 동쪽에 있는 뒷골로 가는 산 모퉁이.
- **마당지골** : 동막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마산(馬山)** : 양원리 지석묘 서쪽에 있는 긴 산. 지형이 말처럼 생겼다고 한다.
- **막태골** : 늑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
- **매봉** : 막태골과 제비작골 사이에 있는 봉우리. 예전 평사냥을 할 때 매를 날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모래기** : 사시나미고개 북쪽에 있는 무쇠봉에 딸린 골짜기.
- **피약골** : 깊은골 옆에 있는 골짜기.
- **무당바위** : 갈가지골 아래에 있는 큰 바위. 한국전쟁 전까지도 이 바위 위에서 무속인들이 큰 굿을 벌였다 전해 오나 지금은 바위가 무너져 있고 무속인의 발길도 끊어졌다고 한다.
- **무학골고개(舞鶴谷峴)** : 무학골에서 마포리 무학골로 넘어가는 고개.
- **배나무골** : 가는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배나무골** : 매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 **벼루봉** : 아랫작대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
- **부릉고개** : 응달말에서 기와말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부릉논** : 부릉고개 밑에 있는 고래실 논,
- **불당골** : 앞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흔적이 없다.
- **뽕나무땀기밭** : 둔철탈 옆에 있는 밭. 예전에 뽕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사시나미고개** : 양원리 대락골에서 간파리로 넘어가는 고개.
- **산소골** : 증간말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공주이씨 묘가 있다.
- **산제터** : 윗양원리 서편말에서 산제를 모시던 터.

- 상봉암고개[上鳳岩峴] : 윗양원리 작은깊은골에서 동두천시 상봉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서낭당고개 : 아랫양원리에서 고능리 능말로 통하는 고개.
- 서방고개 : 양원리와 고능리 사이에 있는 고개.
- 성황당(城隍堂) : 개안논 옆에 있던 성황당. 한국전쟁 전까지 큰 성황당 나무와 장승이 서 있었으나 지금은 논이 되었다.
- 속가는골 : 가는골 옆쪽에 있는 골짜기.
- 쇠길재등 : 매봉으로 뻗어 내려온 산 등.
- 쇠목 : 아랫양원리와 윗양원리 사이에 있는 좁은 목.
- 수리바위 : 무쇠봉 동쪽에 있는 수리처럼 생긴 바위.
- 수리봉 : 옥녀봉 남쪽에 있는 봉우리. 지형이 높고 험준하여 수리들이 많이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수박덩어리 : 동막동 남쪽에 있는 봉우리. 지형이 수박 덩굴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아랫작대산 : 윗작대산 북쪽에 있는 자갈이 많은 산.
- 아마니고개 : 양원리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경계에 있는 고개. 예전에 어떤 과부가 바람이 나서 이 고개를 넘어 서방고개를 지나 전곡 쪽으로 밤이슬을 맞고 다녔는데, 이 사실을 안 아들이 어머니를 말리기 위해 기와말 뒤에 있는 고개에서 어머니를 불렀다 하여 '부릉고개'라 하였고, 어머니가 넘어 다니던 이 고개는 '아마니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안개골 : 아랫작대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도감포와 가까워 특히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안골 : 동막동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안능안 : 옥녀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조판서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안인동 : 서방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앞산 : 중간말 남쪽에 있는 산.
- 앞산너머 : 산소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약물바위 : 태봉 동쪽에 있는 큰 바위. 바위 밑에 있는 좁은 굴에서 나오는 약수로 인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앓은뱅이가 일어났다 하며 피부병에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오리나무배기논 : 창자리 옆에 있는 논. 예전에 큰 오리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경지 정리가 되어 형태를 알 수 없다.
- 옥녀봉(玉女峰) : 양원리 지석묘 남쪽에 있는 바위 봉우리.
- 원개비들논 : 기와말 옆에 있는 논. 예전에 큰 장이 섰던 곳이라 한다.
- 윗골 : 매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윗작대산 : 아마니고개 북쪽에 있는 산. 산 중턱에 차돌이 많아 지어진 이름이다.
- 작은깊은골 : 중앞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능안** : 양원리 지석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구봉** : 독점말 동쪽에 있는 두 봉우리. 모양이 장구와 같다고 한다.
- **절골** : 무쇠봉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소량의 와편만 발견된다.
- **절네미고개[寺踰峴, 下鳳岩峴]** : 윗양원리에서 동두천시 하봉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예전에 하봉암동에 절이 있어 양원리에서 이 고개를 넘어 절에 다녔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네미’는 넘는다는 뜻의 방언이며 정상에 돌 서낭당이 있었다 한다.
- **제비작골** : 매봉 옆에 딸린 골짜기. ‘고비작골’이라고도 한다.
- **좁은모퉁이** : 무쇠봉 서쪽에 있는 모퉁이. 지형이 매우 좁고 협소하여 붙은 이름으로, 현재 368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 **중얏은골** : 산소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지르르미고개, 지르르미번댕이** : 장구봉 사이에 있는 고개. 아랫양원리에서 독점말로 질러서 넘어 다니는 지름길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진사래밭** : 꽃봉 남쪽에 있는 토질이 습한 밭. 예전에 이곳까지 강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 **창자리** : 꽃봉말 남쪽에 있던 창고 터. 예전에 큰 무기창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농경지로 바뀌었다.
- **큰굴다리** : 꽃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깊은골** : 작은깊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태봉(胎峰)** : 약물바위 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이 봉우리에 태를 묻었다 하나 자세한 내용은 전해오지 않는다.
- **풀무골[治谷]** : 날가리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함박골** : 기와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호랭이윗방** : 안골 옆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까지도 호랭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 5) 간파리(干坡里)

본래 양주목 영근면 지역으로 ‘간파’ 또는 ‘간패’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간파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파주군 적성면으로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간패[干坡]** : 남순하 효자정문이 있는 마을. 의령남씨(宜寧南氏)의 집성촌이다.

◆ **새말** : 송산골 위의 새로 생긴 마을.

◆ **송산골[松山洞]** : 개누운골 북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배천조씨(白川趙氏)·밀양 박씨(密陽朴氏)의 집성촌이었다.

- **간패고개[干坡峴]** : 간파리에서 양주시 남면의 황방리로 통하는 고개. 현재 368번 지방도가 지난다.
- **개누운골** : 매봉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의 형세가 개가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정씨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지도상에는 가는골로 오기 되어 있다.
- **피꼬리봉** : 마차산 북쪽, 양원리와 동두천시 경계에 있는 산.
- **마차산(馬車山, 摩嵯山), 봉화산(烽火山)** : 간파리 동쪽, 동두천시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88.4m.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주목 산수조에는 ‘마차산(摩嵯山)은 양주군 치소에서 북으로 60리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기타 고지도 및 읍지에도 “摩嵯”라고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 이후 행정구역 폐합 및 국토 전역의 세부 측량 당시 ‘馬車’로 오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산의 외형은 정상부로 올라가면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뾰족한 삼각형을 취하고 있어 지명학적으로는 높고 험준한 모양의 뜻을 가진 ‘摩嵯’가 옳은 표기라 할 수 있다. 이 산의 정상에는 동쪽의 포천 방향과 서쪽의 늘목리 봉수지와 연결된 삼국시대의 봉수지가 있었다 하나 실제로는 삼국시대 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 **매봉재** : 간패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 **사시나미고개** : 간파리에서 윗양원리로 넘어가는 고개.
- **석성골[石城谷]** : 간패 남쪽, 마차산에 딸린 골짜기.
- **쇠마지골[金馬地谷]** : 간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안흥고개[安興峴]** : 간파리 쇠마지골에서 동두천시 안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절터** : 간패 동쪽의 마차산 골짜기에 있는 절터. 이 절이 번창했을 때 무관(武官)들의 기도처로 유명했다고 하나 상세한 자료가 전해오지 않는다. 현재 200평 정도의 절터에는 축대의 흔적과 함께 기와 조각이 출토된다.
- **좁은모퉁이** : 간파리 북쪽에 있는 모퉁이. 지형이 좁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현재는 868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 **한가지골** : 송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 사이비 종교로 악명 높았던 백백교의 양민 집단 살해 장소이기도 하다.
- **형제바위[兄弟岩]** : 마차산 서쪽으로 8부 능선에 있는 형태가 비슷한 바위. 수복 후 한쪽 바위를 군인들이 쓰러뜨렸다고 한다.

## 6) 늘목리(訥木里)

본래 적성현 동면 지역으로, 고려 말에 늘처사가 살았다 하여 늘목·늘무기·늘메기·늘목동으로 불리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늘목리'라 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11월 3일 파주군 적성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노두골[老大洞, 露臺洞]** : 할미성 남쪽에 있는 마을. 노대암(露臺岩)이 있어 '노대동'으로 불려 오다 '노두'로 어휘가 변화하였다. 전주이씨(全州李氏) 효령대군과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지금의 늘목2리 지역이다.

◆ **늘목동[訥木洞]** : 앞자리 부근에 있는 감악산 분지 마을. 전설에는 고려 때 늘처사가 살았고, 약 200년 전에 평강채씨 채광덕(蔡光德)이란 선비가 이곳에 터를 잡은 후부터는 한국전쟁 전까지 평강채씨(平康蔡氏)만 45호 넘게 모여 살았다고 한다. 감악산 정상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도 한다.

◆ **능안말** : 망두개 남쪽에 있는 마을.

◆ **비석거리** : 승배골 입구에 있는 마을. 예전에 비석이 서 있었다 한다.

◆ **주막거리** : 368번 지방도 옆에 있는 마을.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 **간패고개** : 비석거리 남쪽에 있는 고개. 양주시 남면의 황방리로 넘어간다.

• **고두절고개** : 승배골에서 늘목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려 말 불교가 번창했을 때 이 골짜기 곳곳에 절들이 많아 이 고개를 오르면 '고기도 절, 요기도 절'이란 말이 유행하여 고두절고개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 **고진사모이등** : 승배골 안에 있는 산 등. 고진사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곰채골** : 늘목동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해마다 2월에 늘목동 마을에서 감악산 산제를 모시는 곳이며, 약수가 유명하다.

• **구광터** : 능안말 동쪽에 있는 터.

• **노대바위[露臺岩]** : 표족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

• **늘목이고개** : 능안말에서 늘목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달암절터** : 수리봉 남쪽에 있는 절터. 험준하게 솟아오른 큰 바위 밑에 절을 매달아 지었다 하여 유래된 이름으로, 우물이 유명하다.

• **독매기** : 앞자리 앞에 있는 개울

• **똥면** : 새우고개에 있는 경사가 심한 산비탈. 고갯마루에 오르는 지형이 되고 가팔라 지나기가 매우 힘들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망두개 : 노두골 남쪽에 있는 산.
- 물통이자리 : 앞자리 동쪽에 있는 논.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방죽이, 방죽골 : 사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방죽이 있다.
- 병풍바위 : 작은노두골 서쪽에 있는 병풍같이 넓은 바위.
- 부도선골 : 고진사모이등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고승의 사리탑인 부도가 서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 부도의 행방은 알 수 없다.
- 뾰족바위 : 작은노두골 서쪽 병풍바위 위에 있는 뾰족한 바위.
- 사지목고개 : 고진사모이등 남쪽에 있는 고개. 승배골에서 양주시 남면의 황방리로 넘어간다. 감악산에서 내려온 네 개의 큰 산자락의 목에 있는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사태골 : 곰채골 남쪽에 있는 산사태가 잘 나는 골짜기.
- 삭정고개 : 노두골에서 늘목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산꾸지 : 설령고개 옆에 있는 수리봉에서 내려온 산부리.
- 산막골 : 문바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상가마골 : 작은노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상가마골·작은상가마골로 나뉜다.
- 새산수개 : 곰채골 옆에 있는 산.
- 새우고개 : 승배골에서 늘목동으로 넘어다니는 고개. 길이 새우등처럼 굽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석문골[石門谷], 문바위 : 할미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 바위가 양옆에 문처럼 서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군부대 지역에 속한다.
- 설령고개 : 늘목동에서 설령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로 통한다.
- 설령골 : 설령고개 너머에 있는 감악산 북쪽의 골짜기. 대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하여 설령설령 다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수리봉 : 늘목동 서쪽에 높이 솟은 바위산. 높이 470m.
- 솟굽밭 : 산꾸지 옆에 있는 밭. 예전에 솟을 굽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승배골[僧配谷, 酸梨洞], 신배골·순박골 : 감악산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마을. 조선이 건국된 후 불교 탄압이 심해지자 감악산 내에서도 산세가 좋아 절이 많던 이곳에 승려들이 모여 들어 승배골이라 하였다 한다. 일제강점 후에는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배나무골[酸梨洞]'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른다.
- 앞자리 : 청룡부리 북쪽에 있는 논.
- 양지짜 : 천내개울 왼쪽에 있는 산비탈. 해가 잘 든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음지짜 : 양지짜 동쪽에 있는 밭. 산이 높아 해가 늦게 든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작은노두골 : 망두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잣나무대기 : 사태골 동쪽에 있는 밭 예전에 큰 잣나무가 많았다 한다.

- **절골** : 능안말에 있는 골짜기. 경내에 있던 우물이 유명했다고 하며,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고려당골'이라고도 한다.
- **진사래밭** : 늘목동 남쪽에 있는 긴 모양의 밭.
- **천내개울** : 늘목동에서 발원하여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로 내려가는 개울.
- **청룡골** : 앞자리 옆에 있는 산부리. 평강채씨 묘의 좌청룡 끝에 해당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행자마골** : 능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흙헌개울** : 설령골에서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로 흐르는 개울. 감악산의 험한 산세 사이를 흘러 내려간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7) 고능리(高陵里)

본래 양주목 영근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능동리·고산리·아랫양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고능리라 하고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능말[陵洞, 粉土洞]** : 사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 주(朱)씨가 개척을 했으나 한국전쟁 전에는 고성씨(固城李氏)가 30호 정도 모여 살던 곳이다.
- ◆ **황촌말[黃村]** : 국사봉 동쪽에 있던 마을. 예전 영근면 고산리 지역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황씨만 8가구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갓모산** : 논남골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갓모처럼 생겼다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 **개미산삐뚜리** : 서낭당고개 북쪽에 있는 산 길. 지금도 이곳에는 개미가 많다고 한다.
- **고새기낭절벽** : 황촌말 남쪽에 있는 한탄강 변의 큰 절벽.
- **고장골** : 국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구리나무골** : 서방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국사봉(國思峰), 면경산(面鏡山), 안산(案山)** : 넘점고개 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고려 멸망 후 불사이군의 절개로 전국을 음터에 은거한 김양남이 송도를 향하여 매일 망궐례(望闕禮)를 올린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봉우리 정상에는 두 그루의 큰 소나무와 말을 타고 군장을 갖춘 여러 무관소상(武官塑像)이 봉안된 조그만 당집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두 파괴되었다. 주변에서 묘 자리를 잡을 때 이 산을 앞쪽에 자리한 안산으



로 많이 잡는다 하여 '안산'으로도 불린다.



〈은대리성에서 바라본 국사봉〉

- **넘점고개** : 고장골에서 황촌말에 있는 사기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논당골** : 갓모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능안** : 물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김양남의 묘가 능처럼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물개골** : 빨래나드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한탄강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박쥐골** : 능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사기점이 성업을 이룰 때 이곳에서 고령토를 채취하였는데, 폐광이 된 후 박쥐들이 많이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병바위** : 도감포 동쪽, 한탄강 옆에 있는 바위. 부엉이들이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빨래나드리** : 고능리에서 군남면 남계리로 건너다니던 나루터.
- **산제당골** : 고능리 사기점 동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까지도 4년에 한 번씩 산제를 올렸는데 검은털의 돼지를 제물로 하고 무속인이 주관했다 한다.
- **삼신골** : 서낭당 북쪽에 있는 골짜기. 앓은뱅이가 일어날 정도의 효험 좋은 약수가 이 골짜기에 있었다 한다.
- **서낭당고개** : 고능리에서 아랫양원리로 이어지는 고개.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졌다.
- **서방고개** : 고능리와 양원리로 통하는 고개. 예전의 37번 국도가 나 있다.
- **성가마골** : 국사봉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 광산이 있던 곳이다.
- **연못골** : 삼신골 옆에 있는 골짜기. 큰 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농경지가 되었다.
- **작은굴다리** : 병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죽골** : 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잔방골** : 갓모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죽골 : 논남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평바위 : 한탄교 서쪽, 강변에 있는 바위.

## 8) 마포리(馬浦里)

본래 양주목 영근면 지역으로 임진강에 마개[馬浦]나루가 있어 마포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원리의 일부와 적성군 동면의 적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마포리라 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긴골 : 무학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꽃답벌 : 임진강 남쪽, 마포리에 펼쳐진 넓은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벌판.
- 남은터골 : 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다래산골 : 문필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다래나무 덩굴이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된버지 : 도감포 남쪽, 현무암 절벽 위에 있는 둔덕.
- 마포교(馬浦橋), 마개 : 마포리에서 미산면 동이리로 통하는 콘크리트 다리. 예전에는 말여울 나루가 있었으나, 군사목적으로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다가 37번 국도가 새로 놓이면서 지금은 철거했다.
- 무학골[舞鶴谷] : 벼루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던 선대 묘소를 이장할 때, 광중에서 학이 나와 미산면 마전리의 하오고개 쪽으로 날아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무학골고개 : 마포리 무학골에서 양원리 안개골로 넘어가는 고개.
- 문필봉(文筆峰) : 벼루산골 서쪽에 있는 봉우리. 산의 형상이 '文'자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나 일설에는 붓끝같이 봉우리가 뾰족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벼루봉[硯峰] : 된버지 남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천지가 개벽하여 이곳이 물바다였을 때 이 봉우리 정상에 벼루만큼 남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벼루산골 : 된버지 남쪽에 있는 들판. 벼루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서낭당고개 : 마포리에서 적성면 어유지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다 하여 유래되었다.
- 용못[龍淵] : 꽃답벌 서쪽에 있는 작은 연못. 이무기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명주실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는 깊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임진강의 유로 변화에 의해 고립되어 생성된 우각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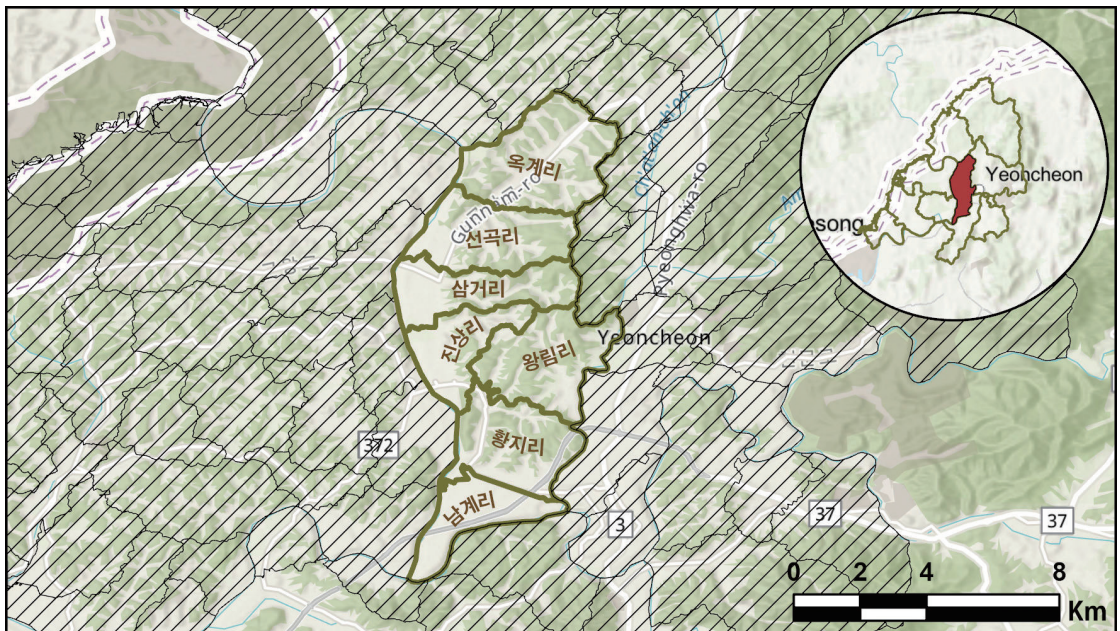
### 3. 군남면(郡南面)

본래 연천현 남면 지역으로 석현리(石峴里)·진상리(進祥里)·갈모리(葛墓里)·하심곡리(下深谷里)·상심곡리(上深谷里)·옥계리(玉溪里)·진전리(樺田里) 등 7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석현리의 왕림동을 왕림리(旺林里)로 개칭하여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 화진면(禾津面)에 속해 있던 황지리(黃地里)·석문리(石門里)·음대포리(音垈浦里)·도감포리(都監浦里)·지곡리(芝谷里) 등의 5개 리를 병합하여 남면을 군남면으로 개칭하고, 옥계·선곡·삼거·진상·왕림·황지·남계의 7개 리로 다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이 되어 전 지역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7개 리가 완전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면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연천읍과 전곡읍, 남쪽은 전곡읍, 서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미산면과 왕징면, 북쪽은 중면과 접해 있다.

삼거리리에 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군남로 417) 있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13개 행정리와 65개 반, 3,079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 1) 삼거리(三巨里)

조선시대 연천현 남면 지역으로, 마을 중앙에 세 갈래의 큰 길이 있으므로 '세거리' 또는 '삼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상삼곡리와 하삼곡리를 병합하여 삼거리라하고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으나,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부처골[佛峴洞]** : 군자산 남쪽에 있는 마을. 부처고개에 있던 석조미륵불입상 때문에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약 500여 년 전에 정착한 곡성임씨(谷城任氏)가 한국전쟁 전에는 48가구로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삼거리(三巨里)** :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 진상리·선곡리·북삼리로 갈라지는 세 갈래의 큰 길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군남면의 중심지이다.
- ◆ **섬말[島村]** : 삼거리 서쪽, 임진강 변에 언덕에 있었던 작은 마을. 임진강이 홍수로 범람했을 때 이 마을의 둥근 언덕이 섬처럼 남아 있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마을 등성이에 신당이 있었고 주변에 소나무·참나무 고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던 곳이다. 이 마을의 긴 등이 배를 얹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우물을 파지 못했다고 한다. 1996년 신석기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된 바 있다.



〈섬말 전경〉

- ◆ **양지말[陽村]** : 삼거리 동쪽,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 평해황씨(平海黃氏)·광주노씨(光州盧氏)·남양홍씨(南陽洪氏)·죽산안씨(竹山安氏)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 ◆ **윗말** : 거물개봉 남쪽에 있던 마을. 삼거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는골** : 돌고개 남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거물개봉** : 깃대봉 남쪽에 있는 거물개 형상의 봉우리.

- **검바위고개[劍岩峴]** : 삼거리에서 진상리 제추울의 검바위로 통하는 고개.
- **고조울고개** : 부처골에서 왕림리 고조울로 통하는 고개.
- **군자산(君子山)** : 군남면 삼거리·선곡리, 연천읍 차탄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27.8m.
- **긴골** : 앞동산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 **깃대봉** : 당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81m. 일제강점기에 토지 세부측량을 할 당시 이 봉우리 정상에 표준기를 꽂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깊이울[深谷]** : 양지말 동쪽에 있는 깊숙한 골짜기. 옛 연천현 심곡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남산** : 쥐산 서쪽에 있는 산. 높이 247m. 부처골 마을의 남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당고개** : 당골에서 선곡리의 갈모동으로 넘어 다니는 고개. 정상에 돌 서낭당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당골** : 삼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당고개와 연결되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덕녕이등** : 군자산과 봉화봉 사이에 있는 긴 산 등.
- **돌고개** : 안골에서 가는골로 통하는 고개. 돌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돌창개울** : 군자산에서 발원하여 삼거리 중앙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하는 개울. 지저분하고 불결한 도랑이라는 의미인 ‘도랑창’에서 뜻을 따와 붙여진 이름이다.
- **둔밭나루[屯田渡, 澄波渡]** : 예전에 삼거리에서 왕징면 북삼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터. 최근에 북삼교가 가설되어 나루가 없어졌다.
- **둔밭벌[屯田坪]** : 섬말 북쪽에 있는 들판. 왕징면 북삼리의 둔밭나루로 가는 길의 옆에 있는 들판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등글못** : 섬말 동쪽에 있는 둥근 못.
- **뒷골** : 거물개봉 옆에 있는 골짜기. 뒷말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봉화봉** : 군자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32m.
- **부처고개[佛峴], 덕녕이고개** : 부처골에서 연천읍 차탄리의 덕녕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정상 부근에 미륵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새골** : 양지말 북쪽의 깊이울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세바람고지** : 삼거리 북쪽에서 임진강 쪽으로 뻗은 산부리. 산 끝자락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벌어진 모양이고, 양지말 뒤에서 임진강으로 뻗어 나온 산이 새의 주둥이처럼 긴 콧(串)과 닮았다 하여 ‘세 갈래로 벌어진 콧’이란 뜻이 지금의 이름으로 굳어진 곳이다.
- **쇠경골** : 안골 동쪽, 군자산에 딸린 골짜기.
- **숫못** : 섬말 북쪽, 임진강 변에 있는 못.
- **안골** : 왕자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깊숙한 이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었다.
- **앞동산** : 양지말 앞에 있는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영고개, 안골고개** : 안골에서 선곡리의 선유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남아 있다.



- 왕자봉(王子峰) : 절터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57m.
- 장구맥이산 : 큰골 동쪽에 있는 산. 지형이 장구와 같이 생겼다.
- 장자못 : 섬말 남쪽에 있는 못. 현재 많이 매몰되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 절터골 : 왕자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창건연대 및 절 이름을 알 수 있는 문헌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빈대 때문에 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쥐산 : 봉화봉 서쪽에 있는 산. 쥐의 형국이라 한다.
- 짐진이골 : 봉화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차돌백이 : 가는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차돌이 많은 곳이다.
- 큰고개 : 부처골에서 왕림리의 배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큰 고개. 현재 포장도로가 나 있다.
- 큰골 : 가는골 동쪽, 군자산에 딸린 골짜기.
- 황새동치 : 한국전쟁 전에 황새·백로들이 서식하던 철새도래지. 지금은 폐교된 군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 2) 옥계리(玉溪里)

본래 연천현 남면 지역으로 옥녀봉 밑에 옥빛같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옥계리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전리를 병합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개암밭골(榛田里) : 아전비 남쪽에 있던 마을. 옛날에 개암나무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관말[官村] : 중간말 북쪽에 있던 마을. 고려 말 연주현(漣州縣)의 관아가 위치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와편이 발견된다.



〈연주현(장주현) 관아터와 옥녀봉 전경〉

- ◆ **독짓골, 탁거리** : 장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골짜기에서 웅기를 구웠 다 하여 독짓골이 되었다 하나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고려 때에는 이곳에 있던 주막에서 막걸 리를 팔았다 하여 '탁거리'로도 불린다.
- ◆ **미래** : 아전 김진룡 비 북쪽에 있는 마을. 궁예가 세운 태봉국이 철원에 있었을 때 이곳까지 조수가 들어와 수운을 이용하려 했으나, 상리로 통하는 경계에 조그만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 통행이 어려웠다. 이때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배를 밀며 언덕을 넘어 다녔다 하여 '밀어고개'로 부르다가 차츰 '미래고개'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 미래 마을에는 400년 전에 정착한 밀양 박씨(密陽朴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 ◆ **새말[新垆洞]** : 작은밤골 입구에 있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 생긴 마을.
- ◆ **옥계역터[玉溪驛址]** : 미래 마을에 있던 역참인 옥계역의 터로, 지금은 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고려~조선시대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 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역참이 있었다. 남쪽은 장단도호부의 백령역에서 서울로, 북쪽은 철원도호부의 용담역(龍潭驛)을 거쳐 함경도 노선으로 역로가 이어졌다. 『여지도서』 연천현 역원조에 의하면 백령역-옥계역-용담역은 고려시대에도 있던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과 일제강점 후 철도와 통신의 발달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옥계역이 자리했던 이곳 역시 옛 역사(驛舍)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민가만 들어서 마을 이 형성되어 있다.



〈옥계역터인 옥계삼거리 전경〉

- ◆ **온수골[溫水洞]** : 옥녀봉 남쪽 임진강변의 골짜기에 있었던 마을. 예로부터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뜨거운 온수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만병통치의 효력으로 소문이 널리 퍼져 사방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들면서 물을 더럽히고 걸식하며 주민들을 괴롭히자,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어떤 도승이 부적을 돌에 싸서 물에 던져 놓자 온수가 끊어졌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 씨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 **윗말[上洞]** : 관말 서쪽에 있던 마을. 중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위쪽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중간말** : 장거리 서쪽, 중간에 있던 마을.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광대봉** : 미래 동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이 마을에 살던 광대가 정상에 있는 두 봉우리에 줄을 매고 놀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군수맥이고개** : 작은밤골에서 중면 합수리의 능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 군대가 주둔하던 군막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귀골[耳谷洞]** : 광대봉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귀처럼 생긴 골짜기.
- **건등** : 청화산에서 군자산으로 이어지는 산 등. 연천읍 현가리와 경계가 된다.
- **노루메기고개[獐項]** : 장거리 동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겨서 ‘노루메기’로 불렀다고 전해오나 원래의 정확한 뜻은 ‘넓음’ 또는 ‘늘어진’의 의미인 ‘너르’와 ‘목’의 모음동화 현상인 ‘메기’가 합쳐져 ‘너르메기’로 불리우던 것이 ‘노루목’으로 점차 굳어지면서 한자로 음차되는 과정에서 ‘노루목’이 된 곳이다. 실제로 이곳의 지형은 긴 등에서 내려온 산 끝자락이 넓게 늘어진 목처럼 되어있어 노루[獐]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동지미산** : 매봉 아래에 있는 산. 두꺼비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말가죽대기** : 아전비 남쪽에 있는 밭. 병자호란 당시 청의 군사들이 식량이 떨어져 말을 잡아 먹었던 곳이라고 한다.
- **망근도리밭** : 매화봉 동쪽에 있는 망건처럼 생긴 밭.
- **매봉** : 마정승묘 뒤에 있는 산. 예전에 이곳에서 매사냥을 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매화봉[梅花峰]** : 관말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풍수의 형국으로 매화꽃 형상이라 한다.
- **맨두리** : 매화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세 줄기의 산자락. 활짝 핀 매화꽃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백고개[城峴, 百人峴]** : 잣골에서 중면 삼곶리의 능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옥녀봉산성의 밑으로 다니는 고개라 하여 성의 고어인 ‘잣’에서 뜻을 따와 ‘잣고개’라 하였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잣’을 ‘잣 백(柏)’으로 오기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또한 이 고개가 높고 험하여 대낮에도 산짐승과 도둑이 많아 백 사람이 모여야 넘어 다닐 수 있다 하여 ‘백고개’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 **사당골[祠堂谷]** : 정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 연주현에 딸린 사당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상상재** : 옥계에서 온수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지형이 높고 가파르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고려시대 연주현 당시 이 고갯마루에서 중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 **샘고개** : 옥계리와 연천읍 읍내리 사이에 있는 고개. 샘이 있었다 한다.
- **선반밭** : 매화봉 북쪽에 있는 선반처럼 생긴 밭.
- **소리개고개, 솔개미고개** : 투미골 북쪽에 있는 고개. 골짜기 안에 솔개 형국의 명당이 있으나 그 혈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중면 삼곶리와 함수리로 넘어가는 포장도로가 나 있다.
- **숫돌봉** : 샘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연천읍 현가리와 경계가 된다.
- **아지봉(阿只峰)** : 샘고개 남쪽, 옥계리·선곡리·연천읍 읍내리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 남쪽에 인접한 군자산에 비해 크기가 작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열두마지기논** : 정자골 옆에 있는 열두마지기 넓이의 논.
- **태봉(胎峰)** : 작은 밤골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왕실에서 태어난 왕손의 태를 봉했던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6년경에 도굴되어 현재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옥계천(玉溪川)** : 연천읍 상리의 재궁동에서 발원하여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옥계리 중앙의 긴 개울. 옥빛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옥녀봉(玉女峰), 배꼽봉, 성산(城山)** : 잣골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05m. 중면 삼곶리와 경계가 된다. 삭녕에서 연천 북쪽으로 내려오던 산맥이 연천읍 상리에 있는 숫돌봉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좌측으로 내려온 산맥은 남자의 정기라 하여 가장 높은 봉우리를 군자산이라 하였고, 우측 산맥의 최고봉인 이 봉우리를 여자로 의인화하여 옥녀봉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또한 이곳의 빼어난 경치 때문에 선녀가 놀았다 하여 '옥녀봉'이 되었다고도 하며, 산의 모양이 배꼽과 닮았다 하여 '배꼽봉'으로도 불리운다.  
이 산은 고려시대 연주현의 진산이 되었고,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삼국 초기부터 한국전쟁 때까지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다. 현재 산 정상에는 산성의 유지와 우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 세워진 그리팅맨과 연강나룻길이 지난다.
- **인성골[仁聖洞]** : 청화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밤골** : 매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잣골[城谷]** : 중간말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옥녀봉 정상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의 아래에 있다 하여 성의 고어 '잣'에서 음을 빌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풍김씨(淸風金氏)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이다.
- **장거리(場巨里)** : 미래 남쪽에 있는 사거리. 고려시대 연주현이 있었을 당시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정자골[亭子谷]** : 상상재 동쪽, 큰 느티나무 고목이 있던 골짜기. 일제강점기 이곳에 약 300년 수령의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나무 속으로 큰 구렁이가 들어가자 이를 본 마을 청년이 불을 질러 나무가 타 죽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강(康)씨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 **청화산(淸華山)** : 인성골 동쪽에 있는 연천읍 현가리와 경계에 있는 산.



- **투미골[鬪美洞]** : 매화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 연주현이 있었을 때 당시 관기들이 살던 곳으로, 당시 부근에 살던 호색가들이 미색을 탐하여 싸웠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한다. 또한 그 때에는 “미색을 취하려면 그리가라”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 3) 선곡리(仙谷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갈묘리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선유동과 세곡동을 병합하여 선곡리라 하고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가니골[細谷洞]** : 요골 남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동래정씨(東萊鄭氏)가 마을을 이루며 살던 곳이었다.
- ◆ **갈묘동(葛墓洞)** : 눈고개 남쪽에 있던 마을. 고려시대에 갈씨의 묘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밀양박씨 15호가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개무더미[犬墓洞]** : 뱀바리 동쪽에 있는 선곡리의 중심 마을. 임진왜란(혹은 병자호란이라고도 함) 당시 부근의 전투에서 전사한 적군의 시체를 이곳에 모아 큰 돌무덤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왜를 '개'로 비유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큰 동산같았던 이 무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수복 후 이곳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완전히 멸실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 **뱀바리(蛇足洞)** : 원등산 북쪽에 있는 마을. 옥녀봉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이곳에 이르러 뱀의 발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20 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선유동(仙遊洞)** : 먹음구렁 북쪽에 있던 마을. 전설에 의하면 군자산에서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노닐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군자산(君子山)** : 선곡리·삼거리·연천읍 차탄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27.8m.
- **긴골** : 가니골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 **깃대봉** : 돼지물꾸럼 남쪽, 삼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81m.
- **눈고개** : 선유동에서 갈묘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나직한'·'늘어진'·'이어진'의 뜻을 가진 고어 '늣'이나 '늣(느름)'이 '눈'으로 음이 변하여 불리는 이름으로, '나지막하게 늘어진 고개'의 뜻을 가진다.



- **당고개** : 갈묘동에서 삼거리 당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돼지물꾸럼** : 갈묘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멧돼지들이 먹던 우물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뒷동산** : 개무더미 마을 뒤에 있는 산.
- **말무덤** : 뱀바리 북쪽, 산 정상에 있는 무덤.
- **먹음구렁** : 선유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을 많이 해쳤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며치골** : 아지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연천읍 읍내리로 넘어 다니던 큰 고개이다. 군자산과 아지봉의 두 봉우리에서 뜻을 따온 '뫼'와 고개를 의미하는 '치(峙)'가 합하여 '산 사이의 고개'라는 '뫼치'로 불리던 것이 지금의 '며치'로 음이 변하고 뒤에 '골'이 붙여진 합성 이름이다.
- **솔너머등** : 뱀바리 서쪽에 있는 산 등. 한국전쟁 전까지도 소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 **수로다리** : 뱀바리 동쪽의 옥계천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임진강에서 퍼 올린 농업용수가 이곳으로 다리처럼 지나간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아지봉(阿只峰)** : 군자산 북쪽에 있는 봉우리. 옥계리·연천읍 차탄리의 경계가 된다.
- **안골** : 임진강 변에 있는 골짜기. 뱀바리 마을 북쪽 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골고개①** : 뱀바리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
- **안골고개②** : 선유동에서 삼거리의 안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애미티골** : 군자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양천이들[兩川坪]** : 원등산 동쪽에 있는 들판. 임진강과 옥계천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 들판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오징어밭** : 뱀바리 남쪽에 있는 밭. 오징어라는 사람이 경작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차츰 오징어로 어휘가 변하였다고 한다.
- **왕자봉(王子峰)** : 선유동 안골고개 서쪽, 삼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57m.
- **요골** : 개무더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용바위** : 뱀바리 서쪽, 임진강 변에 있는 바위. 선곡리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 때 이 바위에 서 물을 길어와 자기 집 장독을 씻으면 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작은다리** : 큰다리 남쪽, 324번 지방도에 있는 다리.
- **조개못** : 임진강 변에 있는 큰 연못. 예전부터 큰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한다. 지금은 생태경관지역으로 정비되어 있다.
- **지내골** : 뱀바리 동쪽에 있는 산부리. 지내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 **창말등** : 원등산 북쪽에 있는 산등.
- **큰다리** : 324번 지방도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 호랑봉 : 갈묘동 북쪽에 있는 호랑이처럼 생긴 봉우리.

#### 4) 진상리(進祥里)

본래 연천현 남면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펼쳐져 있는 충적평야의 토질이 질고 습기가 많아 ‘진사랭이’로 불리던 곳이었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進上里’ 또는 ‘進祥里’로 표기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남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가피우개[小稷洞] : 큰피우개 동쪽에 있는 마을. ‘작은피우개’라고도 한다.
  - ◆ 검바위[劍岩] : 제추울 동쪽에 있던 마을. 칼날 같은 큰 바위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이 칼바위 틈에 돌을 끼워 놓으면 마을 아녀자들이 바람난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전에는 곡성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신촌방 : 구래골논 동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 ◆ 오구미[梧琴洞] : 진상동 북쪽에 있는 마을. 약 300년 전에 정착한 청주한씨(淸州韓氏)들이 한국전쟁 전까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오구미’는 외따로 으스스하고 궁벽한 곳이라는 뜻의 ‘외진구미’의 준말로, 진상리 내에서도 북쪽 외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오구미가 한자의 ‘오금(梧琴)’으로 음차된 곳이다.
  - ◆ 정문거리(旌門巨里) : 오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열녀 정문이 있었다 하나 자세하지 않다.
  - ◆ 제추울[車谷洞] : 남산 서쪽에 있던 마을. 약 500년 전 이곳에 정착했던 남양홍씨 중랑장파의 통덕랑 홍서오(洪敍五)가 죽자 많은 조문객들이 타고 온 수레가 골짜기 안에 가득 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진상동(進祥洞) : 정문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약 600년 전에 연주현씨가, 그 후 원주 원씨(原州元氏)가 정착하였다고 한다.
  - ◆ 큰피우개[大稷洞] : 진상동 남쪽에 있는 마을. 이곳의 토질이 질고 척박해서 예전에는 피만 무성히 자라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강신봉(降神峰) : 오구미 동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신선이 내려와 노닐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강신재’라고도 불린다.
  - 관둔전(官屯田) : 용림정등 동쪽에 있던 밭. 예전에 둔전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군남초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일설에는 관군이 진을 쳤던 곳이라고도 한다.

- **구래골논** : 오리알들 옆에 있는 논. 지형이 우묵해서 골짜기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골[谷]’이 ‘굴’이 되고 다시 ‘구래’로 연철되면서 뒤에 똑같은 뜻의 ‘골’을 합하여 지어진 합성 지명이다.
- **남산** : 검바위 동쪽에 있는 산. 삼거리·왕림리와 경계가 된다.
- **남송정터[楠松亭址]** : 큰피우개 언덕에 있는 정자 터. 고려 말 삼별초의 난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도원수 현문혁(玄文爌)이 관직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학문의 기틀을 닦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 후기까지 연주현씨의 문중에서 관리하던 이 정자가 언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광무읍지』에는 “이미 정자는 폐허가 되고 유지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엽에 이미 폐허가 되어있었다고 추정된다.. 현재 남송정터에는 200년 수령의 느티나무 한 그루만이 세월의 풍상을 대변해 줄 뿐 정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유구는 남아 있지 않다.

이곳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가 덕산으로 이장하기 전까지 묘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남송정터 전경〉

- **능모루[陵隅]** : 검바위 남쪽에 있는 모퉁이. 이 부근에 능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달봉[月峰]** : 진상동 동쪽에 있는 봉우리. 왕림리와 경계가 되며 지형이 높기 때문에 달맞이를 했던 곳이라 한다. 그러나 원래는 옛날부터 ‘산’의 뜻으로 써 왔던 ‘달’이라는 말이 한자 ‘月’로 옮겨진 것으로, 하늘의 달과 관계가 없는 산과 봉(峰)의 합성 이름일 뿐이다.
- **당묘(唐墓)** : 평안도민망향탑 남쪽에 있는 산. 중국 당인(唐人)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

이라 한다.

- **대추골** : 강신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대추나무가 많았다 한다.
- **도깨비여울** : 큰밭 서쪽에 있는 임진강의 여울. 옛날에 도깨비가 많이 나타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돌고개[石峴]** : 능모루에서 왕림리의 배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천연암벽 사이로 겨우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넓이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큰 서낭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마구리들** : 진상리 남쪽, 구석진 마구리에 있는 들.
- **마산(馬山)** : 오구미에 있는 산. 마씨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막터골[幕垆谷]** : 제추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매봉(鷹峰)** : 가피우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꿩사냥을 할 때 이 봉우리에서 매를 날렸다고 한다.
- **모래밭** : 진상주유소 북쪽에 있는 모래가 많은 밭.
- **뱃나드리** : 왕징면 무등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터.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화이트교가 가설되면서 나루가 없어지게 되었다.
- **선유고개(仙人峴)** : 성주정에서 오그미로 통하는 고개. 강신봉에 연관되어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 **성주정(聖主井)** : 신촌방 남쪽에 있는 우물. 예전에 어떤 임금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 우물물을 마셨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며,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한다.
- **수느르골** : 막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오리알들** : 관둔전 북쪽의 임진강 변에 있는 들판. 예전부터 오리들이 많이 놀던 곳이라 한다.
- **용림정등** : 모래밭 북쪽에 있는 둔덕. 임진강의 용림정소(龍宮亭沼) 옆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우렁논, 우렁배미** : 오구미 앞에 있는 우렁이가 많은 논.
- **질밭** : 큰피우개 앞에 있는 밭.
- **큰밭** : 마구리들 북쪽에 있는 큰 밭.
- **피우개고개[稷峴]** : 왕림리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 5) 왕림리(旺林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석현리 지역으로, 조선 태종과 이양소의 고사에 의해 ‘왕림’ 또는 ‘왕림동’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왕림동이 왕림리로 승격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현리와 마전군 화진면의 지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왕림리라 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댕골[大陽洞]** : 윗댕골 남쪽에 있던 마을 이름.
- ◆ **새터[新垆, 新垆洞]** : 셋지루개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17대째 세거하며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셋지루개[間芝谷洞]** : 왕림리 충훈탑 북쪽에 있던 마을. 지루개 마을과 서산 마을의 사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서산(西山)** : 새밭터 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 노론계 기호학파의 대학자였던 조현기(趙顯期, 1634~1686), 조성기(趙聖期, 1638~1689), 이민곤(李敏坤, 1695~1756), 이송(李淞, 1725~1789) 등 사상가들이 배출된 곳이다. 당시 학문 교류의 중심이었던 양주의 서산(西山) 마을과 견줄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정착한 지 17대가 되는 우봉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 ◆ **아랫도리개[下石峴洞]** : 죽터골 북쪽에 있던 마을.
- ◆ **윗댕골[上大陽洞]** : 댕골 북쪽에 있던 마을.
- ◆ **윗도리개[上石峴洞]** : 도장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임천조씨(林川趙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죽터골[竹垆洞]** : 강신봉 남쪽에 있던 마을. 옛날 어떤 임금이 이 곳을 지나다 말에게 여물을 먹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이씨(慶州李氏)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서정시인이었던 월파(月坡) 김상용(金尙鎔, 1902~1951)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 **지루개[芝谷洞]** : 만호터 동쪽에 있던 마을. 지루개고개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 **큰왕림[旺林洞]** : 작은왕림 북쪽에 있던 마을.
  - **강신봉(降神峰)** : 달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
  - **거물래산, 고모산부리** : 용뱅이고개 남쪽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산. 높이 94m. 농기구인 고무래의 형상이라 한다.
  - **고조울** : 서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옆의 새밭터 산부리가 새의 부리처럼 길게 뻗어 나온 형상이다. 이러한 지형을 칭하는 ‘곶(串)’이 연철된 ‘고지’가 골짜기의 다른 이름인 ‘울’과 합쳐 ‘고지울’이 되었다가 지금의 ‘고조울’로 음이 변한 곳이다.



- 남산 : 돌고개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47m. 진상리·삼거리와 경계에 있다.
- 높은터 : 봉화봉 아래 높은 곳에 위치한 넓은 밭.
- 능밭 : 지루개 남쪽에 있는 지명. 골 안에 능처럼 큰 묘가 있는데, 묘의 밖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달봉[月峯] : 매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
- 도장골 : 아랫도리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도장 주머니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돌고개[石峴] : 배나무골에서 진상리의 능모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동중골[東亭澗] : 윗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뉘박너머 : 거물래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만호터[萬戶垆] : 지루개 동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예전에 어떤 풍수가 이곳의 지형을 보고 후세에 만 가구의 집들이 들어설 자리라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매봉 : 피우개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 문안개울약수터 : 거물래산 남쪽의 현무암 석벽 중간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약수. 예전부터 피우봉에 효험이 있다 하여 여름철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이 모여 물맛이를 했던 곳이었다. 지금은 군부대와 상수원으로 이용되어 옛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 배나무골 : 돌고개 남쪽, 예전에 배나무가 많았던 골짜기.
- 봉화봉(烽火峰) : 부처고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32m. 삼거리·연천읍 차탄리와 경계가 된다.
- 부처고개 : 쪽쪽골에서 삼거리 부처골로 넘어가는 고개. 일명 ‘큰고개’라고도 한다.
- 불당골[佛堂谷] : 댕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불당이 있었으나 현재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새밭터 : 서산 서쪽, 남산에서 내려온 긴 산부리. 지형이 새의 밭처럼 생겼다고 한다.
- 안골 : 능밭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루개 마을에서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왕림고개 : 서산에서 큰왕림으로 통하는 고개. 고갯마루에 돌 서낭당이 있다.
- 용맹이고개[龍峰峴] : 새터에서 왕림리로 통하는 고개. 용봉의 산자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봉(龍峰) : 봉화봉 남쪽에 있는 봉우리.
- 작은왕림 : 뉘박너머와 큰왕림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장진천(漳津川) : 전곡읍 은대리와 사이에 있는 현무암 협곡의 하천.
- 정자터 : 큰왕림 마을에 있었던 큰 느티나무 정자터. 조선 태종이 재위에 있을 때 고려 조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이양소가 연천읍 현가리의 도당골에 은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이 그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직접 친행을 하였는데, 마침 이양소가 왕림리 장진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가를 옆으로 돌려 이곳에 이르러 쉬면서 이양소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후 태종이 친히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느티나무를 심고 마을 이름도 왕림(旺臨)이라 지었다 한다. 이 나무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베어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 **지루개고개[芝峴]** : 땡골에서 지루개 마을로 넘어 다니는 고개.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질러서 넘어간다는 '질'과 고개의 뜻인 '개'가 합쳐져 '질개'가 되었다가 중간에 매개모음 '으'가 따르면서 지금의 '지루개'로 음이 변하고 여기에 다시 '고개'가 뒤에 합해져 합성 지명인 '지루개고개'가 되었으나 한자로 음차한 대역자인 '芝峴'이 된 것이다.
- **족쪽골** : 배나무골과 서산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
- **피우개고개[稷峴]** : 죽터골에서 진상리 피우개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해필이모랭이** : 왕림동에서 연천읍 차탄리의 덕녕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길모퉁이. 장진천 옆으로 길게 뻗은 도로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심한 경사를 이루며 모퉁이가 된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도둑이 많았다고 한다.
- **활터거리** : 지루개 동쪽에 있는 장진천 변의 들. 예전에 활을 쏘던 사정(射亭)이 있던 곳이다.

## 6) 황지리(黃地里)

본래 마전군 화진면의 지역으로 흠빛이 누렇다 하여 '황지리' 또는 '황지대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석문리를 병합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금계골[金鷄谷], 음지말** : 양지말 동쪽에 있던 마을. 골짜기 안에 있는 산의 형태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그 명혈에는 강릉김씨의 묘가 있으며, 한국전쟁 전에는 개성왕씨(開城王氏)들이 살았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농장이 들어서 있다.
- ◆ **달안이[達遠里]** : 빗점산 동쪽에 있던 골짜기 마을. '윗달안이'와 '아랫달안이'로 나뉜다. '달'의 원래 음은 '달'로 불리었는데, 차츰 '달'로 음이 옮겨가 안쪽의 뜻을 가진 '안'과 합쳐져서 '달안[野內]'이 되었다가 '안'이 앞 음절 '르'를 옮겨 받으며 '다라니' 또는 '달안이'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은대리가 가사평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들에서 안쪽에 위치한 산골짜기 마을'이란 뜻을 가진 땅이름이다.
- ◆ **마탄동(馬灘洞)** : 양지말 남쪽에 있던 마을. 임진강에 있는 말여울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국전쟁 전에는 청풍김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새점[新店]** : 오소리등 동쪽에 있던 마을. 일제강점기에 요업(窯業)이 번창했던 곳이다.
- ◆ **석문동(石門洞)** : 황지리 동남쪽의 322번 지방도 옆에 있는 마을. 장진천 변에 펼쳐져 있는 현무암 절벽의 형태가 문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구석동'으로도 불린다.
- ◆ **양지말** : 마탄동 북쪽에 있던 마을. 음지말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 **오리골[吾柳洞]** : 마산 동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고성이씨(固城李氏)·함창김씨(咸昌金氏)·반남박씨(潘南朴氏)·전주이씨가 모여 살던 마을이었다.

- **가리상골** : 오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가마소** : 말여울 북쪽에 있는 소.
- **개미골** : 금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관낭** : 황지리 서쪽, 임진강의 현무암 석벽. 황지리·남계리에 넓게 펼쳐져 있는 화진별이 경지정리되면서 이곳에 농업용수를 퍼 올리는 양수장을 설치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기와골고개** : 마탄동에서 화진별로 나오는 고개.
- **기탄(岐灘)** : 가마소 옆에 있는 여울. 임진강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강 가운데 퇴적되어 있는 모래섬으로 인하여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긴등** : 빗접산 동북쪽에 있는 긴 산 등.
- **능골** : 새점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개안김씨의 큰 묘가 있다고 한다.
- **도깨비여울** : 가마소 북쪽에 있는 임진강 여울.
- **도당골** : 이러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도당이 있었다 하며 '작은 도당골'과 '도당골'로 나뉜다.
- **등글봉** : 구석동 북쪽에 있는 둥근 봉우리.
- **등골[藤谷]** : 무쇠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원래 산을 뜻하는 고어 '뚝'과 '골'이 합하여 단순히 '산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것이, '뚝'이 'ㄱ'에 동화되는 자음동화로 '등골'로 발음되어 쓰이다가 한자로 음차하면서 '등곡(藤谷)'이 된 곳이다.
- **마구리약물** : 무쇠봉 북쪽 산비탈에 있는 약수.
- **마산(馬山)** : 마탄동 남쪽에 있는 갈마음수형의 산.
- **말여울[馬灘]** : 관낭 북쪽에 있는 임진강 여울. 지형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국(渴馬飲水形局)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망두골** : 등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무쇠봉** : 가마소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봉우리. 높이 134m. 우리 지명에는 '무쇠'·'무시'·'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어 물과 관련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물은 원래 '믄'·'뿔'·'뚝'·'뚝' 등으로 발음되어 왔다. 그 한 예인 무쇠는 '뚝'에 뿌리를 두고 음의 변화를 거치며 '무쇠'로 굳어지게 된다. 뚝 > 뚝 > 무스 > 무수 > 무쇠 + 봉. 따라

서 무쇠봉은 임진강 옆에 있는 봉우리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 **뱃터거리모퉁이** : 마탄동에서 임진강 나루로 가기 전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는 이곳에 있던 나루를 이용하여 미산면 우정리와 왕래하였다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이 전곡과 고랑포간 버스노선이 연결되던 나루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 **빛집산** : 요골 북쪽의 긴등에 딸린 산. 이곳의 지형이 풍수적으로 미녀가 머리를 풀고 앉아 빗으로 빗는 형국인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한탄강 건너 전곡읍 고능리 국사봉은 미녀가 마주 대하고 앉아 치장할 때 보는 거울과 같다 하여 '면경산(面鏡山)'으로도 부르고 있으나, 미녀가 풀어놓은 비녀에 해당하는 명혈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 **서낭고개** : 등골에서 왕림리 안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 **쇠골고개** : 등골에서 새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쇠골** : 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 철광을 개발하였으나 운반 여건이 좋지 않아 폐광이 된 곳이다.
- **수사막골고개, 송낙골** : 오리골에서 금계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오리골고개** : 마탄동에서 오리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벼락재고개'라고도 한다.
- **오소리등** : 달안이 남쪽에 있는 산 등으로, 오소리 형상이라고 한다.
- **요골** : 화진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이러니골** : 등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장진낭[漳津崖]** : 구석동 동쪽, 장진천 변에 펼쳐진 높은 현무암 절벽. 그 중심으로 전곡 - 군남간 도로가 나 있다.
- **회가마골** : 오소리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숯[炭]을 구웠던 곳이라 한다.

## 7) 남계리(楠溪里)

본래 마전군 화진면 지역으로 조선 중엽 '남계(楠溪)'라는 호를 가진 영동이씨 이 모의 묘가 있다 하여 남계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도감포리와 음대포리로 분할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분할되었던 2개 리를 병합하여 다시 남계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계림동** : 도감포 북쪽, 임진강 옆에 있던 마을.

◆ **단풍동(丹楓洞)** : 도감포 북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도 단풍나무 고목 세 그루가 있

었다고 한다.

- ◆ **도감포[都監浦, 陶哥湄, 陶家湄, 甕岩灘]** : 남계리 남쪽,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포구 마을. 옛 지리지나 여러 기행문에는 이곳 합수머리에서 임진강을 따라 전곡읍 마포리 지역에 넓게 펼쳐진 꽃담벌과 미산면 동이리 석은소 앞의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까지의 지형이 항아리의 형태와 닮았다 하여 ‘독안이[壺內]’ 또는 ‘호구협(壺口峽)’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항아리와 닮았다고 하는 지형 안에 있는 도감포의 원래 의미는 ‘항아리 형태의 지형 안에 있는 포구’란 뜻으로 ‘독안개[壺內浦]’ 또는 ‘독안이’로 불리던 것이 ‘도감’과 ‘독암’으로 음이 변하여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음차의 과정에서 ‘도감포’외에 여러 한자 명칭으로 표현되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임진강을 따라 올라온 새우젓·소금 배들이 정박하며 연천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곡물·빨감·도자기 등을 물물교환하던 큰 장이 형성되기도 했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제주고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도감포 전경〉

- ◆ **벌말[坪村]** : 어산 동남쪽에 있는 남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 ◆ **신복동** : 단풍동 북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수복이 되면서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포촌음터[浦村隱垔, 音垔浦里]** : 동매기등 동쪽, 한탄강 언덕 위에 있는 마을. 전곡읍 은대리의 음터와 인접한 포구 마을이 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광무읍지』 마전조에는 음터의 발음대로 ‘음대포리’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큰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었으나 수복 후 경



지를 정리하여 지금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변해 있다.

- **동매기등** : 정가니골짜기 남쪽에 있는 등성이. 지금은 벽돌공장이 들어서 있다.
- **밤여울[栗灘]** : 계림동 서쪽에 있는 임진강에 있는 큰 여울. 미산면 동이리와 통하는 곳이다.
- **빨래나드리** : 동매기등 아래에 있는 한탄강 나루터. 남계리 주민들이 예전에 빨래를 했던 곳이며 전곡읍 고능리로 연결된다.
- **어산(魚山)** : 큰웅덩이 옆에 있는 산. 높이 70m. 산의 모양이 물고기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어씨(魚氏)의 묘가 있다 해서 '어산'으로도 불린다. 현무암 용암대지에 갖힌 원지형인 스텝토 지형의 작은 산이다.
- **정가니골짜기** : 태안개울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주란마루** : 어산 남쪽에 있는 긴 둔덕.
- **중턱굴** : 계림동 북쪽, 임진강 현무암 석벽 중간에 있는 자연 동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한다.
- **진밭고리** : 신북동 북쪽, 남계리 중앙에 있는 밭. 땅이 몹시 질어 곡식이 자라지 못해 피를 많이 심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옥답으로 변해 있다.
- **큰웅덩이** : 남계리와 황지리 경계인 332번 지방도 아래에 있는 웅덩이.
- **태안개울** : 벌말에서 한탄강으로 흐르는 개울.
- **화진벌[禾津坪]** : 남계리와 황지리에 펼쳐져 있는 넓은 용암대지의 평야. 일제강점기 화진수리 조합에 의해 황무지가 개간되어 우량농지가 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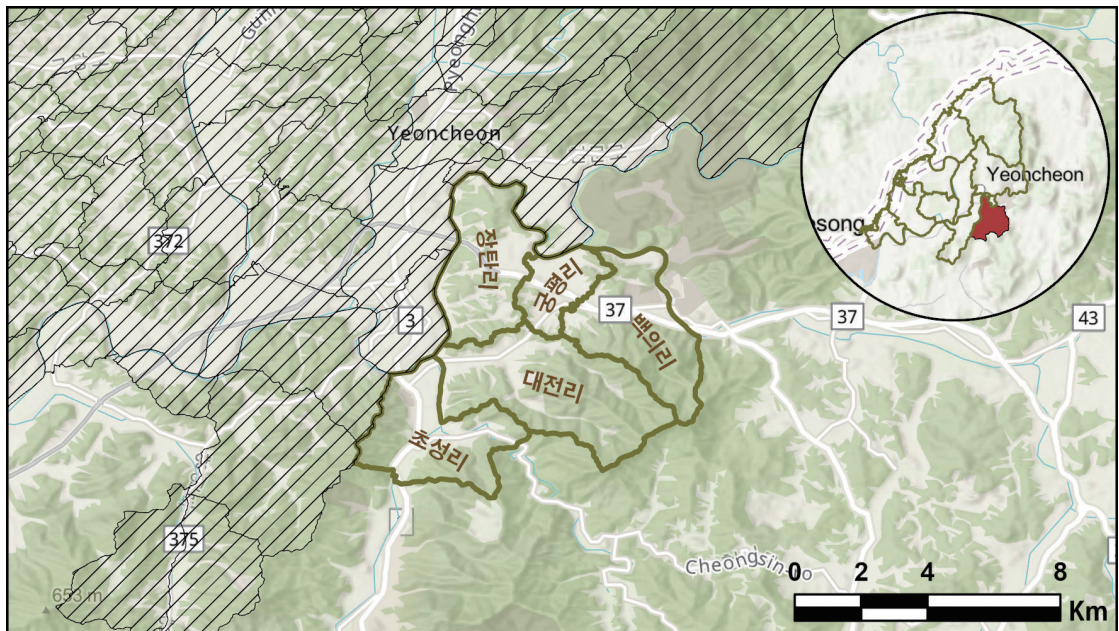
## 4. 청산면(靑山面)

본래 양주목 청송면(靑松面) 지역으로 백의(白蟻)·궁평(宮坪)·장탄(長灘)·초성(哨城)·대전(大田)의 5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군면 통폐합에 따라 양주군 산내면(山內面)의 덕둔(德屯)·사정(射亭)·금동(琴洞)·지동(紙洞)·삼정(三政)·간자(艮子)·갈월(葛月)·송둔(松屯)의 8개 리를 병합하여 청산면이라 하고, 백의·궁평·장탄·초성·대전·덕둔·금동·삼정·갈월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장탄·궁평·백의리 전 지역과 초성·대전리 일부 지역이 공산치하에 놓여 면사무소를 궁평리에서 3·8선 이남 지역인 삼정리로 이전하고 삼정·갈월·금동·덕둔 등 4개의 법정리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수복되어 초성리로 면사무소를 다시 이전하여 9개 리를 관할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덕둔·금동·삼정·갈월 등 4개 리(남청산 지역)는 포천군 신북면에 편입되었고, 그 외 백의·궁평·장탄·초성·대전 등 5개 리는 연천군에 편입되어 다시 청산면이라 하여 현재에 이른다.

면의 경계는 동쪽은 포천시 창수면, 남쪽은 포천시 신북면과 동두천시, 서쪽과 북쪽은 전곡읍과 닿아 있다.

초성1리에 면 소재지인 행정복지센터(청신로 71)가 위치한 청산면의 일반 행정현황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2개 행정리 62개 반, 인구는 4,244명이다.



## 1) 초성리(哨城里)

본래 양주목 청송면 지역으로, 초성리역 남쪽에 있는 초성(哨城)의 밑이 되므로 ‘초말’ 또는 ‘초성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청산면에 병합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의 중심이 지나며 북쪽의 일부 지역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놀미[唎味]** : 초성리 북쪽, 신천과 한탄강의 합류지점 아래에 있는 마을. 예전에는 원산과 서울의 중간 지점으로 여행객과 상인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서던 곳이었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큰물이 이곳을 휩쓸어 폐허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새로 입주가 되어 지금은 ‘새터[新基]’라 불린다.
- ◆ **둔말** : 초말 북쪽에 있는 마을. 구정산 동쪽의 완만한 산등성이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뚝말’로 불리우던 것이 ‘둔’으로 음이 변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마을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다.
- ◆ **법수동(法水洞)** : 열두개울 입구에 있는 큰 마을. 포천시의 국사봉과 종현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흐른다 하여 불교에서 ‘불법이 중생의 마음 속 때를 깨끗이 씻는 물’이라는 뜻을 빌어 ‘법수동’이라 했다는 설과, 이 마을 남쪽의 절골에 있던 절의 이름이 법수사이므로 법수동으로 명명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 ◆ **초말(哨村)** : 초성리역과 청산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마을. 이 마을 남쪽에 위치한 산성인 초성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학담(鶴潭)** : 초말 북쪽에 있는 마을.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던 선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광중에서 학이 나왔다 하여 ‘학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지금은 군부대와 농협 김치가공공장이 들어서 있다.
- **거물래산** : 너븐소 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고무래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무래의 경기지역 방언인 거물래로 부르고 있다.
- **고애고개, 과고개** : 붓들에서 대전리 곧은길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산부리 끝을 굽어 돌아가는 모퉁이처럼 생겼다.
- **고양이산** : 거물래산 동쪽에 있는 산. 형태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한다.
- **구정산(九政山, 九政非)** : 초말 서북쪽에 있는 큰 산. 옛날에 어떤 풍수가 명당을 찾으러 각 처를 다니던 중 이 산의 형상이 정승 아홉이 나올 명당임을 발견하고 산에 올라 그 혈을 찾고

보니 멀리서 보기와는 달리 명당이 못 되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정약수(九政藥水)** : 학담 북쪽, 한탄강 옆의 구정산 북쪽 끝에서 나는 약수.
- **귀옹소** : 학담 북쪽의 한탄강에 있는 크고 깊은 소. 모양이 소의 먹이통인 구유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너븐소** : 법수동 북쪽의 신천에 있는 넓은 소. ‘넓은’의 옛말인 ‘너븐’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이름이다.
- **노적봉(露積峰)** : 법수동 북쪽에 있는 바위산. 멀리서 보면 산 모양이 곡식을 쌓아놓은 큰 난가리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다락터** : 법수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다락처럼 높은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원래는 산의 고어 ‘달’에 ‘터’가 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산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뒷골** : 구정산에 딸려 있는 골짜기. 학담 뒤에 있다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 **딱지봉** : 초말 북쪽에 있는 뾰족한 모양의 봉우리. 상처 표면이 말라붙어 돌기만 딱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초말 주민들이 소를 제물로 하여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마른개울** : 법수동 남쪽, 절골에 있는 개울. 골짜기가 깊고 돌이 많은 곳으로,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여름철 우기에만 물이 흐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말뚝고개** : 초말 남쪽에 있는 고개. 동두천시와 경계가 된다. 예전에 삼국의 경계였던 이곳 초성에서 적의 침공을 신속히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늘 관측을 하며 군마를 항시 말뚝에 매어 놓았던 곳이라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연천군의 3번 국도 관문으로 연천군 표석 및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머개너머** : 법수동에서 대전리 수누골로 넘어가는 고개.
- **무당소** : 신천과 열두개울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소. 옛날에 무당이 빠져 죽은 일이 있다고 한다.
- **보안** : 법수동으로 흐르는 열두개울을 막은 보의 안쪽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붓들** : 법수동 북쪽에 있는 들판. 열두개울을 막아서 만든 보의 물로 관개하여 농사짓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분두골** : 붓들 뒤편에 있는 노적봉과 고양이산 사이의 골짜기.
- **사기막골(沙器幕谷)** : 초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조선시대에 도요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최근에 이 일대가 농지로 개간되면서 가마터가 멸실되어 지표에서 소량의 백자편들만 나온다.
- **삼밭골(麻田谷)** : 작은고드롱골 위에 있는 구정산 골짜기. 예전에 삼밭이 있었다 한다.
- **새창고개** : 법수동에서 초말로 통하는 조그만 고개.
- **새청배소** : 법수동 북쪽, 열두개울에 있는 소.
- **선녀바위(仙女岩)** : 법수동 동쪽, 산 중턱에 외따로 서 있는 큰 바위. 높이 20m. 옛날 이 바위



에 내려와서 바느질하던 선녀를 본 나무꾼이 예쁜 선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도끼로 찍어가며 바위를 올라갔다. 그러자 선녀는 놀라서 하늘로 올라갔고 이후 크게 상심한 나무꾼은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사람들이 이 바위를 '선녀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선녀바위 근경〉

- **신천(莘川)** : 양주시 흥복산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시를 경유, 한탄강에 합류하는 초성리 중앙의 큰 하천.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의 신내에서 따온 이름이다.
- **열두개울(山内川)** : 초성4리 법수동과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의 경계에 있는 개울. 약 6km에 이르는 이 개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자면 열두 번을 건너야 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양주목 산내면의 중앙을 흐른다 하여 '산내천'이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깊은 계곡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이 어우러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작은고드롱골** : 큰고드롱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삼밭골** : 학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삼밭골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절골** : 법수동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현재 절터에는 약간의 와편이 수습될 뿐 관련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절의 이름이나 연혁도 자세하지 않다.
- **쥐산** : 법수동 서쪽에 있는 바위산. 산 동북쪽의 쥐의 먹이 형국인 노적봉을 바라보며 고양이 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상으로, 쥐가 기가 죽어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 **큰고드롱골** : 딱지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초말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핑그재** : 선녀바위 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 2) 대전리(大田里)

본래 양주목의 청송면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크고 넓은 밭이 있으므로 '한밭' 또는 '대전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청산면에 병합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많은 지역이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83년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아장동[亞將洞, 中大田]** : 수누골 입구에 있던 마을. 예전에 아장 벼슬을 지낸 사람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장수황씨(長水黃氏)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윗한밭[上大田]** : 막은데미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 아래한밭의 상대되는 지명이며 '젯밭'로도 불리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全州崔氏)가 15호 살았다 한다.

- **건지산** : 아장동 동쪽에 있는 동그랗고 조그만 봉우리. 해마다 이곳에서 아장동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다 한다.
- **검단이골** : 외룡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고애고개[過峴]** : 고애벌과 초성리 법수동 사이에 있는 고개.
- **고애벌** : 신내 동쪽, 미락골 앞에 있는 벌판. 고애고개 부근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곧은길** : 고애벌에서 초성리 법수동으로 통하는 사이에 있는 곧은 길.
- **구무소** : 뱃나드리 북쪽, 한탄강에 있는 소.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정도로 깊다고 한다. 항시 물이 크게 휘감아 돌아 이 소에 빠지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강물이 크게 도는 것으로 보아 '구무'는 '구명'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 **당차골** : 무쇠말등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도당재** : 수누골에서 아랫대전리의 검단이골로 통하는 고개. 예전에 이 고장의 수호신을 위한 당집인 도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동이지골** : 당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뒤틀박골** : 조가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뒤틀박골** : 큰황개터골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 ‘작은뒤틀박골’, ‘큰뒤틀박골’로 나뉜다.
- **막은데미고개, 되네데미고개** : 윗한밭에서 궁평리 평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 **머개너머** : 아장동 남쪽에 있는 고개. 초성리 법수동으로 통한다.
- **무쇠말등** : 궁평리백의리와 경계에 있는 높은 산.
- **밤나무골** : 산안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골** : 검단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뱃나드리, 뱃터개** : 한밭에서 전곡으로 건너다니던 한탄강 나루터. 3번 국도 쪽으로 다리가 생기면서 나루는 없어졌다. 지금은 군 훈련장이 있다.
- **버들골** : 아래한밭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버드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비석골** : 검단이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양주목사 선정비 한 기가 있었다 하나 자세한 내용은 물론 비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산안골[山內谷]** : 연미골의 가장 깊숙한 산안에 있는 골짜기. 포천군 신북면 삼정리와 통하며 삼형제바위가 있다.
- **삼신골** : 검단이골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샘못골** : 일아리때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바위틈에서 솟구치는 샘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샘물터** : 외룡골 남쪽에 있는 우물.
- **서낭당고개** : 화전골과 고애벌 사이에 있는 고개. 한국전쟁 전까지도 돌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성재고개[城峴]** : 우목골에서 장탄리로 넘어가는 고개. 대전리산성의 옆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소경고개** : 대전리 연미골에서 궁평리의 요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원골** : 조가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
- **수누골** : 윗한밭에서 종현산까지 이어지는, 대전리에서 가장 큰 산골짜기.
- **수려울** : 버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승지골** : 큰황개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신주변대** : 아장동 동쪽에 있는 큰 산.
- **짜리두목골** : 수누골 막바지에 있는 큰 골짜기. ‘둥근’ ‘둘러싸임’ 또는 ‘산’을 뜻하는 고어의 ‘뚝’이 ‘두무’로 옮겨간 것으로, ‘짜리나무가 많은 산골짜기’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아랫모퉁이** : 아랫대전리 마을에서 한밭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길 모퉁이.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가며 대전리 마을에서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한국전쟁 전까지 주변에 부여 서씨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연미골[燕尾谷] : 윗한밭 동쪽에 있는 깊고 큰 골짜기. 지형이 제비의 꼬리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현재는 '연못골'로 불리고 있다.
- 외룡골 : 수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우묵골 : 성재 동쪽에 있는 우묵한 모양의 골짜기.
- 이비장골 : 작은황개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이비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 일아리때 : 아장동 남쪽에 있는 산.
- 작은미락골 : 고애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황개터골 : 샘못골 옆에 있는 골짜기. 큰황개터골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잔방골 : 검단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다는 뜻의 '잔'에 산의 고어 '받'이 변한 음 '방'과 골이 합쳐져 이루어진 합성지명으로 '작은 산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이다.
- 잣말둔덕 : 윗한밭 동쪽에 있는 넓은 둔덕. 막은데미고개 옆에 있는 잣말(윗한밭)의 뒤편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군부대가 있다.
- 절골 : 무쇠말등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조가지골 :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종현산(鐘懸山) :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88.6m. 예전에 산 정상에 큰 종을 매달아 놓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큰미락골 : 고애벌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현재 연천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 큰직절[一直寺] : 종현산 북쪽에 딸린 골짜기. '직절'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큰황개터골 : 작은황개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풀무골 : 아장동과 윗한밭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
- 한밭[大田] : 한탄강 옆에 위치한 대전리의 유래가 되는 넓고 큰 밭. 넓이가 약 1만 1000평으로 소로 7일 한나절이나 갈아야 되는 면적이었다고 한다. '한'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크다' 또는 '넓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고어로, 대전리 한밭의 경우에는 '넓은 밭'으로 풀이해야 하는 땅 이름이다.
- 화장골[火葬谷] : 연미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화장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 화전골[火田谷] : 수려울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화전밭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회곶부리소 : 한밭 남쪽, 신천에 있는 소.

### 3) 장탄리(長灘里)

본래 양주목의 청송면 지역으로, 한탄강에 긴 여울이 있으므로 '긴여울' 또는 '장탄리'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산면에 병합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느릅나무골[楡木谷]** : 아랫거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느릅나무가 있었다 한다.
- ◆ **능안[陵內洞]** : 작은범골 남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이곳 도가니혈의 명당에 임금의 능자리를 잡으려고 이름난 지관을 보내 보게 하였으나 자리를 찾지 못하자 능자리가 아니라 해서 '능안'이라 했다는 이야기와 오위장 이경빈의 묘가 있다 하여 '능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까지 오위장의 사패지인 이곳에 경주이씨(慶州李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 ◆ **도란말[回洞]** : 지금은 철거된 한탄강소수력발전소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산부리 끝의 모퉁이 모양으로 장수개 마을에서 이곳을 지나려면 굽어서 돌아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새말[新村]** : 궁논 옆의 새로 형성된 마을.
- ◆ **새터** : 도란말 북쪽에 있던 마을.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철수한 군부대 터가 위치하고 있다.
- ◆ **숯골[炭谷]** : 숯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
- ◆ **아랫거저울** : 이농골 북쪽의 한탄강 옆에 있는 마을. 거저울 마을의 아래에 위치한다.
- ◆ **안말[內洞]** : 도란말 남쪽의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 **양성골** : 큰жат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양산골'로도 불리며 한국전쟁 전에는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 ◆ **윗거저울[拳灘洞]** : 너래들비냥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어떤 거사가 살았다 하여 '거저울'이라 불렀다고 한다. 원래는 언어학적으로 '가[邊]'와 '자리'가 합쳐진 복합어 '가장자리'가 음이 변해 거저울로 쓰인 곳으로, 이후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居士'로 표기된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크게 곡류하는 한탄강이 주먹의 형태와 같다 하여 '권탄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300년 전에 통덕랑 박필익(朴弼益)이 이곳에 정착한 후부터 반남박씨(潘南朴氏)의 집성촌이 되었다.
- ◆ **장수개[長水浦, 長淵洞]** : 지금은 철거된 한탄강소수력발전소 부근에 있는 큰 마을. 긴여울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한탄강 물이 긴 호수처럼 많이 모여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이 마을은 1558년(명종13) 서봉천(徐奉川)이란 사람이 양주에서 이곳으로 처음 이주했다고 하며, 지금도 그 후손인 이천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 ◆ **큰잣터** : 장수개의 가운데 있는 마을. '산'의 고어 '잣'에 '터'가 합쳐져 '큰 산골마을'이라는 뜻을 가지는 옛 지명이다.
- ◆ **후동(後洞)** : 윗거저울 뒤에 있는 마을.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 **거저울고개** : 숯골벌과 아랫거저울을 잇는 고개. 현재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 **고탄교(高灘橋)** : 전곡읍 전곡리 고탄동과의 사이에 있는 한탄강 다리. '높은여울다리' 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건설한 '에반스교'라고도 불리는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고 새로운 다리가 가설되어 있다.
- **굴여울** : 이링기리 앞에 있는 한탄강 여울. 일제강점기 때 한탄강 건너 전곡읍 신답리에 금광 굴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궁논(宮畚)** : 양성골 북쪽에 있는 궁궐 소유의 논. 예전에 궁궐에서 관리했다고 한다.
- **긴여울(長灘)** : 성재소 북쪽의 한탄강에 있는 큰 여울. 장탄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지금은 하류의 군 도하훈련장의 대형보로 인하여 여울의 모습이 많이 변하였다.
- **너래들비낭** : 아랫거저울과 윗거저울 사이에 넓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벼랑. 수복 후 이곳으로 도로를 가설하여 윗거저울로 가는 길이 원활하게 되었다.
- **능안** : 불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능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도당골** : 양성골 안에 있는 골짜기. 도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도리소** : 풀무산 북쪽의 한탄강에 있는 소. 강물이 굽어 돌아 흐르는 데 있어 '도리소'라 불렀다고 한다.
- **뒀봉** : 능안 남쪽에 있는 봉우리. 정상부의 험한 지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뒷벌(後坪)** : 이링기리 옆에 있는 벌판. 윗거저울의 뒤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마즈쟁이** : 윗거저울 앞에 있는 한탄강 여울.
- **매봉재(烽火山)** : 텃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83m.
- **박아지골** : 칠성배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수복 후 어떤 사람이 이곳에 박을 심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봉화봉(烽火峰)** : 숯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하나 지금은 멸실되어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분토골(盆土谷)** : 윗거저울 남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지형이 항아리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불당골(佛堂谷)** : 큰잣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 **사냥골** : 분토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사동(蛇洞)** : 거저울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뱀이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뱀발골'로도



부른다.

- **삽재골** : 외룡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의 뜻을 가진 '샛'이 복합어의 앞음절이 될 때 '바·ㅎ' 음운침가 현상에 의해 '삽'으로 발음되는 합성 지명이다. 삽재골은 '삽[間] + 재[峴] + 골[谷]' 즉 장탄리에서 대전리로 넘어가는 지름길의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새골** : 대전리산성 북쪽에 딸린 좁은 골짜기.
- **선봉나드리[仙峰渡]** : 도리소 서쪽에 있는 한탄강 나루. 전곡읍 신답리로 통한다.
- **성재, 대전리산성** : 장탄리와 대전리 사이에 있는 산성.
- **성재소** : 장탄리 가장 남쪽에 있는 한탄강 소. 성재 밑에 있다 하여 붙여졌다.
- **성주개** : 숲골별 동쪽에 있는 우묵한 골짜기.
- **수리봉** : 뒷별 동쪽에 있는 봉우리. 한탄강 남쪽에 있다.
- **숯고개[炭峴]** : 거저울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현재 새로 개통된 37번 국도의 교차로가 있다.
- **숯골별** : 능안 남쪽에 있는 장탄리에서 가장 큰 용암대지의 들판. 숯골 마을 앞에 있다.
- **안골[內洞]** : 사동 안에 있는 골짜기.
- **외판묘골** : 함정골 북쪽의 골짜기. 예전에 외파로 떨어진 묘가 있었다 한다.
- **외룡골** : 흘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우무소** : 풀무산 아래쪽 한탄강에 있는 소.
- **이농골** : 아랫거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이링기리** : 거저울 북쪽의 한탄강 옆에 있는 만평 넓이의 큰 밭. 소로 7일 갈이의 넓이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자랑골** : 큰성재 옆에 있는 골짜기. 좁거나 작은 것을 뜻하는 말인 '잘'이 '자라'로 음이 바뀌고 '골'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자랑'으로 변한 지명이다.
- **작은범골** : 큰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성재** : 새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대전리산성의 북쪽에 딸려 있는 작은 골짜기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장구맥이** : 윗거저울과 뒷별 사이를 넘어 다니던 고개 목. 지형이 장구 형태이다.
- **장구산[杖鼓山]** : 수리봉 동쪽에 있는 바위산. 그 외형이 가운데가 잘록한 장구와 닮았다 한다. 연천읍 고문리에서는 안산인 이 산의 정기를 받아 무속인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 **장독바위** : 장구산 남쪽, 한탄강 변에 있는 장독처럼 생긴 큰 바위.
- **정주동산(定州東山)** : 함정골 북쪽에 있는 공원묘지. 평안북도 정주군민회와 평안도민회에 의하여 조성된 대규모 실향민 묘역이다.
- **칠성배미** : 고탄교 동쪽에 있는 고래실 논. 일곱 군테에서 삼이 솟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쪽으로 37번 국도가 지나간다.
- **큰미골** : 궁논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큰범골** : 수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어떤 부자(父子)가 보리를 지고 가다가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호환을 당한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큰성재** : 작은성재 옆에 있는 골짜기.
- **텃골** : 장수개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풀무산[治山, 仙嶂]** : 능안 동쪽에 높이 솟은 바위산. 산의 외형이 풀무와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예전에 어떤 풍수가가 능안 뒷산에 올라서서 주위 산세를 보니, 앞산은 풀무와 같고, 남쪽의 숲골은 숲가마, 동북쪽 신답리의 쇠촌이[金村]는 쇠빛갈, 북쪽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는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반침 쇠덩이인 모루 형상이었다. 그래서 쇠를 녹일 수 있는 도가니에 해당하는 혈을 찾기 위해 능안 전체를 다녀보았으나 끝내 그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전설에는 특이한 지형의 이 바위산 봉우리에 신선이 자주 내려와 노닐었다 하여 '선봉'이라고도 했다고도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몇 해 후에는 이 바위산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때부터 이 바위를 주변에서는 '자살바위'라고도 불렀다. 최근에는 백악기 고기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이 산의 이채로운 형태로 인하여 지질관광의 명소가 되면서 '좌상바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도 홍보되고 있다.



〈풀무산 전경〉

- **함정골** : 정주동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산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 놓은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행주골** : 숲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목장이 자리하고 있다.

- **홀짜골** : 자랑골과 외룡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큰홀짜골'과 '작은홀짜골'로 나뉜다.

#### 4) 궁평리(宮坪里)

본래 양주목 청송면 지역으로 인조와 귀인조씨(貴人趙氏) 사이의 둘째 아들인 낙선군 이숙(李瀟)의 묘와 재실인 재궁이 있어 '궁말'이라 하였던 곳이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별말인 평촌을 병합하여 궁평리라 해서 청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건너말** : 의요동 안에 있던 마을. 배나무골 마을의 건너에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궁말(宮村)** : 낙선군 묘 아래에 있는 마을. 8·15해방 전까지도 낙선군의 제사를 받들던 재궁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 공산치하에서 그 사당을 헐어 양촌말에 면사무소를 세웠으나 이마저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 ◆ **돌곶내** : 양촌 북쪽에 있는 마을. 백의리에서 내려오는 용수개울의 건너에 있다 하여 '돌곶내'라 불리다가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 **아랫말** : 의요동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마을.
- ◆ **양촌(陽村)** : 황새봉 아래에 있는 사거리 남쪽 마을. 양지쪽이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윤씨·김씨·이씨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해 있다.
- ◆ **의요동(蟻要洞)** : 평촌 남쪽에 있는 마을. 백의리 개미산 옆에 있는 큰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와 함종어씨가 12대째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 ◆ **중간말** : 뒷골 입구에 있는 마을. 양촌과 한탄강 아우라지의 중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평촌(坪村)** : 양촌 남쪽 별판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살던 마을이었다.
- ◆ **호조골** : 되네미고개 북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

- **가운데들** : 돌곶내 동쪽에 있는 들.

- **고막은고개** : 궁말에서 돌곶내로 넘어 다니던 고개. 낙선군 묘의 좌청룡이 되는 산부리 원지

- 형이 잘록하기 때문에 지기가 허하다 해서 이곳을 흙으로 높이 막았다 하여 지어진 고개 이름이다.
- **깃대봉[旗峯]** : 소경고개 서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57m. 일제강점기 때 세부측량을 위해 이 봉우리 정상에 표준기를 꽂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도리소** : 아우라지에 있는 소.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하며 물이 크게 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되내미고개** : 대전리와 궁평리 사이에 있는 고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가 서울을 거쳐 함경도로 북진하던 중, 이 고개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려 할 때, 동네 이름을 묻자 청송(靑松) 땅이라 하니 본국에서 자기 누이가 '조선에 가거든 소나무 송(松)자를 주의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군사를 거두어 오던 길로 방향을 바꾸어 다시 고개를 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양호한 도로가 되었으나 원래는 매우 경사가 심하여 넘기가 힘든 된 고개의 변형인 되넘이의 가능성도 있다.
  - **뒷골** : 아우라지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중간말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졌다.
  - **매골** : 건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의 고어 '뫼'가 발음이 변하여 '매'로 부르고 있는 곳으로, '산골짜기'라는 뜻이다.
  - **무쇠말등** : 의요동 남쪽의 종현산에 딸린 산 등.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 산의 혈을 끊기 위하여 무쇠로 말을 주조하여 묻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배나무골** : 의요동의 세 골짜기 중 가운데 골짜기. 옛날에 배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골짜기 입구에 의요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 있었다.
  - **붓들[沓坪]** : 양촌 동쪽에 있는 들판. 의요동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보를 막아 관개하는 논이 있는 별판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봉화재[烽火峴]** : 한자골 북쪽에 있는 고개. 높이 183m.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전해 오지만 현재 아무런 유구도 남아 있지 않다.
  - **부군터** : 돌곶내 마을에 있는 터. 한국전쟁 전까지도 세 그루의 참나무가 있어 마을에서 부군 나무로 받들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한국전쟁으로 나무가 베어 없어져 지금은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비독소** : 궁신교 서쪽에 있는 소.
  - **산안골** : 깃대봉 북쪽에 딸린 골짜기. '소란골'로도 알려져 있으나 '산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이름이다.
  - **새재고개** : 의요동과 백의리 나븐골 사이의 고개. '새[間]'와 '재[峴]'가 합하여 '새재'가 되었다가 다시 '고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다.
  - **소경고개** : 매골과 대전리 연미골 사이에 있는 고개. 전설에는 무학대사가 어떤 사대부의 못 자리를 찾으러 다니던 중 연천읍 고문리를 지날 때 멀리 정남향에 있는 이 부근의 고개가 5대



정승, 5대 천석군이 나올 명당임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한탄강을 건너 이곳에 이르러 쇠를 놓아 보았으나 끝내 혈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풍수의 대가인 자신이 눈뜬장님과 같다 하여 이 고개를 넘어가며 '소경고개'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고갯마루에 큰 돌 서낭당이 있었다.

- **아우라지** :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합수머리 강.
- **용수개울** : 백의리 박석고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개울.
- **장승거리** : 돌곶내와 중간말 사이에 있는 조그만 언덕길. 풀무산이 중간말을 내려다 보며 억누르는 형상이라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그 비보의 방편으로 이곳에 장승을 세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중에 장승이 없어졌는데, 지난 1994년 2월 22일 궁평리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한 쌍의 장승을 다시 세웠다.



〈궁평리 장승 근경〉

- **장시미골** : 평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군부대가 있다.
- **장파골** : 가운데들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 장이 섰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찬우물고개**[冷井峴] : 궁평초등학교에서 찬우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찬우물** : 양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찬 샘물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피아골** : 새재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피가 많이 자생하던 골짜기라는 ‘피밭골’이 변한 이름이다.
- **한자골** : 궁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은 크다는 뜻으로, 예전에 장탄리 장수개 마을로 넘어 다니던 큰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황새봉** : 궁평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봉우리. 어떤 사람이 이곳에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니 광중에서 큰 황새가 날아갔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산의 형태가 황새 형국이라고도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궁말 주민들이 이산 정상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 5) 백의리(白蟻里)

본래 양주목 청송면 지역으로 개미 형태의 산이 있으므로 ‘개미산’·‘개미허리’·‘의요리’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의요리와 능안의 옛 이름인 백호리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합성지명인 ‘백의리’라 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능안[陵內洞, 陵內 白虎里]** : 독박골 북쪽에 있던 마을. 1666년(현종7)경 죽재 윤인함의 손자이며 승정원의 승지를 지낸 윤유진(尹惟晉)이 아들 7형제 중 효성이 가장 지극했던 만경(曼卿)과 순경(舜卿) 두 아들에게 여러 선영의 시묘를 명하여 이곳으로 이주하게 하였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이 마을에 파평윤씨가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두 형제는 처음에 두둑말에 정착하였으나 도둑떼의 등쌀에 지금의 능안으로 옮겨와 살았고, 두둑말에서 언덕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하여 ‘능안’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윤씨 선대의 큰 묘가 많다 하여 ‘능내동’으로 불렸다 한다. 백호리의 유래는 전해오지 않지만 한국전쟁 전까지도 ‘백호능안’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쓰였다고 한다.
- ◆ **두둑말** : 열수 서쪽 둔덕에 있던 마을. 지금은 육군 제5보병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출장하던 관원과 나그네들이 이용하던 원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 ◆ **독박골[杜岩洞]** : 축동 서쪽에 있는 마을. 골안에 있는 ‘독바위’에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약 350년 전에 전주이씨가 처음 개척하여 살면서 한국전쟁 전에는 35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묘옥동(妙玉洞)** : 개미산 북쪽에 있는 마을. '해주골'이라고도 한다.
- ◆ **신촌(新村)** : 영평천 남쪽 강변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축동(築洞)** : 육군 제5보병사단 사령부 정문에서 남쪽의 은판이 언덕 사이에 남북으로 축동 나무 고목들이 줄지어 있던 곳. 예전에 푹박골 마을에서 재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풍수로 막기 위해 영평천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수구막이를 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축동나무들은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백의리 마을이 들어서 있다.
- ◆ **큰능안** : 윤인함 묘 부근에 있던 마을.

- **개미산[蟻山]** : 박석고개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둥근 산. 산의 형상이 개미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예부터 이 산에 인위적인 해를 가하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도 신성시한다고 한다.
- **고시래골** : 승지골 옆에 있는 좁은 골짜기. 고사리가 많아 유래되었다.
- **곧장피** : 능안마을 동쪽, 영평천으로 곧게 뻗은 산.
- **골안[谷內]** : 푹박골 남쪽, 종현산까지 나 있는 큰 골짜기. 입구에 군부대가 있다.
- **괴목정(槐木亭)** : 윤인함 묘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 정자. 한국전쟁 직후에 베어 없어졌다.
- **구석터** : 윗골 북쪽에 있는 구석진 골짜기. 건물터가 있어 지금도 그곳에서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 **깃대봉** : 능안 마을 서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60m. 일제강점기 초에 토지 세부측량을 위한 표준기를 꽂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나분돌골** : 개미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계곡 중간에 넓은 돌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나분자골'로도 불린다.
- **넓은마당** : 신야골 남쪽에 있는 넓은 평지. 한국전쟁 전까지 화전민이 살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숲으로 우거져 있다.
- **누에머리소** : 뒷재별 동쪽의 영평천에 있는 소. 포천시 장수면 신흥리의 누에머리산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능안고래** : 능안 마을 우묵한 지형에 있는 고래실 논.
- **도둑터** : 푹바위 남쪽에 있는 넓은 공터. 예전에 도둑이 많았다고 한다.
- **뒷재너머** : 능안에서 뒷재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뒷재별** : 신촌 마을 부근에 있는 별판.
- **푹바위[杜岩]** : 사라귀봉 동쪽 산록에 있는 바위.
- **마당바위** : 어두니골 동쪽, 골안 개울에 있는 넓은 바위.
- **문쟁이들** : 개미산과 묘옥동 사이에 있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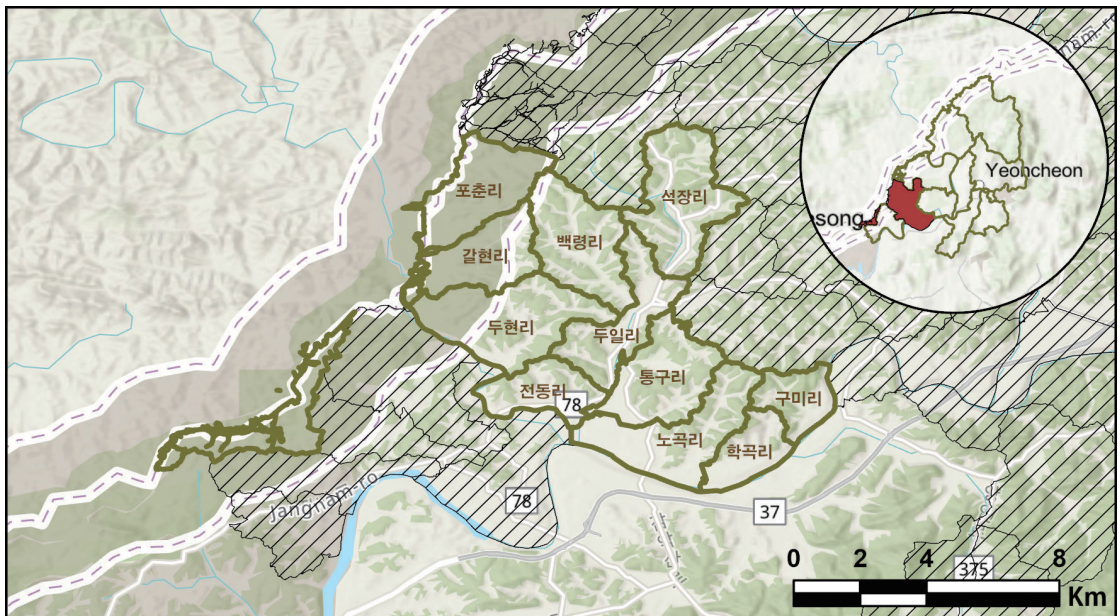
- **박석고개[薄石峴]** : 백의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고개. 약 120년 전 능안에 살았던 윤대일(尹大- )이 이 고개를 넘어 다니는 행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 고갯길에 넓직한 박석을 깔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그 후부터 능안 마을에 악상(惡喪)이 계속 일어나 돌을 모두 뜯었다고 한다. 지금은 37번 국도의 입체교차로가 되었다.
- **방석소나무자리** : 박석고개 북쪽 산등성이의 소나무 고목이 있었던 자리. 한국전쟁 전에는 능안 마을에서 서낭나무로 받들었으나 전쟁 직후 베어 버렸다고 한다.
- **배회낭** : 백의리 마을 동쪽, 영평천에 펼쳐진 현무암 절벽. 영평천이 포천시 창수면 고소 성리부터 흘러 이곳에 오는 동안 크게 돌면서 곡류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사라퀴봉** : 승지골 남쪽,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두 개의 큰 바위 봉우리.
- **삼거리** : 박석고개 정상에 있는 세 갈래 길. 37번 국도와 322번 지방도가 만나는 곳으로 두암동·전곡·되네미로 갈라진다.
- **삼밭골** : 요골 안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삼[麻]을 심었던 밭이 있었다.
- **새알번지** : 넓은마당 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골안의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한다.
- **새재고개** : 개미산에서 궁평리 의요동의 아랫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샘골[泉谷]** : 도둑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샘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두꺼비 모양의 '두껍바위'가 있다.
- **선바위** : 누에머리소 남쪽, 영평천 변에 서 있는 바위. 윤인함 묘의 좌청룡 끝에 해당한다.
- **성주골** : 골안 입구에 있는 골짜기. '승지골'이라고도 한다.
- **수산양지락** : 도둑터 옆에 있는 집터. 골안에서 가장 양지바른 곳으로 눈이 내려도 빨리 녹는다고 한다.
- **산야골** : 큰어두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아랫고개** : 큰능안에서 뒷재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어두니골** : 수산양지락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까지만 하여도 원시림이 우거져 빛이 들지 않는 음지로 어둡고 음침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작은어두니', '큰어두니'로 나뉜다.
- **여우박골** : 박석고개 서남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한국전쟁 전까지도 여우가 많이 살며 새끼를 번식하는 굴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열수(烈水)** : 두둑말 동쪽, 영평천에 있었던 여울.
- **요골** : 요골모퉁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요골모퉁이** : 개미산 북쪽에 있는 모퉁이. 요골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37번 국도의 공사로 인하여 모퉁이는 없어지고 곧고 확 트인 길로 변해 있다.
- **용수개울** : 문쟁이들에서 궁평리로 흐르는 개울.
- **원비낭** : 배회낭 남쪽에서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의 군자동 근처까지 펼쳐진 영평천 변의 바위 벼랑.

- **윗골** : 능안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은판이** : 백의리 마을 남쪽에 있는 넓은 둔덕. ‘윗은판이’와 ‘아래은판이’로 나뉜다
- **절터** : 넓은마당에 있는 절터. 한국전쟁 전까지 밭으로 경작되던 유지(遺址)에서 소량의 와편만 보였다 하나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어 확인이 어렵다.
- **정골[鼎谷]** : 은판이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영평천으로 뻗어 있다. 예전에 솥을 주조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칼봉재** : 뒷재너머 서쪽에 있는 바위산. 칼 형상이라 한다.
- **형제바위** : 선바위 남쪽의 영평천에 있는 바위. 높이 25m. 어린 형제가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바위 밑에 있는 깊은 소에 동생이 빠지자 형이 구하려다가 안타깝게 함께 빠져 죽었다는 사연이 전해 오는 곳이다.

## 5. 백학면(百鶴面)

본래 조선시대에는 적성현(積城縣) 지역으로 옛 적성현 관아에서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면이라 하여 학곡(鶴谷)·노곡(蘆谷)·구미면(龜尾淵)·통구(通口)·전동(箭洞)·장곡(獐谷)·맹동(孟洞)·고촌(高村)의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으로 마전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을 하신면(何新面)이라 개칭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장단군 지역에 속해 있던 장신면(長新面)의 백령(百嶺)·갈현(葛峴)·두현(頭峴)의 3개 리를 병합하여 백령리와 학곡리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백학면이라 하여 백령·두일(斗日)·노곡·전동·학곡·구미·갈현·두현·통구의 9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에 의해 분단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남쪽 지역에 속한 노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은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에 따라 노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이 다시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지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장단군 지역이었던 장남면의 원당(元堂)·자작(自作)·판부(板浮)·고랑포(高浪浦)·반정(伴程) 등 5개 리와 현재 북한 지역인 장도면의 두매(杜梅)·매현(梅峴)·상(上)·중(中)·하(下)·사시(沙是)·항동(項洞)·오음(梧陰)·고읍(古邑)·석주원(石柱院) 등 10개 리와 대강면(大江面)의 청정(靑廷)·나부(羅浮)·포춘(浦春)·우근(禹勤)·독정(篤正) 등 5개 리를 병합





하여 총 29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 제111호에 의해 장남면 지역이었던 원당리를 관할하는 원당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77호에 의해 미산면 석장리를 편입하여 30개 리가 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군 조례」 제206호로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원당·자작·판부·고랑포·반정의 5개 리가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면의 동쪽은 미산면, 남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하여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이북지역에 속한 옛 장단군,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 총 15km의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백령리 일부와 두현리는 지금도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고, 백령리 일부, 두일·노곡·전동·학곡·구미·석장·통구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군사분계선의 완충지대 및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두일2리에 면 행정복합센터(청정로 534)가 위치한 백학면의 일반현황은 2023년 1월 1일 현재 13개 행정리, 39개 반에 인구수는 2,527명이다.

현재 21개의 법정리 중에 주민이 입주해 있거나 영농이 가능한 곳은 백령·두일·노곡·전동·학곡·구미·석장·갈현·두현·통구 등 10개 법정리이다.

## 1) 백령리(百嶺里)

본래 조선시대 장단도호부의 장동면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역참시설인 백령역이 있어 ‘백령리’ 또는 ‘역말’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장신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이 입주해 있고 출입 영농만 가능한 민통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 **대촌동(大村洞)** : 역말 동쪽에 있던 마을. 소촌동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밥재[食峴洞]** : 상화산 서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예부터 이곳은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가난한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오지만, 원래 ‘밖[外]’이라는 뜻이 다른 낱말과 합성되면서 지명풀이가 된 곳이다. 백령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다른 지역과 통하려면 고개를 넘어야만 하는데, 이곳이 가장 밖에 위치한 고개가 되어 처음에는 ‘밖재[外峴]’로 불렸다. ‘밖’의 옛말이나 사투리가 ‘밭’이었는데 다른 낱말과의 합성 과정에서 ‘밭’·‘박’ 또는 ‘밥’으로 옮겨가 ‘밥’이 되었고 다시 ‘밥’을 음차한 한자 이름인 ‘식현동’이 된 지명이다.

- ◆ **배목이[梨木洞]** : 달봉 동쪽에 있던 마을. 배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 오지만 실제로는 '산'의 고어 '밭'이 변한 '배'에 '목[項]'이 합쳐진 것으로 '산을 넘어가는 목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 ◆ **소촌동(少村洞)** : 대촌동 옆에 있던 마을.
- ◆ **아래꽃뫼[下花山洞]** : 두일리 열묘각시꽃봉 서쪽에 있는 큰 마을.
- ◆ **역말[驛村, 新村]** : 백령리 중앙에 있던 마을. 고려~조선시대에 장단군의 동파역과 군남면 옥계역을 연결하였던 백령역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모두 농경지로 변해 있다. 『여지도서』 장단도호부편 역원조에는 “백령역은 부의 동쪽 50리에 있고 도원도에 속하며 상마 2필, 중마 5필, 하마 2필을 있다. 소속된 관리인은 16명, 남자노비 18, 여자노비 12명이다(百嶺驛 在府東五十里桃源道屬 上等馬二匹 中等馬五匹 下等馬二匹 吏十六名 奴十八名 婢十二名)”라고 기술하고 있다. 백령역의 풍경에 대한 한시가 여러 수 전해 온다.
- ◆ **염수골[廉水洞]** : 역말 북쪽에 있던 마을. 염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윗꽃뫼[上花山洞]** : 민중훤 묘 아래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여흥민씨(驪興閔氏) 소윤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마골[釜谷]** : 쇠파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가마와 같다 하여 지어졌다고 전해오지만, 원래는 고어 '감'에 뿌리를 둔 '큰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강가물자리** : 달봉 남쪽에 있는 논. 논바닥에 자갈이 많아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모를 내지 못하는 한답(旱畓)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작논'이라고도 한다.
- **구산티[九山, 李持平谷]** : 역말과 염수골 사이에 있는 산. 구(九)자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지평 벼슬을 한 이씨의 묘가 있다 하여 '이지평골'이라고도 불린다.
- **논고래** : 독조골에 있는 고래실 논. '용우물자리'라고도 불리우며,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전해 온다.
- **느티쟁이[槐木亭]** : 대촌동 남쪽에 있던 느티나무 정자터. 한국전쟁 전까지도 약 400년 수령의 큰 느티나무와 주막이 있었으나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다.
- **달봉** : 역말 동쪽에 있는 봉우리. 매년 정월대보름에 정상에서 달맞이를 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원래는 산을 뜻하는 고어 '달'과 봉우리가 합쳐져 '산봉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동제인 산제를 올리던 산제당이 있었다 하여 '산제봉'으로도 불리고 있다.
- **독조골** : 역말에서 쇠파리산까지 있는 긴 골짜기. 갈현리의 점말에 있던 웅기점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독재골'로 불리던 것이 '독조골'로 음이 변한 듯하며 '독주골'이라고도 불린다.
- **두루봉** : 가마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87m.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

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봉우리 정상에서 북서쪽 500m 지점의 비무장지대 능선 후사면에 북한의 남침용 제1땅굴이 위치한다.

- **떡논** : 샘골에 있는 여섯마지기 논.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항상 농사가 잘되어 떡을 해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망재** : 차일봉 남쪽, 백령리·두일리·석장리 경계에 있는 산.
- **배구슬** : 망재 안에 있는 골짜기. 산의 고어 '밭'에 뿌리를 두고 음이 옮겨진 '산골짜기'의 뜻을 가진 곳이다.
- **백명고개[百名峴]** : 역말과 갈현리 사이에 있는 고개. 호랑이와 도둑이 항상 들끓어 백 명이 모여야만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산고개'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산의 뜻인 '밭'이 '백'으로 음이 변하여 '백고개'로 부르게 되면서 백령리의 유래가 되는 한자 지명의 '백령'으로 표기된 것이다.
- **삭시골** : 샘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샘골[泉谷]** : 달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샘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원주원씨(原州元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석물세기** : 샘골 동쪽에 있는 산 등. 큰 석물을 갖춘 김자점(金自黈)의 조상 묘가 있었으나 그가 역모로 처형되자 묘도 부관참시당하여 파헤쳐 버렸다고 한다.
- **소도독골** : 강가물자리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다가 이 골짜기 안에서 잡아먹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골짜기 정상에 피부병에 효험 있는 옷물 약수가 있다.
- **쇠파리산** : 수리봉 북쪽에 있는 산. 일제강점기 때 금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광산을 개발했으나 소량의 쇠와 황물질이 나와 폐광되었다고 한다.
- **수리너머** : 큰뒷골에서 수리봉 옆을 지나 갈현리의 점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수리봉** : 백명고개 북쪽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 높이 179m. '높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섯마지기들** : 역말 위에 있는 50마지기 들.
- **요골[要玉洞]** : 염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원내미[院隄]** : 배목이에서 왕징면 작동리의 돌모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작은뒷골** : 큰뒷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큰뒷골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장고개[場峴]** : 독조골에서 장단의 구화장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갈현리의 점말과 통한다 하여 '점말고개'로도 불린다.
- **장승고개** : 염수골에서 왕징면 작동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절골** : 망재 남쪽에 딸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점터** : 화산동 위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웅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고 한다.
- **진고개** : 왕징면 작동리의 곰장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비가 오면 땅이 몹시 질어 지어진 이름이다.
- **차일봉(遮日峰)** : 석장리·작동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52m.
- **큰뒷골(後洞)** : 소도독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윗꽃뫼 마을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큰뒷골** : 백명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역말의 뒤에 있는 큰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한섬지기들** : 독조골 중앙에 있는 한 섬지기의 넓이가 되는 들.
- **한세울고개** : 샘골에서 두일리의 한세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2) 두일리(斗日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적성현에서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장곡리·고촌리를 병합하여 '두일'이라는 골짜기에서 이름을 따 두일리라 하여 백학면에 편입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구장거리(舊場巨里)** : 만가대산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두일장이 열렸던 곳이었으나, 여름에 임진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이곳까지 강물이 역류하여 장이 설 수 없게 되자 장거리를 지금의 두일장 자리로 옮긴 후 이곳을 구장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 ◆ **노리울(獐谷洞)** : 국사봉 동쪽, 골짜기 안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박진(朴晉) 장군의 후손인 밀양박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골짜기 안이 넓다 하여 '너르골'로 쓰여 왔으나, 사투리 지명으로 정착되면서 '너르'는 '노루'로 '골'은 '울'로 굳어지게 되어 '노루 장(獐) 자'를 취해 한자 대역자로 표기된 것이다.
- ◆ **높은골(高村洞)** : 꽃봉 북쪽에 있는 마을. 지대가 높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구려 때 고을 원이 있던 곳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며, 서쪽 산록에는 조선시대 오위 부사과를 지낸 남계(南械)의 묘가 있다.
- ◆ **동촌말(東村洞)** : 높은골 동쪽에 있는 마을.
- ◆ **두일장거리(斗日場巨里)** : 백학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마을 이름. 조선시대 이래 일제강점기까지 번성한 두일장이 5·10 일에 열렸던 곳으로, 지금은 회신동에서 장이 열린다. 두일장거리는 1919년 3월 21일 백학면 3·1만세항쟁의 중심 현장이기도 하다.





〈두일장거리 전경〉

- ◆ **발악이[發岳洞]** : 노리울 북쪽에 있는 마을. 처음에는 두일리 중앙에 펼쳐진 넓은 들판의 안쪽에 마을이 있다 하여 ‘별안’으로 불리워오다가, ‘별안’이 ‘발안’으로 발음이 변하여 옮겨지면서 ‘발악이’로 정착된 땅 이름이다. 별안[野內] > 발안 > 바란 > 바랑 > 바랑이 > 발악이
- ◆ **아랫꽃뫼[下花山洞]** : 백학면사무소 서북쪽의 백령리와 이어져 있는 백학면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하동정씨(河東鄭氏)들의 집성촌이었다.
- ◆ **작은두일[小斗日]** : 발악이 서북쪽에 있는 마을. 큰두일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 **찬우물골[寒井洞]** : 백학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찬우물이 있었으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매몰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찬우물은 미산면 아미1리의 윗찬우물과 이곳의 아랫찬우물로 나뉜다. 적성의 옛 지리지를 보면 급행 여행자의 숙소 및 그 밖의 편의를 위해 역과 역 중간에 설치된 ‘참[站]’이 있던 곳이라 소개되어 있다.
- ◆ **큰두일[大斗日, 杜逸洞]** : 백학면 사무소 서쪽에 있는 마을. 고려시대 군수 민이안이 정착한 곳으로 전해 오며 한국전쟁 전에는 평양조씨(平壤趙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래녀골** : 한세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고래우물** : 정문거리 남쪽에 있던 우물. 지금은 매몰되어 논으로 변해 버렸다.
- **국사봉(國師峰)** : 전동리·두현리와 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 『여흥민씨소윤공파세계보(驛興閔氏小尹公派世系譜)』에 보면 고려 말 두일리 출신의 개성부 소윤 민보문(閔普文)은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고려가 멸망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가 충절과 청백한 기개로 순절하였다. 아들인 군수 민이안(閔而安)은 선친의 마지막 친교에 이곳으로 낙향하여 마을 이름을 ‘두일’이라 하고는 매일 산에 올라가 송악을 향해 곡하고 재배하다가 고려 신하로서 절개를 지키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여 그 산을 ‘국사봉’이



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명에 나타나는 ‘두’는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에 특히 많이 분포하는데, 백제어 계통의 ‘둥굴다’·‘돌남’의 뜻인 ‘뚝’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개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마을이 위치하는데, 이곳 두일리의 경우도 크고 작은 골짜기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뚝’이 마을이나 골짜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과 합쳐지며 ‘두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두일천(斗日川)** : 왕징면 작동리의 가마골에서 발원하여 두일리를 지나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준용하천. 『적성읍지』 산천조에는 작동리와 백령리에서 내려오는 두 개울이 합류하여 흐른다 하여 ‘이천(二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 **뒷골** : 높은골의 뒤에 있는 골짜기.
- **만가대(萬家堡)** : 높은골 앞에 있는 넓은 들판. 예전에 연천현감을 지낸 홍씨의 묘를 이곳에 쓸 때 풍수에 밝은 어떤 지관이 묘 앞에 있는 넓은 들판이 먼 훗날 일만 가구가 들어설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축동(築洞)’이라고도 한다.
- **만가대산(萬家堡山)** : 발악이 동쪽에 있는 산. 높이 112m. 만가대의 안(案)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망재** : 한세울 북쪽, 백령리·석장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백학저수지** : 찬우물 동쪽, 아미리와 경계에 있는 저수지. 일제강점기 때인 1942년 처음 수리 조합에 의해 축조되었으나 당시 규모가 적어 1963년 현재의 규모로 확장, 축조하였다. 총 저수 면적 11만 9,000㎡이고 지금은 낚시터로 널리 알려진 명소이다.
- **열묘각시꽃봉** : 백학면사무소 북쪽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작은 산봉우리. 석장리 차일봉에서 남쪽의 꽃봉까지 3km에 이르는 산부리가 그 형태가 새의 주둥이처럼 길게 뻗어 있어 ‘곶’과 ‘피’를 합쳐 ‘곶피’라 불리게 된 것이 한자로 지명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곶’을 ‘꽃(花)’



〈열묘각시꽃봉 전경〉

으로 대역하여 지금의 ‘꽃뫼’ 또는 ‘꽃봉’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봉우리 정상부에 있는 꽃 모양의 바위가 흠에 덮이면 마을에 재앙이 오고, 흠에 덮여 있지 않으면 고을 원님의 부인이 바람이 나는 일이 이상하게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과 원님 사이에 흠을 덮고 다시 걷어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바람이 나서 처형당한 원님의 부인들 묘가 10개나 만들어지자 후세 사람들이 이 봉우리를 ‘열묘각시꽃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

- **장고개[場峴]** : 작은두일과 두현리의 성주 사이에 있는 고개.
- **전적골** : 고래우물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정문거리(旌門巨里)** : 동촌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말까지 열녀문이 있던 곳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덧골** : 뒷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한세울[漢寺澗]** : 만가대 북쪽에서 망재까지 뻗어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전해 온다. 그러나 원래는 명사 앞에 붙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과 ‘사이[間]’의 뜻으로 쓰이는 변음 ‘세’가 한자의 ‘사(寺)’로 음차하여 ‘울[谷, 澗]’과 합치면서 높은골과 동촌말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라는 뜻이 되었다고 한다.

### 3) 노곡리(蘆谷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임진강 변에 갈대가 무성히 우거져 있는 마을이 되어 ‘갈울’ 또는 ‘노곡’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천군 하신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부 지역은 북한 관할이 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정규칙」 개정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들근터[赤臺], 붉은터** : 생기리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땅의 색깔이 붉어 ‘붉은터’라 불렀던 것이 ‘들근터’로 어휘가 변한 땅이름이다. 일설에는 이곳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신선이 내려와 노닐었던 곳이라 전해 오며 한국전쟁 전에는 황새·백로들의 철새도래지였다.
- ◆ **만두미(萬豆米, 滿豆米)** : 통구리와 경계에 있던 마을. 조선시대 병마절도사 벼슬을 지낸 허씨 성의 99칸 기와집에 늘 많은 곡식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그러나 원래는 ‘둥글다’·‘둘러싸임’의 의미로 쓰였던 우리 고어 ‘뚱’에 그 어근을 두고 있다. ‘뚱’은 뚱이 > 두미로

음이 옮겨갔고, ‘안내’와 합쳐지며 ‘안+두미’가 되었다가 다시 ‘민두미’로 음이 변하여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전에는 김해김씨(金海金氏)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

- ◆ **방아다리** : 조산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방아다리와 작은방아다리로 나뉜다.
- ◆ **새터[新垔]** : 강승쟁이 동쪽에 있는 마을.
- ◆ **생기리[香吉里]** : 원승 묘 아래에 있는 마을. 강선정·들근터 등 신선이 노닐었다는 명소가 있어 마을이 길하고 향기롭다 하여 ‘향길리’라 하였으나 경기 북부의 구개음화 방언으로 ‘생기리’로 어휘가 변하였다.
- ◆ **진목동** : 바래미모퉁이 부근에 있는 마을. 비가 오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땅이 몹시 질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큰말’이라고도 한다.
- ◆ **참나무쟁이[眞木洞]** : 노곡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도 큰 참나무가 많아 마을 정자터가 되었고, 굵은 느티나무는 부군나무로 받들기도 했으나 전란에 모두 없어졌다.

- **가여울[戍灘], 개여울** : 비룡대교 아래에 있는 임진강 여울. 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넓게 흐르면서 얇은 여울을 형성하는데, 그 깊이가 개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얇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강화·서해안 등지에서 올라온 새우젓·소금배들이 정박하며 물물교환을 했던 포구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고, 비룡대교 건설 이전에 툇교라는 군사목적의 민통선 다리가 있었다.



〈가여울 전경〉

- **강승쟁이[降仙亭]** : 가여울 동쪽에 있던 정자터. 경관이 빼어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강선정’이라 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 ‘가여울 북쪽의 강 언덕에 강선정 옛터가 있는데 밭으로 변한 터에는 초석과 석재가 널려 있으니 곧 고려 때 재상을 지낸 최씨의 별장이라 전해 오는 곳이나 지금 정자는 남아 있지 않다(降仙亭 戊灘北岸有降仙亭舊基石礎散在田間 卽麗朝宰臣崔某別業云今無)’라는 기록으로 보아 정자는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전까지도 강선정터에는 큰 느티나무 고목들이 우거져 있어 임진강을 건너는 여행객들과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농경지와 상가로 변해 있다.

- **강승쟁이다리[降仙亭橋]**, **탈교** :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와 사이에 놓여 있던 임진강 다리. 여름 우기 때에는 임진강이 범람하여 잠수교 형태로 한국전쟁 후 미군 공병대가 가설하였으나 최근에 이 다리 옆에 교각을 높이 세운 비룡대교를 새로 세웠다.
- **구미리고개** : 조산에서 구미리의 소래울로 넘어가는 고개.
- **국사봉(國師峰)** : 생기리 동쪽, 학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길허리밭, 기러기밭, 긴사래밭** : 뒷개 북쪽에 있던 약 300m 길이의 긴 밭. 지금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
- **대장골[大將谷]** : 국사봉 서쪽에 딸린 골짜기. 대장봉이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작은대장골’, ‘큰대장골’로 나뉜다.
- **덕골** : 흥징 묘 아래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 **독고개** : 덕골에서 학곡리의 와간이로 넘어가는 고개.
- **뒷개[後浦]** : 노곡리 서쪽, 임진강과 사미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들.
- **망재봉** : 미역재 동쪽, 학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망을 보았다고 한다.
- **못개물** : 토우물 서쪽에 있던 우물. 예전에 우물 옆에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최근에 경지 정리가 되면서 모두 논이 되었다.
- **미역재** : 생기리 북쪽에서 통구리 쪽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미역을 채취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바래미모퉁이** : 노곡리 마을 주유소 앞에 있는 산모퉁이. 산자락 끝이 넓게 벌어져 ‘발리산(勃里山)’이라 이름을 지었으나 ‘발리’가 ‘바래미’로 어휘가 변한 지명이다.
- **불당골** : 생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 오지만 현재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산소골** : 새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문화류씨(文化柳氏)들의 묘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생기리고개[香吉峴]** : 진목동에서 노곡2리의 생기리로 넘어가는 고개. ‘향’이 ‘생’으로 발음이 변하는 경기 북부의 방언으로 생긴 이름이다. 생기리 마을에서는 이 고개에 꽃나무가 많아 ‘꽃나무골고개’라 부른다.

- **신선봉(神仙峰)** : 통구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34m.
- **어석밭** : 뒷개 동쪽에 있는 밭. 전체 모양이 양 귀통이가 등글지 않고 삼각형인 까닭에 '모난 구석'이란 뜻의 방언인 '어석'에서 뜻을 따와 지어진 이름이다.
- **은골(隱谷)** : 신선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장고개(長峴)** : 생기리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 **조산(造山)** : 생기리 북쪽에 있는 산. 조선 중기 곡산현감을 지낸 홍석형(洪碩亨)이 죽자 이곳에 묘자리를 정하고 남양홍씨 문중에서 많은 인부를 동원하여 큰 산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홍석형의 묘를 썼다고 하여 '조산'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산 아래에 남양홍씨들이 많이 살았다.
- **지구리(只谷澗)** : 진목동 동쪽, 생기리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지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 **토우물(土井)** : 들근터 남쪽, 소도시 별판에 있던 바가지 우물. 최근에 경지정리가 되면서 매몰되어 없어졌다.
- **토우물모퉁이** : 들근터에서 토우물로 가는 곳에 있는 산모퉁이.
- **한염들, 한양벌** : 노곡~두일리 사이에 뻗어 있는 349번 지방도 서쪽에 있는 넓은 들. 조선을 건국하면서 한때 이곳에 도읍을 정하려 했으나 임진강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논의를 중지하는 바람에 후세에 한양이 될 뻔한 곳이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4) 전동리(箭洞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살울'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한자로 전동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둔전동(屯田洞)** : 살울 동쪽에 있던 마을. 고려 때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자급하고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었던 둔전이 있던 곳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강릉최씨(江陵崔氏),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 ◆ **살울(箭洞)** : 장대부리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삼국시대 초기 임진강 남쪽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에 있는 육계토성에 주둔하던 군사들이 강 건너 대안에 있는 이곳에 과녁을 설치해 놓고 활을 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이야기와, 둔전동에 주둔하던 군사들이 이



곳을 향하여 활을 쏘며 무예를 닦던 곳이라는 설도 전해 온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는 실제로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 장단군과 적성현의 사이에 있어 '사이'의 어근인 '산[間]'이 '골짜기'·'마을'의 뜻으로 쓰이는 '울'과 합쳐 '살울'로 되었으나 차츰 '살울'로 발음되면서 한자로 음차한 '전동(筋洞)'으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살울의 어원은 장단과 적성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문화류 씨, 남양홍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 **나이롱다리, 범소다리, 경포교** : 전동리 서쪽에 있는 사미천 다리. 일제강점기 때 콘크리트로 건설되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폭격으로 끊어져 통행이 어렵게 되자 미군이 급조하여 출렁다리를 놓았는데, 다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하여 나일론에 비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가설되어 있고 장남면과 개성, 장단면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교량이다. 과거에는 민통선의 관문인 초소가 있었다.
- **능골** : 부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 묘가 있다고 하여 붙여졌으나 현재 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매봉재** : 능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매사냥을 할 때 주위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매를 날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까지도 둔전동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던 곳이기도 하다.
- **방축골** : 질우지골 동쪽, 국사봉에 딸린 골짜기. 예전에 방축이 있었다 한다.
- **범소** : 나이롱다리 위에 있는 사미천의 깊은 소.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는 깊이라고 전해 온다.
- **부처골** : 국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남아 있다.
- **사미천개뽕나무밭** : 장대부리 남쪽에 있는 넓은 밭. 일제강점기 때 잠업 장려로 뽕나무를 심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 일대가 대규모의 잔디농장으로 변해 있다.
- **숯탄이** : 종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장대부리** : 살울 남쪽의 길게 뻗어 나온 산부리.
- **절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종골** : 매봉재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처음에는 '좁은골'로 불리던 곳이 '좁음'이 '종'으로 발음이 굳어지며 종골이 된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살울·둔전에 살던 사람들이 민통선 내에 새로 정착하여 현재 전동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질우지골** : 차돌이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기루지골이라고도 한다.
- **차돌이고개** : 전동리에서 두현리를 잇는 고개. 차돌이 많은 까닭에 붙여졌다.
- **큰골** : 나이롱다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고개** : 능골에서 두일리의 노리울로 넘어가는 고개.
- **푸묵골** : 살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5) 학곡리(鶴谷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예전에 학이 많이 날아왔다 하여 ‘해골’ 또는 한자로 ‘학곡’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후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일부 지역이 3·8선에 의해 남북으로 갈리며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돌마돌[石戶洞]** : 현재 학곡리 마을의 옛 이름. 임진강의 냇돌로 쌓은 백제초기의 대형 돌무지무덤이 있다 하여 지어졌다. 한국전쟁 전부터 지금까지 하동정씨(河東鄭氏)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다.
- ◆ **뒷골** : 국사봉 동쪽에 딸린 조그만 골짜기. 와간이 마을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금광이 있었다고 한다.
- ◆ **매미터** : 미역골 입구에 있던 작은 마을.
- ◆ **맹강골[孟江洞]** : 국사봉 남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문화류씨들이 살던 마을이다.
- ◆ **미역골[沐浴洞]** : 와간이 동쪽에 있었던 마을. 조선 초 원주원씨가 정착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집성촌을 이루었다. 학곡리는 원주원씨가 처음 정착한 이후 와간이에 문화류씨, 해골에 하동정씨, 구미리에 동주최씨(東州崔氏)의 순으로 입주하여 살았다고 한다.
- ◆ **와간이[臥看洞]** : 국사봉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문화류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지만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 **해골[鶴谷]** : 학곡리 백제적석총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옛날에 학이 날아와 서식했던 도래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하동정씨의 집성촌이 있던 곳이다.

- **가장터길** : 돌마돌에서 해골로 가는 곳에 있는 길.
- **공덕봉(共德峰)** : 백제적석총 북쪽에 있는 봉우리. 구한말에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한다.
- **구여울** : 학곡리 마을 북쪽에 있어 동에서 서쪽의 토우물로 흐르는 개울. 옛날 임진강이 돌마돌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이곳으로도 큰 개울이 흘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 개울이 논으로 변해 있고 수로가 지나간다.
- **국사봉(國師峰)** : 맹강골 북쪽, 노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고려 말 문하시랑 동평장사를 지낸 원훈(元訓)은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이방원에 의해 피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꺼져가는 고려의 국운과 역성혁명에 비분을 느껴 학곡리로 이주하여 은거하며 살면서 매일 이 산에 올

라 개성을 향하여 망배하고, 거문고를 타며 고려 신하로서 절개를 지킨 유서 깊은 곳이라 하여 '원정승이 개성을 바라본 고개' 또는 '국사봉'이라고 후대에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혼의 묘 또한 이곳에 있었으나 최근에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이장되었다.

- 대장골고개 : 해골에서 노곡리의 조산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독고개 : 와간이에서 노곡리의 덕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돌마들벌 : 학곡리 마을 주위에 있는 벌판.
- 들근터고개 : 맹강골에서 노곡리의 들근터로 넘어가는 고개.
- 마당앞자리 : 살구나무자리논 아래에 있는 논.
- 망재봉 : 미역골 북쪽 노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망을 보았던 곳이라 한다.
- 매우물 : 해골 중앙에 있는 샘물.
- 미산개나루 : 잉어소 아래에 있던 나루터. 파주시 적성면 울포리의 동나벌로 건너던 뱃나루가 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 살구나무자리논 : 매우물 남쪽에 있는 논. 예전에 살구나무가 있었다 한다.
- 소토시 : 맹강골 앞에 있는 들.
- 수우리고개 : 구미리와 사이에 있는 고개. 임진강 수우리소의 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신지개나루[神智江津] : 노곡리와 경계에 있던 임진강 나루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의 신지개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 윗여울 : 돌마들 동쪽에 있는 임진강 여울.
- 잉어소 : 백제적석총 북쪽, 임진강에 있는 깊은 소. 큰 잉어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 자라터 : 공덕봉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좁거나 작은 것을 뜻하는 말인 '잘'이 연철되어 '자라'로 옮겨지며 불리고 있는 이름이다.
- 조개소 : 신지개나루 동쪽, 임진강에 있는 소.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진골 : 공덕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웅동'이라고도 불린다.
- 흥기터골 : 망재봉 북쪽에 딸린 조그만 골짜기. 해골의 가장 안쪽에 해당한다. 옛 적성현의 지리지에 보면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이 벼슬에서 물러나 만년을 지냈던 곳으로, 그의 호 '학곡'도 이곳에 연유하여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학곡리 대안(對岸)인 임진강 건너의 적성면 울포리에는 홍서봉이 울포정(栗浦亭)을 세워 임진강에서 시를 읊고 노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6) 구미리(九尾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임진강에 깊고 큰 구미소가 있으므로 '구미연리(龜尾淵里)'라 하

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면서 구미연리를 현재의 구미리로 개칭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분리되면서 대부분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남한 지역에 속한 일부 지역은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직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구연동(龜淵洞)** : 구미리에서 가장 큰 마을. 임진강의 구미소와 가까운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여지도서』에는 조선 초 권근(權近, 1352~1409)과 동생인 권우(權遇, 1363~1419)의 출생지가 구연동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적성현 산천조에는 권우가 쓴 고향을 그리는 시 네 수가 실려 있다. 이로 볼 때 권근의 고향은 이곳 구연동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조선 중기에 정착한 동주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구연동 전경〉

- ◆ **아랫말** : 소작밭 아래에 있는 마을. 윗말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 **윗말** : 소래울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문화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목장이 입주해 있다.
- ◆ **토막포(土幕浦), 토막개** : 평밭 동쪽, 임진강 변에 있던 마을. 흙으로 쌓은 토막이 있었다 한다.
- **거물개봉** : 구연동 입구에 있는 봉우리. 산의 모양이 농기구인 거물개(고무래)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봉우리의 형상으로 인하여 구연동 마을이 항상 재물이 풍족하다고 한다.



- **굉발** : 토막포와 소래울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는 발. 모양이 소의 먹이통인 구유와 같이 움푹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구미소[尾沼, 龜淵], 잉어소, 수우리소** : 남바위 아래, 임진강에 있는 깊고 큰 소. 구미리의 형국이 거북이가 진흙땅에서 꼬리를 끌며 물에 들어가는 모습인 금구예미형(金龜曳尾形)이라고 하는데, 소 옆에 임진강쪽으로 돌출해 있는 큰 바위가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고 그 옆에 해당되는 꼬리 부분은 구연동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금구예미를 ‘구미(龜尾)’ 두자로 줄여 구미소라 하였고, 부근에 있는 마을 또한 구연동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행정구역을 폐합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자연 이치가 담겨있는 ‘구미동(龜尾淵)’ 지명을 ‘구미(九尾)’로 개칭한 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 소에는 큰 자라와 잉어가 많이 서식하여 ‘잉어소’로도 불리었다. 조선 초의 명신이었던 권근이 세웠다고 전해 오는 수월정(水月亭)에서 연유하여 ‘수월’이 또는 ‘수우리소’로 불리기도 하였다.
- **긴골** : 우암 북쪽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 **남바위** : 구미소 북쪽, 임진강에 있는 바위. 가뭄이 들어 임진강 수위가 낮아져야만 수면 위로 바위가 남실남실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독지골** : 소래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뒷골** : 구연동 뒤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뒷논** : 아랫말 앞에 있는 논.
- **드낭골[斗蘭谷]** : 독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드림소** : 토막포 동쪽, 임진강에 있는 소. 예전에는 이 소로 토막포에 있던 배를 이용하여 미산면 삼화리로 왕래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 **마지개울** : 소래울에서 발원하여 임진강에 합류하는 구미리에서 가장 큰 개울로 소래울에서는 ‘뒷개울’이라고 부른다.
- **마지앞논** : 구연동 동쪽 마지개울 옆에 있는 논.
- **망재** : 소래울 북쪽, 아미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망을 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삼국시대 임진강이 국경하천일 때 고구려의 봉수지이다.
- **매우물** : 온수물 옆에 있는 매우 찬 우물.
- **부군나무자리** : 거물개봉 동남쪽, 산부리 끝에 있던 성인 네 아름 굵기의 큰 느티나무가 있던 곳. 한국전쟁 전까지도 구연동 마을에서 신성시했던 나무였으나 전쟁 중에 베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민가가 들어서 있다.
- **새둔지들** : 토막포 북쪽에 있는 넓은 들판. 예전에 억새풀이 무성히 자라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개간하여 모두 농경지로 변해 있다.
- **석논** : 안산 옆에 있는 논. 돌로 논둑을 쌓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소래울** : 구연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좁은’의 뜻으로 쓰인 고어 ‘솔’과 골짜기의 뜻을 가진 ‘울’이 합쳐져 ‘소래울’이 된 땅이름으로, ‘좁은 골짜기’란 뜻을 담고 있다.
- **소작밭** : 석논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밭. 어떤 사람이 소작으로 밭농사를 지었던 곳이라 한다.
- **수우리고개[水月峴]** : 학곡리로 넘어 다니는 고개로 수우리소의 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안산(案山)** : 소래울 입구에 있는 조그만 산. 문화유씨 묘역의 안산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약대산(藥大山)** : 새둔지들 북쪽, 미산면 아미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42m. 임진강 옆 산비탈에 약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약대산고개** : 새둔지들에서 미산면 아미2리의 여씨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온수물** : 구연동 서쪽, 골짜기에 있던 우물. 예전에 더운 약물이 나왔던 곳이었으나 어느날 서늘에서 온 거지가 손발을 씻어서 부정을 탔다 하여 메워버렸다고 한다.
- **우암(牛岩)** : 평밭 북쪽에 있는 소 형상의 바위.
- **윗터개** : 새둔지들 북쪽, 임진강에 있던 나루. 구미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점말고개** : 소래울에서 아미1리 점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큰우물** : 거물개봉 남쪽, 구연동 입구에 있는 우물.
- **풀무골** : 망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해기고개** : 소래울에서 미산면 아미1리의 해기골로 넘어가는 고개.
- **해남밭** : 구연동 입구에 있는 밭.

## 7) 석장리(石牆里)

본래 마전군 서면 지역으로 돌로 울타리를 쌓은 집이 많았다 하여 ‘돌담’, ‘돌대미’ 또는 한자로 ‘석장’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는 월곶리를 병합하여 석장리라 해서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로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미산면에서 백학면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일부 지역은 휴전선에 가까워 출입 영농만이 가능한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다.

◆ **달고지[月串里]** : 영의정 임백경 묘 동쪽에 있었던 마을. 산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의 ‘달’이 개

음절화한 ‘달’과 ‘곶(串)’이 합쳐져 ‘달곶(山串)’이 되었다가 ‘곶’ 뒤에 ‘이’가 붙어 연철되면서 ‘고지’가 되어 ‘달고지’가 된 예이다. 즉 분토곶과 참나무쟁이 두 골짜기 사이로 뻗어나온 곶 형태의 산부리로 인하여 지어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한씨, 경주이씨(慶州李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별말[坪村]** : 석장리 중앙, 들판에 있던 마을.

◆ **아랫말[下洞]** : 서낭당산 동쪽에 있던 마을. 달구지 마을의 아래에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안골[內洞]** : 별말 동쪽의 골짜기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평산신씨(平山申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윗돌대미[上石壙洞]** : 안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 **결승암(結繩岩)** : 별말 남쪽 석장천 변에 바위와 시내가 어우러진 경승지. 이곳 천연암벽에는 주변 지역의 유림들이 맺은 계회(契會)와 결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결승암(結繩岩)과 중국의 소동파가 지은 『전적벽부』의 내용인 「청풍서래 수파불응(淸風徐來水波不應)」이라 새겨진 암각문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 **고사리골** : 머겨울 동쪽, 고사리가 많았던 골짜기.

- **광대울** : 석장리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다람고개** : 윗돌대미에서 미산면 광동리의 뒤희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달고지고개[月串峴]** : 왕징면 동중리의 세골과 빼우리로 통하는 두 고개의 같은 이름이다.

- **덜봉** : 달고지 동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높이 222m. 동중리와 경계가 된다.

- **도장골[道藏谷]** : 산제당산 서쪽에 딸린 골짜기.

- **막은쟁이** : 왕징면 작동리의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 마을에서 가장 북쪽의 막바지에 있어 ‘막재’로 불렸는데, ‘재’가 ‘쟁이’로 음이 변하면서 ‘막’과 ‘쟁이’ 사이에 매개모음 ‘으’이 따라붙어 ‘막은쟁이’로 이름이 변한 지명이다.

- **망재** : 큰버들골 서쪽, 석장리·두일리·백령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옛날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망을 보았다 한다.

- **머겨울** : 윗돌대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왕징면 동중리로 넘어가는 양호한 포장도로의 고개가 있다.

- **배나무골** : 서낭당산 남쪽, 작동리 입구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배나무가 있던 곳이라 한다.

- **분토곶[盆土洞]** : 막은쟁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항아리처럼 입구가 좁고 안이 넓게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산제당산** : 석장리 가장 남쪽, 미산면의 광동리·아미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30m.

- 서낭당산 : 배나무골 북쪽, 작동리와 경계에 있는 산. 한국전쟁 전까지도 정상에 있는 큰 소나무 숲에서 매년 가을에 산제를 올렸던 곳이라 한다.
- 소작고개 : 광대울 남쪽에 있는 고개.
- 옷물약수 : 석장리 마을 서북쪽에 있는 약수 우물. 예전부터 옷오른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용호산(龍虎山) : 털봉 아래에 있는 보족한 산. 호랑이가 석장리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앉은 모양이라고 한다.
- 작은버들골[小柳洞] : 차일봉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삼베이 : 큰삼베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작은소목골 : 큰소목골 위에 있는 골짜기.
- 쟁고개 : 다람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미산면 광동리의 뫼치골과 통한다.
- 차일봉(遮日峰) : 백학면 석장리와 백령리, 왕징면의 작동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52m. 형태가 해를 가리는 천막인 차일을 친 것 같아 지어진 이름이다.
- 참나무쟁이 : 달고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참나무가 있었다 한다.
- 큰버들골[大柳洞] : 작은버들골 위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와 작은버들골에 ‘버들’이 많아 지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차일봉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나온 크고 작은 이 두 골짜기의 모양이 곧게 뻗어 나와 있는 형세이므로, ‘뽕+골’이 차츰 ‘버들골’로 불리면서 음차되어 한자 지명의 ‘버들[柳]’이 된 것이다.
- 큰삼베이[大三坊] : 털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
- 큰소목골 : 석장리 입구에 있는 골짜기.

## 8) 갈현리(葛峴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장동면 지역으로 ‘가루개’라는 고개가 있어 한자로 갈현이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 장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병합되면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북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지금은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완충지대가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다.

- ◆ 방내동(防內洞) : 안다락터 북쪽에 있었던 마을. 윗방내동에는 죽산박씨(竹山朴氏), 아랫방내동에는 문화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밧오그미 : 오그미 바깥쪽에 있던 마을.

◆ **별다락터** : 별말 북쪽, 별판에 있던 마을. 들을 뜻하는 ‘별’과 들·산·돌·흙 등을 포괄하는 ‘땅’의 뜻으로 쓰였던 ‘달’이 연철된 ‘다락’이 다시 변한 ‘다락’에 ‘터’가 합쳐진 복합 지명이다. ‘별판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의 ‘다락[野] + 터[垆]’가 같은 뜻의 ‘별’이 앞 음절을 이루면서 ‘별다락터’로 불리워지던 것이 한자로 음차되는 과정에서 ‘다락’을 ‘樓’로 표기한 지명이다.

◆ **별말[坪村]** : 냇산 동쪽, 별판에 있던 마을.

◆ **상아재** : 산재봉 북쪽에 있던 마을.

◆ **새덤불** : 별다락터 동쪽에 있던 마을. 가루개 마을과 별다락터 ‘사이에 덩불이 우거진 곳’이라는 뜻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학교와 주막이 있던 곳이다.

◆ **아랫점말** : 윗점 아래에 있던 마을. 예전에 옹기점이 있던 곳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안다락터[內樓垆洞]** : 타리내 동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들이 큰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다.

◆ **오그미[梧琴]** : 점말 남쪽에 있던 마을.

◆ **윗점** : 물한이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 예전에 옹기점이 있었다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풍산홍씨(豊山洪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타리내** : 보모루 위에 있던 마을.

• **가루개[葛峴]** : 산재봉 남쪽, 두현리로 넘어 다니는 큰 고개. 예전에 이 고개에 철렁쿨이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갈운이고개’·‘장고개’·‘서당당고개’로도 불리는 갈현리의 유래가 되는 고개이다.

• **가마골고개** : 윗점에서 백령리의 가마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가마모퉁이논** : 냇산 북쪽에 있던 논. 점둔치의 가마모퉁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감차라지봉** : 돌산재 남쪽에 딸린 봉우리.

• **냇산[廣山]** : 은꽃모루나루터 동북쪽에 있는 둥글고 넓적한 모양의 산. 한국전쟁 전까지도 옹기와 질그릇을 굽던 옹기가가 있었다 하여 ‘점둔치’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 **돌산재** : 장고개 서쪽, 포춘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59m. 정상에 삼형제바위를 비롯하여 많은 돌들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부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 정상에서 땅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등정산** : 돌산재 동쪽에 딸린 산.

• **물한이고개[勿閑峴]** : 윗점에서 포춘리의 윗물한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바람재** : 아랫점말과 은골 사이에 있는 고개.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장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돌산재 남쪽의 점말과 은골 사이를 넘어 다니는 산 안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의 ‘별안재’가 음이 변하여 ‘바람재’로 된 것으로 보인다.



- **방골** : 벌다락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던 곳이다.
- **방죽자리논** : 방내동 입구에 있는 방죽이 있는 논. 열 한 마지기 넓이로 갈현리에서는 가장 좋은 논이었다고 한다.
- **보모루[湫隅]** : 새덤불 북쪽에 있는 모퉁이. 점말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보를 막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사당골** : 산제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봉(山祭峰)** : 새덤불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27m. 매년 8월 초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봉우리 정상에서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샘논** : 산제봉 북쪽에 있는 논. 샘이 있다고 한다.
- **섬논** : 방내동에 있는 섬처럼 생긴 논.
- **쇠파리산** : 장고개 북쪽, 백령리와 경계에 있는 산.
- **수리너머** : 백명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백령리에 소재하는 수리봉 옆으로 지나간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 **승성골** : 아랫점말 서쪽, 돌산재에 딸린 골짜기.
- **오곡** : 산제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오리나무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은골** : 방내동에서 돌산재까지 나 있는 큰 골짜기.
- **은꽃모루나루** : 갈현리 서쪽 끝, 사미천에 있던 나루. 장단군 장도면 오음리의 은꽃모루로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으나 지금은 휴전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이다.
- **잉어개울** : 은골에서 발원하여 사미천에 합류하는 개울. 잉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개울을 경계로 하여 갈현리와 청정리로 나뉜다.
- **장고개[場峴]** : 점말에서 백령리 독주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장단의 구화장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쪽박골[瓢洞]** : 수리너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헌다리개울** : 잉어개울에 있던 낮은 다리 때문에 지어진 개울 이름.

## 9) 두현리(頭峴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장동면 지역으로 '머릿재'라는 큰 고개가 있어 한자로 두현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장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어 현재 출입 영농만이 가능한 곳이다.

- ◆ **매우물[鷹井洞]** : 배반소 북쪽에 있던 마을.
- ◆ **모개골[木洞, 木果]** : 퇴재고개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모과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방아울[春洞]** : 매우물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漢陽趙氏)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 ◆ **방축골[防築洞]** : 산제봉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방축이 있었다 한다.
- ◆ **산정(山井), 매우물** : 성주골 북쪽, 국사봉 아래에 있던 마을. 마을 뒤편 산록에 우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샛골[間洞]** : 성주골 북쪽에 있던 마을.
- ◆ **성주골[聖主洞]** : 용의머리 북쪽에 있던 마을. '성주물'이라는 우물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안골[內洞]** : 소의봉 서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 ◆ **연못골[淵洞]** : 안골 남쪽에 있던 마을. 연못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용의머리[龍頭洞]** : 국사봉 서쪽에 있던 마을. 마을 뒷산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한다.

- **국사봉(國師峰)** : 방아울 동쪽에 있는 두현리에서 가장 높은 뾰족한 봉우리. 한국전쟁 전까지도 매년 정상에서 산제를 올렸던 곳으로, 제물로 정해진 돼지는 사람이 몰고 가지 않아도 정상까지 스스로 올라갔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 정상에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 **당뒤모퉁이** : 산정 서쪽에 뻗어 내려온 산부리 끝에 있는 모퉁이. 뒤편 산등성이에 파평윤씨의 묘가 있다.
- **대장굴산** : 방축골 서쪽에 있는 산.
- **판봉모퉁이** : 성주골에서 장고개로 가는 중간에 있는 모퉁이.
- **퇴재고개** : 장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 **머릿재[頭峴]** : 국사봉 북쪽, 요골과 안골 사이에 있는 고개. 머리처럼 높은 지형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두현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방골고개** : 선승골에서 갈현리의 방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배반소** : 당뒤모퉁이 서쪽, 사미천에 있는 소.
- **산제봉(山祭峰)** : 국사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한국전쟁 전까지 방축동 주민들이 산 정상에서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새골** : 안골 밑에 있는 골짜기.

- **선승골** : 산재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소의봉** : 옥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31m.
- **연안이모랭이** : 셋골 남쪽, 산정 마을로 가는 산부리에 있는 모퉁이. 주변에 ‘연안들’이라는 벌판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옥고개[玉口峴]** : 안골과 모개골 사이에 있는 고개. ‘웃고개(衣峴)’라고도 불렀다. 한국전쟁 전에는 고개 밑에 파평윤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 **왜골** : 성주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요골** : 국사봉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이링골** : 국사봉 북쪽에 딸린 골짜기.
- **장고개[場峴, 葛峴]** : 두현리와 갈현리 사이에 있는 고개. 두일장거리로 통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고개’라고도 했다.
- **차돌이고개** : 두현리 남쪽, 전동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차돌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할미바위** : 차돌이고개 아래에 있는 바위.

## 10) 통구리(通口里)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마을 입구를 나서야만 임진강 변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과 통한다 하여 『적성읍지』에는 ‘통구리[通溝]’ 또는 ‘통기’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민간인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현재 통구리 중앙부에는 대규모 백학산업단지 들어 있다.

- ◆ **맹골[孟洞]** : 만가대산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 ◆ **숫가마골** : 셋골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쑥골[蓬洞]** : 배나무골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쑥이 많이 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김해김씨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요옥골[要玉洞]** : 장승백이 북쪽에 있던 마을.
- ◆ **우묵골** : 통기에 있던 마을. 지형이 우묵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원봉동(元峰洞)** : 신선봉 남쪽에 있던 마을. 신선봉을 ‘원봉(元峰)’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래

의 마을이라 해서 원봉동이라고 한다.

◆ **통기(通口, 通溝)** : 신선봉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여양진씨(驪陽陳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는골 : 우묵골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가마작골 : 숯가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가마재골'이라고도 한다.
- 까치골 : 가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까치골 : 맹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닥다리 : 배나무골 뒤에 있는 골짜기.
- 당골[堂谷] : 셋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 독고개[道峴] : 가마작골에서 노곡리의 덕골로 넘어가는 고개.
- 뒷골 : 일대울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만가대산(萬家岱山) : 통구리와 두일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12m.
- 맹골고개[孟洞峴], 화투골고개 : 통기에서 맹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무령터고개 : 일대울에서 무령터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무령터 : 만가대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무정터'라고도 불린다.
- 배나무골 : 가마작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셋골 : 황새논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소루터 : 맹골과 무령터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신선봉(神仙峰) : 통기 동쪽, 노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34m. 예전에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한다.
- 속골고개[蓬峴] : 앞세울에서 속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앞세울 : 요옥골 북쪽, 통기 입구에 있는 골짜기.
- 왕박골 : 통기 동쪽, 신선봉에 딸린 골짜기.
- 요골모퉁이 : 장승백이 북쪽, 요옥골 입구에 있는 길모퉁이.
- 원봉이고개[元峰峴] : 통기의 가는골에서 원봉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일대울[一垞谷] : 황새논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작지골 : 닥다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장고개[場峴] : 일대울에서 두일장거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백이 : 숯가마골 서쪽, 349번 지방도 옆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 장승이 서 있어서 장승백이라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목장승과 주막집이 있었다.
- 장푸물 : 통기에 있는 개울. 겨울에도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한다.
- 절터골 : 신선봉 남쪽에 딸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전해 오지만 현재 아무런 흔적

도 남아 있지 않고 약물터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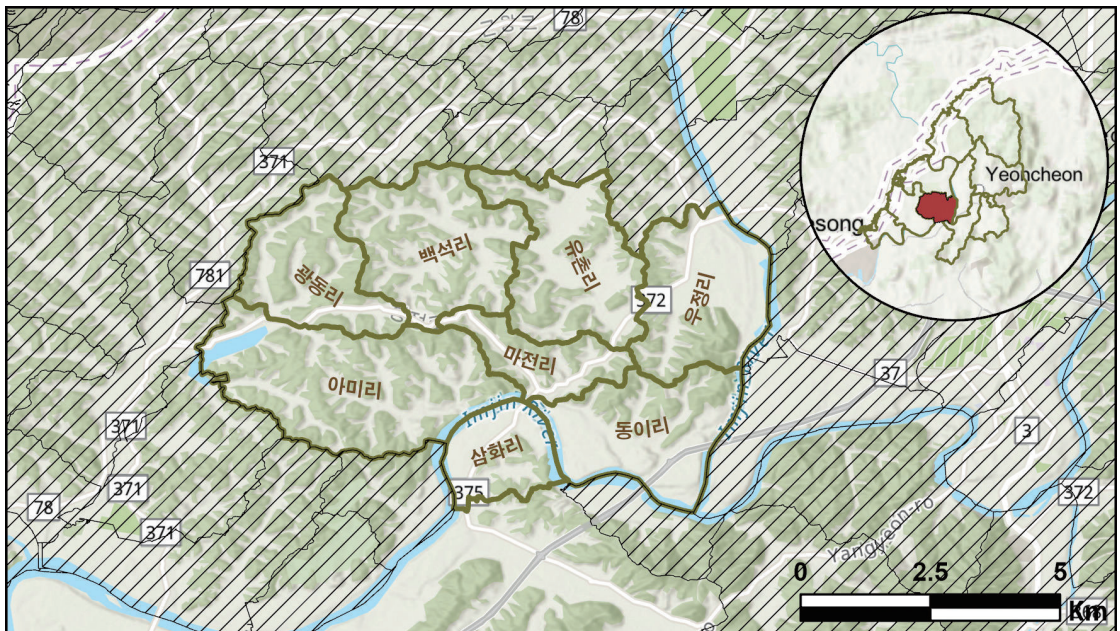
- **조산고개[造山峴]** : 원봉에서 노곡리의 조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 **터골** : 일대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할미골** : 신선봉 서쪽에 딸린 작은 골짜기. 할미꽃이 많이 자생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황새논** : 통기 마을 입구에 있는 약 1,000평 넓이의 논. 예전에 황새가 많이 찾아 오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백학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없어졌다.
- **효자문자리[孝子門址]** : 통기 마을 중앙에 있던 진구주(陳九疇, 1590~1636)의 효자문. 진구주의 자는 윤서(倫紘), 본관은 여양(驪陽)으로 통구리에서 태어났다. 병자호란 당시 금성에서 피난 중에 청나라 군사들을 만나자 아버지와 처자식을 급히 숨기고 혼자 미처 피하지 못해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조정에서 그의 가족이 사는 이곳에 효자 정려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려문의 주춧돌 일부와 최근에 이장한 그의 묘가 산업단지 옆 능선에 있다. 진구주의 묘갈문은 미수 허목이 지었다.



## 6. 미산면(嵎山面)

본래 조선시대 마전군(麻田郡) 지역으로, 관아가 있는 읍내가 되므로 군내면(郡內面)이라 하여 월곡(月谷)·중부(中部)·동부(東部)·이동(梨洞)·삼화(三和)·아미(峨嵎)·장양(長楊)·냉정(冷井) 등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마전군 동면(東面) 지역이었던 백촌(栢村)·분석(盆石)·가정(柯亭)·유촌(柳村)·우정(牛井) 등 5개 리와 서면(西面)의 송현(松峴)·광동(廣洞)·석장(石墻)·월곶(月串) 등 4개 리(서면에 속해 있던 작동리는 1914년에 왕징면으로 편입됨)를 병합하였다. 일제는 승의전이 있는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미산면이라 하고, 마전(麻田)·동이(東梨)·아미·백석(栢石)·유촌·우정·광동·석장의 8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산면 전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고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적성면에 편입되었던 삼화리를 다시 미산면에 편입시켜 9개 리로 개편·관할하게 되었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석장리가 백학면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8개 법정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면의 동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군남면, 남쪽은 전곡읍과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백학면,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



유촌리에 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유노로 110)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면 인구는 1,075명이다.

## 1) 아미리(峨嵋里)

본래 마전군 근내면 지역으로, 1454년(단종2)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답동리(畓洞里)’라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 후기에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아미리’라 개명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는 장양리(長楊里)와 냉정리(冷井里)를 병합하여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괴고불[高飛洞], 고비** : 여씨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노른저리[老隱洞]** : 윤희 묘 남쪽에 있는 마을. 조선 초 승의전이 건립된 후 이곳에 정착한 개성왕씨 승의전 감 왕훈(王勳)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닷구비** : 백학저수지 동쪽, 해기골 안에 있던 마을. 처음에 5가구가 정착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오합동(五合洞)’으로도 불린다. 한국전쟁 전에는 해주오씨(海州吳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두미[斗尾]** : 노른저리 남쪽에 있는 마을. 단순히 ‘산 골짜기’라는 뜻의 우리 고어 ‘뚝’이 ‘두미’를 그대로 음차한 한자 지명으로 표기해서 ‘斗尾’가 된 곳이다.
  - ◆ **새말[新村]** : 고사리골 입구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여씨동[呂氏洞]** : 고비동 남쪽에 있는 마을. 여씨들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윗찬우물[上冷井洞]** : 백학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찬우물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 아미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 **응달말** : 한국전쟁 전, 논골의 음지에 있었던 마을.
  - ◆ **쟁이[長楊]** : 심덕부 묘 앞에 있던 마을. 옛 마전군 장양리 지역이다.
  - ◆ **점말[店村]** : 망재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이 골짜기 안에서 옹기를 구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거친봉** : 논골 동북쪽, 아미리·마전리·백석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지형이 거칠고 험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르미** : 윗찬우물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고사리골[薇澗]** : 새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고사리가 많았다고 한다.
- **괴고불다리** : 새말과 괴고불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 **남은터골** : 해기고개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논골[畚澗]** : 도당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고래실논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골짜기로 인하여 아미리의 원래 이름이 답동리(畚澗里)였다고 한다.
- **능골[陵澗]** : 점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큰 묘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나, 현재 지표에서는 관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설에는 이 골짜기 안에 태봉(胎峰)이 있었다고 한다.
- **도갓집모퉁이** : 괴고불 동쪽에 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산모퉁이. 옛날에 물품을 만들어 도매하는 도가가 있었다 한다.
- **도당재[都堂山]** : 승의전 동쪽에 있는 산. 예전에 이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 지내는 도당이 있었다 한다. 일설에는 이 산의 형상이 거북의 머리와 같다 하여 '구수봉(龜首峰)'으로도 불린다.
- **도동박** : 승의전 서쪽에 있는 개울. 조선 초 승의전에서 각종 제기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이 밤새 도망쳤으나, 날이 밝고 보니 멀리도 못 가고 이곳에서 맴돌고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도둑을 잡고 물건을 모두 되찾은 곳이라 한다. 지봉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이 고사가 실려 있다.
- **뒷거리개울** : 도당재 북쪽, 논골에서 내려오는 개울.
- **뒷골** : 윗찬우물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백학면 두일리의 정문거리로 통한다.
- **망재[望峴]** : 봉화봉 서쪽, 백학면 구미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망을 보았던 곳이라 한다.
- **미나울** : 괴고불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박석고개[薄石峴]** : 쟁이에서 노른저리로 넘어 다니는 고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고개에 통행의 편의를 위해 임진강의 호박돌을 깔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 **북두고개** : 고사리골에서 광동리의 응달말로 통하는 고개.
- **산제당산[山祭堂山]** : 윗찬우물 북쪽, 아미리와 광동리, 백학면 석장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30m. 한국전쟁 전까지도 어리미기 주민들이 매년 10월경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성황당터** : 괴고불 서쪽 모퉁이의 성황당 터.
- **시위논** : 논골 중앙에 있는 고래실 논. 항상 물에 잠겨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크게 범람하여 물에 잠긴 것을 일컫는 말인 '시위'에서 뜻을 따와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아미고개[峨嵋峴]** : 아미리 작은골에서 마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 **아미나루** : 아미리에서 삼화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 **아미산[峨嵋山]** : 승의전 동북쪽에 있는 산. 임진강 수면 위에 솟아 있는 잠두봉·승의전과 아



미사가 어우러지는 눈썹과도 같이 부드러운 능선을 이룬 이곳의 절경(節景)이 중국 사천성 아미현 서남쪽에 있는 아미산에 비견할 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조선 초에 송의 전과 관련하여 창건된 아미사와 연계되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전해 온다. 또한 조선 후기의 지리지에는 마전리에 있던 소금 창고 때문인지 ‘염창산(鹽倉山)’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임진강과 아미산·잠두봉·종못 근경〉

- **약대산(藥大山)** : 송의전 서남쪽, 백학면 구미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42m.
- **약대산약수** : 봉화봉 동쪽, 약대산 중턱에 있는 약수.
- **약대산고개** : 여씨동에서 백학면 구미리의 새둔지들로 넘어가는 고개.
- **어리미기** : 아미1리 산제당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광산김씨(光山金氏), 경주 최씨(慶州崔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어수정(御水井)** : 송의전 입구에 있는 우물.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개성과 철원을 왕래하면서 각각 90리의 중간 지점이었던 앙암사(仰巖寺, 현 송의전)에서 쉬면서 불공을 드리고 마셨던 우물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염창골큰골** : 조선시대 마전리 당개나루 아래에 있던 골짜기. 소금창고의 옆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못(龍淵)** : 종못 위에 있는 못. 반계 유형원의 『동국여지』 마전군 산천조와 미수 허목의 기행문에는 이곳에 대하여 “전설에 의하면 이곳 수면 위로 용이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龍淵俗云有龍見則旱)”고 기록되어 있다.

- 용수지(龍水池) : 장재울 안에 있는 큰 못.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논으로 변해 있다.
- 움푹자리논 : 장재울 중앙에 있는 움푹 들어간 논. 일제강점기 때에는 저수지를 막았던 논이다
- 의지기터골 : 장재울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의지기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여씨(呂氏)들이 많이 살았다.
- 작은골 : 어수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잠두봉(蠶頭峰) : 송의전 동쪽, 임진강에 수직으로 솟은 바위봉우리. 그 형태가 누에의 머리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잠두봉 수직 절벽에는 조선 후기 마전군수를 역임했던 한문홍(韓文洪)의 칠언율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측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 장재울[長者谷] : 논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부자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 오지만, 원래의 뜻은 ‘작은 산의 마을’이라는 의미의 ‘잔자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잔[小] + 자[山] + 울[谷] = 잔자울 > 장자울 > 장재울.
- 쟁이고개[長楊峴] : 노른저리에서 청성백 십덕부 묘 앞의 쟁이로 넘어가는 고개.
- 절골 : 능골 안에 있던 골짜기.
- 접터 : 미나울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웅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 종못[鐘淵] : 송의전 앞, 임진강에 있는 깊은 소.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는 깊이라고 전해 온다. 고려 태조의 원찰이었던 양암사 경내에 있던 범종이 양암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임진강으로 굴러떨어져 강물 속에 잠겼는데, 그 후 국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못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져 미리 그 징조를 예견했다고 하여 이 못을 ‘종못’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반계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등에 의하면 수면이 잔잔한 날 잠두봉 정상에서 임진강을 내려다 보면 그때 강 속으로 잠긴 범종이 육안으로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해기골 : 닻구비 동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2) 백석리(栢石里)

본래 마전군 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백촌리(栢村里)·분석리(盆石里)·가정리(柯亭里)를 병합하고 백촌리와 분석리에서 한 자씩 따와 백석리라 하여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가정골[柯亭洞] : 독쟁이 북쪽에 있었던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가쟁이’ 또는 ‘가정골’로 불리던 곳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음을 그대로 음차하여 ‘가정동(柯亭洞)’으로 쓰이게 되었다.



- ◆ 새터[新村] : 군량논 동남쪽에 있던 마을.
- ◆ 오리동(五里洞) : 소라터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 ◆ 월촌 : 잣나무골 입구에 있던 마을.

- 거친봉 : 백석리·마전리·아미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군량논[軍糧畝] : 잣나무골 중앙에 있는 열두 마지기 논. 장군대좌형에 딸린 지명이다.
- 금바위[錦岩洞] : 도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비단처럼 빛이 나는 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이씨(慶州李氏)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능골 : 참나무쟁이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골짜기 안에 큰 묘가 있었다 하여 능골로 불린다고 한다.
- 능모퉁이 : 능골에서 유촌리 두개모듬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산 모퉁이.
- 대곡동(大谷洞) : 서산군 묘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평안감사 이윤인의 후손인 경주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도독골[都督谷] : 소라터 옆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장군이 말을 타고 달리는 형세인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주위에 마타리·중군노리·소죽골·군량논 등 명당에 부합되는 지명들이 있고, 그 중심 명혈에는 정발 장군의 묘가 위치한다고 한다.
- 도장골[陶壯谷] : 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산 안의 골짜기라는 뜻의 '둔안골'이 변한 이름이다.
- 독벼루개울 : 백석리 독쟁이에서 발원하여 유촌리의 두개모듬으로 흐르는 개울.
- 독쟁이[獨亭洞] : 가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광동리의 너븐골로 넘어가는 광동고개에 돌이 많아 돌의 옛말인 '독'과 고개의 다른 말인 '재'가 합쳐지면서 '독재'로 부르게 된 것이 '독쟁이'로 음이 변하고 한자로 지명을 적는 과정에서 '독정동(獨亭洞)'이 된 것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정씨(慶州鄭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두리산(圓山, 分石山) : 안골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48m. 백석리·유촌리, 왕징면 노동리·동중리와 경계가 된다. 미산면이 마전군에 속해 있었을 때 이 봉우리 정상에 올라서면 마전군 전 지역이 두루 보인다 하여 '두리산'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옛 지리지에는 '분석산(分石山, 盆石山)'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 마타리, 메타리 : 대곡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도독골 장군대좌형 형국 가운데 이곳은 장군이 말을 타고 달리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백토골[白土谷] : 뱀골 옆에 있는 골짜기. 백토가 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뱀골[蛇洞] : 잣나무골 안에 있는 큰 골짜기.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실제 이 골짜기의 모양을 뱀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어근을 분석해 보면 앞음절

‘뱀’이 발음 그대로 해석되면서 원뜻인 ‘산골짜기’와 전혀 다른 땅이름이 되어 버린 예이다. 우리 땅이름 가운데 산을 뜻하는 고어로 ‘밭’이 있는데, ‘밭’은 ‘백’으로 쉽게 변할 수 있고 ‘백’은 다시 아래와 같은 변화를 거쳐 ‘뱀’으로 음이 변해, 뱀과 닮은 지형이라는 풀이를 낳게 된 것이다. 받[山] + 골[谷] = 받골 > 백골 > 뱀골[蛇洞]

- 봉화재[烽火峯] : 백석리와 광동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79m.
- 분석골[盆石谷] : 서산군 묘 북쪽에 있는 골짜기. 중군고개 옆에 안장과 같이 생긴 분석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삼백냥짜리논 : 뱀골 앞에 있는 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삼백 냥을 주고 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소라터 : 잣나무골 입구에 있는 터. 모양이 소라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다·좁다’의 뜻인 ‘솔’이 ‘터’와 합쳐지면서 ‘작은 터’라는 의미의 ‘솔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음이 변하면서 소라에 연관시켜 풀이되고 있다. 솔터 > 솔터 > 솔의터 > 소라터.
- 소죽골 : 서산군 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말이나 소의 턱이통인 구유와 닮은 형태라 하여 붙은 이름으로, ‘말죽골’이라고도 한다.
- 솔터고개 : 유촌리의 다락말 사이에 있는 고개.
- 안골[內洞] : 두리산 남쪽에 딸려 있는 골짜기. 분석골과 대곡동의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요골 : 마타리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잣나무골[栝村洞] : 하오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잣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정발 장군의 후손인 경주정씨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중군고개[中軍峴] : 분석골에서 왕징면 동중리로 넘어가는 고개. 장군대좌형의 지명이다.
- 중군노리[中軍老吏] : 소라터 서쪽에 있는 산. 도독골 장군대좌형 중앙에 있는 군대의 진영에 해당하는 지형이라 한다.
- 참나무쟁이[眞木亭] : 금바위 앞에 있는 산부리. 옛날 이곳에 큰 참나무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치라재 : 분석골에서 왕징면 동중리의 피아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 하오고개[和友峴] : 백석리 남쪽, 마전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이곳을 지나간다. 예전에 이 고개에 산짐승과 도둑이 많아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이좋게 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한내 : 하오고개에서 발원하여 잣나무골의 중앙을 흐르면서 독벼루개울로 합쳐지는 작은 하천.

### 3) 유촌리(柳村里)

본래 마전군 동면 지역으로, 마을 중앙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 하여 ‘유촌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미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이다.

- ◆ **구촌말[具村]** : 미산면사무소 동쪽에 있던 마을. 약 400년 전부터 능성구씨(綾城具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수복되어 현재의 면사무소 주위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면서 구씨들도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 ◆ **김촌말[金村]** : 구촌말 옆에 있는 마을. ‘도룻말’이라고도 불리며 안동김씨(安東金氏)가 24대째 세거하는 곳이다.
- ◆ **남세미[木三洞, 木森洞]** : 거물래봉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정씨들이 몇 집 살았던 곳이다.
- ◆ **다락말[樓洞]** : 폐교된 마전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마을. 다락처럼 높은 산비탈에 집들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함열남궁씨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밭으로 변해 있다.
- ◆ **두개모듬[二川洞]** : 다락말 북쪽에 있는 마을. 백석리의 독벼루개울과 왕징면 노동리에서 내려오는 개롱지개울이 이 마을 앞에서 합류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최근까지도 이 두 개울이 합쳐지면서 ‘가마웅덩이’라는 깊고 큰 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천정비 등의 이유로 매몰되어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 **법흥동[法興洞]** : 신호 묘 아래에 있는 마을. 평산신씨(平山申氏)가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다.
- ◆ **사거리[四巨里]** : 미산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마을. 네 갈래의 큰 길이 나 있다.
- ◆ **삼포동[蓼圃洞]** : 영산 북쪽에 있던 마을. 인삼을 경작했던 삼포밭이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삼밭골’이라고도 부른다. 30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한 여산송씨(礪山宋氏)들이 한국전쟁 이전까지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 **작은장재울** : 꽃밭채 동쪽에 있던 마을. 노동리에 있는 큰장재울과 경계를 이룬다.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이씨(公州李氏)들이 마을이었다.
- ◆ **지내울** : 칠곡부사 이희 묘 아래에 있던 마을. 두리산에서 중들 방향으로 길게 뻗어내린 산의 형상이 지네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자 표기로는 ‘진내동(眞乃洞)’ 또는 ‘지내동(芝乃洞)’으로도 되어있고, 한국전쟁 전에는 함평이씨(咸平李氏)가 많이 거주하였다.
- ◆ **태봉말[胎峰村]** : 다락말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영조와 영빈이씨의 소생인 화덕옹주의 태실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두루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 **가는골[細谷]** : 태봉 북쪽에 있는 좁고 가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광산김씨가 몇 집 살았다
- **개건너등** : 중들 동쪽, 왕징면 무등리와 경계에 있는 산. 왕징면 노동리에서 내려오는 개롱지개울의 건너에 있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 **저물래봉** : 남세미와 풀무골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139m.
- **구네미고개[軍踰峴]** : 달갈골에서 중들로 넘어가는 고개. 삼국시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서 백제·고구려·신라가 치열한 영토분쟁을 할 때, 우정리 장대봉 산성에서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이 적은 숫자를 감추기 위해 우정리 여우고개에서 빈 곡식 섬을 지게에 짊어지고 유촌리로 넘어와 이 고개를 지나는 위장 전술로 적을 물러가게 했는데, 그 후 이 고개를 군사들이 넘어다닌 고개라 하여 ‘군네미고개’라 했던 것이 지금의 ‘구네미고개’로 음이 변했다 한다.
- **구리방골[丘吏房谷]** : 미산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전군 당시 구씨(丘氏) 성을 가진 이방이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도 이곳에는 구씨의 묘가 많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全州崔氏)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 **꽃밭채** : 법흥동 북쪽에 있는 산. 봄이면 진달래, 철쭉꽃들이 만개하여 온 산이 붉은빛으로 장관을 이룬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팽과리는, 팽과리들** : 두개모듬 동쪽에 있던 천수답. 비가 많이 와야만 유촌리 주민들이 팽과리를 두들기며 공동으로 모내기를 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개롱지개울에 보를 막고 임진강에서 물을 끌어와 이 일대가 수리안전답으로 바뀌었다.
- **냇은터골** : 달갈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다고 하며, 현재 폐교된 마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 **다래기들** : 다락말 앞에 있는 들.
- **달갈골** : 냇은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달갈귀신이 많이 나타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추나무골** : 법흥동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대추나무가 많았다 한다.
- **덕배미들** : 미산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들. 1,200평 넓이에 긴 모양을 한 덕배미 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독배미들’로도 불리고 있다.
- **도당골, 도가니골** : 태실 뒤에 있는 작은 골짜기. 지형이 대장간에 있는 도가니의 형태라 한다.
- **피물논** : 다락말 앞에 있는 논. 옛날에는 물이 없는 한답이어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고 메밀만 심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방아다리** : 두개모듬 아래에 있는 물레방앗간 터. 지금은 태봉말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다.
- **방아다리** : 미산면사무소 동쪽, 물레방아가 있던 곳. 지금은 논으로 변하였다.
- **버드나무연못** : 김촌말 앞에 있는 연못. 유촌리의 유래가 되는 큰 버드나무가 있던 곳이었으나, 이 나무는 한국전쟁 직후에 베어 버렸다고 한다.
- **삼태봉** : 미산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09m.

- **솔티고개** : 다락말에서 백석리의 소라터로 넘어가는 고개.
- **선골** : 향교산 남쪽, 남세미에 있는 골짜기.
- **시루고개** : 우정리의 냇적바위로 통하는 고개. 유촌리의 진입로 역할을 한다. 일설에는 이 고개가 실처럼 가늘었다 하여 '실고개'로 불리우던 것이 '시루'로 음이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 **양아내골** : 영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여우고개[狐峴]** : 중들에서 왕징면 무등리로 넘어가는 고개. 큰여우고개, 작은여우고개로 나뉘어진다. 이 고개 부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어 여우들이 항상 들끓었다 한다.
- **영산** : 남세미와 삼포동 사이로 뻗어 나온 긴 산부리.
- **월곡고개[月谷峴]** : 남세미에서 마전리 달골로 넘어가는 고개.
- **자강모루** : 양아내골 동쪽에 있는 산모퉁이. 시루고개에서 내려온 산부리가 이곳에 와서 작은 모퉁이를 만들었다 하여 '작은모루'로 불렸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이 '자강'으로 어휘가 변하였다.
- **중들[中坪]** : 법흥동 동쪽에 있는 들.
- **풀무골[治洞]** : 태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풍수학적으로 이 부근의 전체 형상이 도가니혈에 해당되는데, 이 골짜기는 대장간에서 불을 바람으로 조절하며 사용하는 풀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靑松沈氏)들이 마을을 이루었다.
- **향교골고개** : 남세미에서 마전리의 향교골로 넘어가는 고개.
- **향교산(鄕校山)** : 마전리와 경계에 있는 산. 마전향교의 뒷산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황공별** : 마전리와 우정리를 연결하는 322번 지방도 주위에 있는 별판. 예전에 이곳을 지나가던 승려가 갈증이 심해 목이 마르던 차에(혹은 함경도 상인이라고도 함)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샘물 바닥에 큰 황금덩어리가 있어서 이 별판을 '황금별'이라 했다고 한다. 그 후 어휘가 점차 변하여 지금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한다.

#### 4) 우정리(牛井里)

본래 마전군 동면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큰 우물인 '소우물'이 있어 한자로 우정리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길윗말[路上洞]** : 322번 지방도 위에 위치한 마을.



- ◆ **독재[甕峴]** : 우렁논 옆에 있는 마을. 예전에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평양조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 ◆ **서루니[雪雲里]** : 우정리 남쪽에 있던 마을. 금굴산 북쪽의 좁은 계곡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서루니는 ‘좁다’·‘작다’의 뜻으로 쓰였던 ‘솔’과 ‘안’이 합쳐서 ‘좁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솔안’으로 불리다가 점차 ‘솔’이 ‘설’로, ‘안’은 앞음절 말음의 영향으로 ‘란’이 되었다가 다시 모음 변화를 일으켜 ‘른’으로 발음되고 아래와 같이 음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자 지명인 ‘설운리(雪雲里)’가 된 것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은 농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 솔안 > 설안 > 설운 > 서룬 > 서루니.

- **개못** : 적석총 동쪽, 임진강 변에 있는 못. 현재 대부분 매몰된 상태이다.
- **금굴산(金窟山)** : 동이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95.7m.
- **넙적바위** : 마전리와 연결되는 322번 지방도 위에 있던 바위. 약 20여 명이 앉을 만한 넓이의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이곳을 지나던 여행객들과 상인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고인돌로 추정된다.
- **대자봉** : 큰жат골 북쪽, 왕징면 무등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도깨비여울** : 임진강에 있는 여울.
- **동그렁배미** : 큰жат골 중앙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논.
- **매봉(鷹峰)** : 길웃말과 독재 사이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꿩사냥을 할 때 봉우리 정상에서 매를 날렸다고도 하며, 항상 매가 많이 앉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매봉재** : 매봉 밑에 있는 독재와 길웃말로 통하는 고개.
- **뫼골** : 넙적바위 위에 있는 골짜기. 묘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배나무골** : 서루니 안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큰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 **보습논** : 소뫼개들에 있는 논. 밭을 가는 농기구인 보습의 날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불당골①** : 안개들과 금굴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산 안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불안골’이 차츰 ‘불당골’로 음이 옮겨지며 굳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 **불당골②** : 서루니 남쪽, 동이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 동이리의 불당골과 통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소뫼개들** : 우정리 마을 남쪽, 임진강 변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벌판.
- **소뫼개등성이** : 매봉 동쪽, 소우물 옆에 있는 등성이.
- **소우물[牛井], 태우물[泰井], 버티우물** : 적석총 남쪽에 있는 큰 우물. 이 부근의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畝牛形]이고, 이 우물은 소의 코에 비유되는 곳이라 한다. 실제로 이곳은 두

군데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항상 솟아 나와 예부터 우물 주변에는 취락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임진강 물새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 **안개들** : 우정리 남쪽, 임진강 변에 있는 들판. 말여울, 기탄 등의 큰 여울과 인접해 있어서 항상 안개가 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여우고개[狐峴]** : 큰잣골에서 유촌리와 왕징면 무등리의 용상수로 넘어가는 두 고개의 같은 이름.
- **우렁논** : 322번 지방도 옆에 있는 논. 한국전쟁 전까지도 우렁이가 많이 서식하여 황새·백로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었던 곳이라 한다.
- **이시미소** : 안개들 서쪽, 임진강에 있는 소. 예전 여름에 우정리에서 방목한 소들을 이 소에 살고 있던 이무기가 잡아먹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작은잣골[小城谷], 작은장골, 작은장학골** : 대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우정리 마을 뒤의 장대봉산성 옆에 있어, 성의 우리 고어인 ‘잣’에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잣’이 ‘장’으로 변하여 지금의 이름이 되된 곳이다.
- **장개골** : 안개들과 서루니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
- **장못** : 소우물 동쪽에 있는 큰 못.
- **장승백이** : 돌무데미로 불리는 백제적석총 아래에 있는 임진강 옆의 길목. 예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큰잣골[大城洞], 큰장골** : 우정리 장대봉 산성에 딸린 큰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 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황공벌** : 넓적바위 서쪽에 있는 벌판.

## 5) 동이리(東梨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부리(中部里)·동부리(東部里)·이동리(梨洞里)를 병합하고 동부리와 이동리에서 한 자씩 따와 ‘동이리’라 하여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 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동부리(東部里)** : 큰배울 동쪽에 있던 마을.

◆ **큰배울** : 동이리에서 가장 큰 마을. 이곳의 지형이 큰 돛단배 형상이되어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오지만, 실제 지명의 풀이로는 산 안쪽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배울은 그 뿌리가 머리·산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밭’에서 나온 것으로, ‘밭’은 ‘박’·‘백’·‘배’ 등으로 음이 변해 왔다. ‘배’와 ‘골짜기’의 뜻인 ‘울’이 합하여 ‘배울’로 불리던 것이, 소리 나는 그대로 한

자로 옮기면서 ‘이동(梨洞)·주동(舟洞)’이 되어 ‘큰 돛단배의 형국이라서...’ 또는 ‘배나무가 많았다 하여...’라는 풀이를 받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개성왕씨(開城王氏) 8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고, 마전군 당시 군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을이었다고 한다.

- **갈마(渴馬)** : 배밑재산에서 동이리 별판으로 뺏어 나온 산부리. 산의 형태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주위에 30여 호가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다.
- **갈매울들[渴馬坪]** : 갈마 옆에 있는 들판.
- **금굴산(金窟山, 金堀山), 쇠파리산, 미두산(尾頭山), 봉화산(烽火山)** : 우정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95.7m. 쇠파리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금광과 철광이 개발되었으며, 그때 당시의 채굴로 인하여 산 내부가 텅 비어 있어 ‘공굴산’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마전군편에는 개성의 천마산에서 동쪽으로 뺏어 나온 산맥의 가장 동쪽 꼬리 지점에 이 산이 머리처럼 들고 일어나 있는 산이란 뜻의 ‘미두산(尾頭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설에는 대홍수로 인하여 온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산 정상만이 소 등에 앉은 쇠파리만큼 남았다 하여 ‘쇠파리산’이라는 별칭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하여 ‘봉화산’이라고도 불린다.
- **논고래** : 금굴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고래실논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도장거리** : 동부리 남쪽, 임진강에 있던 포구.
- **마산고개** : 함정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 **마전고개[麻田峴]** : 화장터에서 마전리의 외딴말로 넘어가는 고개.
- **말무덤** : 도장거리 남쪽, 임진강 절벽 위에 있던 무덤. 옛날에 말을 묻었던 곳이라 하나, 최근에 동이리 지역 경지 정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이곳의 동쪽, 임진강 절벽 아래에는 말발굽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고도 한다.
- **말여울[馬灘]** : 부개골 앞에 있는 임진강 여울. 예전에 군사훈련 목적의 작은 다리인 마포교가 있었으나 37번 국도가 새로 개통되면서 안전을 이유로 철거하였다.
- **밤여울[栗灘]** : 도장거리와 군남면 남계리의 계림동 사이에 있는 임진강의 큰 여울.
- **배밑재산** : 마전고개 동쪽에 있는 산.
- **보겨울** : 배밑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부개골** : 구수훈 묘 남쪽, 큰배울에서 임진강으로 흐르는 시내에 있는 골짜기.
- **부개골등** : 부개골 서쪽에 있는 둥근 야산. 부씨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서루니고개[雪雲峴]** : 논고래에서 우정리의 서루니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썩은소[朽淵, 朽斤渡, 腐淵江]** : 동이리반도 남쪽, 미강서원지 앞에 있는 임진강의 큰 소. 고려가 멸망한 뒤 이성계가 개경의 종묘에 있던 고려 왕들의 위패를 돌배에 실어 서해로 흩어 보냈는

데, 어찌된 일인지 위패를 실은 배가 저절로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 멈추어서 사람들이 쇠뿔줄로 묶어 정박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와서 보니 그 쇠뿔줄은 썩고 배는 아미리 잠두봉 아래로 떠내려가 있어서 이후 이곳을 쇠뿔줄이 썩은 소라하여 썩은소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마포리로 건너다니던 나루터가 있었으며 경치가 매우 좋다.



〈썩은소 근경〉

- **절골** : 논고래 동쪽, 금굴산에 딸린 골짜기. 작은절골, 큰절골로 나뉜다. 해방 전까지도 이 절터에는 약 30m 높이의 석불좌상이 있었다고 하나, 그 행방을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재 우물터만 남아 있다.
- **주점개** : 마전리 삼거리에서 동이리로 들어오는 입구. 예전에 주막이 있던 곳이다.
- **함정고개** : 큰배울과 동부리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산짐승을 잡기 위해 이곳에 땅을 파고 함정을 설치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함정들** : 큰배울 옆에 있는 들판.
- **화장터** : 주점개 동쪽, 마전고개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 주둔하던 영국군들이 전사자들을 화장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지금은 UN군화장장시설이라 새롭게 명명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6) 마전리(麻田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월곡리(月谷里) 지역으로, 마전군의 관아가 있어 ‘마전읍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월곡리를 마전리로 개명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시켰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달골[月谷洞]** : 사직골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땅이름에 흔히 쓰이는 ‘달’은 원래 산을 뜻하며 그 어근을 고어 ‘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달’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쓰이는 것은 극히 드물고, 연결 음절과 다른 낱말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개음절화하여 ‘닷’·‘닥’·‘닭’·‘달’ 등으로 옮겨가 뜻 옮김을 하면서 ‘산’의 뜻이 ‘달’로 되었고, 이어 ‘골’과 합쳐지면서 원래 의미와 다른 한자식의 ‘월곡(月谷)’이 된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마전군이 있었을 때 무속인들이 신령을 모시고 받들던 부군당이 있었다고 한다.

◆ **외딴말[獨村]** : 장승백이 동쪽에 있던 마을. 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다.

◆ **향교말[校村]** : 달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이전까지 마전향교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재골** : 삼거리에서 하오고개까지 있는 큰 골짜기. 마전리에서 가장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건지산(乾芝山), 건산(乾山)** : 향교말 남쪽에 있는 산. 옛 마전군 관아의 안산(案山)으로, 한국전쟁 전까지도 매년 10월이 되면 마전리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남세미고개** : 향교말에서 유촌리의 남세미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당개·당개나루[堂浦], 장거리** : 마전리 서남쪽, 임진강에 있던 나루터. 동남쪽에 있는 동이리 당성(堂城) 안에 마전군 사묘의 하나인 성황사(城隍祠) 당집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당개나루는 서해안에서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새우젓·소금 등의 어물을 실은 배가 정박하며, 이 부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교역하던 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이곳에는 마전군 선정비 5기와 은행나무 고목 한 그루가 운치 있게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 **덕고개** : 우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 322번 지방도가 나 있다. 전설에는 옛날 마전군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을 이 고개 부근에 따로 모아 덕(널이나 막대 같은 것을 나무나 나뭇가지 사이에 버티어 세운 나무 위에 걸거나 엮어서 사람이 올라가 않도록 만든 시렁이나 선반 같은 것)을 만들어 격려·보호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마전군청터[麻田郡廳址]** : 조선 문종 때부터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던 1914년까지 마전군의 관아가 있던 터. 현재는 농경지와 개인주택으로 변해 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주위에는



우체국, 지서, 상가 등 인구가 밀집한 큰 중심지였으나 전쟁의 참화로 과거 마전군의 중심지 현장이 모두 사라진 곳이다.



〈마전군청 터 전경〉

- 무자당(無子堂) : 향교말 동쪽, 산 정상에 있었던 당집. 예전에 아들이 없던 부인들이 득남을 위해 기도하던 곳이다.
- 사직골(社稷洞) : 조선시대에 마전군 사묘의 하나인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곳. 현재 그 위치에는 묘와 민가가 위치해 있다.
- 삼거리 : 마전리 중앙에서 동이라·백학면·미산면 아미리로 통하는 삼거리가 있다.
- 염창골(鹽倉谷) : 당개나루 옆에 있는 골짜기. 옛 마전군에서 관리하던 소금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최근에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다.
- 장승백이, 비석거리 : 달골과 향교말 사이에 있는 모퉁이. 한국전쟁 전까지도 목장승과 함께 8기의 마전군 선정비가 있었으나, 장승은 파괴되어 없어지고 선정비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땅속에 묻었다고 한다.
- 하오고개(和友峴) : 마전리 서쪽, 백학면으로 연결되는 큰 고개.
- 학교터 : 일제강점기 전, 후부터 마전군청의 객사터에 있었던 4년제 마전공립보통학교 자리. 한국전쟁 때 건물이 파괴되어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향교산(鄕校山) : 유촌리와 경계에 있는 산. 마전향교의 뒤에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7) 삼화리(三和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으며,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미산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문내기[文岳洞]** : 삼화방죽 서쪽, 임진강 변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진천송씨(鎭川宋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사매** : 삼화방죽 안에 있는 마을. 정씨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 **토막골[土幕谷]** : 삼화리 남쪽, 임진강 변에 있는 마을. 임진강 건너에 위치한 백학면 구미리 토막포의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농장논** : 삼화방죽 서쪽에 있는 논. 1970년 수리조합에서 경지 정리를 한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 **닥채밭** : 독개장 북쪽에 있던 밭. 예전에 닥나무가 많이 자생했다고 한다.
- **도둑골** : 오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도둑이 살았다고 한다.
- **독개장개울** : 농장논 서쪽에 있는 개울. '복개장개울'이라고도 한다.
- **뒷벌** : 문내기 북쪽에 있는 삼화리에서 가장 큰 벌판. 경지정리 이전에는 이곳에 3기의 대형 봉토형 고분인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 **맹꽁논** : 문내기 마을에 있는 논. 예전에는 '맹꽁밭'으로 불렸다.
- **밤나무골** :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다 한다.
- **백고개** : 사매에서 전곡읍 마포리의 꽃담별로 넘어가는 임진강 옆에 있는 고개.
- **벌매밭** : 농장논 북쪽에 있는 밭.
- **봉화촌고개[烽火村峴]** : 삼화리에서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의 봉화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삼화방죽** : 삼화리 중앙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 축조된 저수지. 조선시대도 있던 제언을 확장하고 증고한 것이다. 지금은 낚시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삼화방죽 근경〉

- **새오개, 새우개** : 삼화방죽에서 임진강으로 흐르는 개울. 민물새우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송장바위** : 형제바위 북쪽, 임진강에 있는 바위. 예전에 송장이 떠내려와 이 바위에 걸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미리 쪽에 가깝게 있다.
- **아미나루** : 삼화리에서 아미리로 건너다니던 뱃나루.
- **안골** : 사매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오피산** : 삼화방죽 남쪽에 있는 삼화리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이 111m.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관측소(OP)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으슬기** : 사매 동쪽, 임진강 변에 이어지는 현무암의 수직 천연 석벽.
- **작은개치** : 당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우물** : 문내기 북쪽, 임진강 석벽 아래에 있는 우물.
- **제일배미** : 문내기 옆에 있는 논. 삼화리에서 수확이 가장 많이 나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큰우물** : 작은우물 북쪽, 임진강가에 있는 우물.
- **형제바위** : 큰우물 북쪽, 임진강에 있는 바위. 가뭄이 들어 강물이 줄어야만 수면 위로 두 개의 바위가 노출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8) 광동리(廣東里)

본래 마전군 서면의 송현리(松峴里) 지역으로, 1895년 너븐골을 한자의 광동리라 하여 송현



리를 2개의 법정리로 분할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현리를 병합, 광동리라 하여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인이 입주하기 시작한 곳이다.

◆ **너븐골[廣洞]** : 용골 북쪽에 있던 마을. 골짜기 안이 넓다 하여 '넓음'의 옛말인 '너븐'으로 발음되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곳 태생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인 부산진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충장공 정발장군의 불천위 사당이 있었고, 경주정씨 정발장군 후손들이 집성촌이 있던 곳이다.



〈너븐골과 정발장군 총렬 정려문 전경〉

◆ **솔개[松峴]** : 수리봉 북쪽에 있던 마을. 한자 지명으로 보면 소나무와 연관시킬 수 있으나, 순우리말 '솔'은 '작다'는 원래의 의미이기에, '작은고개'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너븐골과 피치골로 넘어 다니던 작은 고개들이 많은 곳이다.

◆ **숯무지[炭洞]** : 봉화재 남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숯을 굽는 가마가 많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골[龍洞]** : 솔개 동쪽에 있던 마을.

◆ **윗솔개[上松峴洞]** : 솔개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고성이씨(固城李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윗숯무지** : 숯무지 동쪽에 있던 마을.

◆ **응달말** : 숯무지 남쪽,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지에 있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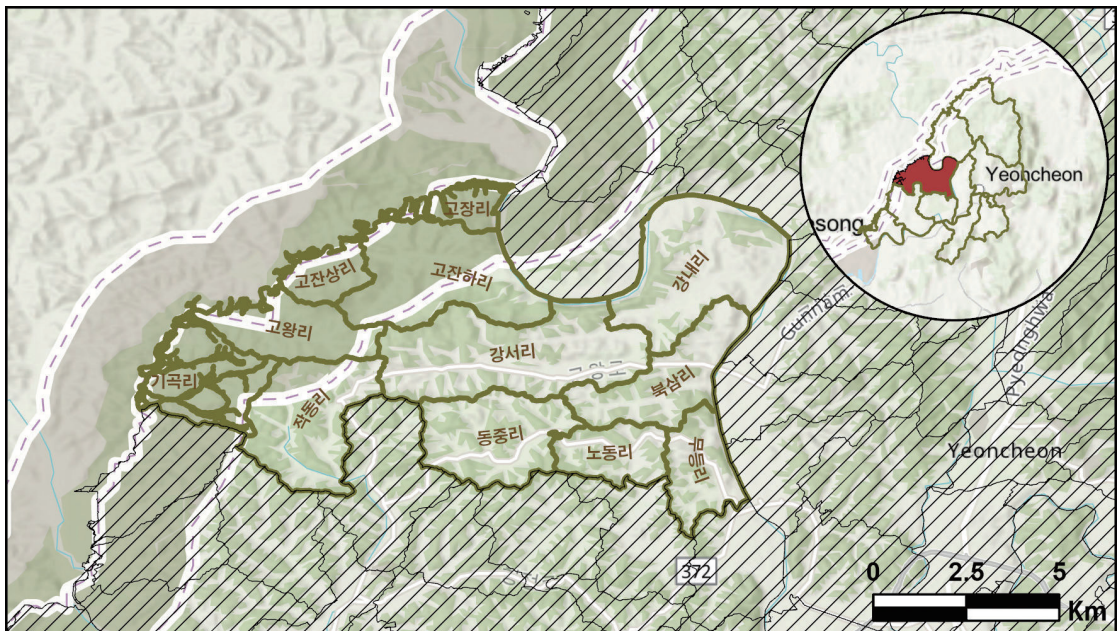
- 광동고개 : 노래골과 너븐골 사이에 있는 고개.
- 귀릉골고개 : 뽕치골에서 윗솔개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노래골 : 새농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다람고개 : 뽕치골에서 백학면 석장리의 윗돌대미로 통하는 고개. ‘돌대미고개’라고도 한다.
- 독쟁이고개 : 뽕치골에서 백석리의 가정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뽕치골 : 번개들에서 왕징면 동중리로 통하는 탁고개 정상까지 이어지는 큰 골짜기.
- 번개들 : 수리봉 남쪽에 있는 들.
- 봉화재[烽火山] : 너븐골 남쪽, 백석리와 경계에 있는 산. 예전에 봉화를 올렸다 한다.
- 북두고개 : 응달말에서 아미리의 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
- 산제당산 : 절골 위에 있는 산. 높이 130m. 광동리·아미리, 백학면 석장리와 경계가 된다.
- 새농고개 : 뽕치골에서 백석리 독쟁이의 정발 장군 묘 앞의 새농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소작고개 : 뽕치골에서 백학면 석장리로 통하는 고개.
- 수리봉 : 번개들 북쪽에 있는 봉우리.
- 엄나무골 : 뽕치골 중앙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엄씨와 남씨가 살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자장골 : 봉화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을 의미하던 고어 ‘쟈’와 ‘안’이 합쳐 ‘쟈안골’로 불려 오던 것이 ‘자장’으로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잣나무고개 : 너븐골에서 백석리의 잣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쟁고개 : 뽕치골에서 백학면 석장리의 윗돌대미로 통하는 고개.
- 절골 : 산제당산 동쪽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며 자연동(自然銅)인 산골이 나는 우물이 있다.
- 정발 장군 충열문 : 너븐골 앞에 있던 충열문.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전투인 부산진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부산진첨사 정발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던 곳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 탁고개 : 뽕치골에서 왕징면 동중리의 장재물로 넘어 다니는 고개.



## 7. 왕징면(旺澄面)

본래 마전군 북면(北面) 지역으로, 동막(東幕)·중동(中洞)·애동(艾洞)·징파(澄波)·노동(蘆洞)·무등(無等)의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기존의 6개 리를 동막·중동·애동·노동·징파·무등·외곡(外谷)·유림장(楡林場)리 등 8개 리로 개편하였고, 장단도호부 강동면(江東面) 지역의 고잔(高棧)·기곡(基谷)·산점(山店)의 3개 리를 기곡·기석(基石)·산점고왕(高旺)·고잔상·중·하리로 개편하고 강동면을 강신면(江新面)이라 개칭하여 마전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의 8개 리를 무등·북삼(北三)·노동·동중(東中)의 4개 리로, 강신면의 7개 리를 기곡·고왕·고잔상·고잔하 4개 리로 축소 병합하였고, 연천군 서면(西面) 지역이었던 계명(鷄鳴)·군영(軍營)·영정(永貞)·안월(安月)·소포(少浦)·야전(野前)의 6개 리를 강서(江西)·강내(江內) 2개 리로 개편하여 편입시켰으며, 마전군 서면 지역이었던 작동리(鵲洞里)를 편입시켜 고왕산의 '왕'자와 징파도의 '징'자를 한자씩 따와 왕징면이라 하고 총 11개 리를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왕징면 전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는 과거 연천군 서남면(西南



面) 지역이었던 귀존(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오탄(伍炭)·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屯)의 8개 리와,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임강(臨江)·마성(馬城)·구화(九化)·자하(紫霞)·갈운(葛雲)·덕적(德積) 등 6개 리를 편입하여 25개 리를 현재 북한지역이라도 관련법에 의해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는 18개 리의 법정리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무등·동중·노동·복삼 4개 리에만 현재 민간인이 입주해 있으며, 그 외 미입주지구인 14개 법정리 중 강서·강내·작동 등 3개 리는 현재 출입영농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왕징면은 동쪽으로 임진강을 경계로 군남면, 남쪽은 미산면과 백학면, 서쪽은 휴전선, 북쪽은 중면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

현재 무등리 왕산로 44에 면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며, 2023년 1월 1일 집계된 인구는 1,006명, 18개 행정리와 2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무등리(無等里)

본래 마전군 북면 지역으로, 무등실이란 골짜기가 있어 무등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림장리(楡林場里)를 병합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어 지금은 왕징면의 중심지가 되어있다.

- ◆ **넘바위[廣岩洞]** : 창골 서쪽에 있는 마을. 넓은 형태의 바위가 있다 하여 ‘너른바위’로 불렀다가 넘바위로 어휘가 변한 것이다. 현재 한산이씨(韓山李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 ◆ **닭밭[鷄田洞]** : 흥원사 동쪽에 있던 마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지형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셋말[間村]** : 넘바위 남쪽에 있는 마을. 스무스장거리와 넘바위 마을의 사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全州崔氏)가 모여 살았다 하여 ‘최촌말’로도 불렀다.
- ◆ **스무스장거리[楡林場, 楡林洞, 楡淵津]** : 임진교 서쪽에 있는 큰 마을. 마전군 당시 임진강 옆 언덕에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스므나무 숲이 무성히 우거져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동쪽에 있는 임진강의 큰 소를 지리지에는 ‘스므스[楡淵]’라 하였고, 진상리로 건너다니던 뱃터거리를 ‘스므스나루’, 스므스 위에 있는 임진강 여울을 ‘스므스 여울’이라 하였다. 예전에는 3일 8일이 되면 큰 장이 형성되어 ‘스므스장거리’라고도 불렀다.



〈임진강 스므스나루와 무등리 제1보루 전경〉

- ◆ 양지권[陽地洞] : 흥원사 북쪽, 무등실 입구에 있던 마을. 종일 별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 한다.
  - ◆ 잣나무골[栝村洞, 祠堂洞] : 무등실 남쪽에 있던 마을. 이 골짜기 안에 잣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공주이씨(公州李氏)의 사당인 흥원사가 있다 하여 '사당밭'로도 불렸다.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이씨의 사패지로 19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다.
  - ◆ 황두개 : 고성산 동쪽, 임진강 옆에 있던 마을. 황소머리 모양의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왕씨가 살던 곳이다.
- 가마소 : 고성산 동쪽, 임진강에 있는 소. 고성산에서 소로 뻗어 있는 산부리가 갈마음수형국(渴馬飲水形局)이라 하며, 소 옆의 강변은 '말밭개'라 불렸다.
  - 고성산(高城山) : 무등리 가장 북쪽, 북삼리와 경계에 있는 산. 삼국시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신라와 대립할 때 운영되었던 고구려의 봉수터이다.
  - 농바위 : 용궁정 서쪽에 있는 농 모양의 바위.
  - 대자봉 : 수작골 서쪽, 미산면 우정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도깨비여울 : 조개뿔 옆에 있는 임진강 여울. 도깨비가 자주 나타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매봉, 덜봉, 우정리(牛井里)산성 : 무등리와 미산면 우정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백제가 축조한 산정식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 무등실[舞登谷] : 흥원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무등리에 50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공주이씨의 족보에 의하면, 예전에 골짜기 안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공주이씨가 집집마다 키



우던 소를 우정리의 소뫼개벌판에서 방목을 하고, 저녁이면 목동들이 피리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소를 몰고 흥에 겨워 마을로 돌아온다 하여 춤출 무(舞)와 오를 등(登)을 써 '무등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무등'의 뜻은 임진강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큰 강 옆의 물이 들판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즉, '물의 들판'이라는 뜻의 고유어의 뿌리인 '물들'이 아래와 같이 변화하면서 한자 지명의 '무등'으로 굳어버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물[水] + 들[陴] = 물들 > 무들 > 무등 또는 무드리.

- **사정동(射亭洞)** : 대자봉 북쪽에 딸린 골짜기. 활터가 있던 곳이라 한다.
- **성안동(城內洞)** : 무등리 장대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무등리 1보루의 서쪽,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도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토기, 와편, 석재들이 지표에서 많이 수습되는 곳이다.
- **소경동** : 창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 안에 장님 효자가 살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수작골** : 스프스장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술청거리** : 사정동 서쪽에 있던 주막거리. 마전군 때 미산면 유촌리에서 여우고개를 넘어 이곳으로 넘어 다니던 큰 길이 있어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안터(內垔)** : 무등실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 **여우고개** : 미산면 유촌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 **용궁정(龍宮井, 龍宮亭)** : 남바위 옆, 임진강에 있는 깊은 소. 군자산 정상에 있던 우물에서 흥두깨를 넣으면 이 소 위로 떠 올랐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용궁정은 태조 이성계가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계를 은퇴한 뒤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 **용상수(龍床水)** : 대자봉 서쪽에 있는 고래실 논.
- **장대봉** :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북쪽에 있는 봉우리. 고구려 시기에 쌓은 산성인 무등리 제1보루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조개못** : 스프스 마을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큰 못.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최근에는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매몰되었다.
- **차돌백이고개** : 소경동에서 노동리로 넘어가는 고개.
- **창골(倉谷)** : 남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무등리 지역에서 삼국 영토분쟁의 각축장이었을 때 이 골짜기 안에 무기를 보관하던 병기창이 있던 곳이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도 창고가 있던 곳에는 와편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 **하느고개** : 무등실에서 남바위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고개에 한이 맺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화이트교, 무등교(無等橋)** : 군남면 진상리와 연결해 주는 임진강에 있었던 다리. 한국전쟁 당

시 전곡리를 탈환하고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이곳 임진강에 당도해 보니 인력과 장비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도하작전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당시 미군 공병대대에 있던 화이트(White) 소령이 급조한 나무다리를 놓아 '화이트교'라 칭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통나무 교각에 나무판자를 깎아 좁은 폭의 교량이었으나, 1970년 잠수교 형태의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하였다. 1995년 이 다리 남쪽에 큰 다리인 임진교가 새로 건립되면서 화이트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되었다.

## 2) 노동리(蘆洞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지역으로, 목은 이색(李穡)의 5세손 목사 이명은(李命垠)이 지금의 노동리에 정착하고 보니 갈대가 우거져 있어 '갈울[蘆洞]'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 **나복골·나부골[螺伏洞]** : 승지골 아래에 있는 마을. 지형이 우렁이가 옆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후 노동리가 수복되면서 갈울에 살았던 한산이씨들이 이곳에 새로 입주하여 현재 노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었다.

◆ **내로동(內蘆洞), 안갈울** : 갈울 안에 있던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한산이씨가 50여 호 살던 곳이다.

◆ **벌말[坪村]** : 나복골 서쪽, 벌판에 있던 마을.

◆ **작은장재울** : 우령산 남쪽에 있던 마을. 우리 고어의 지명 용례인 잔[小] + 자[山] + 울[谷, 洞] = 잔자울 > 잔재울 > 장재울[長在洞]의 어휘 변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재울은 가늘고 작다는 뜻의 '잘다'가 관형형으로 굳은 말인 '잔'에, 산의 고어 '자'가 합쳐진 이름이다. 즉, 본래 장재울은 우령산 자락이 둘러 감싸고 있는 '작은 산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현 한자명인 장재(長在)는 원래의 뜻과 무관하게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 **장구말** : 갈울 안에 있던 마을. 지형이 장구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큰장재울** : 작은장재울 위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이씨 13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가마봉[釜峰]** : 옥골 뒤에 있는 봉우리. 높이 184m. 가마와 같은 형상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노동리·북삼리·동중리의 경계가 된다.

• **갈울[蘆洞]** : 나복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노동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개룽지개울** : 개룽지에서 미산면 유촌리로 내려가는 개울.
- **개룽지** : 장승모탕이 북쪽에 있는 들판.
- **광대터** : 장승모탕이 서쪽에 있는 예전에 광대가 살았다는 터.
- **너리절, 절터골** : 가마봉 밑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광음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밖으로 경작되는 절터에는 우물이 남아 있다.
- **능안[陵內]** : 청주목사 이명은의 묘와 한산이씨 선대의 묘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도란(답)논** : 장학골 앞에 있는 논. 모양이 동그랗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두리산(分石山)** : 노동리와 동중리, 미산면 유촌리·백석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84m.
- **뒷골** : 옷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붓논** : 벌말 옆에 있는 개룽지개울을 막은 붓물로 관개하는 논.
- **살포장** : 장구말 뒤에 있는 산. 능선 위로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햇빛을 가리는 솔포를 친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예전에는 이곳에 봉수대가 있어 북쪽의 고왕산, 남쪽의 금굴산 봉수대와 연결되었다고 한다.
- **상아밭** : 옷골 아래에 있는 밭.
- **새능개울** : 갈울에서 개룽지개울로 합쳐지는 실개천.
- **새울[間谷]** : 능안과 원수골의 사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골짜기 이름이다.
- **승지골** : 갈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옥골** : 새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노동리에서 가장 위에 있다 하여 ‘옷골’로 부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옥골’로 어휘가 변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예안이씨 5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우령산** : 재팠골 동쪽, 무등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34m. 산의 형상이 우령이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풍수로 보아 서쪽에 있는 두리산의 황새봉이 먹이 형국인 이 우령산을 보며 늘 쪼아 먹으려는 형세이나, 중간에 개룽지개울이 가로막고 있어 먹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매년 음력 9월이면 정상에 있던 산제당에서 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 **옷골** : 상아밭 서쪽, 두리산에 딸린 골짜기.
- **원수골** : 두리산 북쪽에 딸린 골짜기.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곳으로 피난했다고 한다.
- **자개논** : 나복골 앞에 있는 논. 자갈이 많다 하여 ‘자갈논’이라 했던 것이 자개논으로 어휘가 변하였다고 한다.
- **장승모탕이** : 재팠골과 장재울 사이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 장승이 서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장학골** : 내로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재팠골** : 나복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차돌백이고개 : 장학골에서 무등리로 넘어가는 고개.
- 태봉(胎峰) : 광대터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봉우리. 예전에 왕실의 태를 봉했다 하나 현재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팽나무밭 : 학수우물 위에 있는 밭. 큰 팽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학수우물 : 갈을 안에 있는 우물. '학수'라는 사람이 봤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 황새봉고개 : 능안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고 한다.

### 3) 동중리(東中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리와 중동리를 병합하고 한 자씩 따서 '동중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해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과거에는 민통선 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이었다.

- ◆ 가는골[細谷洞] : 동막골 서쪽, 골짜기 안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경씨들이 살던 곳이다.
- ◆ 건너동막[越東幕] : 향촌말 서쪽에 있던 마을. 동막마을의 건너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덕절이[德寺洞] : 태봉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덕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 오지만, 관련 문헌이 없고 절터 또한 농경지로 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 ◆ 도독모루 : 송구터 서쪽, 산모퉁이에 있던 마을.
- ◆ 동막골(東幕洞) : 중간말 위에 있는 마을. 돌이 많은 골짜기가 되어 '돌막골'이라 불리던 곳이 '돌'이 '동'으로 음이 변하여 쓰이고 다시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동막(東幕)'이 된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3가구 살았는데, 20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한 후부터 3가구 이상 살지 않았다고 하며 현재는 1가구가 살고 있다. 이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건너동막, 셋동막 등의 마을 지명이 지어진 것이다.
- ◆ 셋가는골[間細谷洞] : 가는골 안에 있던 작은 마을.
- ◆ 셋골[間洞, 新垆] : 동막골 서쪽, 셋동막과 동막골 사이에 있던 마을.
- ◆ 셋동막[間東幕] : 자가산 북쪽에 있던 마을.
- ◆ 송구터 : 중골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진천송씨(鎭川宋氏)가 20여 호 살았던 곳이다.
- ◆ 중간말 : 월촌말과 동막골 사이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후 수복되고 민통선 영농이 가능해

지면서 전략적으로 마을이 크게 형성된 곳이다. 지금은 동막골·월촌말·중간말이 모두 합쳐져 있다.

◆ **향촌말[香木村]** : 정희성 묘 아래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해주정씨(海州鄭氏)가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마봉[釜峰]** : 중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48m. 가마와 닮은 모양이라 하며, 동중리·노동리·북삼리의 경계가 된다.
- **달고지고개[月串峴]** : 빼울과 세골에서 백학면 석장리의 달고지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달아몽지비낭, 목달은비낭** : 향촌말 서쪽, 자가산에 있는 벼랑.
- **당재[唐峴]** : 도둑모루 동남쪽, 큰 오리나무 고목이 있던 곳. 이 나무에 해마다 무속인들이 당굿을 올렸다 하여 당나무라고도 불렀으나 한국전쟁으로 없어졌다 한다.
- **당재고개** : 중간말에서 도둑모루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덕밭재** : 동막골에서 신성골로 넘어가는 고개.
- **덜봉** : 용호산 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높이 222m. 산을 일컫는 고어 ‘달’이 ‘덜’에 가깝게 발음되면서 ‘봉’과 합쳐진 이름이다.
- **독쟁이고개** : 장재울에서 미산면 백석리 가정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동중다리** : 당재 안쪽, 하천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예전에 징검다리가 있던 곳이다.
- **두리산[分石山]** : 동중리·노동리와 미산면 백석리·유촌리 경계에 있는 산.
- **뒷간뒷자리** : 도둑모루 앞에 있는 논. 거름을 주지 않아도 매년 풍작이 되는 비옥한 논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매봉** : 동막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62m. 매가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한다.
- **며겨울고개** : 배미골에서 백학면 석장리의 며겨울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 전곡읍·백학면 간의 버스 노선이 지나간다.
- **무터골[無基澗]** : 안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물의 고어에 하나인 ‘믈’이 음이 변하면서 ‘물이 혼한 골짜기’라는 뜻을 소리 그대로 음차하여 ‘무기동(無基洞)’이 된 곳이다.  
물의 골짜기 > 문의골 > 무대골 > 무태골 > 무터골.
- **배미골[夜未澗]** : 용호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부터 이곳은 물이 혼한 이유로 인하여 논이 많아서 논 단위인 한 배미, 두 배미에서 뜻을 따와 배미골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원래 뜻과 무관한 한자표기의 ‘야미(夜未)’가 된 것이다. 바미(밤이) > 배미 = 밤(夜) + 미(未) > 야미(夜未). 또한 고려시대 때에도 마을이 있던 곳이라 하며 지금도 그때 쓰였다는 자라우물이 남아 있다. 1973년 8월 5일 이 골짜기 고분에서 고려시대 부장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바 있다.
- **별모퉁이** : 향촌말과 월촌말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

- **빼울, 빼우리** : 산빼울 아래에 있는 넓은 골짜기. 차고 깨끗한 우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원래는 산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밭'이 변한 '배'가 '빼'로 발음되면서 골짜기의 뜻인 '울'과 합하여 '산골짜기 안' 또는 '산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물에 연관이켜 해석되고 있는 곳이다.
- **산빼울** : 덜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셋자리** : 송구터 남쪽에 있는 논.
- **솔정자고개[松亭峴]** : 중골에서 북삼리의 쑥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고갯마루에 큰 소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소나무는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
- **쇤냥짜리논** : 동막골 앞에 있는 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던 집터를 쇤 냥(50냥)에 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신성골** : 세곡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안산(案山)** : 배미골 동쪽에 있는 산. 향촌말에 있는 자로당(自老堂) 정희성(鄭希聖) 묘의 안(案)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양해논** : 중골에 있는 논.
- **용호산(龍虎山)** : 배미골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호랑이 형상이라 한다.
- **월촌말[月村], 건너말** : 큰배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자가산** : 달아몽지비냇이 있는 조그만 산.
- **잔바닷골고개** : 가는골에서 강서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고개** : 덕절이에서 강서리의 군영장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장재울[長者澗]** : 월촌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 골짜기에 살던 큰 부자가 가을에 깨를 수확하여 쌓아 놓은 것이 동중리 마을에서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중골** : 셋가는골 위에 있는 골짜기.
- **중군고개[中軍峴]** : 장재울에서 미산면 백석리 가정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치라채, 시라재** : 장재울 동쪽에 있는 고개. 미산면 백석리 분석골과 통한다.
- **큰배미** : 장재울 북쪽에 있는 여덟 마지기 논.
- **탁고개** : 장재울에서 미산면 광동리 뒤희골로 넘어가는 고개.
- **피아골** : 셋자리 남쪽, 두리산에 딸린 골짜기. 옛날에 피밭이 있던 곳이라 하여 '피밭골'로 불리던 것이 '밭'의 자음 'ㅂ'이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쳐 피아골로 전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밭골 > 피골 피앗골 > 피아골.



#### 4) 북삼리(北三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외곡리·징파리·애동리 등 북쪽 3개 리를 병합했다 하여 북삼리라 명명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어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이 정책적으로 입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검은동굴** : 방축골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이었으나 동굴의 존재는 확실하지는 않다.
- ◆ **둔밭[屯田]** : 징파도 부근에 있는 마을. 고려시대 군대가 주둔하며 농사를 지었던 둔전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죽산박씨(竹山朴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 ◆ **박대울[朴垆澗]** : 둔밭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죽산박씨가 많이 산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쑥골[艾澗]** : 살포장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쑥이 무성히 자라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안골** : 쑥골 동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 ◆ **안터[內垆]** : 쇠고개 아래,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도김씨(淸道金氏)가 많이 살던 곳이다.
- ◆ **이씨터** : 외울 남쪽에 있던 마을. 이씨가 살았다고 한다.

- **가루니** : 방축골 북쪽, 홍산이고개 쪽으로 있는 골짜기.
- **가마봉[釜峰]** : 북삼리, 노동리, 동중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고성산(高城山)** : 넘바위고개 동쪽, 무등리와 경계에 있는 산.
- **넘바위고개[廣岩峴]** : 방축골에서 무등리 넘바위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능골[陵谷]** : 가마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능이 있었다 한다.
- **달벼듬지산** : 징파도 북쪽에 있는 언덕. 예전에 달맞이를 했던 곳이라 한다.
- **대정에밭** : 쇠고개 아래에 있는 밭.
- **둔밭고개[屯田峴]** : 이씨터에서 강내리 진겨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매봉** : 외울 남쪽, 강내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24m. 매의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옛날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방아다리** :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방앗간이 있던 곳이라 한다.
- **방축골** : 고성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방축이 있었다 한다.

- **빙바위**[鵞鵝巖] : 징파나루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큰 바위. 예전에 부엉이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양이를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팽이바위’로도 불린다. 관련설화가 유명한 곳이다. 현재 허브아일랜드가 위치해 있다.



〈빙바위 전경〉

- **살포장** : 삭골 남쪽, 노동리와 경계에 있는 산.
- **선창이**[船倉] : 삭골과 검은동굴 마을에서 이용했던 임진강 포구. 1925년 을축대홍수 때 임진강이 크게 범람하여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 **솔정자고개** : 북삼리에서 동중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쇠고개**[牛峴] : 안터에서 강내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이 마을에 장성한 딸과 함께 살던 홀 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실성하여 딸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하자, 딸이 아버지에게 머리를 풀고 소처럼 이 고개를 내려오면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즉시 이 고개로 올라와 그대로 소의 흉내를 내며 내려와 보니 딸은 자결한 뒤였다. 그 후 이 고개가 쇠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으나, 본래의 뜻은 두 마을을 연결하는 사이에 이 고개가 있다 하여 ‘셋고개’로 부르다가 경기 북부의 방언에서 그 ‘새’가 ‘쇠’로 발음이 변하는 특징에 따라 ‘쇠고개’로 변한 지명이다.
- **시내기자리** : 외울 중앙에 있는 논. 옛날에 ‘시내기’라는 아가씨가 살았다고 한다.
- **외울**[外谷] : 둔밭마을 북쪽, 이씨터와 안터 골짜기의 전체 이름. 북면 지역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못** : 시내기자리 아래에 있는 깊은 못. 이곳에서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 **원고개** : 둔밭에서 외울로 넘어가는 고개.
- **징파나루**[澄波渡, 屯田渡] : 북삼리와 삼거리를 이어주는 임진강의 큰 나루터. 북삼교를 가설한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정약용의 『대동수경』에 의하면, 이곳의 강물이 강 바닥의 자갈이 흰히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맑다 하여 징파강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조선시대 연천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미수 허목이 자주 이용했던 나루라 하여 최근에는 '미수나루'라는 별칭과 함께 '둔발나루'라는 명칭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시문이 전해 온다.



〈임진강 징파도 둔발나루 전경〉

- **쪽박골고개** : 외울에서 강내리 쪽박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홍산이고개** : 북삼리에서 강내리로 넘어가는 고개. 324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 5) 강서리(江西里)

본래 연천군 서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계명리·군영리·영정리를 병합하여 임진강의 서쪽에 있다 하여 강서리라 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지만,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으로 현재 민간인이 살지 않고 출입 영농만 가능한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왕징면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 ◆ **갑상골(甲上洞)** : 안터 남쪽에 있는 마을.
- ◆ **고능동(古陵洞)** : 계명리 위에 있던 마을. 큰 고분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군영장거리(軍營場巨里), 군영리(軍營里)** : 은거당터 서쪽에 있던 왕징면사무소의 옛 소재지

주변 마을 이름. 조선 후기 연천현감을 역임했던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청천집(靑泉集)』에 실려 있는 「관허상국은거당원기(觀許相國恩居堂園記)」에는 “이 마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한때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군영이라 부른다(村以高麗太祖駐兵處俗呼軍營)”라고 이곳의 유래를 적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연천현 서면, 행정구역이 개편된 일제강점기 때에는 왕징면의 행정·교육·치안의 중심지였고, 연천·삭녕·장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모여들어 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지금은 이 일대 모두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 **기와말[瓦村]** : 하오고개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기와집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끄드르미[携引洞]** : 조선시대 연천현 당시 가장 서쪽 끝인 장단과 경계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닭이울[鷄鳴里]** : 방축골 안에 있던 마을. 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다.
- ◆ **대터[大垔]** : 기와말 옆에 있던 마을.
- ◆ **돌모루[回村]** : 달구지 동쪽에 있던 마을. 산부리 끝에 있는 모퉁이 지형이어서 이곳을 지날 때는 굽어 돌아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 **매지울[梅谷洞]** : 녹봉 북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 웃매지울·아랫매지울로 나뉘는 이곳은 산의 고어인 ‘뫼’ 또는 ‘메’가 한자의 ‘매(梅)’로 소리빌기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꼭대기라는 뜻의 ‘말’이 ‘매’로 변한 것이다. 말 > 몰 > 모리 > 모이 > 뫼 > 매, 즉 매지울의 본래 의미는 ‘산 마을’ 또는 ‘산골 마을’이다.
- ◆ **벌밭[野村]** : 여시울 동쪽 벌판에 있던 마을
- ◆ **분투골[盆土洞]** : 오방터 서쪽에 있던 마을. 항아리처럼 입구가 좁고 안이 넓은 지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오방터와 이 마을에 한국전쟁 전까지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 ◆ **안터[內垔]** : 돌모루 남쪽에 있던 마을.
- ◆ **여시울[六土洞]** : 오방터 동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여섯 명의 선비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의이씨와 제주고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한다.
- ◆ **영정동, 영정골[永貞洞]** : 은거당터 동쪽에 있던 마을. 이곳의 마을 뒤에 있는 산세가 길고 곧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조선 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영전리(營殿里)”로도 표기되어 있다.
- ◆ **오방터[五方垔]** : 분투골 동쪽에 있던 마을.
- ◆ **웃장거리** : 방축골 입구에 있던 마을. 군영장거리의 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강가마골** : 혼두터 옆에 있는 골짜기.



- 골말[谷村] : 오방터와 여시울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 금바위 : 칼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
- 녹봉(鹿峰) : 은거당터 뒤에 있는 산. 미수 허목이 이곳에서 만년을 보낼 때 이 산에 사슴이 많이 내려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은거당 터와 녹봉 근경〉

- 닥채 : 새터 남쪽에 있던 집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닥나무를 가공하여 한지를 만들었던 곳이다.
- 달구지 : 산제당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덕절이[德寺澗] : 군영장거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동중리의 덕절이와 연결되어 있으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 독정골 : 새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막골 : 영정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말고개 : 달구지에서 고왕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크다는 뜻으로 쓰였던 고어 '말'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장단과 연천 사이에 있는 '큰 고개'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방한 계선이 지난다.
- 문좌실(수)고개[文座峙] : 고능동에서 고잔하리 문좌수골짜기로 넘어가는 고개.
- 방축골[防築谷] : 옷장거리에서 문자수고개까지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농사에 쓰기 위하여 물을 가두어 놓는 방축이 있었다고 한다.
- 백고개 : 기와말 동쪽, 강내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 보광고개[寶光峴], 달구지고개 : 달구지에서 고잔하리 보광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옛날에



소달구지가 많이 다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보통학교자리** : 미수 허목 묘 앞에 있던 일제강점기 때의 왕징보통학교 터.
- **비낭당골** : 별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산(山祭堂山)①** : 끄드르미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08m. 한국전쟁 전까지도 끄드르미 마을에서 산제를 올렸던 곳으로, 고왕리와 작동리의 경계가 된다.
- **산제당산②** : 영정동 뒤에 있는 산. 매년 이 산 정상에 있는 부채 모양의 큰 소나무 아래서 소를 제물로 하여 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 **삼봉(三峰)** : 고능동 북쪽, 고잔하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58m. 정상이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새말고개** : 끄드르미에서 작동리 새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새터골** : 막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성주골** : 끄드르미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씩시골** : 별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아랫터골** : 독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안끄드르미** : 끄드르미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월계천(月溪川)** : 달구지에서 발원하여 강서리 중앙을 지나 강내리의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긴 개울.
- **윗터골** : 아랫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
- **작은분투골** : 오방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잔바닷골고개** : 군영장거리에서 동중리 가는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잔바닷골등** : 잔바닷골고개 옆에 있는 산 등.
- **장승고개** : 덕절이에서 동중리 덕절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처갓집을 다녀오다 이 고갯마루에 있는 장승 옆에서 장모가 싸준 닭고기를 배불리 먹고 난 후 그 뼈를 모아 놓고 종이예다 '계골장군(鷄骨將軍)'이라 써서 그 옆에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이곳에 호랑이와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사람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그 사람이 다시 치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정가터골** : 흥산이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정씨가 살았다고 한다.
- **칼바위** : 여시울 골짜기 안에 있는 큰 바위. 칼날처럼 서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하오고개** : 와말 동쪽에 있는 강서리에서 강내리의 능말로 넘어가는 고개.
- **할미당골** : 은거당터 동쪽, 영정동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늙은 할미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웃당골과 아랫당골로 나뉜다.
- **흥산이고개** : 강서리와 북삼리 사이에 있는 고개.
- **활터거리** : 하오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하던 훈련장이 있었

던 곳이라 한다.

- **흔두터** : 여시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6) 강내리(江內里)

본래 연천현 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안월리(安月里)·소포리(少浦里)·야전리(野前里)를 병합하여 임진강의 안쪽이 되므로 강내리라 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는 민통선 지역으로 민간인이 살지 않고 출입영농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 ◆ **능말(陵洞, 安月里)** : 강석덕 묘 아래에 있던 마을. 진주강씨(晉州姜氏)의 큰 묘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강회백의 후손인 진주강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들앞(野前洞)** : 마방 동쪽에 있던 마을.
- ◆ **마방(馬房)** : 안골·능말·들앞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던 작은 마을. 주막집이 있던 곳이다.
- ◆ **안골(內洞)** : 왕대터들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이천서씨(利川徐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던 곳이다.
- ◆ **여묵** : 들판 뒤편, 임진강 옆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취우당 이진무를 입학조로 하는 전주이씨(全義李氏) 효령대군파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장군리(將軍里), 작은개(小浦里)** : 두리봉 북쪽, 임진강 변에 있던 마을. 이곳에서 중면 삼곶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인 장군이나루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 지리지에는 “小浦”로도 기록되어 있다.

- **가마소** : 매봉 동쪽, 월계천에 있는 가마솥처럼 생긴 소.
- **가장골** : 여묵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강내리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 **군내들** : 백고개 동쪽에 있는 강내리의 넓은 들.
- **뇌울** : 장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동오리골** : 포수터 위에 있는 골짜기.
- **동이점고개** : 안골에서 임진강 가의 동이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동이점골** : 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웅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 **동이점** : 망재 북쪽, 임진강 변에 있는 골짜기. 조선 후기 웅기가마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 **두리봉** : 가장골 서쪽에 있는 산. 높이 112m.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고 하여 지

어진 이름이다.

- **둔밭고개** : 강내리에서 북삼리 둔밭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등마루** : 여묵 남쪽, 임진강 변에 있는 긴 산 등. 지금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변해 있다.
- **망재[望峴山]** : 강희백 묘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42m. 예전에 망을 보았던 곳이다.
- **매봉** : 강내리와 북삼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24m.
- **배골** : 가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을 뜻하는 고어 ‘밭’이 ‘배’로 변한 것으로, ‘산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이다.
- **백고개** : 능말에서 강서리 여시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불당골[佛堂谷]** : 매봉 동쪽에 딸린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절터에는 한국전쟁 전까지도 석조미륵불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쇠고개** : 강내리와 북삼리 외울 사이에 있는 고개.
- **아치골** : 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안드래** : 진개울 옆에 있는 골짜기. 강서리에 펼쳐져 있는 군내들 안에 있다고 하여 ‘안들’로 불리다가 ‘안드래’로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오리물** : 가마소 위쪽에 있는 큰 소. 오리가 많이 놀던 곳이라 한다.
- **옥골** : 아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왕대터들** : 능말 동쪽, 월계천 주위에 있는 들판.
- **월계천(月溪川)** : 강서리에서 발원하여 강내리 중앙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하는 하천.
- **절골** : 능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던 곳에는 축대기와편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 농지로 개간되어 멸실된 상태이다.
- **진개울** : 능말 앞에 있는 긴 개울.
- **쪽박골** : 매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축동[築洞], 동묘재결** : 여묵 마을 바깥, 임진강 변에 일렬로 있던 인공 수구막이. 큰 소나무와 잣나무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베어서 없어졌다고 한다.
- **큰장학골** : 절골 위에 있는 골짜기.
- **키장골** : 능말 서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옛날에 키를 만들던 수공업자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포수터** : 망재 동쪽에 딸린 조그만 골짜기.
- **하오고개** : 능말에서 강서리로 넘어가는 고개.

## 7) 고왕리(高旺里)

본래 장단도호부 강동면 기곡리 지역인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의해 강동군이 마천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고왕산에서 이름을 따 고왕동이 하나의 법정리인 고왕리가 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기석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남북한계선의 안에 위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깊은골[深谷洞]** : 옥왕손이골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만석동(萬石洞)** : 나븐돌고개 남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고왕산 서쪽 산록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하늘 아래 첫동네’로도 불렸던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단양우씨(丹陽禹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 ◆ **작은고왕산** : 고왕산 남쪽에 있던 마을. ‘셋고왕산’으로도 불렸으며, 한국전쟁 전에는 해평윤씨(海平尹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큰고왕산[高旺洞]** : 비사리골 동쪽에 있던 마을. 고왕산 남쪽에 딸린 큰 마을로,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마골고개** : 고왕리에서 작동리 가마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고왕산(高旺山), 고양산(高陽山), 봉화산(烽火山), 말무덤산** : 고왕리고잔상리고잔하리에 걸쳐 있는 왕징면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이 355m. 옛 장단의 지리지에는 “高陽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래의 의미는 ‘높음’·‘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 이름이다. 고왕산은 임진강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장단지역의 구릉지대에 외따로 특이하게 높이 솟아 있어, 예부터 이 산을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숭배했던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하여 ‘봉화산’이라고도 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이 산의 험을 끊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무쇠 말뚝을 박았다고도 하며, ‘말무덤산’으로도 불렸던 곳이다.
- **나븐돌고개** : 만석동 북쪽에 있는 고개. 고잔상리와 경계가 된다.
- **능골[陵谷]** : 만석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능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달구지고개** : 보광고개 동쪽에 있는 고개. 강서리의 달구지로 통한다.
- **돌박재** : 아랫골 북쪽, 넓은 산등성이에 있는 밭. 돌이 많이 박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드링결골짜기** : 장승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말고개** : 고왕리와 강서리 사이에 있는 고개. ‘고왕리고개’라고도 불렸으며, 예전에 이 고개에



도둑이 많았다고 한다.

- 망대봉(望臺峰) : 산제당산 서쪽, 작동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바위절골고개(巖寺峴) : 아랫골에서 기곡리 바위절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보광고개(寶光峴) : 윗고왕산에서 고잔하리 보광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비사리골 : 은골 동쪽, 만석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단양우씨가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새고개 : 청들에서 기곡리의 산점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두 마을의 사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아랫골 : 안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안산(案山) : 바위절골고개 서쪽에 있는 산. 높이 159m. 윤씨 묘의 안산이 된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 양유골(楊柳谷) : 오작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오작골 : 돌박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옥왕손이골 : 깊은골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왕손(王孫)을 욱했다고 한다.
- 윗고왕산 : 말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윗골 : 청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은골(銀谷) : 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금과 은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때에는 은광이 번창했던 곳이며,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靑松沈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 장승거리 : 기곡리와 깊은골, 고왕동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 청들 : 비사리골 남쪽에 있는 들.

## 8) 기곡리(基谷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강동면 지역으로, '터골' 또는 '터일'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기곡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강동면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으로 개칭되었고, 기곡리는 기곡기석 2개 리로 분할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강신면이 연천군 왕징면으로 다시 편입되면서 기곡리기석리·산점리를 병합하고 기곡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현재 군사분계선이 그 중앙에 놓여 있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비무장지대에 속한다.

- ◆ **바깥미재** : 안미재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진주정씨(晋州鄭氏), 조주석씨(潮州石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뱃터일[外基谷]** : 서낭당 북쪽에 있던 마을.
- ◆ **버들말** : 국사봉 북쪽에 있던 마을. 큰 버드나무 고목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산점리(山店里)** : 동산말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
- ◆ **소학동(集鶴洞)** : 국사봉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정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쑥구말** : 도찌네미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안미재(內美齋)** : 산점리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여주김씨(驪州金氏)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 ◆ **안터일[內基谷]** : 뱃터일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풍석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상택지」에는 장단을 대표하는 명당, 명기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 ◆ **잣골** : 안산 서쪽에 있던 마을. 조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 **국사봉(國師峰), 두리봉** : 소학동 서쪽, 임강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56.7m.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여 '두리봉'으로 불리기도 한다.
- **대경들** : 쇠지기등 남쪽에 있는 들판.
- **도찌네미** : 대경들에서 백학면 나부리의 내오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내오천 마을에 큰 대장간이 있어 대장간의 방언인 '도찌'와, '넘는다'의 고어인 '네미'가 합쳐져 불려진 이름이다.
- **동산말고개** : 바위절골에서 동산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동산모루** : 잣골과 바위절골 중간 지점에 있는 산모퉁이.
- **마골** : 쇠지기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 멧돼지·늑대 등의 산짐승이 많았다고 한다.
- **매봉재** : 세고개 남쪽, 기곡리와 작동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175m. 매의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나, 원래는 산의 고어인 '뫼'가 '매'로 음이 변하면서 '봉'과 '재'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바위절골[巖寺洞]** : 안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 바위 밑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절 이름은 자세히 전해 오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는 무속인들인 이곳에 굿당을 지었다 한다.
- **서낭당** : 버들말 입구에 있던 서낭당. 한국전쟁 전까지 목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서오개** : 안산 동쪽, 푸묵골 안에 있는 골짜기.
- **세고개** : 승지골 동쪽, 작동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작동리와 기곡리, 백학면의 나부리로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지형을 살펴보면 작동리와 기곡리 사이에 있어 셋고개[閭峴]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쇠지기등** : 안산 남쪽에 있는 산.

- 승지골 : 푸묵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안산(案山) : 서낭당 동쪽, 고왕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59m. 고왕리에 있는 윤씨 묘의 안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안산 : 바깥미재 마을과 푸묵골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 적성현감을 지낸 정옥(鄭沃)의 묘가 있다고 한다.
- 절터골 : 쑥구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에는 초가 형태의 건물에 3명의 비구니가 있었다 하나 절 이름 및 연혁은 자세하지 않다.
- 푸묵골 : 안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폭 들어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9) 작동리(鵲洞里)

본래 마전군 서면 지역으로, 까치와 닮은 형상의 산이 있으므로 ‘까치울’ 또는 한자로 ‘작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의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다.

- ◆ 가마골[釜谷洞] : 까치울 북쪽에 있던 마을. 크다는 뜻의 고어인 ‘감’과 ‘골’이 합하여 ‘큰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임천조씨(林川趙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 ◆ 까치울[鵲洞] : 까치산 북서쪽에 있던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상산김씨(尙山金氏)가 많이 살던 곳이다.
- ◆ 돌모루[石隅里] : 차일봉 북쪽에 있던 마을. 산부리 끝을 돌아가는 모퉁이에 위치하여 ‘돌모루[回隅]’라 불리던 곳이 ‘돌[回]’이 한자의 ‘돌[石]’로 음차되면서 ‘석우리’가 된 것이다.
- ◆ 망운리[望雲里] : 알맹이고개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새말[新村] : 망대봉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윗새말 : 망대봉 서쪽에 있던 마을. 작동리 새말의 위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마골고개 : 윗새말에서 가마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검은골 : 망운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고왕산고개** : 가마골에서 고왕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고왕산고개** : 망대봉과 산제당산 사이에 있는 고개. 고왕리로 통한다.
- **곰장골** : 돌모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까치산[鵲山]** : 매봉재 동쪽에 있는 산. 산의 모양이 까치와 같은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작동리의 유래가 된다.
- **까치울고개** : 검은골에서 까치울로 넘어다니던 고개.
- **농박골** : 독길과 가마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느른목이** : 대식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매봉재와 장승고개 사이의 고개가 목이 낮게 늘어서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달고지고개[月串峴]** : 망운리에서 백학면 석장리 달곶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대식동(大食洞)·큰밥골** : 오리안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독길** : 까치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돼지 형국이라 한다.
- **막은쟁이, 망건이고개** : 해장골 아래에 있는 고개. 백학면 석장리로 통한다.
- **망대봉(望臺峰)** : 작동리 새말 북쪽에 있는, 고왕리와 경계가 되는 봉우리. 예전에 망을 보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매봉재** : 까치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평사냥을 할 때 이곳에서 매를 날렸다 하여 매봉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 뜻은 산을 뜻하는 ‘퇴봉’의 합성지명일 뿐이다.
- **배나무골** : 팔매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산(山祭堂山)** : 작동리·고왕리·강서리 경계에 있는 산.
- **새골** : 까치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새말고개[新村峴]** : 작동리 새말과 강서리 끄드르미 사이에 있는 고개.
- **세고개** : 매봉재 북쪽에 있는 고개.
- **쌍소나무백이고개** : 까치울에서 기곡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소나무 옆에 서낭당도 있었다 한다.
- **알맹이고개** : 돌모루 북쪽에 있는 고개.
- **오리안봉(五里案峰)** : 까치산 동쪽에 있는 동그랗고 조그만 봉우리. 가마골에 있는 사헌부 지평 조정순(趙正純) 묘의 안산이 되는데 그 거리가 5리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잠바독골** : 망운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잔바닷골’로도 불리 운다.
- **장승고개[長丞峴]** : 오리안봉 서쪽에 있는 고개.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절고개** : 가마골에서 망운리로 넘어가는 고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한다.
- **진고개** : 곰장골에서 백학면 백령리로 넘어가는 고개.
- **차일봉(遮日峰)** : 작동리와 백학면 석장리, 백령리의 경계에 있는 산.
- **충신이골** : 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팔매나무골 : 망운리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풍년골 : 해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한개울 : 까치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해장골 : 새말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동묘지가 있다.

## 10) 고잔상리(高棧上里)

장단도호부 강동면의 곳잔리(串棧里)라 하였으나, 조선조 말에 와서 고잔리로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강동면 전 지역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고잔리가 상·중·하 3개 리로 분할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군·면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면서 고잔상·하의 2개 리로 다시 개편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잔상·하리 전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비무장지대로 지금은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다.

- ◆ 등너머 : 산뒤 서쪽에 있던 마을.
- ◆ 백석동(白石洞) : 마량산 서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 ◆ 산뒤(山後洞) : 안터 서쪽에 있던 마을. 고왕산 뒤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진주강씨 4가구가 살던 곳이다.
- ◆ 새말(新村) : 미래이골짜기 입구에 있던 마을. 안동권씨(安東權氏)들이 살던 곳이다.
- ◆ 쇠재[金尺洞] : 나븐골고개 서북쪽에 있던 마을. 원래는 사이라는 뜻의 '새'와 고개의 다른 이름인 '재'가 합쳐져 '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으나, '새'가 경기북부의 방언인 '쇠'로, '재'가 '자[尺]로 발음이 옮겨지며 한자식 지명이 되었다.
- ◆ 안터[內垔] : 산뒤와 뒷산뒤 사이에 있던 마을.
- ◆ 뒷산뒤 : 산뒤 동쪽, 산 뒤 마을 위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3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한드루 : 쇠재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 개미역골 : 도툰영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개미골'로도 불린다
- 나븐돌고개 : 고잔상리에서 고왕리의 깊은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갯마루에 6명이 앉을만한 푸른 빛의 넓은 돌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도툰영 : 새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마량산(馬良山), 미량산 : 고잔상리와 고장리 경계에 있는 삼각형의 뾰족한 산. 높이 315m. '높

음' 혹은 '신성함'을 뜻하는 고어인 '말'이 마라 > 마랑 > 마량으로 연철되어 현재의 지명으로 자리 잡은 이름이다. 한편으로는 고왕산이 되려다 밀려나서 '밀린산'이 되었다가 차츰 어휘가 변하여 미량산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 북쪽의 북한군 초소가 자리한다.

- **막터골고개** : 미래이에서 고장리의 막터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미래이** : 줄바위등 북쪽, 마량산에 딸린 골짜기.
- **백산(白山)** : 고잔상리고잔하리고장리의 경계에 있는 산. 백씨의 소유였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범바위골** : 줄바위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 안에 있는 크고 넓은 바위 위에 범이 자주 출몰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약물터** : 고왕산 북쪽, 뒷산뒤 골짜기 안에 있는 약수터. 많은 양의 물이 암벽 사이를 폭포처럼 떨어져 부근 마을 사람들이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하여 물맛이를 했으며, 한발이 심할 때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 **줄바위등** : 고잔상리 중앙에서 고잔하리 쪽으로 뻗은 긴 산 등. 고잔리의 유래가 되는 뾰족한 지형인 곳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다. 줄바위등은 고잔하리의 감투봉까지 내려오는 산등성이 위에 큰 바위들이 많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글로 '고소득'이라 새겨진 바위가 있었다 한다.

## 11) 고잔하리(高棧下里)

장단도호부 강동면의 곳잔리(串棧里)라 하였으나, 조선조 말에 와서 고잔리로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강동면 전지역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고잔리가 상·중·하 3개 리로 분할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군·면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면서 고잔상·하의 2개 리로 다시 개편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잔상·하리 전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비무장지대로 지금은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다.

- ◆ **굴우물[窟井洞]** : 가마소 남쪽에 있던 마을. 고무래봉 밑에 좋은 우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물레방아가 있던 곳이다.
- ◆ **당골** : 송촌말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에 있던 마을. 진천송씨(鎭川宋氏)가 많이 살던 곳이다.
- ◆ **보광이[寶光洞]** : 지막말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가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 ◆ **송촌말[宋村]** : 문좌수 입구에 있던 마을. 진천송씨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양지말[陽村]** : 응달말 북쪽, 양지바른 곳에 위치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의이씨가 14대째 집성촌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응달말** : 장경대 서쪽, 음지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여흥민씨(驪興閔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 ◆ **장경대(長景臺)** : 장경석벽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서해안에서 임진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온 새우젓·소금배들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땀나무 등과 물물 교환을 하던 장소였다. 또한, 중면 횡산리의 별말로 건너다니던 장경대나루터에는 주막집이 있어 여행객의 쉼터로 이용되었던 활기찬 강촌이었으나,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놓여 있다.
- ◆ **중고잔(中高棧)** : 송촌말 북쪽에 있던 마을. 고잔하리의 중앙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단양우씨가 11대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 '우촌말'로도 불렸던 곳이다.
- ◆ **지막말(紙幕村)** : 생골 남쪽에 있던 마을. 일제강점기 때 종이를 만들었던 곳이다.
- ◆ **통통말[弓弓洞], 최촌말[崔村]** : 굴우물 북쪽에 있던 마을. 이 부근의 땅을 세계 디디면 속이 비어 있는 것같이 '통통' 소리가 울린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최씨(慶州崔氏)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하여 '최촌말'로도 불리웠다.

- **가마소** : 천나다리 위에 있는 큰 소. 집채만 한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메기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감투봉** : 양지말 서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28m. 고잔상리의 즐바위등에서 내려온 능선 끝에 있으며 정상이 감투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팽과리밭** : 옷나무골 아래에 있는 고잔하리에서 가장 좋은 밭.
- **도장골** : 주부터 위에 있는 골짜기.
- **돌세비** : 장경대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강 언덕. 돌이 많은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세비'는 큰 강의 옆이라는 뜻을 가진 '셋'의 어휘 변화로 추정된다.
- **돌세비고개** : 돌세비에서 강서리 여시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된밭** : 응달말 남쪽에 있는 밭. 경사가 가파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된재고개** : 응달말 남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되다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강서리의 매지울로 통한다.
- **매봉재** : 수루네미고개 동쪽, 고장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모래둔치** : 장경대 남쪽, 임진강변에 퇴적되어 있는 큰 모래 언덕.
- **문좌수, 문좌실, 문좌치(文座峙)** : 삼봉 서쪽에 있던 골짜기.
- **박씨터** : 도장골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박씨가 살았다고 한다.
- **백산(白山)** : 소반쟁이 위에 있는 산. 예전에 백씨의 소유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잔상리·고잔하리·고장리의 경계가 된다.

- **병풍바위[長景石壁]** : 장경대 마을 북쪽, 임진강변에 있는 현무암 석벽. 높이 30m. 박씨터 입구에서 장경대까지 약 500m 길이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 석벽의 북쪽 끝으로는 '벼락바위'가 있고, 남쪽 끝인 장경대 마을 뒤편에는 큰 바위가 누에처럼 돌출해 있다 하여 '누에머리'라 불렀다고 한다.
- **산재고개** : 응달말 동쪽에 있는 고개.
- **삼봉(三峰)** : 응달말 남쪽, 강서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38m. 정상 부분이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생골** : 굴우물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소반쟁이밭** : 감투봉 북쪽에 있는 큰 밭. 골짜기 안이 자그마한 소반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수루네미고개[車踰峴]** : 장치지골 북쪽, 고장리의 고양대로 넘어다니던 고개. 예전에 이 고개로 수레가 많이 넘어 다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원래는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루'의 어원은 으뜸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인 '술'에 부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술 > 수리 > 수루(수레)로 발음이 변하면서 넘는다는 뜻의 '네미'와 합쳐진 파생 지명이다.
- **수무능** : 중고잔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수무능들** : 고잔하리 중앙에 있는 넓은 들판.
- **양지말[陽村]** : 굴우물 건너에 있던 양지바른 마을.
- **웃나무골** : 팽과리밭이 있는 골짜기. 웃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요골** : 소반쟁이밭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원주골** : 송촌말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윌터(투)골** : 중고잔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자개울** : 보팽이 안에 있는 골짜기.
- **장사바위** : 돌새비 서쪽에 있는 바위. 아주 옛날 장사가 이 바위 위에서 놀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큰 돌 위에 편평한 자연석이 올려져 있는 형태인데, 바위 윗면에 장사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 **장치지골** : 웃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절터골** : 지막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보광동의 유래가 되는 보광사 터로 추측이 되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까지 축대가 남아 있었고 소량의 와편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다.
- **정봉(丁峰)** : 굴우물 뒤에 있는 봉우리. 고무래 모양이라 한다.
- **좁은골** : 통통말 위에 있는 좁고 가는 골짜기. 예전에 아이가 죽으면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 **주부터** : 도장골 입구에 있는 터. 유래는 자세하지 않고, 한국전쟁 전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 **천나다리** : 증고잔 서쪽에 있는 징검다리. 한국전쟁 전에는 고잔리의 중심이 되는 사거리로,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 **허피기** : 횃돌다리 북쪽에 있는 큰 밭. 밭 가운데 크고 넓적한 장사바위가 있는데 표면에는 장사의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 **회돌다리** : 양지말 북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회돌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왕징면에 포함된 옛 서남면(西南面)

서남면은 본래 삭녕군(朔寧郡) 지역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서면과 남면으로 분리되어 있던 곳이다. 서면은 옛 삭녕군 관아에서 서쪽에 위치하며, 형천리(荊川里)·가좌동리(加佐洞里)·냉정리(冷井里)·솔현리(率賢里)·석둔리(席屯里)·장항리(獐項里)·나외동리(羅外洞里) 등 7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가좌동리를 '佳佐洞里'로, 나외동리를 '나학리(羅鶴里)'로 명칭만 변경하였다. 그 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7개 리를 가천(佳川)·냉정·솔현·석둔·장학(獐鶴)의 5개 리로 폐합하고 남면을 병합하여 서남면이 되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남면은 삭녕군 관아 남쪽에 위치한다 하여 남면이라 하며, 탄부리(炭釜里)·고리동리(古里洞里)·오장대리(五狀垜里)·귀존리(貴存里) 등 4개 리를 관할해 오다, 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오장대리를 '梧莊垜里'로 명칭만 변경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오탄(伍炭)·고장(古莊)·귀존의 3개 리로 축소·폐합하여 서면과 병합, 서남면이 되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서면과 남면이 병합되어 연천군에 편입된 서남면은 가천·냉정·솔현·석둔·장학·오탄·고장·귀존 등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속해 있다가 한국전쟁 끝난 뒤에도 전 지역이 휴전선 북쪽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서남면이 왕징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서남면사무소 소재지는 귀존리 하후평동에 있었다고 한다. 아래에 언급하는 법정리(里)는 모두 한국전쟁 이전의 옛 서남면 지역이었다.

현재 서남면 전지역은 북한의 장풍군 지역에 속해 있다.

## 12) 귀존리(貴存里)

조선시대 삭녕현 남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왕징면에 행정 편입되어 있는 법정리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서남면 행정·치안·교육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 ◆ **구진이[貴存里]** : 후평동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요골 마을과 함께 전주이씨 32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뒤밀[斗尾洞]** : 작은뱅여울 남쪽, 골짜기 안에 있던 작은 마을. 산골짜기라는 뜻의 고어‘뚝’의 연체형인 ‘두미’가 ‘뒤밀’로 변하여 한자 대역자인 ‘두미(斗尾)’로 표기된 곳으로, 원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 ◆ **비냥말** : 윗뒤뜨르 서쪽에 있던 작은 마을. 마을 뒤편에 낭떠러지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아랫뒤뜨르[下後坪洞]** : 귀존리 중앙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 서남면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면사무소, 주재소(지서), 보통학교, 여인숙, 상점 등이 있었다 한다.
- ◆ **요골** : 구진이 동쪽, 국사봉에 딸린 골짜기 안에 있던 작은 마을.
- ◆ **윗뒤뜨르[上後坪洞]** : 도당골 북쪽에 있던 마을. 뒤뜨르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해방 전까지 전주이씨 35호가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감리교회가 있던 마을이다.
- ◆ **작은뱅여울[小方洞]** : 큰뱅여울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 ◆ **큰뱅여울[大方洞]** : 작은뱅여울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강릉김씨(江陵金氏) 25가구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황새, 백로, 왜가리 등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서남면의 명물로 꼽혔던 곳이다.

- **국사봉(國思峰)** : 구진이 마을 동쪽, 오탄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22m.
- **노루고개[獐峴]** : 작은뱅여울과 오탄리의 마대울 사이에 있는 고개. 고갯마루의 지형이 넓게 늘어져 있다 하여 ‘너르고개’로 불리던 것이 ‘노루[獐]’로 음차하여 ‘노루고개’가 되었다
- **도당골** : 살대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도당이 있었다 한다.
- **마대울고개[麻袋峴]** : 요골에서 오탄리의 마대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살대목** : 귀존리 중앙에 있던 큰 보. 가천리의 가재울과 지어대에서 내려오는 두 개울이 이곳에서 모여 소를 이루는데, 이 보에 모인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 13) 가천리(佳川里)

조선시대 삭녕현의 서면 지역으로, '가재울'이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가좌동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가좌동리(佳佐洞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가좌동리와 형천리를 병합하여 '가천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 ◆ **가시내[荊川洞]** : 손지터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 예전에 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 옆에 가시나무가 자랐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10호 내외가 마을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 ◆ **가재울[佳佐洞, 加佑洞]** : 능말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장사유씨(長沙俞氏)들이 4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가좌동(佳佐洞)'은 '가장자리'의 방언인 '가쟁이'를 음차한 것으로, 본래는 '가장자리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을 북쪽에는 고려~조선시대 삭녕의 대표적인 불교사찰이었던 관음사터가 있었다.
- ◆ **능말[陵村]** : 가재울 동쪽에 있던 마을.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정사의 어지러움에 회의를 느끼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일생을 마친 이근생(李根生)의 묘가 있다 하여 능골로 이름 지어진 곳이다. 조선 후기에는 내시들이 모여 살아서 '내시촌'이라는 다른 이름도 전해오며, 한국전쟁 전에는 약 20여 호가 산촌(散村)을 이루었던 곳이다. 서남면 지역은 이 때 입향한 이근생의 후손인 전주이씨들이 한국전쟁 전까지 번성하였던 곳이다.
- ◆ **배랭이** : 가천리 가장 서쪽, 산골짜기에 있던 작은 마을.
- ◆ **손지터** : 배랭이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다섯 집이 살았던 곳이다.
- ◆ **양지울[陽地洞]** : 지루터 동쪽에 있는 마을.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들이 10여 호 살던 곳이다.
- ◆ **장거리** : 지루터 서쪽, 마성리로 넘어가기 전에 있던 조그만 마을.
- ◆ **주을동(朱乙洞)** : 가시내 서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지루터[地於堡, 至於堡]** : 양지울 서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가시내개울** : 가시내 마을 앞을 지나 귀촌리로 흘러가는 개울.
- **갈마재** : 가재울에서 냉정리의 물미치로 넘어 다니던 고개. 고갯마루가 소 등에 얹은 길마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영원산(靈原山, 靈源山) : 가천리·석둔리·장학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17m.

#### 14) 냉정리(冷井里)

본래 삭녕현 서면 지역으로, 찬 우물이 있어 ‘냉정리’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법정리이다.

- ◆ 남성동(南星洞) : 응달말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너더리[板橋洞] : 아랫말 동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삭녕과 장단의 구화장으로 연결되는 대로에 해당하여 항상 인마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이곳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큰 나무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명은 ‘넓은 들’의 뜻인 ‘너덜’이 ‘널들 > 널들 > 너들 > 너덜(너더리)로 변한 것이며,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음 그대로의 대역자인 ‘판교’가 된 것이다. 마을 주변 산속에 비교적 넓은 들이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주막이 있어 ‘주막거리’로도 불렸으며 15호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 ◆ 아랫너더리 : 너더리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가구가 살았다.
  - ◆ 아랫말[下村] : 냉정리 중앙에 있던 마을. 남성동의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웃말[上村] : 냉정리의 가장 서쪽 위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가 15호 살았던 곳이다.
  - ◆ 응달말 : 안골 북쪽, 응달에 있던 작은 마을.
  - ◆ 청룡동(靑龍洞) : 웃말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던 곳이며, ‘청룡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 ◆ 큰말[大開洞] : 응달말 북쪽에 있던 냉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정선전씨(旌善全氏)만 4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갈마채 : 물미치에서 가천리의 가재울로 통하는 고개.
  - 물미치[水峴] : 너더리 북쪽, 석둔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 고갯마루 부근에 있는 찬 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솟아 나와 물이 흐른 곳이라 하여 ‘물미치’로 이름 지어졌다. 냉정리의 유래도 이곳으로 인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고개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

다 한다.

- 안골 : 너더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15) 고장리(古莊里)

본래 삭녕현 남면의 고리동리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던 오장대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각각 한 자씩 따와 고장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북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왕징면에 편입된 법정리이다.

- ◆ **고려울[古里洞]** : 고장리 북쪽에 있던 큰 마을. 옛 삭녕군 남면의 고리동리 지역이다.
- ◆ **고양대(高陽垓)** : 막터골 동쪽에 있던 고장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6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당너머** : 되리뫼 동쪽, 두 집이 살던 작은 마을.
- ◆ **되리뫼[回山洞]** : 고장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던 마을. 마량산에서 뻗어 내린 산부리 끝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순흥안씨(順興安氏)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며, 지금은 북한의 선전마을이 있다.
- ◆ **막터골[幕垓洞]** : 마량산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15가구 살았던 곳이다.
- ◆ **시육이[時郁市]** : 고려울벌 동쪽, 임진강 변에 있던 마을. 삭녕군 당시 장이 섰던 곳이어서 ‘남면장거리’라고도 불렀다. 현재 태풍전망대에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 ◆ **웃말** : 약물터 아래에 있던 마을. 고양대 마을 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가산** : 막터골에 있는 산.
- **고려울벌** : 고려울 앞에 있는 넓은 벌판. 현재는 북한의 집단농장이 들어서 있다.
- **고장리산성(古莊里山城), 성재** : 고양대 동쪽, 산 정상에 있는 산성. 축조 연대 및 규모는 자세하지 않지만 산정부에는 테뢰식으로 쌓은 석성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한다. 지금은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의 지역이다.
- **고지앗** : 반골 북쪽, 썩미개울 옆에 있는 밭. ‘앗’은 밭의 고어이다.
- **공동묘지** : 등계현 옆에 있는 일제 때 조성된 공동묘지.
- **귀룽앗** : 시육이 서쪽에 있는 밭.

- **굉소** : 물방아터 위에 있는 소의 구유처럼 생긴 깊은 소.
- **금정골** : 부엉데미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기와골** : 은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노리고지(nori高地)** : 고려울 동쪽에 있는 산. 한국전쟁 당시 이 고지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군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 **느릅소[楡溜]** : 매봉재 동쪽, 임진강에 있는 소.
- **도령곶[道諭傍]** : 고양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밖에 있는 도령곶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 **도령곶산** : 고양대와 도령곶 사이에 있는 뾰족한 모양의 산.
- **독골[獨谷]** : 고려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한 집이 살았던 곳이다.
- **동뢰산, Betty고지, 김만술고지** : 시옥이 남쪽에 있는 조그만 산. 한국전쟁 때 대표적인 격전지로 알려진 곳이다.
- **둔지봉** : 외정자 남쪽에 있는 봉우리.
- **등계현[登梯峴]** : 병목아지밭 북쪽에 있는 고개. ‘등드지고개’라고도 불린다. 한국전쟁 전에는 고갯마루에 큰 벚나무와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마골** : 되리피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마량골** : 막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량산에 딸려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마량산(馬良山)** : 막터골 서쪽, 고잔상리와 경계에 있는 원추형의 뾰족한 산. 높이 315m.
- **마루거리** : 새터밭 동쪽에 있는 밭.
- **막터골고개** : 되리피에서 막터골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막터골 구름** : 막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매봉재** : 고양대 남쪽, 고잔하리와 경계에 있는 산.
- **매학골[梅鶴洞]** : 막터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멍에아리** : 이레갈이 옆에 있는 밭.
- **무당소** : 신피밭 북쪽, 썩미개울에 있는 소.
- **물방아터** : 고양대 동쪽, 임진강 가운데 있는 섬. 예전에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다.
- **밤골** : 고장리 산성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방골** : 고지앗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백산(白山)** : 막터골 남쪽, 고장리·고잔상리·고잔하리 경계에 있는 산. 백씨 소유의 산이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백산구름** : 백산에서 막터골로 나 있는 골짜기.
- **병목아지밭** : 양지곶 북쪽, 오목한 병 모양의 골짜기 안에 있는 밭.



- 부군당(府君堂) : 외정자 서쪽에 있던 부군나무. 한국전쟁 전에는 큰 오리나무와 버드나무 고목이 있어 매년 동짓달이 되면 마을에서 부군제를 올렸다고 한다.
- 부영데미 : 느릅소 북쪽에 있는 산. 이곳에서 부영이가 올면 꼭 비가 온다고 한다.
- 부영이굴 : 신피밭 서쪽, 부영이가 서식했다는 바위굴.
- 반대골 : 도링곶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뽕죽산 : 부군당 남쪽에 있는 뽕죽한 모양의 산.
- 상산봉(上山峰) : 등계현 동쪽에 있는 봉우리.
- 새터밭 : 고양대 동쪽에 있는 소로 사흘갈이(6,000평) 넓이의 큰 밭.
- 석승앗 : 고려울 남쪽, 썰미개울 옆에 있는 밭.
- 수루네미[車踰峴] : 고장리에서 고잔하리로 넘어가는 고개. 수레와 관련 없는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라는 뜻의 지명이다.
- 수리채고개 : 고양대에서 방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꼭대기의 뜻인 '수리'에 고개의 우리말 '채'가 합해져서 '산 정상에 있는 고개'라는 뜻의 '수리채'가 되었다가, 다시 '수리채고개'로 불리게 되었으나 '채'가 '채'로 발음되면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 시육이나루[時郁津] : 고장리와 중면 중사리의 수오동 사이에 있던 임진강의 이름난 나루. 현재 비무장지대에 놓여 있다.
- 신피밭 : 고장리 산성 동쪽, 임진강 변에 있는 밭. 땅이 질어 피만 심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썰미개울 : 고장리와 오탄리 경계에 흐르는 큰 개울.
- 안고양대 : 수리채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고양대 마을에서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안산 : 매봉재 북쪽에 있는 산. 고양대 지역에서 못자리를 잡을 때 안산으로 삼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약물터 : 고양대 서쪽, 작은 골짜기에 있는 약수터. 한국전쟁 전까지 고양대 주민들의 치성과 기도터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 양지곶 : 매학골 동쪽, 양지바른 곳에 있는 밭.
- 오리변명이 : 은골 서쪽에 있는 산 등.
- 외정자 : 금정골 서쪽에 있던 수령 100년의 오리나무.
- 용의머리 : 노리고지 남쪽에 있는 산. 등천하던 용이 이곳에 떨어졌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은골 : 고양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이내못 : 시육이 북쪽에 있는 임진강 옆의 큰 못.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깊다 하며, 용이 산다고 하여 '용못'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태풍전망대에서도 잘 관측되는 우각호이다.

- **이레갈이** : 귀룽앗 동쪽에 있는 밭. 소로 1주일간 갈아야 하는 넓이(11,000평)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점말고개** : 막터골에서 고잔상리로 넘어 다니던 마량산 밑에 있는 고개.
- **주록골[奏祿洞]** : 안산 서쪽에 딸려 있는 골짜기.
- **청뒤앗** : 멩에아리 옆에 있는 밭.
- **패내미[牌踰]** : 방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고지도에도 많이 언급되는 고개인 패내미고개 아래가 된다.

## 16) 오탄리(伍灘里)

본래 삭녕현 남면 지역으로, '오장대리(五壯垓里)'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伍莊垓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탄부리를 병합하여 각각 한 자씩 따서 '오탄리'라 하고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법정리이다.

- ◆ **돌모루[石隅洞]** : 벌말 동쪽에 있던 마을. 원래는 '산자락 끝 모퉁이를 돌아가는 곳'이라는 뜻의 '돌회(回)'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전에는 박씨·우씨 15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마대울[麻垓洞]** : 노루고개 동쪽에 있던 마을. 옛날에 대마를 많이 심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남평문씨가 25호 살던 곳이다.
- ◆ **벌말[坪村]** : 망골 앞, 벌판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5가구가 살던 곳이다.
- ◆ **쇠재[金峴洞]** : 국사봉 북쪽에 있던 마을. 운모 성분이 많아 금빛이 나는 바위가 주위에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원래는 '사이'를 의미하는 '새'와 고개의 '재'가 합해져 '사이에 나 있는 고개'란 뜻의 '새재'였으나, 한자로 음차되면서 '쇠[金]와 연관되어 굳어진 이름이다.
- ◆ **숯가말[炭釜洞]** : 국사봉 동쪽에 있던 큰 마을. 지형이 숯가마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 42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아랫뒤골[下後洞]** : 한세울 서쪽에 있던 마을. 오장터 뒤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진주하씨(晋州河氏)가 25호 살았던 곳이다.
- ◆ **오장터[伍莊垓]** : 돌모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3가구가 살던 곳이다.
- ◆ **윗뒤골[上後洞]** : 아랫뒤골 서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한세울** : 오장터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 가둔지별 : 고려장 북쪽에 있는 들판.
- 가림자 : 용못 북쪽, 임진강에 있는 섬.
- 고려장(高麗葬) : 관모래기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고려시대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고음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 관모래기 : 재지봉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부리.
- 국사봉(國師峰), 봉화봉(烽火峰) : 솟가마 서쪽, 귀존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하여 봉화봉이라고도 한다.
- 노루고개[獐峴] : 오탄리 마대울과 귀존리의 작은뱅여울 사이에 있는 고개.
- 논사개 : 한세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두명터나루 : 오탄리와 중면의 적음리 사이에 있는 임진강 나루.
- 망골 : 마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범데미 : 용못 서쪽에 있는 산. 한국전쟁 전까지도 노루가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분투골고개 : 윗뒤골에서 국사봉 쪽으로 있는 고개.
- 서당골 : 솟가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서당이 있었다 한다.
- 수나리재 : 아랫뒤골에서 솟가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승지물 : 윗뒤골에 있는 우물. 예전에 어떤 승지(承旨)가 이 물에 목욕을 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썰미개울 : 돌모루 앞에 흐르는 개울. 고장리와 경계가 된다.
- 어두니고개 : 논사개에서 솟가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옷나무재 : 어두니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옷나무가 많다고 한다.
- 용못 : 두명터나루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못. 이무기가 나왔다는 굴이 있으며, 물빛이 항상 붉은색이었고, 붕어·민물 참계가 많기로 이름났던 곳이다.
- 우봉산(牛峰山) : 쇠재 북쪽, 장학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51m.
- 재지봉 : 솟가말 북쪽에 있는 봉우리.
- 중바위 : 윗뒤골 북쪽에 있는 바위. 중과 비슷한 형상이라 한다.

## 17) 장학리(獐鶴里)

본래 삭녕현 지역으로, '장재울'이라는 마을이 있어 '장항리(獐項里)'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나학리를 병합하여 한자씩 따와 '장학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

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법정리이다.

- ◆ **나학골[羅鶴洞]** : 삼밭머리 서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 **막운골[幕雲洞]** : 장학리의 가장 서쪽에 있던 마을. 13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 **문비동[文備洞]** : 장학리 남쪽, 귀촌리와 경계 부근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5가구가 살던 곳으로 연안김씨(延安金氏), 전주이씨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 ◆ **삼밭머리[蓼田洞]** : 이내못 남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인삼을 재배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해주최씨(海州崔氏) 15호가 마을을 이루었다.
- ◆ **수룡골[水龍洞]** : 장재울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 **심복골[心服洞]** : 우봉산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3가구가 살았던 마을이다.
- ◆ **장재울[獐項洞]** : 영원산 동쪽에 있던 마을. 장학리의 유래가 되는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진 전형적인 산촌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10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금산(錦山), 금병산(金屏山)** : 삭녕 읍내 남쪽, 임진강 남안에 동서로 길게 펼쳐진 병풍같은 산.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면 개웃나무와 갖가지 활엽수종의 단풍이 곱게 수놓은 비단 병풍처럼 펼쳐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하여 ‘금산’으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삭녕 앞을 흐르는 임진강 본류도 삭녕의 고지도에는 ‘금강(錦江)’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 **늦다리나무** : 금산 동쪽, 장학리와 삭녕 읍내를 왕래하던 임진강 나루.
- **범바위나루** : 심복골에서 중면 적음리의 구대동으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문바위나루’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다.
- **영원산(靈原山·靈源山)** : 장학리, 가천리, 석둔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71m.
- **우봉산(牛峰山)** : 신복골 남쪽, 오탄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57m.
- **이내못** : 늦다리나무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길고 수심이 깊은 못. 이곳에 풀어 놓은 소를 이 무기가 잡아먹고 코뚜레만 남겨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18) 솔현리(率賢里)

본래 삭녕현 서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 ◆ **기와말[瓦洞]** : 석골 동쪽에 마을. 옛날에 큰 기와집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와 해주오씨(海州吳氏) 35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밤골[栗洞]** : 기와말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작은 마을.
- ◆ **새절골[新寺洞]** : 솔현리의 가장 서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조선 후기에 창건된 신흥사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 ◆ **쑥골[蓬萊洞]** : 봉화재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35가구가 있었으며, 남양홍씨들이 많았다.
- ◆ **야라울, 야라동(也羅洞)** : 임죽골 동남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마을의 지형이 ‘也’자 형국으로 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해주오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임죽골[林竹洞]** : 기와말 동쪽에 있던 솔현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해방 당시 2년제 간이학교·감리교회와 한지공장이 있던 곳으로, 가구 수는 총 45호 정도였다고 한다.

- **광터[廣垔]** : 야라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봉화재[烽火山]** : 황해도 금천군 숙인면 두모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25m. 예전에 이 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하며, 한국전쟁 전까지도 석축 기단 위에 흙으로 쌓은 봉수대의 유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 **성가마골** : 광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수릉산** : 신사동 서북쪽, 장단 덕적리와 황해도 경계에 있는 높은 산. 높이 518m.

## 19) 석둔리(席屯里)

본래 삭녕현 서면 지역으로, ‘뫓둔’이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석둔리’라 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 ◆ **능말[陵村]** : 새말 위에 있던 마을. 조선 숙종 때 효행으로 온 고을을 감동시킨 효자 백시형(白時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묘 아래에는 한국전쟁 전까지도 효자문이 있



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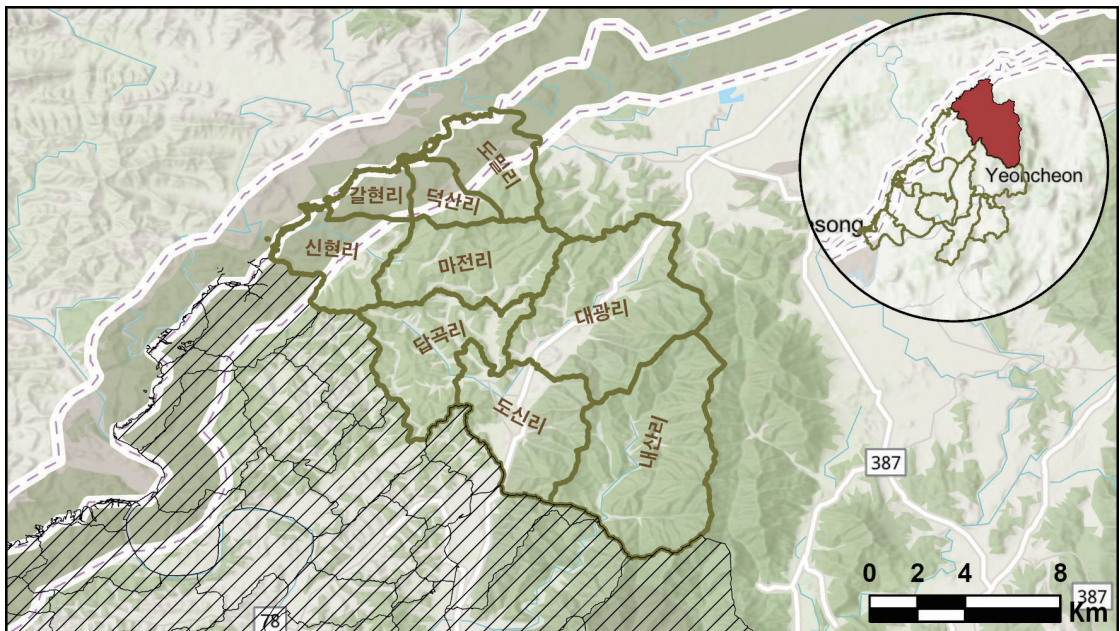
- ◆ 물미치골[水岨洞] : 벌돛둔이 남쪽, 물미치고개 입구에 있던 작은 마을.
- ◆ 벌돛둔이[坪席屯洞] : 새말 남쪽 벌판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7가구가 살던 곳이다.
- ◆ 벌말[坪村] : 석둔리 남쪽, 솔현리와 경계 지점인 벌판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 창호지의 산지로 유명했으며, 전체 가구 수는 50여 호 정도 되었다고 한다.
- ◆ 새말[新村], 윗돛둔이 : 서낭당고개 북쪽에 있던 마을.
- ◆ 성말[城村] : 벌말 북쪽에 있던 마을. 석둔리산성의 아래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아랫능말 : 능말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 개목이고개 : 벌돛둔이에서 개목이나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개목이나루 : 돛둔이나루 남쪽, 삭녕면 여척리와 연결되던 임진강 나루.
- 돛둔이나루[席屯渡] : 능말 동쪽, 삭녕면 여척리와 연결되던 임진강의 큰 나루.
- 막운골고개[幕雲洞峴] : 벌돛둔이에서 장학리의 막운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보리산(寶李山) : 새말 동쪽에 있는 산. 높이 249m.
- 서낭당고개 : 성말과 새말 사이에 있는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석둔리산성(席屯里山城) : 성말 북쪽, 232m의 산 정상에 있는 산성. 문헌에 축성 연대나 성의 규모에 대해 자세히 전하는 것이 없으나, 한국전쟁 전까지도 테뫼식으로 쌓은 석성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 8. 신서면(新西面)

신서면은 본래 강원도 철원도호부(鐵原都護府)의 외서면(外西面) 지역으로 신탄리(新炭里)·웅기리(熊起里)·대광리(大光里)·신순리(新順里)·내산리(內山里)·빈연리(賓延里)·고라동리(高羅洞里)·도랑리(道浪里)·중사리(中寺里)·공장동리(公將洞里)·성평리(城坪里)·속전리(粟田里) 등 12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기존의 12개 리를 대광리·도신리(道新里)·내산리·마전리(馬田里)·답곡리(畓谷里)의 5개 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일부지역에 한하여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철원군 인목면(寅目面)의 검사리(檢寺里)·승양리(承陽里)·갈현리(葛峴里)·덕산리(德山里)·도밀리(道密里)·신현리(新峴里) 등 6개 리를 병합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현재 대광리·도신리·내산리 지역에만 민간인이 입주해 있고, 마전·답곡리는 출입영농지역, 나머지 인목면의 6개 리는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비무장지대 및 이북지역에 속해 있다.

신서면의 동쪽은 포천시 관인면, 남쪽은 연천읍, 서쪽은 증면,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의 철원읍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



도신2리(연신로 1130)에 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며, 2023년 1월 1일 현황은 8개 행정리, 68개 반에 인구는 2,587명이다.

## 1) 대광리(大光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으로,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기존의 웅기리·신탄리를 병합하여 대광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역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가마거리[釜巨里]** : 쉬양골 입구인 3번 국도에 있었던 마을. 현재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다.
- ◆ **신탄리[新炭里], 새숯막** : 신탄리역 주위에 있는 큰 마을. 현재 대광2리 지역에 해당하며, 예전에는 경원선의 마지막 역으로 철도가 중단되었던 곳이다. 예전부터 고대산의 풍부한 임산 자원을 목재·숯으로 가공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마을로, 『여지도서』에도 “新炭”이라 적혀 있으며 철도가 부설된 뒤로는 숯가공이 더욱 번창했다 한다. 그러나 ‘새숯막’이라는 지명이 대광리와 철원 사이에 주막거리가 새로 생겼다 하여 ‘새술막[新酒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술’을 ‘숯[炭]’ 자로 잘못 표기하였다는 설도 있다.



〈고대산과 신탄리마을 전경〉

◆ **아랫곰기골[下熊起洞]** : 성트르골 위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곰기골은 ‘큰 곰이 일어나서’라는 뜻이지만, 본래는 신성하고 높으며 으뜸을 뜻하는 옛말인 ‘곰’이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면서 ‘곰’으로 음이 변하여 단순히 ‘크고 긴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게 된 우리 고어의 한자식 변형지명이다.

현재 국립현충원 부지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윗곰기골[上熊起洞]** : 아랫곰기골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윗소목개[上牛牧浦, 小牧浦]** : 대광리 북쪽에 있던 마을. 한자 지명은 ‘소를 방목하던 곳’이라는 뜻이나, 소는 ‘사이’의 뜻인 ‘새’가 사투리의 경기북부의 발음 습관으로 인해 ‘쇠’로 옮겨간 것이다. ‘목’ 또한 ‘牧’이 아닌 ‘項’의 뜻을 가지고 있고, ‘개’도 단순한 장소의 뜻을 갖는 것으로, 성트르골로 넘어 다니던 ‘사이의 고개 목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이다.

- **갈고개** : 신탄리역에서 매바위 앞을 지나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로 넘어가는 고개. ‘가른다(나눈다)’의 뜻으로 쓰였던 옛말 ‘가’가 변한 ‘갈’이 고개와 합쳐져 지어진 이름이다. 고대산 북쪽 산줄기에 있는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하여 면계와 마을이 나뉘진다는 뜻을 갖는다.
- **갓모바위** : 대광리 북쪽, 곰기골 입구에 있던 큰 바위. 그 모양이 갓모자처럼 삼각형으로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수복 후에 인위적으로 파손되어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다.
- **개정골** : 통지미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고대산(高臺山)** : 대광리·내산리와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 경계에 있는 보개산 내의 높은 산. 높이 821.1m. 신탄리 지역에서는 이 산을 ‘큰고래’라 부르고 있으나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철원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 **곰기고개[熊起峴]** : 성트르골에서 답곡리의 곰기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공동묘지** : 정기소 동쪽에 동그란 모양의 산에 있는 공동묘지.
- **달고개[月峴]** : 음송골에서 답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을 뜻하는 고어인 ‘달’이 ‘고개’와 합쳐지면서 ‘산고개’라는 뜻의 ‘달고개’가 되었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면서 ‘달’이 하늘의 ‘달’로 오기된 한자식 지명이다.
- **달팽이골** : 아나골 아래에 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골짜기.
- **대광산(大光山)** : 석봉 남쪽, 대광리·도신리·내산리와 경계가 되는 산. 높이 541.3m.
- **대소라치고개[大松亭峴]** : 윗대광골에서 내산리 대소라치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독산(獨山), 일자산(一字山)** : 푸르네미 남쪽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 높이 161m. 산의 형상이 ‘一’ 자 모양이라 하여 ‘일자산’이라고도 부른다.
- **뒷골** : 아랫곰기골과 윗곰기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아랫곰기골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만가대(滿家臺)** : 원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목장이 자리하고 있으나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매바위** : 갈고개 남쪽에 있는 검은빛으로 보족하게 솟은 큰 바위산. 예전부터 이 바위 틈에 매들이 둥지를 틀고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 오지만, 실제로는 '산'의 뜻인 '뫼'가 '매'로 발음되면서 '매[鷹]'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 **무당소** : 갓모바위 아래에 있던 소. 예전에 이곳에 방목했던 소를 이무기가 잡아먹고 코뚜레만 남겨 놓았다는 전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 **백일봉** : 대광리역 동쪽에 있는 보개산 내의 봉우리.
- **벼락바위** : 대광리역 북쪽에 있는 바위. 예전 이곳에 벼락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 **복희다리** : 석봉 서남쪽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 내산리 복희골로 넘어가는 높은 곳이어서 산의 옛말 '달'이 변한 '다리'와 합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다.
- **삼배울산** : 백일봉 북쪽에 있는 보개산 내의 산. 세 개의 산자락이 대광리 마을 쪽으로 뻗어 내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삼배울'은 셋을 뜻하는 '삼'과, 산을 뜻하는 '반'에 어근을 둔 '배'에 '골짜기'의 뜻을 가진 '울'이 합쳐져, '세 개의 산골짜기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복합 지명이다.
- **셋대광골[間大光谷], 아랫대광골** : 천광곡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 사이비종교로 악명 높았던 백백교도들이 양민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곳이다.
- **석봉(石峰)** : 대소라치고개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544m. 정상부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 **석장골[石葬谷]** : 수리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에 이 골짜기 안에 돌로 무덤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큰 석실묘가 입구에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멸실되고 그 터만 남아 있다.
- **성트르골** : 수리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답곡리의 성드루[城坪]로 넘어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드루'가 '트르'로 어휘가 변한 것이다.
- **쇠골** : 윗곰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쇠골이라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옛날 이 골짜기 안에서 증석광이 크게 번창했을 때 갑자기 굴이 붕괴되어 광부들이 모두 죽고 그들이 쓰고 다니던 50개의 패랭이만 있었다 하여 '쇠파랭이골'로 불리다가 차츰 어휘가 변하여 '쇠골'로 바뀌었다는 설도 전해 온다.
- **수리봉** : 소목개 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높음'·'으뜸'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술'이 '수리'로 연철되어 봉(峰)과 합쳐진 이름으로,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 **쉬양골** : 신탄리역 북쪽에 있는 골짜기. 50개의 작은 골짜기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아나골** : 쉬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어떤 풍수가 능자리를 잡으러 이곳에 와서 보니 100개의 골짜기가 되어야 하는데 99개의 골짜기가 되어 능을 쓰지 못했다 하여 '아흔아홉



골로 이름 지었으나, 차츰 말이 줄어 '아나'로 발음이 굳어지게 된 곳이라 한다.

- **아랫골** : 소목개 위에 있는 작은 골짜기. 윗골과 상대되는 지명이다.
- **아랫소목개** : 음송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윗소목개와 상대되는 이름이다.
- **양지골** : 백일봉 북쪽, 셋대광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별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옹기골[店村]** : 대광리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옹기점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민가가 들어서 있다.
- **용담고개[龍潭峴]** : 신탄리역에서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와 울리리 용담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원두골** :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 앞에 관리나 여행객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국영 여관인 원(院)이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골짜기 안에는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원터와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 **윗골** : 갓모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음송골[音松谷]** : 대광리 마을 서쪽, 답곡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 '곰성골' 또는 '엄성골'로도 부르는 곳이나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작은골** : 곰기골 가장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큰골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정기소** : 신탄리역 서남쪽, 차탄천에 있는 소.
- **천광곡[天光谷], 윗대광골** : 독산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큰골①** : 대광산 북쪽에 딸린 큰 골짜기.
- **큰골②** : 신탄리역 동쪽, 고대산 쪽으로 나 있는 큰 골짜기.
- **큰골③** : 작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통지미골** : 쉬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푸르네피** : 원두골 서쪽에 있는 들판. 예전에 깊고 푸른 늪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는데, 지금은 이 일대가 차탄천에 보를 막아 양호한 농경지로 변해 있어 늪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효자문자리** : 곰기골 입구, 우봉김씨(牛峰金氏) 김언기(金彦耆)의 효자문이 있던 자리.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2) 도신리(道新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기존의 도랑리·신순리·빈연리 등 3개 리를 병합하여 도신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

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구시울[九水洞], 옥동(玉洞)** : 최근에 폐교된 대광중학교 부근에 있는 마을. 옛 『철원읍지』에는 이곳의 빼어난 경치 때문인지 신선이 사는 별천지에 비유하여 ‘옥동(玉洞)’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었던 우봉김씨 문중에 김학도(金學道)라는 선비가 마을 이름을 자신의 호인 ‘구계(九溪)’로 고쳐 부르다가 어감이 좋지 않아 다시 구수동으로 고친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구수’는 고대산에서 독개미굴까지 이르는 동안 아홉 개의 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을 가리킨다고 한다.
- ◆ **노루맥이[獐項洞]** : 서재골 서쪽에 있던 마을.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늘어진’ ‘넓은’의 뜻인 ‘너르’가 ‘노루’로 음이 변하여 ‘넓게 늘어진 목’이라는 의미이다.
- ◆ **능안** : 원앞산 앞에 있던 마을. 이곳에 있는 김응구의 큰 묘를 능에 비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우봉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 **도랑리(道浪里)** : 국사봉 북쪽에 있던 마을. 답곡리의 공장골과 고래골에서 내려오는 두 도랑(내)의 안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예전에 활을 쏘던 정자가 있었다 하여 ‘사정동(射亭洞)’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 ◆ **방아다리[杵橋洞]** : 태봉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보의 수로를 이용해 하사식으로 가동되는 물레방아가 있던 곳이다.
- ◆ **보맥이[淤幕洞]** : 원앞산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차탄천을 가로 막은 보(淤)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옛 마을터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지금은 새로 설치된 큰 보가 농업



〈보맥이 농수용보 전경〉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보로 물을 대 벼농사를 짓는 곳은 원압산 남쪽에 해당된다.

- ◆ **삼둔이[三屯洞]** : 병바위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예전부터 가구 수가 줄지도 늘지도 않고 세 가구만 살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안골[內洞]** : 서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도로에서 들어가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안골과 안골로 나뉘며 한국전쟁 전에는 연안이씨(全州李氏)가 15호 살았던 곳이다.
- ◆ **장거리[場巨里]** : 태봉 아래에 있던 마을.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라 한다.
- ◆ **점말[店村]** : 광대울 입구, 3번 국도 옆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독개미골에 경영되었던 백자도요지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술을 주조했던 술점이 있었다고도 한다.
- ◆ **창말[倉村]** : 태봉 동쪽에 있는 마을. 철원도호부에서 관할했던 5개의 곡물 창고 가운데 하나인 서창이 있던 곳으로, 『철원읍지』에는 이 창고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 “서창은 철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는데 규모는 16칸이다(西倉在府西三十里十六間)”라고 적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가는골** : 방아다리 서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광대울[光大谷]** : 두리봉 동쪽에 있는 보개산 내의 큰 골짜기.
- **대광산(大光山)** : 백일봉 남쪽, 도신리·대광리·내산리 경계에 있는 보개산 내의 산. 높이 541.3m.
- **독개미골[獨琴谷]** : 원압산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우봉김씨 문중의 어떤 선비가 이 골짜기 입구 모퉁이에 초당을 짓고, 거문고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원래의 뜻은 이 골짜기 안에 있는 몇 기의 백자도요지로 인하여 사기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다 하여 ‘독 + 가마 + 골’로 불리던 것이 ‘독개미’로 음이 변하여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철원읍지』에는 이곳을 ‘독검리(篤儉里)’로 기재하고 있다.
- **두리봉** : 창말 남쪽, 광대울 입구에 있는 봉우리. 정상부가 둥글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두투맥이** : 보맥이에서 연천읍 와초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우봉김씨 족보에는 ‘이태항(二太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래는 이곳의 지형이 불룩하게 돌아 있는 산등성이 사이로 넘어 다니는 목지점이 되어, ‘돌은 + 목’으로 부르던 것이 ‘두투(도투)맥이’로 발음이 변한 것이다.
- **뒷골** : 보맥이 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 **말구산** : 독개미골 입구에 있는 봉우리.
- **목목이고개[墨墨峴]** : 광대울에서 내산리 목목동으로 넘어가는 보개산의 큰 고개. ‘큰고개’ 또는 ‘아리랑고개’라고도 한다.



- **목탁봉** : 옛고개 옆에 있는 목탁처럼 둥근 조그만 봉우리.
- **미골** : 태봉 서쪽 국사봉에 딸려 있는 골짜기. 단순히 산골짜기의 뜻인 ‘피골’이 ‘미골’로 어휘가 변하여 누르는 곳이다.
- **백일봉** : 대광리역 동쪽, 도신리와 대광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병바위** : 방아다리 북쪽, 산부리 끝에 있는 바위. 옛날에 수리부엉이가 번식하던 곳이라고 한다.
- **불견산(佛見山)** : 불견이고개 북쪽, 내산리와 경계에 있는 보개산 내의 산. 높이 535m.



〈불견산 전경〉

- **불견이고개[佛見嶺, 佛峴]** : 사기막골과 내산리 법화골 사이에 있는 보개산의 큰 고개. 『불교영험설화집』에 실려 있는 「심원사대종불사기(深源寺大鍾佛事記)」에 이 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고려 목종 때 일이다. 보개산 심원사에서 대종불사를 하는 데 참여한 대광리의 앓은뱅이 박춘식과 장님 이덕기가 불구의 몸으로도 서로 도우며 큰 시주를 하였는데, 마침내 대종타종식에 가는 도중 험한 이 고개의 정상을 힘들게 올라온 순간 심원사 쪽에서 하늘로 오르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에 장님이 눈이 뜨이고 앓은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부터 이 험하고 큰 고개를 ‘부처님을 뵈는 고개’라 하여 ‘불견령(佛見嶺)’이라 하였고, 부처님의 광명이 크게 내려 비춘 이덕기와 박춘식이 사는 마을을 ‘대광리’라 부르게 되었으며, 불견산·천광골·대광산·셋대광·광대울이라는 이곳과 관련된 지명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한다.
- **사기막골[沙器幕谷]** : 도신리 가장 남쪽, 연천읍 옥산리와 경계에 있는 큰 골짜기. 조선 후기에는 백자도요지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새골 : 태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보맥이와 방아다리 마을의 사이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서재골[書齋谷] : 가는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우암 송시열이 한때 머무르며 강론을 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손맛이비냥산[賓延] : 원앞산 남쪽, 연천읍 와초리와 경계에 있는 산. 조선 중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김응구(金應九, 1555~1625)가 세상을 떠나자 원앞산에 묘를 쓰고 그의 아들 삼형제가 여묘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묘 옆으로 나 있는 큰길로 사람과 우마의 통행이 빈번하여 늘 근심하다가, 짚신과 행전을 만들어 행인들에게 건네주면서 보맥이 쪽으로 돌아서 가도록 인도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삼형제의 지극한 효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산을 '손맛이비냥산'이라 이름 지었고, 예전에 함경도로 가는 대로였던 이 고개가 삼형제로 인하여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고개가 되어 이때부터 '옛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어두니골 : 목목이고개 남쪽에 있는 보개산의 골짜기. 나무가 무성하고 숲이 우거진 음지가 되어 골짜기 안이 항상 어두워 붙여진 이름이다.
- 여내골 : 사기막골에 있는 골짜기. '얄다'의 고어 '여내'에서 뜻을 따와 지어진 이름이다.
- 옛고개[古峴] : 원앞산 동쪽에 있는 고개. 현재 3번 국도 교차로가 있다.
- 원앞산 : 태봉 남쪽에 있는 산. 높이 125.1m. 고려시대 능안 마을에 국가의 국영 여관인 원이 있었는데, 이 산이 그 원의 앞에 있어서 원앞산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원앞산과 옛고개 전경〉

- 작은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과 상대되는 지명이다.
- 작은독개미골 : 독개미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창뒤봉[倉後峰] : 작은골 남쪽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 높이 376m. 옛 철원도호부에서 관리했던 곡물 창고인 서창(西倉)의 뒤에 있는 봉우리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큰골** : 구시울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태봉(胎峰)** : 원앞산 북쪽, 경원선 철로 변에 있는 둥근 산. 예전에 궁궐에서 왕족의 태를 봉했다 하나 현재까지 그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3) 내산리(內山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으로, 험준한 보개산에 둘러싸인 산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산리라 하였으나,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고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역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대산 정상에서 바라본 보개산의 위용과 내산리〉

- ◆ **도리들[桃李坪, 桃李洞]** : 불견산 동쪽, 아미천 변에 있는 마을. 고대산에서 발원하여 이 마을 앞을 지나 내산리 중앙을 관통하는 아미천이 산 중에 조금 넓은 들판을 이루는 이 마을을 크게 돌아서 흐른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돈다는 뜻의 ‘들’이 음이 변한 ‘도리’와 이곳의 상대적으로 넓은 ‘들’이 합쳐져 ‘도리들’이 된 것으로, 한자도 이 발음을 음차하여 그대로 따온 것이다.
- ◆ **목목골[墨墨洞]** : 큰고개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의 조상 묘를 이장할 적에 관 안에서 흰 새가 ‘목목 목목’하며 날아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

전쟁 전에는 이씨와 윤씨들이 7가구 살았던 곳이다.

- ◆ **신(진)틀거리[陣機洞]** : 현재 내산리의 가장 위에 있는 마을. 예전에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한다.
- ◆ **윗신틀거리** : 신틀거리 북쪽에 있던 마을.
- ◆ **대소라치[大松亭]** : 윗신틀거리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도 집성촌을 이루었던 배천조씨(白川趙氏)들이 산제사를 모시던 큰 소나무 고목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 북쪽에 있는 대소라치고개에서 그대로 음을 따와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한다.
- ◆ **삼각동(三角洞)** : 신틀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삼각형 모양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漢陽趙氏)들이 살았다고 한다.
- ◆ **초막(草幕)** : 심원사 부도장 건너에 있었던 마을 이름. 한국전쟁 전에는 심원사에 딸린 몇 채의 초가가 있던 곳이다.

- **고대산(高臺山)** : 내산리와 대광리,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와 경계에 있는 보개산의 높은 산.
- **과우(過隅)** : 도리들과 신틀거리 사이에 있는 큰 산모퉁이. 이곳을 지나려면 크게 굽어서 돌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한자 이름이다. 군부대 내에 해당한다.
- **다라미고개[多羅美峴]** : 절골에서 연천읍 부곡리의 가마골로 넘어가는 보개산의 험한 고개.
- **대광산(大光山)** : 목목골 북쪽, 도신리와 대광리의 경계가 되는 산.
- **대소라치고개** : 울음성에서 철원군 울리리의 안양골로 넘어 다녔던 보개산의 큰 고개. 대송정 마을에 있던 큰 소나무로 인하여 ‘대(大)’+‘솔[松]’+‘치(峙)’라는 합성 지명으로 이루어졌으나 앞 음절과의 연결 과정에서 매개모음 ‘아’가 동반되고 ‘ㄴ’이 뒤로 옮겨오면서 ‘대솔아치’가 ‘대소라치’로 변한 이름이다.
- **동마네미고개[東馬踰峴]** : 절골에서 포천시 관인면 중리의 큰골로 넘어가는 보개산의 험한 고개. ‘동쪽에 있는 높은 산마루를 넘는 고개’라는 뜻을 가진 곳이다.
- **뒷고개** : 신틀거리에서 목목골로 넘어가는 고개. 신틀거리 마을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들음바위[擧岩]** : 윗신틀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변칙 들려있는 모양의 큰 바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옆에는 맑은 계곡물이 약 15m 높이의 자연 암반 사이를 직류하며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는 경승지이다.
- **막터골[幕垞谷]** : 대소라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법화골[法華洞]** : 절골 서쪽, 불견산 동쪽에 딸려 있는 골짜기. 신라 때 창건된 법화사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907년 정미의병 무장항쟁 시에 일본군 김화수비대와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 **복희골** : 윗신틀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산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복’이 ‘ㅂ·ㄱ’ > ‘복’으로 음

전되어 ‘골[谷]’과 합하는 과정에 중간 매개모음 ‘이’가 ‘희’로 변하여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 지명이다.

- **북마네미고개[北馬踰峴]** : 삼각동에서 포천시 관인면 삼울리의 담터로 넘어가는 보개산의 큰 고개. 옛날에 이 고개로 말이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는 ‘으뜸’·‘높음’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의 ‘말’의 음운 변천의 형태로 ‘말’이 되고, ‘넘는다’는 뜻의 ‘네미’와 합쳐져 ‘ㄴ’이 탈락하며 ‘북쪽에 있는 높은 산마루를 넘는다’는 뜻의 ‘북말네미 > 북마네미’가 된 것이다.
- **불견산(佛見山)** : 내산리와 도신리 경계에 있는 보개산 내의 높은 산.
- **불견이고개[佛見嶺, 佛峴]** : 법화골에서 도신리의 사기막골로 넘어가는 고개.
- **산지배소** : 신틀거리 마을, 교직원 수덕원 앞에 있는 소. 지금은 매몰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석봉(石峰)** : 윗신틀거리 북쪽, 대광리와 경계에 있는 보개산의 봉우리. 높이 544m.
- **울음성** : 내산리 가장 북쪽, 고대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은삼각골** : 삼각동 남쪽, 보개산의 환희봉 쪽으로 난 골짜기. 삼각동에서 안쪽에 위치한 까닭에 ‘안삼각골’로 불리던 것이, ‘안’이 ‘은’으로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작은막터골** : 막터골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작은목목골** : 도리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 목목골과 상대되는 이름이며 도신리의 독개미골과 통한다.
- **장승내[長丞川]** : 석대암에서 발원하여 아미천으로 합쳐지는 개울. 예전에 심원사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개울 옆에 장승이 서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절골[寺谷]** : 법화골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보개산에서 가장 큰 가람이었던 심원사 외에도 많은 절들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원심원사가 복원되어 있다.



〈보개산 환희봉 정상에서 내려다 본 절골〉

- **큰고개, 목목이고개** : 목목골에서 도산리의 광대울로 넘어가는 고개.
- **통생이고개** : 막터골에서 포천시 삼울리에 있는 담터의 싸리박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사이로 통하는'의 뜻인 '통새'가 음이 변하여 '통생이'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 **화장골[火葬谷]** : 부도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골에서 수도하던 승려들이 입적하면 불교 장례법인 다비식을 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환희봉(歡喜峰), 지장봉(地藏峰), 석대봉(石臺峰)** : 신서면 내산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의 경계에 있는 연천군에서 가장 높은 보개산의 봉우리. 높이 877.2m. 현재 일제강점기에 잘못 지어진 이름인 '지장봉'으로 쓰이고 있다.
- **회골[檜谷]** : 삼각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4) 마전리(馬田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기존의 성평리(城坪里)와 속전리(粟田里)를 병합하여 성평리에 속해 있던 갈마동(渴馬洞)의 '마'자와 조밭골[粟田里]의 '전'자를 한 자씩 따서 마전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마전리 전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현재 출입 영농만이 가능한 1개의 특수 법정리 지역이다.

- ◆ **갈마동(湯馬洞)** : 선창말 동쪽에 있던 큰 마을.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국의 산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종종 때 기묘사화의 화를 피해 이곳에 정착한 한양조씨 통덕랑 조론걸(趙論杰)의 후손들이 한국전쟁 전까지 큰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 **검성골[儉城谷]** : 선창말 북쪽에 있던 마을. '거룩하다'·'크다'의 뜻으로 쓰인 고어 '검'에 뿌리를 두고, 음이 변한 '검'과 '산'·'성'의 뜻인 '잣'·'잣'에 다시 골짜기가 합하여 '큰 산골짜기의 마을'이라는 뜻의 '검잣골'로 불렸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기면서 아무 연관이 없는 대역자인 '검성(儉城)'으로 표기된 땅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 ◆ **바람터** : 고래골 가장 북쪽에 있었던 마을. 옛 인목면 신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밑에 있다 하여 '현저동(峴低洞)'으로도 불렸던 곳이다. 지명의 원래 의미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의 안쪽 마을이라는 뜻이다. 산은 고어 가운데 '발'에도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개음절화하면 '발'로도 변하였고, '안'과 합하여 '발안'이 되었다가 다시 '터'를 합하여



밭안티>바란티>바람티로 변한 것이다.

- ◆ **선창말[先昌洞]** : 검성골 아래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들이 살았다.
- ◆ **조밭골[粟田洞]** : 신당골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부터 조를 많이 심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약 500년 전에 파평윤씨(坡平尹氏)와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정착한 뒤 한국전쟁 전에는 윤씨가 40호, 박씨가 30호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 **가느채골** : 기와가마골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가래울** : 도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았다 한다.
- **가장골** : 갈마동에 있는 골짜기. 가장자리를 뜻하는 ‘갓[邊]’에서 유래된 사실에서 갈마동의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임을 알 수 있다.
- **갈궁골** : 중치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냇줄기’ 또는 ‘시냇물 줄기가 갈린 곳’을 뜻하는 옛말 ‘가’에 뿌리를 둔 ‘갈’에서 나온 이름이며, 안장바위 쪽 골짜기와 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입구에 물줄기가 갈라져 있어 ‘갈’에 대한 입증은 더 해주고 있다.
- **갈마산(渴馬山)** : 갈마동 북쪽에 있는 산. 풍수형태로 보아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한양조씨의 묘가 있다.
- **건녕골** : 검성골 서쪽, 작은지바기 안에 있는 골짜기. 석가단 골짜기의 건너에 있다 하여 ‘건너골’로 부르던 것이 ‘건녕’으로 어휘가 변하였다.
- **검성골고개[儉城峴]** : 큰지바기와 작은지바기 사이에 있는 고개. 조밭골에서 검성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래골[高羅洞]** : 공장골 서쪽, 바람티까지 이어지는 큰 골짜기. 옛 고라동리 지역이 된다. ‘골[谷]’ 뒤에 매개모음 ‘으’가 붙어 ‘고래’가 되고 여기에 다시 ‘골’이 합해져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는 지명이다.
- **고속골[枯束谷]** : 윗배나무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국사랭이** : 굿고개 서남쪽에 있는 깊숙한 골짜기. 단순히 국사봉에 딸려 있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국사’에 ‘-양이’와 같은 접미사가 붙었고 ‘양이’가 다시 ‘랭이 > 랭이’로 음이 변한 땅이름이다.
- **굿고개** : 가래울과 비조울 사이에 있는 고개.
- **귀제비바위** : 천덕산 정상 바로 밑에 있는 큰 바위. 여름철이면 귀제비들이 많이 서식하며 새끼를 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그늘개시** : 의승애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햇볕이 잘 안 드는 음지에 위치하여 ‘그늘겉’으로 불리던 것이 ‘그늘개시’로 음이 변한 이름이다.
- **기와가마골** : 신당골 안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기와를 구웠던 가마가 있었다 한다.
- **남은티** : 가장골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아주 오래된 집터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논골** : 새알골 남쪽 논이 있는 골짜기.
- **다리골** : 박영골 아래에 있는 좁고 작은 골짜기. 산의 고어 '달'이 개음절화한 '달'이 '다리'로 연철되어 소리 율감이 된 것으로 산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이다.
- **도툼밭골** : 보랏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밭이 특이하게 솟은 곳에 있다 하여 '솟아난'의 뜻인 '돋은'이 '도툼'으로 음이 변하여 부르고 있는 골짜기이다.
- **돌고지[回串]** : 갈마동과 성창말 사이로 곧게 뻗어 나와 있는 야월산 자락의 긴 산부리. 그 모양이 새의 부리처럼 생겼다 하여 이러한 지형을 지칭하는 말인 '곶'과 이곳을 지나가자면 모퉁이처럼 산자락을 돌아야 한다 하여 '돌곶'이 되었으나 '곶' 뒤에 '이'가 붙어 연철되면서 '고지'로 음이 변하여 '돌고지'가 된 곳이다.
- **돌아모랭이[回隅]** : 선창말 옆에 있는 산부리 끝. 지형이 모퉁이처럼 생겨서 돌아서 지나 간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두리봉[加沙峰]①** : 조밭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둥근 모양의 봉우리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한자 지명인 가사봉의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두리봉②** : 바람터 서쪽, 신현리와 중면 마거리 경계에 있는 둥근 봉우리. 높이 339m. 정상에 올라서면 신서면·중면 지역이 두루 내려다 보인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 **두목골** : 검성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산'의 뜻으로도 쓰였던 고어 '뫼' 이 두목 > 두무 > 두목 (두뫼)으로 연체되면서 '골'과 합하여 '두목골'로 발음되어 굳은 지명이다. 야월산에 딸린 산골짜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막골[幕洞]** : 고래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우거진 숲속에 초막으로 된 세 집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묘골** : 다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묘가 있었다고 한다.
- **문양골** : 도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뫼래기** : 갈마산 동쪽, 갈마고개 쪽으로 있는 큰 골짜기.
- **바랑골** : 수루네미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바랑골과 작은바랑골로 나뉜다. '모란·달안·발안'이 들어가는 지명 가운데 골짜기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모두 '산의 안쪽' 또는 '골짜기 안'이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바랑골 또한 산의 뜻을 가진 고어의 '밭'에 어근을 두고 음이 변한 '밭'과 '안'이 합쳐져 '산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발안'이 되었으나, 차츰 앞음절의 'ㄴ'을 윗겨 받으며 뒤에 따라붙는 '골'과 합쳐지면서 발안골 > 바란골 > 바랑골의 변화를 거쳐 '바랑골'로 굳어진 곳이다.
- **박영골** : 갈마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반바리** : 갈마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배나무골** : 선창말 위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큰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 **배바위등** : 수루네미고개 동쪽에 있는 큰 산. 높이 421m. 예전에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산 정상에 있는 큰 바위에 배를 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보랏골 : 부대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부군나무 : 조밭골 마을 동쪽, 산부리 끝에 있었던 200년 수령의 큰 잣나무와 전나무. 조밭골 주민들이 부군제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베어 없어졌다.
- 부대이 : 할미대이 동쪽에 있는 긴 골짜기.
- 부령골[富寧谷] : 고래골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비조울[非尺澗] : 선창말에서 국사봉까지 이어지는 큰 골짜기.
- 살구나무골 : 음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살구나무가 있었다 한다.
- 새알골 : 음터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새작골 : 갈궁골 동쪽, 야월산 쪽으로 뻗어 있는 긴 골짜기. '사이'의 뜻인 '새'와 '산'의 고어 '잣'이 합하여 야월산에 딸려 있는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라는 뜻의 '새잣골'이 '새작'으로 음이 변한 지명이다.
- 새청 : 갈마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활을 쏘던 사정이 있었다 한다.
- 석가단 : 검성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쇠죽골 : 애동애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애동애터골과 아라리골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로, '새[間]'의 경기 북부 사투리 '쇠'와 좁다는 뜻의 '좁'이 합하여 '쇠좁골'이 되었던 것이 차츰 '쇠죽'으로 어휘가 변한 땅 이름이다.
- 수루네미[車踰峴] : 천덕산 서쪽, 조밭골에서 인목면의 덕산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원래의 의미는 수레와 관계가 없는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라는 뜻이다. 수리봉 역시 '높음'·'으뜸'의 뜻으로 쓰인 고어 '술'이 '수리'로 음전된 것이며, 원래는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 수사내골 : 조밭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수작골 : 새청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숙골 : 수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신당골 : 조밭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신당(神堂)이 있었다 한다.
- 아라리골 : 신당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안장바위 : 천덕산과 야월산 사이의 능선에 있는 안장 모양의 큰 바위.
- 애동애터골 : 기와가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야월산(夜月山), 수리봉 : 천덕산 동쪽에 있는 산. 높이 487m. 마전리·덕산리와 철원군 철원읍과 경계가 된다. 이곳의 한자 지명을 한글로 풀이하면 높은 산은 뜻하는 '밤달산'임을 알 수 있는데, 전국에 수없이 많은 복합 지명 밤달산의 '밤'은 산의 고어 '밭'이 음이 변하면서 '밤[夜]'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며, '달' 또한 '산'·'들'·'돌'·'흙' 등을 포괄하는 뜻으로 쓰인 고어 '뜰'이 달 > 달[月]로 변한 것이다. 이 두 말이 합쳐져 '밤달'로 불리다가 한자로 지명을 다시 옮기면서 '밤'을 '夜'로, '달'을 '月'로 하였고 뒤에 '山'을 붙여 단순히 월 뜻과는 무관한 한자식

지명인 '야월산'이 된 것이다.

- 언터골 : 쇠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집터가 있었다 하여 '안터골'로 불리다가 '안'이 '언'으로 발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윗배나무골 : 두목골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 성창말 옆에 있는 배나무골의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음터골 : 큰지바기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의승애골[義昇谷] : 국사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이매주골 : 비조울 안에 있는 골짜기. 매자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작은지바기 : 검성골 서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큰지바기에 상대되는 지명이다.
- 재갯골 : 논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조밭골에서 비조울로 넘어 다니는 굽고개. 즉 고개를 뜻하는 '재(峴)와 산의 고어인 '갯'에 '골'이 합쳐져 '고개가 있는 산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는 합성 지명이다.
- 정자골 : 이매주골 입구에 있는 좁은 골짜기. 옛날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중치기 : 검성골 북쪽에 있는 산등성이.
- 차돌골 : 이매주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홍주석 성분의 큰 차돌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차돌이 공업용 재료로 이용되면서 훼손되었고 지금은 그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 천덕산(千德山) : 큰지바기 동북쪽, 덕산리와 경계에 있는 높은 산. 높이 476.7m. 하늘의 뿌리 말인 우리 고어 '한뿔'과 북방계 언어에서 산으로 쓰였던 '덕(德)이 합하여 지어진 산 이름이다. 우리 고어에 하늘은 '큰'의 뜻인 '한'과 '밝음'의 뜻으로 쓰인 '뿔'이 합하여 '크게 밝음'을 뜻하는 '한뿔'이 되었고 다시 아래와 같이 전음되어 오늘날의 하늘로 굳어지게 된다. 덕은 북방계어로 '비탈'·'언덕'·'고원' 등을 가리키던 말인데, 우리나라 북쪽 지방 지명에 영향을 주면서 산 이름에 정착되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여진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함경도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덕산은 처음에는 신성한 의미의 '한뿔'으로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후대에 한자 지명으로 옮기면서 지금의 천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 뿔 > 한뿔 > 한울 > 하늘(하늘).
- 천안터 : 부령골 막바지에 있는 터. 이곳에 명당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일설에는 경술국치 이전에 연천 출신의 걸출한 의병장이었던 연기우 대장이 이끄는 정미의병들이 한때 주둔하면서 훈련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 큰골 : 아라리골 동쪽. 국사봉에 있는 골짜기.
- 큰지바기 : 가래울 북쪽, 천덕산까지 이어진 큰 골짜기.
- 할미대이 : 조밭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5) 답곡리(畓谷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기존의 고라동리·중사리·공장동리·성평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논골에서 이름을 따와 새로 ‘답곡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철원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일부 지역은 출입 영농만이 가능한 법정리이다.

- ◆ **금곡리(金谷里)** : 당골과 텃골 앞에 있었던 큰 마을. ‘사이’의 뜻으로 쓰이는 ‘새’가 경기북부 영서지방에서 ‘쇠’로 발음되는 현상에 의해 도랑리와 고래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쇠골’로 불리다가, 한자로 이름을 옮기면서 ‘쇳골[金谷]’이 된 것이다.
- ◆ **아랫논골[下畓洞]** : 윗논골 아래에 있던 마을.
- ◆ **윗공장골[上公將洞]** : 아랫공장골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김해김씨(金海金氏)가 12호 살았다고 한다.
- ◆ **윗논골[上畓谷, 畓洞]** : 잣나무골 남쪽에 있던 마을. 『순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조선 초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은거했던 이양소의 손자 이눌(李訥)이 부친 이극문(李克文)이 세상을 떠나자 이곳에 장례를 모시고 묘 아래에 시묘하면서 근처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했다고 한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이눌의 고사에 의해 이곳을 ‘노은동(老隱洞)’ 또는 ‘논골[畓洞]’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윗논골·아랫논골·건너말에 이눌의 후손인 순천이씨(順天李氏)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 ◆ **잣말·잣드루·성드루[城坪里]** : 아랫논골 북쪽에 있던 마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이므로, ‘산’ 또는 ‘성’의 고어 ‘잣’에서 뜻을 따와 ‘잣말’이라 했던 것이, 한자로 지명을 옮기면서 ‘잣’이 무관한 한자지명인 ‘성’으로 풀이되었다. 잣말은 ‘산골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이곳에서 성터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마을 앞에 펼쳐진 비교적 넓은 들의 이름도 잣말에 연유하여 ‘잣드루’로 불려지고 있다.
- ◆ **중절이[中寺里]** : 고래골고개 남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중사라는 절이 골짜기 안에 있어 지명이 생겼다고 하나 그 터는 현재 농경지로 변해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중겨리’로 어휘가 변하여 불렀다고 한다.
- **감동골[甘洞谷]** : 텃골 동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 **고래골고개** : 부령골에서 고래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곰기[熊起]** : 잣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대광리의 곰기들과 연결되는 골짜기가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 **국사봉(國師峰)** : 윗공장골 서북쪽, 마전리와 경계가 되는 곳에 있는 높고 뾰족한 봉우리. 높이가 338m. 정상에는 약 100여 평 넓이의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전해지며, 한국전쟁 전에는 봉우리 정상에 파손된 불두, 와편, 석재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며,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시대의 와편과 도기, 옆전 등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 **금바위등** : 불당골 북쪽에 있는 바위가 많은 산 등. 높이가 265m. 정상부에 호랑이가 새끼를 치던 '범의굴'이 있다고 한다.
- **달고개[月峴]** : 대광리의 음송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 **달봉** : 윗논골과 잣말 사이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달맞이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산'의 뜻으로 쓰여지던 고어 '달'이 '봉(峰)'과 합하여 한자식의 '달[月]'로 풀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골[堂谷]** : 텃골 아래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전까지도 완형의 석불좌상이 절터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 **도장골[倒葬谷]** : 막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묘 위에 자식의 묘를 역장하여 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뒷골** : 금바위등 아래에 있는 골짜기. 잣말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만장골** : 푸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뽕래기** : 새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 **배나무골** : 막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큰 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분토골** : 배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산'을 의미하는 고어 '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지명이다. '뽕'의 모음이 변한 '뽕'에서 ㄱ 또는 ㄴ이 떨어져 나가 산을 뜻하는 수많은 파생 지명을 낳는데, 이곳 분토골 역시 '뽕'에 어근을 두고 산을 뜻했던 고어 '뽕'이 '뽕'으로 바뀌면서 '터'와 '골'이 합하여져 '산 안쪽에 자리한 터(마을)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뽕터골'이 되었으나, 다시 음이 변하여 지금은 '분토골'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불당골[佛堂谷]** : 잣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지만, 절 이름 및 연혁은 자세하지 않다.
- **새고개[間峴], 윗고개** : 윗논골에서 윗공장골로 넘어가는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 **시구터[三丘堡]** : 김우서 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얼음냉수[氷水山]** : 곰기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이가 시리고 발이 얼 정도로 찬 샘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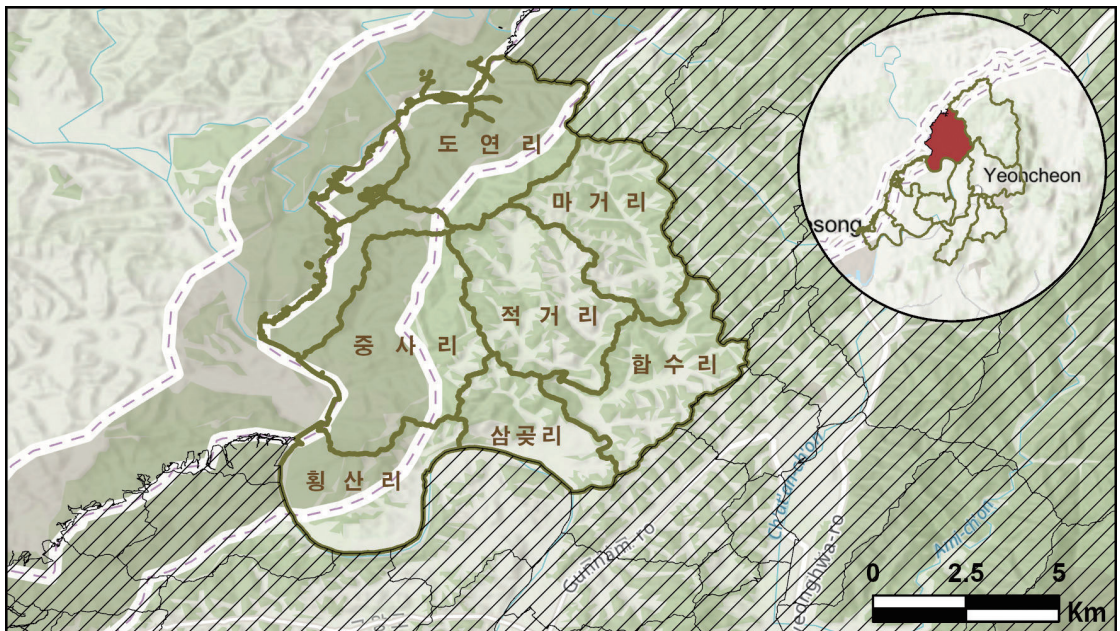


- **원신모루** : 김우서 묘 아래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 어떤 고을 원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곳에서 쉬고 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
- **음골** : 금바위등 북쪽에 달려 있는 골짜기. 햇빛이 안드는 음지가 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 **의신골** : 푸려골 동쪽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 **젓나무골** : 윗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젓나무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중절이고개[中寺峴]** : 푸려골에서 중절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지석묘자리** : 아랫논골 동쪽, 하천 옆에 있던 북방식 지석묘가 있던 터. 일제강점기에 큰 장마가 이곳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깝게 유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덧골[垆谷]** : 배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옛날 집터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푸려골** : 의신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9. 중면(中面)

연천 읍내에서 북쪽에 위치하여 조선시대에는 북면이라 하였고, 수회리(水回里)·삼곶리(三串里)·횡산리(橫山里)·중산리(中山里)·사동리(沙洞里)·적거리(赤巨里)·마거리(馬巨里) 등 7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하수회리(下水回里)·상삼곶리(上三串里)·하삼곶리(下三串里)·중산리·횡산리·사동리·적거리·마거리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하여 북면을 중면으로 개칭하여 삼곶·횡산·중사(中沙)·적거·마거·합수(合水) 등 6개 리로 다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해당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6개 리 전 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여 입주하지 못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삭녕면 지역이었던 도연(陶淵)·적음(笛音)·진곡(辰谷)·어적산(漁積山)·적동산(積洞山)·삭녕(朔寧)·대사(大寺)·여척(餘尺)·고마(古馬)·상마산(上馬山) 등 10개 리가 중면으로 편입되어 16개의 법정리를 두었다. 1980년 1월 1일에 삼곶리, 1985년 9월 20일에 횡산리가 차례로 행정리로 승인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고, 1992년 7월에 연천읍에 있던 면사무소가 삼곶리에 이전, 준공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재는 삼곶·횡산·중사·



적거·어적산·마거·합수·적음·진곡·적동산·도연 등 11개의 법정리를 두고 있다.

19km의 휴전선을 안고 있는 중면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삼곶리와 횡산리는 민간인이 입주하였으나, 합수리·적거리·마거리 등 3개 리는 출입 영농만 가능한 상태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비무장지대이거나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면의 동쪽은 신서면과 연천읍, 남쪽은 군남면과 왕징면, 서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한 왕징면, 북쪽은 휴전선에 닿아 있다.

삼곶리에 면소재지인 행정복지센터가 위치(군중로 400)한 중면의 2023년 1월 1일에 집계된 일반현황은, 2개의 행정리, 3개 반, 178명의 인구로 집계되었다.

## 1) 삼곶리(三串里)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임진강 쪽으로 세 개의 큰 산부리가 곶의 형태처럼 뻗어 나와 있으므로, '삼고지' 또는 '삼꾸지'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의하여 상삼곶리와 하삼곶리로 분리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곶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출입영농만이 가능했던 민통선 지역으로 있다가, 1980년 1월 1일, 일부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민통선이 북상하여 민북지역에서 대부분이 해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고미포(古美浦)** : 논골 서쪽, 임진강 괴미소 옆에 있던 포구 마을.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중면 일대와 철원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강화·서해안 등지에서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새우젓·소금배들과 물물교환을 하던 장이 섰던 곳이다. 중면사무소가 처음에는 이곳에 있었으나, 1925년 을축(乙丑)대홍수 때 강물이 크게 범람하면서 이 일대가 모두 유실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한다. 괴미소의 옆에 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김촌말[金村]** : 도장피 서쪽, 김씨들이 살았던 마을.

◆ **동촌말[東村]** : 점말 동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삼곶리에서 가장 동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양촌말[楊村]** : 장군이나루 북쪽에 있던 마을. 청주양씨(淸州楊氏)들이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점말[店村]** : 최촌말 옆에 있던 마을.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옹기·질그릇 등을 구웠던 가마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완전 멸실되었다. 마을 뒤의 산 등은 삼곶리 세 개의 곶 가운데 하나이다.

◆ **최촌말[崔村], 간촌말[間村]** : 도장피 서쪽에 있던 마을. 600여 년 전에 경주최씨(慶州崔氏)가 정착하여 개척한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간촌말’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웠다.

- **개맹고개[開盲峴]** : 적거리골에서 적거리 대장터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개맹골[開盲谷]** : 풍지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근처에 살던 맹인이 이 약수를 마시고 그 물로 세수를 하였더니 눈이 밝아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 온다.
- **거북둔치** : 고미포 뒤에 있는 거북이 형상의 언덕. 삼꽃리 세 개의 골 지형 가운데 가장 남쪽에 해당한다.
- **괴미소[熊淵]** : 고미포 아래, 임진강에 있는 깊고 큰 소. ‘신성하고 높음’, ‘거룩하고 으뜸이 됨’ 또는 ‘큰’의 뜻을 지닌 고어인 ‘곰’이 ‘곰’으로 음이 변하면서 한자 지명인 ‘곰[熊]’으로 옮겨진 예이다. 곰 토템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자세하지 않다.



〈임진강 괴미소 근경〉

- **풍지등** : 증면사무소 서쪽에 있는 산 등. 지형이 새의 품무니에 붙은 기다란 깃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낭얏** : 최촌말 앞에 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천연 절벽.
- **노장산(路長山)** : 무드리고개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긴 산.
- **노재다리(路長橋)** : 노장산 남쪽, 삼꽃리 입구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노장’이 ‘노재’로 어휘가 변한 이름이다.
- **논골[畚谷]** : 고미포 동쪽에 넓은 골짜기. 삼꽃리 내에서는 가장 좋은 논이 있던 곳이다.
- **높은아리** : 밤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이 높고 가파르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도장피** : 점말 뒤에 있는 둥근 산.
- **독장골** : 높은아리 북쪽에 있는 웅기처럼 입구가 좁고 안이 넓은 모양의 골짜기.
- **돌세울** : 참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모퉁이처럼 ‘돌아가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 로, 밤고개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 골짜기 앞에서 굽어 돌아간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 **말등바위** : 노재다리 남쪽에 있는, 말등처럼 생긴 바위.
  - **무드리고개[水回峴]** : 삼꽃리에서 합수리의 염춘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밤고개** : 삼꽃리와 중사리 경계에 있는 고개.
  - **백고개[城峴, 百人峴]** : 군남면 옥계리 잣골과 경계에 있는 고개.
  - **뱀밭** : 개맹골과 돌세울 사이, 길옆에 있는 밭. 모양이 뱀과 같이 길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뱀바위** : 옥녀봉 아래에 있는 바위. 예전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사강아지골** : 장군이나루 서북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 **소리개고개** : 중면에서 군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삼꽃리·합수리, 군남면 옥계리와 경계가 된다.
  - **송장그미** : 삼꽃리 적석총 남쪽, 임진강에 있는 소. 바닥에 사람 크기만 한 금덩이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간다는 깊은 소이다.
  - **쇠촌앞** : 낭앞 동쪽에 있는 큰 밭. 예전에 소를 천 마리나 키우던 부자가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앞산** : 중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둥근 산. 삼꽃리 세 개의 뾰족한 곳지형 가운데 하나이다.
  - **오리논** : 점말 남쪽에 있는 논. 최춘말에 정착했던 경주최씨가 처음 개간하여 논을 만들었는데, 고여 있는 물에 오리가 많이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옥녀봉(玉女峰)** : 군남면 옥계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05m.
  - **장군이나루[將軍渡, 將軍灘]** : 삼꽃리와 왕징면 강내리의 장군리 사이에 있던 나루터. '임진강 여울' 또한 '장군이여울'이라고도 부른다.



〈임진강 장군이나루터 원경〉



- 장내기 : 사강아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적거리골 : 개맹고개가 있는 골짜기. 적거리와 통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절골 : 증면사무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한국전쟁 전에는 삼곶리에서 가장 위에 있다 하여 ‘윗말’ 또는 ‘후동(後洞)’으로도 불리웠던 곳이다.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절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 참나무골 : 개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참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 황가밭 : 김촌말 위에 있는 밭. 옛날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밭을 경작했다고 한다.

## 2) 횡산리(橫山里)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이 마을 북쪽에 비끼산(비시피)이 있어 ‘비길 횡(橫)’자와 ‘피 산(山)’자를 따서 횡산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증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후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인 까닭에 출입영농만이 이루어지다, 1985년 9월 20일 「군조례」 제1019호에 의해 행정리로 승인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가능해졌다. 현재 연천군 내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이다.

- ◆ 당뒤(堂後) : 별말 동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었던 마을. ‘산 뒤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 ◆ 당말(堂村) : 별말 남쪽, 임진강 옆의 산비탈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몇 집 살던 곳이다. 우리 고어에 산의 뜻으로 쓰였던 ‘달’은 연결 음절과의 관계나 다른 낱말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닷’·‘닥’·‘답’ 등으로 옮겨 갔는데, ‘닥’·‘답’ 등은 ㄴ·ㄹ을 초성으로 하는 음절의 말 뒤에서 ‘당’으로 음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달 + 말[村] = 달말 > 닥말 > 당말). 그러므로 이 마을은 ‘산비탈에 있는 마을’이라는 원래의 뜻이 한자로 옮겨지면서 ‘당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옆에 있었던 주변의 별말과는 상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 ◆ 방피(方洞, 芳山) : 횡산리 중앙에 있었던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 안동권씨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횡산리에서는 최초로 안동권씨가 정착하였고, 그후 남양홍씨(南陽洪氏)와 전의이씨(全義李氏)가 차례로 들어왔다고 한다.
- ◆ 별말(野村) : 당말 남쪽, 임진강 옆의 별판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의이씨들이 살던 곳이다.
- ◆ 빙애(氷崖) : 증군터 북쪽에 있었던 마을. 삼곶리에서 이 마을까지 오는 동안 임진강 옆으로 펼쳐져 있는 길고 높은 절벽인 빙애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빙애’와 ‘안빙애’로 나뉜다.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가 20여 호 살았다.

- ◆ **소래[松村]** : 안골 동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6가구가 살았으며, 이 마을 남쪽에 있던 사금광이 유명했던 곳이다.
- ◆ **아래한여불** : 팔효문 남쪽에 있던 마을.
- ◆ **안골[內洞]** : 별말 동쪽에 있었던 마을. 골짜기 안쪽의 마을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동촌말·양지말·아랫말·안골로 나뉘었고, 별말과 이 마을을 합쳐 25가구의 전의 이씨들이 살았다고 한다.
- ◆ **웃비시뫼[山橫山]** : 수리바위 서쪽, 산 등에 있던 마을.
- ◆ **중군터[中軍堡]** : 팔효문 주위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가 20여 호 살았으며, 약 300년 전에 정착했다 한다.
- ◆ **한여불[閑如洞]** : 아래한여불 위에 있던 마을. 안동권씨들이 살던 곳이다.

- **고동골[古洞谷, 高等洞]** : 방피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4가구가 살았다.
- **군개** : 빙애 남쪽, 임진강에 있는 소. 예전에 큰 바위 2개가 물 가운데 솟아 있었는데 지금은 문혀버렸다고 한다.
- **느릅소[楡沼]** : 물방아터 남쪽, 임진강에 있는 소.
- **돌박재** : 지르미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돌이 많이 박혀 있는 고개(지르미고개)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수정이 나온다고 한다.
- **동막골** : 지르미고개로 나 있는 큰 골짜기. 돌이 많아 '돌막골'로 불리웠던 곳이나, 'ㄱ' 뒤에 'ㄹ'이 따라올 때 앞에서 자동음화로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에 의해 '동막골'이 되었다.
- **망재여울[望諸灘]** : 군개 옆에 있는 임진강 여울.



〈임진강 망재여울 근경〉

- **물방아터** : 당말 서쪽, 임진강에 있는 섬.
- **뱃터거리①** : 별말에서 왕징면 고잔하리의 장경대로 건너다니던 나루터. 현재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이 지나가며 이 부근에는 필승교가 놓여져 있다.
- **뱃터거리②** : 현 횡산리 마을 동쪽에 있던 임진강 나루터. 왕징면 강내리로 건너다니던 곳이다.
- **비끼산-비시뫼[橫山]** : 태풍전망대 동쪽에 있는 산. 횡산리의 유래가 되는 산이라고 한다.
- **수리봉, 수리바위, 태풍전망대, 독수리OP** : 횡산리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이 264m. 정상에 독수리 모양의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리'의 뜻은 '높은'의 뜻으로 씌었던 고어의 '술'이 연철된 것으로, 단순히 '높은 봉우리'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다. 산 정상에 태풍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어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젓등** : 퇴골 서쪽, 비끼산에 딸린 산. 아주 옛날 임진강 물이 범람하여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산 등이 젓더미만큼 남아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절골** : 방피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와편과 생활유물, 축대 등이 남아 있고 경작지로 변해 있다.
- **지르미고개** : 횡산리 동막골에서 중사리의 윗방골로 넘어가는 고개. '질러 넘어서 간다'는 뜻의 '지르네미'에서 '지르미'로 바뀐 이름이다.
- **퇴골** : 중군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3) 중사리(中沙里)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중산리와 사동리를 병합하여 한자씩을 따서 '중사리'라 하고 중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렇지만 분단 이후 현재까지 전지역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에 해당하는 특수지역이다.

- ◆ **가리골[加麗洞]** : 독정동 북쪽에 있었던 마을. 전주이씨가 처음 개척하였으나, 약 200년 전에 한양조씨(漢陽趙氏)가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들이 20여 호 살았다.
- ◆ **검은돌[黑石洞]** : 대추골 서쪽에 있었던 마을. 검은빛의 돌이 많은 곳이라서 붙은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평산신씨(平山申氏)가 다섯 가구 살았다고 한다.
- ◆ **낭말[落村]** : 푸묵골 북쪽에 있는 마을. 벼랑같이 높은 둔덕 위에 집들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8가구가 살았다 한다.
- ◆ **대추골** : 검은돌 동쪽에 있던 마을. 대추나무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원씨·이씨·윤씨가 30여 호 정도 있었다고 한다.

- ◆ **독정동(讀亭洞)** : 가리골 남쪽에 있었던 마을. 이 마을 선비들이 약 200년 된 큰 오리나무 아래에서 글을 읽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양달말’·‘응달말’로 나뉘어 있었고, 25가구가 살았는데 이천서씨(利川徐氏)가 많았다고 한다.
- ◆ **등정골(屯田洞)** : 검은돌 남쪽에 있었던 마을. 예전에 군인이 주둔하며 경작하던 둔전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박씨 5가구가 살았다.
- ◆ **모래울(沙洞)** : 검은돌 북쪽에 있던 마을. 진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모래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유래를 달고 있으나, 이곳은 모래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개울이다. 산의 고어 ‘뫼’의 어원은 ‘높은·위’를 뜻하는 ‘뫼’인데, ‘뫼’은 다른 낱말과 합칠 때 그 낱말과의 사이에 ‘아·애’ 등의 소유격 조사가 개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뫼’과 ‘울’이 합하여 ‘뫼애울’이 되었다가 다시 음이 변하여 ‘모래울’이 되고, 발음 그대로 음차된 ‘사동’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표기된 것이다. 원래는 ‘산골 마을’이라는 뜻이다.
- ◆ **베들거리** : 한세울·밤고개·중산리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방씨가 경영하던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 ◆ **산골(山谷洞), 웃모래울** : 모래울 북쪽에 있었던 마을. 진명산의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수오동(洙澳洞)** : 시옥이나루 동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권씨 12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점말(店村)** : 마당소 옆에 있던 마을. 예전에 옹기를 구워 팔던 독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중산리(中山里)** : 낭말 동남쪽에 있었던 산골짜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마을을 이루었고 전주이씨가 많이 살았던 곳이다.
- ◆ **지로동(芝露洞)** : 수리봉 북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5가구가 있었고 안동권씨가 많이 살던 곳이다.

- **가리골고개** : 모래울에서 가리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고라지밭골** : 천지봉 서쪽에 딸린 골짜기.
- **골통대기** : 문양골 동쪽에 있던 밭. 골짜기 안에 쑥 들어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서른 두 고랑에 700평 넓이였다고 한다.
- **국박골산** : 독쟁이 서쪽에 있는 높은 산. 높이 203m.
- **그늘결** : 고라지밭골 서쪽에 있는 해가 일찍 지는 응달.
- **금점굴(金店窟)** : 시옥이나루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굴.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깊은막지골** : 독쟁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 숯가마가 있던 곳이다.
- **나가모이변댕이** : 지로동 서쪽에 있는 넓은 산비탈. 나씨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남은터①** : 지로동 북쪽에 있던 밤나무밭. 옛날 집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남은터②** : 한드루 북쪽, 적음리와 경계 지점에 있던 밭. '고려장'이라는 원형의 작은 돌무덤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논네미** : 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돌 틈에서 나오는 찬 약수가 있다 한다.
- **높은막지골** : 깊은막지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
- **능골** : 여골 위에 있는 골짜기.
- **대추골고개** : 가리골에서 대추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돼지배나무골** : 말미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되박등고개** : 지로동에서 소둔지로 넘어가는 고개.
- **두령산, 수리봉** : 검은돌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42m. 예전에 천지가 개벽하여 온 세상이 물 바다가 되었을 때 이 산 정상이 논두렁만큼 남았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높은 봉우리라는 뜻의 '수리봉'으로도 부르던 곳이다.
- **둔지고개** : 시육이와 소둔지 사이에 있는 고개.
- **마당소** : 중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마당처럼 넓은 소. 두 길 정도의 깊이라 전해 온다.
- **마야터** : 가리골 입구에 있는 터.
- **말미터** : 논네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문양골** : 중산리 안에 있는 좁은 골짜기. 예전에 어떤 부인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이 골짜기 안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 **물푸레나무떼기** : 지로동 서쪽, 물푸레나무가 많았던 곳.
- **밤고개[栗峴]** : 중사리와 삼꽃리 사이에 있는 큰 고개. 전설에 의하며 예전에 부친상을 당한 나이 어린 상제가 밤을 사 가지고 이 고개를 넘다가 상주가 외출할 때 쓰는 방갓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방갓을 가지러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불행하게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로 어린 상주가 죽은 이 고개를 밤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개는 중사리와 삼꽃리를 연결하는 고개로, 주변의 다른 고개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산을 넘어가는 긴 거리를 가진 '산 사이의 고개'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의 고어 '밭'의 음이 변하여 '밤'으로 굳어진 현상으로 본다면, '밤고개'는 '산을 넘는 고개'라는 원래 뜻이 변형되면서 상주의 슬픈 전설을 낳게 된 고개 이름으로 보인다.  
밭 + 고개 = 받고개 > 밧고개 > 반고개 > 밤고개.
- **배매기** : 돼지배나무골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예전에 천지가 개벽하여 이곳까지 조수가 들어왔는데, 당시 항해하던 배들이 이 산에 있는 바위에 줄을 묶어 정박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검은 자연석인 이 바위에는 그 당시 줄을 매었다는 큰 구멍이 있다고 한다.



- **백고개** : 수오동과 소목골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고개. 아주 옛날 임진강물이 크게 범람했을 때 이곳에 배를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래는 '산고개'라는 뜻의 지명이다. 산의 고어 '밭'이 '백'으로 음이 변하면서 '배[舟]와 연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 **뱀밭** : 두령산 서쪽 개울 옆에 있던 뱀처럼 긴 밭.
- **빙애고개[氷崖峴]** : 중산리에서 횡산리의 빙애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산당(山堂)** : 독정동 뒤에 산제를 모시던 당집. 10평 규모에 초가지붕을 얹은 형태였으며, 당집 주위에는 다섯 그루의 큰 소나무가 산당과 함께 보호를 받았고, 매년 늦은 가을 독정동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샘골[泉谷]** : 밤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서낭고개** : 대추골과 모래울 사이에 있는 큰 고개. 큰 서낭나무들이 고갯마루에 있어 매년 9월 9일이 되면 모래울 주민들이 산제를 올리던 곳이다.
- **소둔지·소둔지[牛臀地]** : 시육이와 지로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소의 궁둥이 모양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윤씨 두 가구가 살았다.
- **소목골[牛項澗]** : 수오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지형이 소의 목과 유사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백고개 북쪽에 있는 조그만 산은 소의 머리, 소둔지는 소의 궁둥이와 닮은 형상이라 하며, 전체적으로는 소가 먹이를 배불리 먹고 되새김질하는 형국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소목골의 뜻은 이 골짜기와 지로동 사이의 목[項]인 연당고개에 그 유래가 담겨 있다. 즉 연당고개의 입지 조건은 두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사이의 목인 '새목[間項]으로 불리우던 것이 '새'가 경기 북부 방언인 '쇠'로 음이 변하면서, 이 고개 주변의 땅이름을 모두 소와 관련된 것처럼 풀이하게 된 것이다.
- **수리봉** : 중사리와 횡산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숯굽골** : 말미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숯을 굽던 곳이라 한다.
- **시동골** : 점말 옆에 있는 골짜기.
- **시육이나루[時郁津]** : 중사리 수오동과 옛 서남면 지역의 시육이장거리 사이에 있던 임진강 나루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서해안에서 올라온 새우젓·소금배가 이곳에 정박하여 곡물·땀감 등과 물물교환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나루터에 큰 오리나무 한그루와 주막이 있었다 한다.
- **양지밭** : 낡은터 서쪽, 양지바른 곳에 있던 좋은 밭. 1,700평 넓이었다고 한다.
- **엄박골** : 모래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여골** : 가리골에서 천지봉 쪽으로 있는 골짜기.
- **연당고개** : 지로동과 소목골 사이에 있는 고개.
- **요골** : 모래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윗방골, 윗밤골** : 지로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산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밭'과 '골[村]'이 합하

여 산골짜기라는 뜻의 ‘밭골’로 부르게 됐던 것이 아래와 같이 음이 변하여 ‘밭골’이 되었다.  
밭골 > 밧골 > 반골 > 밤골(방골).

- **윗소목골** : 소목골 안에 있는 골짜기.
- **작은샘골** : 시동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샘골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장고개[長峴]** : 지로동에서 횡산리의 방퇴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절골** : 가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지형이 병과 같이 생겼다 하여 ‘병목안’으로도 불렀는데, 그 중앙에 절터가 위치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약 2,000평 넓이가 밭으로 경작되었고, 주초석과 와편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 **정골고개** : 모래울에서 적음리의 정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지르미고개, 장구목고개** : 지로동에서 횡산리의 동막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진명산(振鳴山)** : 가리골 북쪽에 있는 산. 중사리·적거리·도연리·적음리가 이 산을 중심으로 경계를 이룬다.
- **징싱골** : 윗방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천지봉[天祭峰]** : 가리골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16m. 한국전쟁 전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정상에 있었다고 한다.
- **푸목골** : 소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한달골** : 진명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크다는 뜻의 ‘한’과 산의 고어 ‘달’에 ‘골’이 합하여 큰 산, 즉 진명산에 딸린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름이다.
- **한드루** : 등정골 서쪽, 임진강 변에 있는 넓은 들.
- **한드루비냥** : 시옥이나루 북쪽, 한드루로 가는 곳에 있는 임진강 옆의 천연 절벽.
- **한세울** : 베틀거리에서 적거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큰 골짜기. 중사리와 적거리 사이에 있는 ‘큰(한) 사이(세)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곳이다.
- **할미바위** : 돼지배나무골 서쪽에 있는 큰 바위. 전설에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쌓아 놓은 바위라고 전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자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초가 삼 간만 한 크기였다고 한다.
- **함박골** : 문양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함박꽃이 많이 피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화중터** : 소둔지 서남쪽, 야산에 있는 밭. 옛날에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 화장을 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4) 마거리(馬巨里)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합수리로 내려가는 하천에 말과 같은 형상의 큰 바위가 있으므로 마거리라 했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증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분단 이후 민통선 지역에 위치하여 지금도 민간인 미입주지구로 남아 있다.

- ◆ **가운데마거리[中馬巨里]** : 진틀거리 동쪽에 있던 마거리 중앙의 마을. 한국전쟁 전에 여산송씨(礪山宋氏)가 16호 살았다고 한다.
- ◆ **갈골[葛谷]** : 마거리 가장 북쪽에 있었던 마을.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갈씨가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십지창'이라는 내시를 중심으로 4가구가 내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 ◆ **바늘거리** : 아랫마거리와 합수리 경계지점에 있던 작은 마을. 산부리가 뾰족한 바늘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합수리와 신서면 답곡리의 부령골로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 ◆ **엄고개[嚴峴洞]** : 갈골 아래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연안김씨(延安金氏)·순흥안씨(順興安氏)가 14가구 살았던 곳으로, 웃마거리의 중심 마을이었다.
- ◆ **중골(重谷洞)** : 봉화산 북쪽에 있던, 마거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와 광산김씨(光山金氏)가 80여 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랫마거리'라고도 불렀던 곳이다.

- **개랄짜** : 물레방앗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까마귀봉** : 중골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적거리와 경계가 된다.
- **노개골 고개** : 진틀거리에서 적거리의 노개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능골** : 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능처럼 큰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피장자가 확실하지 않았던 이 묘는 일제강점기 때 도굴당했다 한다.
- **당산(堂山)** : 중골 동쪽에 있는 산. 중골 마을에서 산제를 올리던 단과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던 곳이다. 일설에는 이 산의 형상이 풍수적으로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이라 한다.
- **당옆들** : 당산 옆에 있는 들.
- **당정골** : 보세울과 중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친 묘를 이곳에 쓰고 당장 금시발복(今時發福)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뒷골'로도 불렀다.
- **덕고개** : 재래울에서 도연리의 덕고개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두리봉, 미사봉** : 엄고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339m. 정상에 올라서면 과거의 증면·신서

면·인목면·삭녕면 지역이 두루 내려다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들개골** : 재래울 입구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말바위[馬岩]** : 신배나무골 북쪽, 마거리개울에 가로놓여 있는 말 모양의 큰 바위. 마거리의 유래가 되는 바위이다.
- **면화골[免禍谷]** : 진틀거리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쟁을 피하여 이 곳에서 숨어 지내 화를 면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물레방앗간** : 아랫마거리 사거리에 있었던 방앗간.
- **백로산[白鷺山]** : 마거리와 도연리, 신서면 경계에 있는 큰 산. 백로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전해 온다. 한국전쟁 전에는 해마다 백로들이 날아와 서식했던 곳이었다.
- **보세울** : 악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봉화산[烽火山]** : 악박골 북쪽에 있는 산.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령골고개** : 마거리에서 신서면 답곡리의 부령골로 넘어가는 고개.
- **붉은바위** : 진틀거리 막바지에 있는 붉은 색의 큰 바위. 높이는 8m 정도이며 ‘권돌’이라고도 불렀다.
- **산제당산** : 들개골 북쪽에 있는 산. 매년 9월 9일이면 엄고개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다고 한다.
- **설향골고개[薪浦峴]** : 보세울에서 적거리의 설향골로 넘어가는 고개.
- **수루네미·쇠네미[車踰峴]** : 엄현동에서 도연리의 덕은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높은 산을 넘어가는 고개 이름에 ‘수레’ 또는 ‘수루’가 들어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는데, 대부분이 수레[車]와 연관시켜 ‘예전에 수레가 넘어 다녀서...’라는 해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수레’의 실제 의미는 ‘마루·꼭대기·산의 정상’을 뜻하는 말인 ‘수리’에 있으며, ‘수리’는 그 어근인 ‘술’이 아래와 같이 변한 것으로, ‘술 > 술 + (이) > 술이 > 수리, 술 > 술 + > 수 > 수루 > 수레’로 차츰 변하며 뒤에 ‘넘는다’라는 뜻의 ‘네미’가 변한 ‘네미’와 합하여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라는 뜻의 ‘수루네미’가 된 것이다.
- **신배나무골** : 바늘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신맛이 나는 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악박골** : 보세울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엄고개[嚴峴]** : 마거리와 신서면 신현리의 막동 사이에 있는 고개.
- **옹장골[甕場谷]** : 갈골 위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 **원임동(員臨洞)** : 가운데마거리와 엄현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어떤 고을 원님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재래울** : 진틀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진틀거리** : 가운데마거리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이곳에

진을 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천제봉(天祭峰) : 섯포골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적거리와 경계가 된다.
- 텃골 : 가운데마거리 아래에 있는 골짜기.
- 환두골 : 가운데마거리 안에 있는 골짜기.

## 5) 적거리(赤巨里)

본래 연천현의 북면 지역으로, 붉은색의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인 홍주석(紅柱石)이 많이 나와 적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놓여 있어 민간인의 입주가 통제된 상태이다.

- ◆ 나촌(羅村) : 태봉말 북서쪽에 있던 마을. 약 500년 전에 금성나씨(錦城羅氏)가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한국전쟁 전에는 5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한다.
- ◆ 바여위[舟岩洞] : 옷나무골 서쪽에 있던 마을. 마을 뒤편에 물 위에 떠가는 배 모양의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밀양박씨(密陽朴氏)가 20여 호 살았다. 배바위는 유리도기 가공의 재료가 되는 차돌 성분으로 되어있어 일제강점기 때 채광되었으나 뒤에 완전히 없어져 지금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 '여위'는 바위의 방언이다.
- ◆ 섯포골[薪浦洞] : 윗말 남쪽에 있었던 마을. 예전에 숲이 무성히 우거져 있던 곳으로, 숲의 옛말인 '섯'에서 음을 따와 '골'과 합하여 '섯골'로 불리웠던 것이 차츰 매개모음 '의'를 동반하면서 섯포골이 되었다.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浦'를 음차하면서 예전에 배가 이 곳까지 들어왔다는 유래까지 낳게 되었다. '섯 + (의)골 = 섯의골 > 서프골 > 서푸골 > 서포골 또는 섯포골' 한국전쟁 전까지 원주원씨(原州元氏)가 35호 살던 집성촌이었다.
- ◆ 옷나무골[漆木洞] : 말령골 북쪽에 있던 마을. 마을 중앙에 있던 공동우물 뒤에 세 아름 굵기의 큰 옷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나무는 한국전쟁 때 폭격에 없어졌다 한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밀양손씨(密陽孫氏)가 20여 호 살았었다.
- ◆ 옷매골[上梅洞] : 적거리 입구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현씨(延州玄氏)가 10여 호 살았던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있다 하여 '피골[山谷]'이라 불리던 것이 '피'가 '매'로 음이 변하여 한자 이름의 '梅'자로 굳어버린 땅이름이다.
- ◆ 윗말 : 섯포골 위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원주원씨가 5가구 살았던 곳으로, '윗섯포골'이라고도 한다.



◆ 태봉말[胎峰村] : 태봉 아래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5가구가 살던 곳이다.

- 가는골 : 치장골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가리짜골① : 바여위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가리짜골② : 옷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갯명두산 : 쇠통골고개 남쪽에 있는 산. 높이 210m.
- 건너골 : 나촌 서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 골댕이 : 옷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골짜기'라는 뜻이며, '댕이'라는 점미사가 붙은 땅 이름이다.
- 공동묘지 : 옷나무골 입구에 있던 공동묘지. 일제강점기 장묘정책 때 만들어졌다.
- 까마귀봉 : 큰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 깨골 : 큰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날기터골 :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
- 노개골 :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노개골고개 : 노개골에서 도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 대장터 : 적거리 태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까지 대장간이 있었다 한다.
- 덕고개 : 진명이골짜기에서 도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 돛대바위, 사공바위 : 옷나무골 남쪽, 산등성이에 솟아 있던 큰 바위. 모양이 돛대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적거리 내에 있는 바여위·쇳포골·사공바위가 부합되어 포구 형국을 이루고 있다 한다.
- 두고개 : 탄막 서쪽에 있는 고개.
- 말령골 : 헌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방아구럼 : 옷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2단으로 된 큰 바위가 있었으나, 재질이 홍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채광되고 지금은 밑돌만 남아 있다.
- 배나무골 : 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큰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 복은터 : 절골 입구에 있는 폭포. 높이 3m. 물이 차고 맑아 일제강점기 때는 삼베를 삶은 후 이곳에서 빨았다고 한다.
- 봉사밭 : 쇳포골 서쪽에 있는 약 1,000평 넓이의 밭. 예전에 봉씨와 사씨 성을 가진 두 사람이 경작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삼방귀떼 : 쇳포골 입구에 있는 밭. 밭 가운데 찬 우물이 유명했던 곳이다.
- 서른마지기 : 제당터 남쪽에 있는 논. 논이 규모가 30마지기 정도라고 한다.
- 쇠통골 : 태봉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의 뜻인 '새'가 지방에 따라 '세'·'시'·'소' 등으로 음이 변하는 현상으로 보아 앞음절 '쇠'는 경기 북부 방언의 '새[間]'로 풀이할 수 있으며, 뒤음절

‘똥골’은 ‘덩이·뭉침·산’ 또는 ‘등성이’의 뜻으로 쓰였던 고어 ‘똥(똥)’과 ‘골[谷]’이 합하여 ‘산골짜기’라는 의미의 ‘똥골’로 불리웠던 것이, 자음동화 현상으로 ‘똥골’이 되었다가 앞음절인 ‘쇠’의 영향으로 경음화되어 ‘쇠똥골’로 굳어진 땅이름이다. 여러 마을의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큰 주막으로도 유명했었다.

- **쇠똥골고개** : 쇠똥골과 섯포골 사이에 있는 고개. 이 고갯마루에 수백 년 묵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 ‘서낭당고개’로도 불리웠으나, 이 소나무는 말라 죽었다.
- **아래섯포골** : 옷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섯포골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 **요골** : 나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옷거리** : 나촌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윤동지골** : 이양소 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절골** : 덕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 **정씨논골** : 나촌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옛날에 정씨가 경작했던 논이 있었다 한다.
- **제당터** : 옷나무골 남쪽에 있던 제당. 옷나무골 주민들이 매년 9월 9일 새벽에 마을의 평안을 위해 제사 지내던 곳이다
- **진명산(振鳴山)** : 바위위 서쪽에 있는 산. 중사리·적음리·도연리와 경계가 된다. 『광무읍지』 산천조에는 “진명산은 연천 관아에서 북쪽으로 30리에 있는데 산 정상에는 철마가 있어 이 고을 사람들이 당집을 만들어 제사를 받든다(振鳴山 在縣北三十里 山上有鐵馬縣人建宇祀之)”라고 되어 있고, 『대동지지』에는 “眞明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이 산 바로 북쪽으로 남방한계선이 지나간다.
- **진명이골짜기** : 옷나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진명산에 딸려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천제봉(天祭峰)** : 섯포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한국전쟁 전까지 섯포골 주민들이 매년 10월에 천제를 올렸던 곳이다.
- **치장골** : 배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윗말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탄막(炭幕)** : 일제강점기에 일본 삼정(三井) 회사가 적거리 일대의 산을 벌채하여 숯을 구웠던 곳. 이양소 묘의 앞쪽이다.
- **태봉(胎峰)** : 쇠똥골 남쪽에 있는 뾰족한 산. 예전에 궁실에서 태를 묻었던 곳으로 전해 오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 봉우리 정상에 강씨가 묘를 써 그 당시 태실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 **포수죽은구렁** : 갯명두산 북쪽에 딸린 골짜기. 옛날 포수가 사냥을 하다 죽은 곳이라 한다.
- **헌터골** : 말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6) 합수리(合水里)

본래 연천현의 북면 지역으로, 마거리에서 발원하여 합수리의 중앙을 흐르며 임진강에 합류하는 긴 하천이 크게 휘돌아 곡류하므로 '수회리(水回里)'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상수회리와 하수회리로 분리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하수회리와 동면에 속해 있던 상수회리를 다시 병합하여 '합수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월 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지금은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으로 현재 출입 영농만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 ◆ **기와말[瓦村]** : 추목정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기와집이 있었다 한다.
- ◆ **무조래** : 정촌말 동쪽에 있던 마을. 전주이씨(全州李氏) 광평대군파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다.
- ◆ **시랑말[侍郎村]** : 정촌말 남쪽에 있던 마을. 고려 때 시랑 벼슬을 역임했던 사람이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한양조씨(漢陽趙氏)가 집성촌을 이루었고 부군곳으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 ◆ **양지말[陽村]** : 현촌말 동쪽에 있었던 마을. 종일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염촌말[廉村]** : 현촌말 북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주염씨(坡州廉氏)가 2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윗말** : 황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 정촌말의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정촌말[丁村]** : 시랑말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 나주정씨(羅州丁氏)가 20여 호 모여 살던 곳으로, 매년 9월 9일이 되면 산신제를 크게 올렸다고 한다.
- ◆ **현촌말[玄村]** : 노재다리 북쪽에 있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 연주현씨가 30여 호 살았다.

- **군수막고개** : 능골에서 군남면 옥계리의 작은밤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능골[陵谷]** : 양지말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고려시대 고분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모두 도굴당했다고 한다.
- **당골[堂谷]** :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고을 원님이 살던 집이 있었다 한다.
- **돌모퉁이[回隅]** : 뒷골과 정촌말 사이에 뻗어 나온 산부리 끝을 돌아가는 모퉁이.
- **뒷골** : 정촌말의 뒤에 있는 골짜기.
- **무당소** : 삼꽃리로 들어가는 노재다리 북쪽에 있는 소.
- **무드리고개[水回里]** : 염촌말과 삼꽃리 사이에 있는 고개.
- **바늘거리** : 합수리와 마거리 경계에 있는 모퉁이. 지형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 방아다리 : 정촌말 남쪽, 윗무드리의 중심인 사거리에 있었던 디딜방앗간.
- 봉수지(烽燧址), 봉화뚝 : 바늘거리 동쪽, 산 정상에 있는 봉수지. 높이 218m. 이곳은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인 관계로 사용 시기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 소룡댐이 : 무당소 위에 있는 큰 웅덩이. 예전에 이곳에 보(洑)를 막아 삼곶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했었고 최근까지도 사용되었다.



〈소룡댐이 합수리보 근경〉

- 소리개고개 : 중면의 합수리-삼곶리, 군남면의 옥계리 경계에 있는 고개.
- 소학골[巢鶴洞] : 쪽쪽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윗무드리와 아랫무드리의 사이에 있다 하여 '새골(쇠골)'이라고도 불리웠고 이천서씨(利川徐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 솟을봉 : 당골 동쪽, 연천읍 상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순터골 : 작은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
- 아랫벌 : 윗무드리에 있는 넓은 벌판. 정촌말 부근에 있는 벌판의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골 : 시랑말 안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윗종지미 : 순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 종지미의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터골 : 시랑말고개가 있는 골짜기.
- 쟁골고개 : 시랑말에서 작은터골을 거쳐 연천읍 상리의 재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종지미 : 윗종지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종지처럼 생긴 산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쪽쪽골 : 소학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다는 뜻의 옛말인 '쪽'에서 뜻을 따왔다.
- 청룡고개[靑龍峴] : 소학골에서 황새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적거리에 있는 이양소 묘의 좌청



룡 형국에 해당하는 산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추목정(楸木亭) : 기와말 동쪽에 있는 산 등. 가래나무 종류의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한다
- 황새말 : 추목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 여름철이 되면 황새가 많이 날아와 번식했던 철새도래지가 있던 곳이다.
- 회골[灰谷] : 바늘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회를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현재 비무장지대 및 북한에 속한 중면에 포함된 옛 삭녕면(朔寧面) 개관

삭녕면은 본래 조선시대 삭녕현 읍내면(邑內面) 지역으로 동변리(東邊里)·서변리(西邊里)·여척리(餘尺里)·하마산리(下馬山里)·상마산리(上馬山里)·대사동리(大寺洞里) 등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에 의해 행정구역이 축소, 폐합되면서 삭녕군 읍내면·동면(東面)·서면(西面)·남면(南面)은 연천군에, 인목면(寅目面)·내문면(乃文面)·마장면(馬場面)은 강원도 철원군에 분리·편입시키면서 읍내면을 연천군의 가장 북쪽에 있다 하여 북면(北面)으로 개명함과 동시에 동변리와 서변리를 병합하여 삭녕리(朔寧里), 하마산리를 고마리(古馬里)로, 대사동리를 대사리(大寺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삭녕·대사·여척·고마·상마산의 5개 리를 관할하여 오다.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의 도연리(陶淵里)·적음리(笛音里)·진곡리(辰谷里)·어적산리(魚積山里)·적동산리(積洞山里) 5개 리를 편입하여 북면을 삭녕면이라 개칭하고 10개 리를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휴전선을 끼고 비무장지대 및 북한 지역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삭녕군 10개 리를 연천군 중면에 편입하였다. 이때 중면에 포함된 10개 리 중에서 도연·적음·진곡·어적산·적동산 등 5개 리는 중면의 현 법정리에 해당하고, 삭녕·대사·여척·고마·상마산 등 5개 리는 중면의 법정리였다가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 있다.

## 7) 도연리(陶淵里)

본래 삭녕현의 동면의 도사리(刀寺里)지역으로, 1895년(고종32)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도사리를 도연리로 개정하였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 도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지역에 해당되지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 ◆ **낭말** : 갯거리들 동쪽에 있던 마을. 천연 벼랑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 **덕은동(德隱洞), 능골** : 신거터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40여 호가 살았던 곳이다.
- ◆ **덕현동(德峴洞), 덕고개** : 사당터골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8가구 살았던 곳이다.
- ◆ **도차불** : 낭말과 덕은동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 연주현씨(延州玄氏)가 몇 집 살던 곳이다.
- ◆ **별말[坪村]** : 양지말 남쪽, 별판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가구가 살던 곳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장수가 태어났는데, 몸에 비늘과 날개가 있어서 역적이 될 운이라 하여 죽였다 한다.
- ◆ **시다막(柴多幕)** : 윗개목이 동쪽에 있던 마을. 나무가 무성히 우거져 숲, 목재 등이 생산되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현씨, 한양조씨(漢陽趙氏)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 **신거터[新居堡]** : 도차불 옆에 있던 마을. 약 120년 전에 연주현씨가 처음 정착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6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 **안말[內村]** : 도차불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임진왜란 때 청도김씨(淸道金氏)가 피난하여 개척한 마을로,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 ◆ **양지말[陽地洞]** : 별말 북쪽에 있던 마을. 종일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12호 살았던 곳이다.
- ◆ **원터거리** : 안말 입구에 있던 마을.
- ◆ **응달말[陰地村]** : 삼계정 남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5가구 살던 곳이다.
- ◆ **정자말[亭子村]** : 응달말 북쪽에 있던 큰 마을. 삼계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도연리 일대에 약 350년 전에 정착한 전주이씨 시중공파 후손 40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 **갯거리들** : 정자말 북쪽에 있는 들판. 소로 한 달 가는 넓이라 한다.
- **굴레방고개** : 갯거리들에서 윗개목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능골** : 별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덕고개[德峴]** : 덕현동에서 마거리의 재래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돌모루** : 정자말에서 덕은동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산모퉁이.
- **두룩골** : 낭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두룩골** : 용마네골 남쪽, 진명산에 딸린 골짜기.
- **매봉재** : 정자말 동쪽에 있는 산. 예전에 매사냥을 했던 곳이라 한다.
- **덕통산** : 삼계정 북쪽, 들판에 있는 덕통처럼 생긴 산.
- **방아다리산** : 생진이 고개 북쪽에 있는 조그만 산. 예전에 방앗간이 있었다고 한다.
- **백로산(白鷺山)** : 도연리 동쪽, 마거리와 신서면 신현리의 경계에 있는 산.
- **벌메이들** : 덕은동 북쪽, 논이 많았던 들판.
- **보락골** : 덕은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부흥데미 고개** : 시다막에서 신서면 신현리의 부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사당터골** : 덕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대성각(大聖閣)이라는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 **산골거리 고개** : 도연리에서 진곡리의 산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산골거리들** : 벌말 남쪽, 골짜기 안에 있는 들판.
- **삼계정(三溪亭)** : 정자말에 있던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정자. 전주이씨 시중공파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였을 때 이미 박모(朴某)라는 고관대작의 개인소유인 팔송정(八松亭)이 있었는데, 그 후 전주이씨들의 소유가 되면서 등골·덕고개·정자말에서 내려오는 세 개의 개울이 이 정자 앞에서 뒷내강에 합류한다 하여 편액을 삼계정으로 고쳤다 한다. 한국전쟁 전의 삼계정은 삭녕의 우화정과 함께 빼어난 풍광으로 인하여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고, 주위에 우거진 500년 정도 된 느티나무·참나무·가다나무 고목들은 그 운치를 더해 주었다 한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으며 유지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 놓여 있다.
- **생진이고개** : 정자말과 어적산리 사이에 있는 고개.
- **쇠네미·수루네미[車踰峴]** : 덕은동에서 마거리의 엄현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아랫개묵이[下浦防]** : 쟁강골 북쪽에 있는 벌판.
- **양강골[兩江谷]** : 덕은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현씨가 몇 집 살았던 곳이다.
- **용마네골** : 벌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벌말에서 장수가 태어나자 이 골짜기에서는 그 장수가 탈 용마(龍馬)가 나타났는데, 그 집안에서 장수를 죽이자 용마는 슬피 울며 북쪽에 있는 굴레방고개에서 굴레를 벗고, 자작고개에 가서 죽었다고 한다.
- **윗개묵이[上浦防]** : 굴레방고개 너머에 있는 벌판.
- **자작고개** : 윗개묵이에서 신서면 신현리의 석고개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장구네피소** : 쟁강골 앞, 뒷내강(역곡천)에 있는 깊은 소.
- **쟁강골** : 정자말과 아랫개묵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약수물이 있었다 한다.
- **진거리** : 두룩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진명산(振鳴山) : 도연리 남쪽, 적음리, 적거리와 경계에 있는 산.
- 진명산고개 : 진명산 동쪽, 덕현동에서 적거리의 옷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8) 적음리(笛音里)

본래 삭녕현의 동면 격음리(隔音里)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격음리를 적음리(笛音里)로 개칭하였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적음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의 철원군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 ◆ 계호동(桂湖洞, 겨휘) : 고작골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50여 호가 살았던 곳이다
- ◆ 고작골 : 계호동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았던 곳이다.
- ◆ 정골(正洞) : 수리봉 북쪽에 있는 적음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약 80여 호가 거주하였던 곳이며, 동면사무소와 보통학교가 있어 동면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 깎복골 : 동면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심하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곳 사람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깎목 한 덩어리와 논을 맞바꾸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많은 홍주석이 산출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 당모루 : 장군비냥 아래에 있는 산모퉁이.
- 덕바위 : 장군비냥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버섯처럼 생긴 바위.
- 동면이골 : 계호동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두명소 : 왕재봉 서쪽, 임진강에 있는 소. 명주실 세 꾸러미가 들어가는 깊이라 한다.
- 두명터나루 : 두명소 아래에 있던 임진강 나루. 왕징면 오탄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 무당소 : 수리봉 서쪽, 하천에 있던 소.
- 부영이낭 : 왕재봉 북쪽, 임진강 변에 있는 벼랑. 부영이가 서식했던 곳이라 한다.
- 산골(山谷) : 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골거리고개 : 적음리 산골에서 도연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수리봉, 두령산 : 계호동 동쪽, 중사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242m.
- 왕재봉 : 계호동 북쪽에 있는 봉우리.

- 장군비낭 : 부영이낭 아래에 있는 벼랑.
- 진명산 : 산골 동쪽, 적음리·중사리·적거리·도연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 9) 진곡리(辰谷里)

본래 삭녕현의 동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진곡리가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진곡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의 철원군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회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특수한 법정리 지역이다.

- ◆ 고지동(古地洞) : 냇은터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영산신씨(靈山辛氏)가 2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냇은터(舊垆洞) : 진곡리에서 가장 컸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초계정씨(草溪鄭氏)가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동말[東村], 독말 : 진곡리 가장 북쪽에 있던 마을. 이곳의 지형이 곡식 20말이 들어가는 가마니인 모양으로 생겨 늘 20가구만 살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능성구씨(綾城具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후천동(後川洞) : 고지동 북쪽, 3가구가 살던 마을.

- 가림자 : 차돌소 북쪽, 임진강에 있는 모래섬.
- 굴용뿌리 : 냇은터 남쪽, 농바위에서 뿜어 나온 산부리.
- 농바위 : 냇은터 동쪽, 어적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정상에 농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느릅고개[楡峴] : 진곡리에서 적음리의 장군비낭으로 통하는 고개.
- 느릅벌 : 삼밭골 입구, 임진강 옆에 펼쳐진 벌판. 예전에 느릅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도여울 : 장사골 앞에 있는 임진강 여울.
- 물이고개 : 냇은터에서 어적산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뽕(문)바위나루 : 냇은터 서쪽, 임진강에 있는 나루. 왕징면 장학리의 심복골로 연결되었던 곳이다.

- **삼밭골[麻田谷]** : 느릅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삼베를 많이 심었던 곳이라 한다.
- **상나무고개** : 냇은터에서 고지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 이 고개에 큰 향나무가 있어 향나무고개로 부르던 것이 ‘향’이 ‘상’으로 어휘가 변화였다.
- **우제봉(雨祭峰)** : 농바위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22m. 예전에 한발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한다.
- **우화정다리[羽化亭橋]** : 진곡리에서 삭녕의 우화정으로 건너다니던 뒷내강(역곡천)에 있었던 콘크리트 다리.
- **월하두비낭** : 우화정다리 북쪽, 뒷내강에 있는 현무암 수직 절벽.
- **장사굴** : 고지동에서 삭녕으로 우화정으로 가는 326번 지방도에 있는 천연 석굴. 예전에 이 굴에서 장사가 났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때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구멍이 뚫리면서 내부면적 약 30~40평, 길이 150m의 큰 굴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연기가 철원으로 나왔다고 한다.
- **진따백이** : 임진강 옆에 있던 밭. 땅이 항상 습하고 질이 피만 무성하게 자생하던 곳이다.
- **차돌소** : 느릅벌 서쪽, 임진강에 있는 소.

## 10) 어적산리(魚積山里)

본래 삭녕현의 동면 지역으로, 북쪽에 굽어 흐르던 뒷내강(역곡천)에 유난히 민물고기가 많아 ‘언치미’ 또는 ‘어적산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동면에 속하였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어적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북지역인 철원군에 해당하는 곳이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 관한 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특수한 법정리 지역이다.

◆ **박촌말** : 보습고지 동쪽에 있던 박씨가 많이 살던 마을.

◆ **안촌말** : 박촌말 아래에 있던 작은 마을.

- **농바위** : 어적산리 동쪽, 진곡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 **몰이고개** : 농바위 북쪽에 있는 고개. 진곡리의 냇은터와 통한다.
- **생진이고개** : 어적산리와 도연리의 응달말 사이에 있는 고개.
- **우제봉[羽祭峰]** : 농바위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22m.



## 11) 적동산리(積洞山里)

본래 삭녕현의 동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동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적동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철원군 지역에 속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 ◆ **그러리장터[文月市]** : 문동산리 동쪽, 뒷내강 옆에 있던 마을. 예전에 큰 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라 하며, 한국전쟁 전에는 10여 호가 살았다 한다.
- ◆ **논골[畝洞]** : 미역골 서쪽, 봉화산 밑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평산신씨가 5가구가 살던 곳이다.
- ◆ **독쟁이[篤長洞]** : 봉화산 남쪽, 뒷내강인 역곡천 옆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평산신씨가 7가구 살았던 곳이다.
- ◆ **문동산리[文登村]** : 감수봉 동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김씨들이 10여 호가 살았다고 한다.
- ◆ **미역골[沐浴洞]** : 봉화산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3가구가 살던 곳이다.
- ◆ **방아골** : 한치와 중간말 사이에 두 집이 살던 마을.
- ◆ **배드루[舟坪]** : 그러리장터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던 곳이다.
- ◆ **중간말** : 한치와 배드루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평산신씨가 5가구 살았다 한다.
- ◆ **한치[寒峙洞]** : 봉화산 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2호가 살던 곳이었다.

- **감수봉[甘水峰]** : 봉화산 북쪽, 상마산리와 인목면 검사리의 경계가 되는 봉우리. 높이 317m.
- **독쟁이고개** : 논골에서 독쟁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미루둔치** : 도연리 정자말로 건너다니는 뒷내강의 앞소 옆에 있는 작고 둥근 산. 전주이씨의 선대 묘가 있다.
- **보습고지** : 독쟁이 남쪽, 뒷내강(역곡천)으로 뻗어 나온 반도 형태의 지형. 모양이 곡괭이나 쟁기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우는 보습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봉우재[烽火峴]** : 배드루와 미역골 사이에 있는 고개.
- **봉화산[烽火山]** : 적동산리 중앙에 있는 산. 높이 238m.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한다.
- **빼울[抽洞]** : 미역골 남쪽에 있는 마을.

• **팔운이고개[靑雲峴]** : 문동산리에서 상마산리의 팔운이로 넘어 다니던 높은 고개.

## 12) 삭녕리(朔寧里)

본래 삭녕현의 관아가 있는 읍내면(邑內面)의 동변리와 서변리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읍내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동변리와 서변리가 합쳐져서 삭녕리라 하여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현재 북한지역인 철원군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법정리였으나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 ◆ **노장골[魯張洞]** : 갈미봉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봉화금씨(奉化琴氏)가 5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 **동편말, 동변말[東邊里]** : 서편말 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는 삭녕군의 관아가 있었고, 삭녕장이 열리는 5, 10일이 되면 황해도 토산, 강원도 철원·안협·이천·연천·장단 지역에서 모여드는 많은 상인들로 인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큰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면사무소·보통학교·우체국·주재소 등의 공공기관과 이층집도 많았던 읍내 시가지가 소재하고 있던 곳이다.
- ◆ **서편말·서변말[西邊洞]** : 삭녕시가지를 반으로 나누어 서쪽에 있는 마을. 옛 삭녕군 읍내면의 서변리 지역이다.
- ◆ **차도래기[白石洞]** : 삭녕리 가장 북쪽, 고마리와 경계에 있던 마을. 흰 차돌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박씨들이 13가구 살았던 곳이다.

- **갈마다리** : 삭녕시가지 서쪽, 여척리로 가는 326번 지방도에 있었던 콘크리트 다리.
- **갈미봉** : 매봉산 동쪽에 있는 바위 봉우리. 수백 년 수령의 큰 참나무와 우물이 있고, 어떤 장사의 것이라고 전해오는 큰 발자국이 정상에 있는 바위에 남아 있었다 한다.
- **굿당** : 물레방앗간 동쪽, 갈미봉에서 내려온 산 등에 있던 산제당. 큰 반송 한 그루가 정상에 있었는데 동편말 주민들이 치성을 올리던 곳이다.
- **늦다리나루** : 삭녕시가지 남쪽, 왕징면 장학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삭녕 앞의 임진강 일대의 모래 평야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파가 대량 재배, 생산되었던 곳이었다.

- **도깨비연당** : 늦다리 나루 북쪽, 326번 지방도 아래에 있는 고목나무 군락. 참나무·오리나무·옻나무로 우거진 이곳에서 밤이면 자주 도깨비가 나타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말미개울** : 고마리에서 발원하여 삭녕리를 경유하여 임진강에 합류하는 개울.
- **매봉산** : 삭녕시가지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91m. 매봉재로도 불리었으며, 매년 10월이 되면 정상에 있는 산제당에서 동편말 주민들에 의해 산제가 올려지던 곳이다.
- **무당소** : 차도래기 아래 말미개울에 있는 소.
- **물레방앗간** : 동편말 동쪽에 있던 큰 물레방앗간. 아래위로 두 곳이 있었다.
- **삭녕관아티[朔寧官衙址]** : 삭녕시가지 북쪽에 있던 조선시대 삭녕군의 관아 터. 옛 지리지에는 1441년(세종23) 대사리에서 이곳으로 이건(移建)된 뒤에, 530여 년 동안 삭령현의 7개 면을 관할했던 관청으로 객사·동헌(詠恩堂)·아사(衙舍)·향사당(鄉射堂) 등의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 직후에 삭녕군이 연천군과 철원군에 분리·편입되면서 관아 건물은 강제 철거되었는데, 특히 포도청 건물은 일제의 삭녕면 신사 건립에 이용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면사무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공공건물과 민가가 들어서면서 자취도 없이 헐어버렸다 한다.
- **천나다리** : 매봉산 동북쪽, 말미개울에 있는 다리. 다리 아래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있었다 한다.

### 13) 대사리(大寺里)

본래 삭녕현의 읍내면의 대사동리(大寺洞里)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삭녕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읍내면을 북면으로, 대사동리를 대사로 개칭하였다.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하여 대사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철원군에 위치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북한지역이지만 중면에 편입된 법정리이다.

- ◆ **무학동(舞鶴洞), 문배울** : 영원산 동쪽 10가구가 살던 마을.
- ◆ **방학동(放鶴洞)** : 역골 뒤에 있던 작은 마을.
- ◆ **불문이(佛門洞)** : 방학동과 가마데미 사이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0여 호가 살았고, 한지공장이 성업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역골[驛村]** : 향교골 서쪽에 있는 마을. 옛 삭녕군의 역참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이곳에 10여 호가 살았다 한다.

◆ **한절골[大寺洞]** : 성산 북쪽에 있던 마을로 대사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현재까지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곳에 있었다는 큰 규모의 사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고려와 조선 초에 삭녕의 관아가 지금의 동헌에서 동으로 5리쯤에 위치하였는데 세종 23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의 척수로 환산하면 한절골 부근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방씨들이 2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가마데미** : 불문이 북쪽, 상마산리 닥밭골 입구에 있는 산모퉁이.
- **독쟁이 고개** : 성산 북쪽, 한절골에서 적동산리의 독쟁이로 가는 고개.
- **성산(城山)** : 우화정 터 북쪽에 있는 산. 137m. 삼국시대의 산성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영원산(寧原山)** : 대사리 중앙에 있는 산. 높이 214m.
- **우화정다리[羽化亭橋, 朔寧渡]** : 우화정 북쪽, 뒷내강(역곡천)에 있는 다리. 일제강점기 때 건설되어 연천군과 동면의 통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옆에 삭녕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이 모여드는 농산물 집판장이 있던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우화정과 이 다리 부근에 세 가구가 살고 있었고, 예전 삭녕군의 관문이 되었던 이곳 대로변에는 10여 기의 선정비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 **장작거리** : 성산 서쪽, 임진강 옆에 있는 모래 언덕.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서해안에서 올라온 새우젓, 소금배들이 이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삭녕에서 나는 농산물과 장작을 물물교환하였는데, 당시 새우젓 배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일대가 장작터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한치고개[寒峙]** : 무학동에서 적동산리의 한치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향교골[校洞]** : 한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삭녕향교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14) 여척리(餘尺里)

본래 삭녕현의 읍내면 지역으로, ‘여저리’ 또는 ‘여척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 여척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현재 북한의 철원군 지역에 위치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특수 법정리이다.

◆ **달밭모루[月田洞]** : 여척리 가장 서쪽, 임진강 변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

던 곳이다.

◆ **독골[獨洞]** : 여저리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호가 살았던 곳이다.

◆ **무정골[武昌洞]** : 삼밭골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정선이씨(旌善李氏)가 3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마을 입구에 있는 조그만 동산에는 약 300년 된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부근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매년 추수가 끝난 10월에 이 나무에 대동제를 올렸으며 마을 중앙에는 물이 사시사철 용솟음치는 박우물과 한지를 만들던 제지공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 **여저리[餘尺里, 細洞]** : 달밭모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제주고씨(濟州高氏)가 5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갈마다리** : 무정골 남쪽, 삭녕리와 경계에 있는 다리.

• **개목이나루** : 갈마다리 서쪽, 왕징면 석둔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 **돛둔이나루[席屯渡]** : 개목이나루 위에 있는 왕징면 석둔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 **벼락바위** : 무정골 북쪽, 고마리와 경계가 되는 산 모퉁이에 있는 큰 바위. 예전에 이 바위 아래에 큰 지네가 살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먹기를 밥 먹듯 하였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하늘이 벼락을 때려 지네를 벌하였고, 그때 지네가 죽어가며 흘린 피가 이 바위에 스며들어 바위 색이 붉어졌다고 한다.

• **삼박골[三朴谷]** : 벼락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박씨 성을 가진 세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곳은 암벽에서 솟아 나오는 약수물이 유명한 곳으로, 앓은뱅이가 이 약수로 물맛이를 하고 효험을 보았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한다.

• **양푼소** : 갈마다리 옆에 있는 소. 약 100여 평 정도의 넓이에 사시사철 맑은 샘물이 용천수 형태로 힘차게 솟아 나오는 곳이라 한다.

• **용못** : 달밭모루 북쪽, 임진강변에 남북으로 길게 있는 큰 못. 예전에 이곳에서 용이 등천했다 하여 용못이라 이름 지어진 곳으로, 이 부근에 소를 방목해 놓으면 이무기가 잡아먹고 코뚜레만 남겨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용못 중앙의 가장 깊은 곳은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랐다고 한다.

## 15) 고마리(古馬里)

본래 삭녕현의 읍내면(邑內面) 하마산리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에 북면에 편입되면서 하마산리를 고마리로 개칭하였으며,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북한의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증면에 편입되어 있는 특수지역이다.

- ◆ **고사래울[古寺澗]** : 고마리 중앙에 있던 마을. 한자 지명의 절에 대한 이야기나 터가 확인된 바 없어 자세하지 않다. 한국전쟁 전에는 25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 **다락골[樓澗]** : 장개울 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던 곳이다.
- ◆ **아랫말미[下馬澗]** : 고사래울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았으며 약 600여 년 된 큰 느티나무 고목 한 그루가 있던 곳이다.
- ◆ **안터[內垔]** : 고사래울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장개울[長浦澗]** : 고사래울 서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살았던 곳이다.

## 16) 상마산리(上馬山里)

본래 삭녕현의 읍내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하여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철원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증면에 편입되어 있다.

- ◆ **닥밭골[楮田澗]** : 상마산리 가장 남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닳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며, 한국전쟁 전에는 15가구가 살던 곳이다.
- ◆ **당귀동(當歸澗)** : 새누골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배나무골[梨木澗]** : 닳밭골 북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가구가 살던 곳이다.
- ◆ **새누골[新陵澗]** : 윗말미 북쪽 십여 호가 살던 마을.
- ◆ **쑤집터** : 팔운이 남쪽, 연안김씨(延安金氏) 4가구가 살았던 작은 마을.
- ◆ **윗말미[上馬澗]** : 배나무골 서쪽에 있는 마을. 산 모양이 말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윗말미·아랫말미·고마리 등의 지명들이 모두 말과 연결되어 불리는 지명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10여 호가 살던 곳이다.
- ◆ **추돈지[楸屯澗]** : 당귀동 동쪽, 가래나무가 많았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0여 호가 살았다

한다.

◆ **팔운이[靑雲洞]** : 망덕산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약 450년 전에 정착한 연안김씨(延安金氏)들이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며, 한지공장이 성업을 이루었던 곳이다.

- **감수봉(甘水峰)** : 신집터 동쪽, 적동산리·상마산리·검사리와 경계가 되는 산. 높이 317m.
- **뒷고개** : 팔운이 북쪽에 있는 고개. 검사리의 용수동과 통하였다.
- **망덕산(望德山)** : 팔운이 서쪽, 검사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58m. 한국전쟁 전까지 이 산 아래에 있는 큰 소나무에서 매년 가을 팔운이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 **배나무고개** : 팔운이 마을에서 배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팔운이고개[靑雲峴]** : 추돈지에서 팔운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 10. 장남면(長南面)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長縣內面) 지역으로 판부리(板浮里)·자작리(自作里)·고읍리(古邑里)의 3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고남면(古南面)의 원당리(元堂里)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면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장남면'이라 하여 원당리·자작리·판부리·고랑포리·반정리의 5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자작리·판부리의 일부는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장남면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리에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하여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장남면은 원당리·자작리 지역에만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고, 그 외 반정리·고랑포리·판부리 지역은 출입영농이 가능한 지역과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놓여 있다. 면의 동쪽은 백학면, 남쪽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파주시 진동면, 북쪽은 군사분계선과 접해 있다.

장남면의 면 소재지는 한국전쟁 전에는 고랑포리에 있다가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당2리에 위치(장백로 244)해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인구는 724명, 4개의 행정리, 12개 반으로 이



루어져 있다.

## 1) 원당리(元堂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고남면(古南面) 지역으로, 조선 초에 장단현을 다스리던 고을 원님의 관저(官邸)인 원당이 있었다 하여 ‘원당리’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장단군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부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원당리 전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2년 6월 1일부터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 구내기 : 장승거리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나주임씨(羅州林氏)가 10여 호 살았던 곳이다.
- ◆ 구석말 : 돌다리 북쪽, 구석진 곳에 있던 마을.
- ◆ 구야(九野), 구래 : 재쟁이나루 북쪽에 있던 마을.
- ◆ 도구머리 : 뒷들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공주이씨(公州李氏)들이 10여 호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 돌다리(石橋洞) : 원말 옆에 있던 마을. 예전에 돌다리가 있었다 한다.
- ◆ 배골[舟谷洞] : 말뚝봉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산 이름에서는 ‘박’·‘백’·‘배’자가 첫음절로 들어간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명에서 ‘백’과 ‘배’는 머리산을 뜻하는 고어 ‘박’으로 쉽게 변하는 예로 보아, 별판에 자리 잡았던 원당리의 여러 마을과는 달리 이곳은 매봉산과 창암봉 사이의 산골짜기에 있던 마을이므로 ‘박골’로 불려오던 것이 음이 변하여 ‘배골’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 ◆ 새터[新垆] : 말뚝봉 아래에 있던 작은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靑松沈氏)가 7가구 살았던 곳이나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다.
- ◆ 원당이[元堂洞] : 원당리 가장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장단현이 자작리 고읍동에 위치하였을 때 이 골짜기 안에 장단현감의 관저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도 이 곳에는 건물지의 흔적인 긴 장대석·와편·초석 등이 쉽게 눈에 띈다.
- ◆ 원말 : 구석말 아래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돌다리와 이 마을에 함안조씨(咸安趙氏)

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 **중성골** : 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마을이 있던 곳이다.

◆ **효곡동(孝谷洞)** : 말머리산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의령남씨(宜寧南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나 지금은 모두 농경지가 되었다.

- **감산나드리** : 안산 북쪽, 사미천에 있던 나루터. 백학면 전동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 **강신고개** : 효곡동에서 장남면사무소 쪽으로 질러 넘어가는 고개.
- **강정나루[降亭渡]** : 말뚝봉 동쪽, 임진강에 있던 나루.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강선정(降仙亭)으로 건너다니던 곳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 폐쇄되었다.
- **거머두둑** : 장승거리 서쪽에 있는 언덕. 검은색의 현무암이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전너밭들** : 왕대밭들 옆에 있는 들판.
- **구두고개** : 원당1리에서 판부리의 마리개로 넘어가는 고개.
- **굴등골짜기** : 안뜰비낭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판부리 굴등의 뒤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나이롱다리, 범소다리** : 원당리에서 백학면 전동리로 건너가는 사미천 다리.
- **남생이등** : 현 원당2리 마을 동쪽에 있는 산 등. 형상이 남생이 등과 비슷하다고 한다.
- **너른구래** : 남생이등 너머에 있는 들.
- **누에머리** : 흥가바위 아래의 누에 머리처럼 생긴 바위.
- **당너머고개** : 안산 서쪽에 있는 고개. 판부리의 고능동과 통한다.
- **돌고지고개** : 배골에서 불당골로 넘어가는 고개.
- **두지나루[斗只渡, 長湍渡, 頭耆津]** : 원당리와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사이에 있던 임진강 나루. 예 문헌에는 이곳이 장단나루로 지칭되고 있으며 많은 시문이 전한다.
- **뒷들** : 무네미 남쪽에 있는 들.
- **판비낭** : 나이롱다리 북쪽, 사미내 옆에 있는 벼랑.
- **마당바위** : 통사위 아래에 있는 마당같이 넓은 바위.
- **마산** : 두지나루 서쪽에 있는 산.
- **말뚝봉** : 장남면사무소 북쪽, 들판에 있는 등근 봉우리.
- **말머리산, 마머리산** : 주마산 동쪽에 있는 산. 달리는 말의 머리 부분이라고 한다.
- **망근도리밭** : 무네미 옆에 있는 밭. 형태가 머리에 쓰는 망건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매봉산** : 말뚝봉 북쪽에 있는 산. 예전에 이 산 정상에서 매사냥을 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 **무네미[水隄]** : 장남면사무소 동쪽에 있는 우묵한 길. 장마철에 임진강이 범람하면 지형이 낮은 이곳으로 강물이 넘쳐 한들별 중앙에 있는 연못갈·학다리를 거쳐 다시 임진강에 합류하는



큰 물길이가 지나던 곳으로, ‘넘는다’는 뜻의 고어 ‘네미’에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원당리 일대의 경지가 정리되면서 임진강 옆에 수해 방지용 제방을 막아 예전같이 큰물 피해는 없어지고 지금은 무네미로 자동차 길이 나 있다.

- 무당소 : 감산나드리 북쪽, 사미내에 있는 깊은 소.
- 방아골 : 주마산 남쪽에 딸린 골짜기.
- 배골벌 : 나이롱다리 동쪽에 있는 넓은 벌판. ‘뒷벌’로도 불린다.
- 범바위산, 달성능산 : 나이롱다리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112m. 정상에 범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병터골 : 새터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골짜기.
- 벼락바위[雷岩] : 중성골 북쪽에 있는 바위. 예전에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 병풍바위 : 말머리산 정상에 있는 병풍처럼 긴 바위.
- 불당골 : 흥가바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며, 그 터에서 와편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 사위 : 너른구래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큰 바위.
- 삭녕바위[朔寧岩] : 재쟁이나루 옆에 있는 현무암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타원형의 길고 큰 바위. 예전에 삭녕에 있던 이 바위가 임진강의 큰 홍수로 인하여 이곳까지 떠내려왔는데, 이것을 알게 된 삭녕군수가 장단군수에게 삭녕의 재산이었던 바위니 세금을 내라 하자, 장단군수는 이 바위의 보관료를 달라고 했다 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 바위를 ‘고청바위’라고도 부른다. 전국 큰 강의 북쪽에 있는 섬에 널리 퍼져 있는 부래도(浮來島) 전설 가운데 임진강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삭녕바위 전경〉

- **상포도개골** : 방아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상여막이 있던 곳이라 한다.
- **서낭당고개** : 주마산과 말머리산 사이에 있는 고개. 지금도 서낭당이 남아 있으며, 작은고개·큰고개로 나뉜다.
- **섬안** : 돌다리 남쪽에 있는 밭. 임진강과 그 옆에 흐르는 작은 개울들이 섬처럼 이곳을 감싸고 흐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소낭골** : 상포도개골 옆에 있는 골짜기. 승지골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다 하여 '서낭골'로 불리던 곳이 현재 소낭골로 변한 것이다.
- **속샘모루들** : 이랭기들 아래에 있는 들판.
- **승지골[承旨谷]** : 말머리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조선시대 승지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한다.
- **쑤기식** : 승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쑤기 많이 자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안뜰별판** : 무당소 서쪽, 사미천 변에 펼쳐져 있는 별판.
- **안산(案山)** : 판비냥 옆에 있는 조그만 산.
- **어신여울** : 마당바위 동쪽, 임진강에 있는 물살이 아주 센 여울.
- **연못갈** : 구야 북쪽의 우묵한 곳. 예전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 **오박재** : 건너밭들 옆에 있는 들판.
- **왕대밭들** : 구야 서쪽에 있는 들판.
- **원뎡이뒷고개** : 원당리에서 자작리의 신복골로 넘어가는 고개.
- **이랭기들** : 청룡뿌리 앞에 있는 들.
- **자가티모퉁이** : 원뎡이 서쪽, 자작리로 가는 곳에 있는 모퉁이.
- **장승거리** : 원뎡이 남쪽, 한들별에 있는 삼거리.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가 나 있으며 예전에 장승이 서 있던 곳이라 한다.
- **재쟁이나루[紫長渡]** : 구야에서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로 건너다니던 임진강 나루.
- **절터골** : 주마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에 절이 있던 곳으로, 「未」자 명문의 와편이 수습되었으며, 지표에는 고려 후기의 많은 와편들이 있으나 절 이름은 미상이다.
- **주마산(走馬山), 저드락산, 주람산** : 원당리에서 가장 높은 산. 등에 짐을 잔뜩 얹은 말이 동쪽으로 달려가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원당3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마을의 재운이 이 산의 형국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고 믿어, 재물을 싣고 달아나려는 말의 기운을 막기 위하여 이 산 동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를 '말뚝봉'이라 명명하여 지기를 보호했다고 한다.
- **중한들** : 원뎡이 앞에 있는 들판.
- **창암봉** : 매봉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
- **청룡뿌리** : 소낭골과 상포도개골 사이로 뻗어 나온 산부리. 원당3리 마을에 묘를 쓰면 이 곳이 좌청룡에 해당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통사위** : 한사위 아래에 있는 바위. 발로 세게 디디면 ‘퉁퉁’ 소리가 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학다리** : 호로그루성지 북쪽, 자작리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있었던 높은 다리. 지금은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한들별** : 원당리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
- **호로그루(瓠蘆古壘), 자미성(紫岨城), 재미산(財尾山)** : 장승거리 서쪽, 임진강 변 수직암벽 위에 있는 강안성(江岸城). 임진강의 호로탄(瓠蘆灘) 위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 전해 오고 있는 이 성의 다른 이름인 자미성·재미산은 성의 고어 ‘갯’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으로 있는 성벽이 산처럼 남아 있어 ‘갯뫼’로 부르게 된 것이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갯뫼성[城山城]’·재미산[城山]을 지금처럼 표기하게 된 것이다. 모두 북방계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임진강 호로탄과 호로그루 전경〉

- **홍가바위** : 매봉산 동쪽, 사마천이 임진강에 합류하는 곳에 있는 바위. 예전에 홍가라는 사람이 이 바위에서 빠져 죽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2) 자작리(自作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 자작리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고읍리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부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자작리는 현재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 민통선 지역, 비무장지대 내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 **가시능** : 동막골 동쪽에 있던 마을.

◆ **고읍동(古邑洞), 골안, 안말** : 청룡부리 서쪽에 있던 마을. 고려시대와 조선 초에 장단현의 관아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단의 옛 지리지를 참고하면, 광해군 때 이곳에 있던 장단현의 관아 건물이 현재의 파주시(옛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로 옮겨지면서 이곳 지명이 ‘고장단(古長湍)’ 또는 ‘고읍(古邑)’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현재 관아가 있던 곳은 모두 농지로 변해 버렸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와편들이 널려 있고 관련 생활유물들이 수습되기도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창녕성씨(昌寧成氏)들이 12여 호 거주했던 곳이라 한다.



〈고려~조선시대 장단현 관아터 전경〉

◆ **긴밭이** : 살울이 동쪽에 있던 마을. ‘봉곡동(鳳谷洞)’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 **동막골(東幕谷)** : 방대동 북쪽에 있던 마을.

◆ **바깥말** : 고읍동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2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방대동** : 벼락바위 서쪽, 향동리와 경계에 있던 마을.

- ◆ **벼락바위[雷岩洞]** : 소바위 서쪽에 있던 마을. 뒤쪽 산록에 예전에 벼락을 맞았다는 큰 바위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 **살울이** : 꽃밭모루 북쪽에 있던 큰 마을. 새말[間村]이라는 뜻의 '살울'이 '살울'로 음이 옮겨진 예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화의군파 후손들이 40여 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소바위[牛岩洞]** : 꽃밭모루 서쪽에 있던 마을. 소 형상의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경주김씨(慶州金氏), 단양우씨(丹陽禹氏)들이 살았다.
- ◆ **오리골** : 고네미고개 서쪽에 있던 마을. 지형이 오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해평윤씨(海平尹氏), 전의이씨(全義李氏)들이 20여 호 살았다.

- **가재울[嘉齋谷]** : 오리동과 긴밭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약 300년 전 참봉 벼슬을 지낸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의 가재(嘉齋) 최거완(崔學完)이란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하여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 한다.
- **고네미고개[古南峴]** : 골안에서 오리골로 넘어가는 고개.
- **고랑포고개** : 자작리에서 윗고랑포로 넘어가는 고개.
- **구지개고개** : 신복골에서 판부리의 마리개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새로 개통되었다.
- **꽃밭모루** : 오리골 서쪽에 있는 모퉁이. 이곳으로 길게 뻗어 나온 산 모양이 새의 주둥이같이 생겼다 하여 '곶(串)'이라 하였고, 그 곶의 밖에 있는 모퉁이가 되어 '곶밖모루(串外隅)'라 했던 것이 음이 변하여 꽃밭모루가 된 것이다.
- **늪나드리** : 새말 서쪽, 방죽이 있는 논. 예전에 임진강이 크게 범람했을 때 이 논까지 강물이 넘나들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능골** : 염창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돌고개** : 신복골에서 판부리의 잣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되번지기논** : 새말 서쪽, 322번 지방도 아래에 있는 논. 1되의 종자로 1섬의 수확을 거두던 일 등답이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다리논** : 골안 서쪽에 있는 논.
- **봉내천[鳳川]** : 향동리에서 발원하며 자작리를 경유, 판부리로 내려가는 개울.
- **부군나무자리** : 새말 서쪽, 322번 지방도 옆에 부군나무가 있던 자리. 부군나무는 일제강점기 초에 이미 고사하여 등걸만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한다.
- **새말[新村]** : 현재 자작리 마을의 이름.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성주골, 승절골** : 신복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 오는 곳으로 지금도 절터에는 와편과 우물이 있다고 한다.



- **신복골[新福洞]** : 청룡부리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최씨가 7가구 살았던 곳이다.
- **안터** : 신복골 안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안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던 곳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 **염창고개** : 골안에서 고랑포리의 자지포로 넘어 다니던 고개. 장단현에서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인 염창이 있었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 **오봉산(五峰山)** : 고읍동 뒤편에 있는 산. 봉우리 5개가 능선에 일렬로 솟아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웃우물편데기** : 염창고개 입구에 있는 넓은 언덕.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웃우물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자가티모퉁이** : 원당리에서 자작리 새말로 오기 전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 요양자씨가 이 곳에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жат나무고개** : 고읍동에서 판부리의 잣나무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장승백이** : 소바위 북쪽에 있는 고개. 예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진따모탱이** : 청룡부리 끝에 있는 모퉁이. 땅이 몹시 진 곳이라 하여 '진땅모탱이'로 불리다가 어휘가 변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 모퉁이에 큰 소나무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서낭나무로 받들며 신성시하였다고 한다.
- **청룡부리[靑龍峙]** : 골안에서 새말 쪽으로 뻗어 나온 산부리. 고읍동에 있는 성씨 묘의 좌청룡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 물탱크가 있는 곳이다.

### 3) 판부리(板浮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고읍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대부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하여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일부 지역에만 출입영농이 가능한 특수지역으로 민간인이 살지 않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 ◆ **고능동(古陵洞)** : 판부동 동쪽에 있던 마을. 조선개국공신 홍길민과 그 일문인 남양홍씨(南陽洪氏) 묘역 아래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남양홍씨가 몇 집 살았으며 홍씨의 재실이 있었다.

- ◆ **굴앞[窟前洞]** : 굴등 서쪽에 있던 마을. 장사굴의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장사굴은 옛날 어떤 장사가 뚫었다고 전해 오는 곳으로, 천연 석벽으로 된 굴 입구에는 장사가 남겼다는 손과 발자국 등이 남아 있었고, 이 굴에서 불을 때면 고랑포 석벽으로 연기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 덕천군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나부골[羅浮洞]** : 고능동 남쪽에 있던 작은 마을.
- ◆ **널뚜니[板浮洞]** : 판부리 중심에 있던 가장 큰 마을. 예전에 큰 홍수로 인하여 사미천이 범람하면서 상류에서 많은 나무 널판이 떠내려와 이 마을에 떠다녔다 하여 널뚜니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70여 호가 번성했던 마을이다.
- ◆ **당아래[堂下村]** : 창골 북쪽에 있던 마을. 김해김씨가 7가구 살았다고 한다.
- ◆ **마리개[馬里浦]** : 달성능산 아래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열 두 가구가 살았다.
- ◆ **막애울[莫涯洞]** : 삼복골 동쪽, 산 너머에 있던 마을. 조선조 태종의 부마이며 좌익공신이었던 파평군 윤암(尹巖)의 묘가 있는 곳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20여 호가 마을을 이루었다.
- ◆ **배나무골** : 마리개 남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청송심씨(靑松沈氏)가 살았던 곳이다.
- ◆ **사잠[沙岑]** : 판부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가 10여 호 살았다고 한다.
- ◆ **응달말** : 사잠 서쪽에 있던 작은 마을. 전주이씨(全州李氏)가 4집 살았던 곳이다.
- ◆ **창골[倉洞]** : 널뚜니 서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곡성임씨(谷城任氏) 11가구가 살았던 곳이다.

- **고릉(古陵)** : 널뚜니 서쪽 산 등에 있는 묘.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고능뒷산** : 고능동 북쪽에 있는 산.
- **구두고개** : 마리개에서 원당리로 넘어가는 고개.
- **구지개고개** : 구두고개 서쪽에 있는 고개. 자작리의 신복골과 통한다.
- **굴등** : 굴앞 동쪽에 있는 산 등.
- **굴앞별판** : 굴앞 마을 동북쪽, 사미천 변에 있는 넓은 별판.
- **널뚜니별** : 판부동 앞에 펼쳐진 별판.
- **다래우물골** : 풀무골 북쪽, 두루봉에 딸린 골짜기.
- **달성능골짜기** : 고능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달성서씨의 묘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달성능산** : 양할미고개 동쪽에 있는 둥근 산. 높이 112m.
- **두루봉** : 널뚜니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46m. 이 봉우리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말무덤** : 마리게 옆에 있던 고분. 옛날에 말을 묻은 곳이라 전해 오지만 최근에 이 일대가 경지정리 되면서 멸실되었다.
- **배반소** : 굴앞 별판 동쪽, 사마천에 있는 깊은 소.
- **불당골** : 마리게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전해 오지만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터에는 주초석들이 남아 있다.
- **산소골** : 굴앞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삼복골** : 판부리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무당이 살았다고 한다.
- **양할미고개** : 마리게에서 고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여우고개** : 마리게에서 나부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 **жат나무골** : 배나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ж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나물고개** : 삼복골에서 백학면 향동리로 넘어가는 고개.
- **풀무골** : 널뚜니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혈떡릉[許陵]** : 굴앞 서쪽, 산 너머에 있는 판봉상시사 허기(許愷)의 묘. 특이한 전설의 음택풍수의 전설이 전해 오는 곳이다. 허기가 세상을 떠나자 양천허씨(陽川許氏) 문중에서 당대 최고의 지관과 함께 이 부근에서 못자리를 찾던 중, 멀리서 지관이 이 산을 바라보니 천하의 명당인지라 산 정상부터 혈을 찾아 내려오는데, 종일 이 산을 헤맸어도 그 명혈을 찾지 못하자 지관이 줄행랑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허씨 상제들이 계속 따라오며 잡으려 하자, 기진맥진한 지관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혈떡거리며 궁여지책으로 “이 자리가 명당이니 이곳에다 묘를 쓰시오!”라고 자기가 주저앉은 곳을 알려주었다 한다. 그 후 이곳에 묘를 쓴 허기 직계의 양천허씨 문중은 대대로 현달한 지위와 학자가 많이 배출되어 장단파 문중이 발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당시 지관의 당혹했던 일화에 따라 묘의 이름을 ‘혈떡릉’이라 했다고 한다.

#### 4) 고랑포리(高浪浦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지역이며, 임진강에 ‘고랑개’ 또는 ‘고랭이’라는 포구가 있어 고랑포라 불리던 곳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관송리를 고랑포리로 개칭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에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전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에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이 살고 있고, 그 외에는 출입 영

농만이 가능한 민통선 지역이다.

- ◆ **가운데고랑포[中高浪浦]** : 아랫고랑포 위에 있던 큰 마을. 고랑포 3개 마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한국전쟁 전까지 2·7일 장이 섰던 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마을 동쪽의 임진강 장단석벽 위에는 한국전쟁 전까지 장남면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건물이 있었으며 고랑포나루 포구에는 항시 많은 상선들이 정박하며 성황을 이루었던 임진강 물류의 가장 성시를 이루던 명소이다.
- ◆ **갈매울[渴馬澗]** : 둔전골 동쪽에 있던 큰 마을. 공처마루에서 뺏어 나온 산의 형상이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장단도호부 장서면 관송리 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고, 한국전쟁 전에는 안동김씨(安東金氏) 20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넙말** : 배나무골 옆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7가구가 살던 곳이다.
- ◆ **둔전골[屯田澗]** : 넙말 동쪽에 있던 마을. 고려나 조선시대에 군사적 중요지대거나 군사가 오래 머무르는 곳에 주둔하여 평상시에는 토지를 경작해 식량을 자급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어 병사들이 경작하던 토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문화류씨(文化柳氏)들이 15호 살았다.
- ◆ **배나무골** : 안산말 북쪽, 15호가 살았던 마을. 넙말과 함께 연일정씨(延日鄭氏)들이 집성촌을 이루던 곳이다.
- ◆ **서원말[書院澗]** : 아랫고랑포와 갈매울 사이에 있던 마을. 1650년(효종1)에 건립된 임강서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세골·시골[細谷澗]** : 황아터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이씨가 15호 살았던 곳이다.
- ◆ **아랫고랑포[下高浪浦]** : 서원말 동쪽, 고랑포의 3개 마을 중 가장 아래에 있던 마을.
- ◆ **안산말[案山村]** : 지지묵골 서쪽에 있던 마을. 북쪽 넙말에 있는 큰 묘의 안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10가구가 살던 곳이다.
- ◆ **윗고랑포[上高浪浦]** : 고랑포나루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까지 고랑포국민학교가 있던 곳이다.
- ◆ **자지포[紫芝浦]** : 윗 고랑포 동쪽에 있던 마을.
- ◆ **중골** : 세골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5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황아터** : 안산말 서쪽, 8가구가 살았던 마을.

• **가래골** : 도깨비봉 동쪽에 딸린 골짜기.

• **고랑포나루[高浪渡, 臯浪渡]** : 가운데고랑포와 윗고랑포 사이에 있던 임진강 나루터.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옛 문헌에 ‘고랑도’로도 기록되어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전까지 임진강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의 하나이며 고랑포 상권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다. 또한 서해안에서 기수지역의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새우젓·소금배들이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이었던 콩·팥·감·곡물 등을 교역하였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지역 농특산물의 집하장과 조운을 위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금은 내수면 어업의 소형 고깃배만이 옛 나루의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



〈고랑포나루터 근경〉

- **공굴다리** : 아랫고랑포와 가운데고랑포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
- **공처마루** : 둔전골 북쪽, 향동리와 경계가 되는 산.
- **구린길골짜기** : 고랑포리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파주시 진동면 초리로 넘어가는 목이며 고갯마루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 **능말골짜기** : 경순왕릉이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에 왕릉을 수호하던 능참봉이 살았다고 한다.
- **대궐터[大闕堡]** : 넘말과 둔전골 사이에 뻗어 내려온 산부리 끝에 있는 터. 고려 태조 왕건이 재위에 있을 때 잠시 머무르기 위해 지은 행궁이 있던 곳이라 한다.
- **도깨비봉** : 고랑포리 서쪽에 있는 봉우리. 백학면과 파주시 진동면의 경계를 이룬다. 높이 130.2 m.
- **도래골고개** : 도깨비봉 동쪽에 있는 고개. 백학면 향동리(옛 장단군 장도면)와 통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남방한계선이 이곳을 지나간다.
- **돌다리** : 아랫고랑포에서 반정리로 가는 곳에 있던 돌다리.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다.
- **봉잠산(鳳岑山)** : 서원말 북쪽에 있는 산.



- **부군당터, 도당, 할아버지당** : 윗고랑포 임진강 석벽 위에 있던 당집. 예부터 고랑포 주민들의 수호신을 모신 곳이자 고랑포 도당곳의 주 무대에 해당한 곳이다. 한국전쟁 전의 당집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목조와가였으나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서원고개[書院峴]** : 가운데고랑포에서 판부리의 소바위로 넘어 다니던 고개. 임강서원 옆에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쉬는골짜기** : 황아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옥터거리** : 자지포 동쪽, 322번 지방도 옆에 있는 밭. 장단현 관아가 자작리 고읍동에 있을 때 죄인들을 감금했던 옥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이령골** : 가래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한국전쟁 전에는 5가구가 살던 곳이다.
- **장승고개** : 갈매울에서 자작리의 소바위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 한다.
- **지지목골** : 둔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차돌고개** : 둔전골에서 백학면 향동리의 계당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 차돌이 많다고 한다.
- **탑두둑** : 자지포 동쪽에 있는 언덕. 고려시대 보리사(菩提寺)라는 절이 있던 곳이었으나 절이 폐사되고 석탑만이 오랜 세월을 서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범종과 보리사 명문의 반자 등이 출토되었고 지금은 농경지로 변하여 아무런 흔적이 없다.
- **할머니서낭당, 굿당, 암서낭** : 서원말 안의, 향나무·참나무·가닥나무의 노거수로 이루어진 서낭당. 예전에 고랑포 도당곳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 5) 반정리(伴程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서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놓여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장남면에 편입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현재 전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어 출입 영농만이 가능하다.

- ◆ **검은바위[玄岩洞]** : 두루봉 북쪽에 있던 마을. 검은빛이 나는 큰 바위가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이천서씨(利川徐氏)가 5가구 살았던 곳이다.
- ◆ **돌거리[石浦]** : 흘내미 동쪽, 임진강 변에 있던 포구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6가구가 살았으며 주막이 있던 곳이다. 현무암 절벽 위에 있었다는 정자터 주위에는 참나무·전나무 고목이 우거

저 운치를 더하는 사계절 아름다운 강촌이었다고 한다.



〈임진강 돌거리 근경〉

- ◆ **뒷골[後澗]** : 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18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 **반쟁이[伴程澗]** : 돌거리 북쪽, 한 집이 살았던 마을.
  - ◆ **백석동[白石洞], 구진다리, 흰돌이** : 운개미 동쪽에 있던 마을. 흰 차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천서씨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 ◆ **새말[新村]** : 백석동 아래에 있던 마을.
  - ◆ **운개미·운금이[雲琴澗]** : 운성부원군 묘 북쪽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단양우씨(丹陽禹氏)가 많이 살았다.
  - ◆ **찬우물[冷井澗]** : 돌거리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수온이 매우 찬 우물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 **홀내미[湖南澗]** : 검은바위와 운개미 사이에 있던 마을. 한국전쟁 전에는 이천서씨가 10여 호 살던 곳이다.
- 
- **고대고개** : 돌다리 서쪽, 삼거리에 있는 고개.
  - **기와골[瓦谷]** : 두루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기와집으로 된 해평윤씨의 사당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냉자골** : 두루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찬우물이 있다.
  - **능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윤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작은능골·큰능골로 나뉜다.
  - **다래낭골** : 검은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다래 덩굴이 많이 우거져 '다래나무골'로 불리던 것

이 차츰 어휘가 변하여 ‘다래낭골’이 된 것이다.

- **돌다리** : 찬우물 북쪽, 쇠내개울에 있던 다리.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있다.
- **두둑벌** : 돌개 북쪽, 고랑포 지역까지 펼쳐져 있는 벌판.
- **두루봉[烽火峰, 毛女峰]** : 반정리 남쪽,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높이 99.8m. 임진강 옆에 솟아 있는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여 두루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특히 삼국시대에 백제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였던 고구려 군사들이 주둔하며 봉화를 올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에는 약 50m 둘레의 석축이 남아 있고 그 지표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적갈색 기와가 수습되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다. 지금은 미군사격장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
- **매자골** : 운개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방축골고개** : 방축골에서 파주시 진동면 초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금은 322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한국전쟁 전에는 개성으로 통하는 대로였다.
- **방축골** : 매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방축이 있었다고 한다.
- **백상골** : 백석동 아래에 있는 골짜기. 이천서씨가 4집 살았다고 한다.
- **쇠내개울** : 고랑포리에서 발원하여 반정리를 경유, 임진강에 합류하는 개울.
- **시락골** : 운개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안골[內洞]** : 운개미 남쪽, 두 집이 살았던 작은 골짜기.
- **오른가리** : 고대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원고개** : 백석동에서 오른가리로 넘어 다니는 고개.
- **큰골** : 방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漣川郡誌 (4권(하))

| 연천의 삶과 문화

---

발행일	2023년 7월 30일
발행처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집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제 작	네오이크(02-3143-6092)
ISBN	979-11-979960-2-3(05090) 979-11-951975-9-0(세트)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 031-839-2114(대표번호)





비매품

05090



9 791197 996023

ISBN 979-11-979960-2-3

ISBN 979-11-951975-9-0(세트)